

1972년 6월 20일 인쇄  
1972년 6월 25일 발행

〈제 129 호〉

# 공군

1972





**클레이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 옥만호 공군참모총장 예방**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 클레이 대장이 5월 5일 친선 방문차 공군본부로 옥만호 참모총장을 예방, 환담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옥 총장은 클레이 대장에게 기념패를 전달했다.



## 국민교육현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 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와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복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미 314사단장, 이임인사 차 옥만호 참모총장 예방

(상) : 5월 31일, 미 314사단장 멜로이 장군이 이임인사 차 공군본부로 옥만호 참모총장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옥 총장은 이임하는 멜로이 장군에게 기념패를 전달했다.

(하) : 5월 22일 한국공군발전에 이바지 해 온 미공군무관 웨어 중령에 대한 4등 보국훈장 3.1장 수여.



퇴임 심흥선 합참의장 내방

(상) : 퇴임하는 심흥선 합참의장이 6월1일 퇴임인사 차 공군본부로 옥만호 참모총장을 예방했다.

(하) : 전 부대 정훈참모회의가 5월 10일, 공군본부 기획상황실에서 옥만호 참모총장 임석리 전 부대 정훈참모가 참석하는 가운데 개최됐다.





**공군 제 129호 차례**

- ☆ 권 두 언 . . . . . 정훈감 신찬·(2)
- 정신적 주체성과 육체적 단련 . . . . . 임한영·(4)
- 자주국방태세 확립과 군의 정예화(하) . . . . . 전우신문논설위원 이창록·(12)
- 새로운 군 기풍과 정신 풍토의 쇄신 . . . . . 김팔봉·(12)
- 백두산과 정계비 . . . . . 경희대 교수 서중석·(29)

- 수 말 많은 백성 . . . . . 문박 · 서울대대학원장 이승녕·(36)
- 필 아는 진리는 착각이다 . . . . . 이대 시청각교육원장 김은우·(38)

**특집:군인의 기본자세 확립을 위한 정훈 강좌**

- 군인과 신앙 . . . . . 이진명·(41)    군인과 생활 . . . . . 손철영·(53)
- 군인과 준법정신 . . . . . 정덕장·(47)    군인과 인격 . . . . . 이종안·(58)

- 군생활 소고 . . . . . 이동익·(63)
- 공군에 기대한다 . . . . . 서울대 교수 장병립·(68)
- 철학박사 · 동국대 불교대학장 서경보·(70)
- 소년한국주간 조풍연 ·(70)

- 공군에 산다 . . . . . 김상광 ·(88)
- ECM의 효용과 그 전망 . . . . . 양혁제 ·(91)

-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연구☆
- 사무조직과 인간관계 . . . . . 손용기 ·(74)
  - 권한과 책임 . . . . . 지승룡 ·(79)
  - 조직의 효율성 . . . . . 김광영 ·(83)

- 표지 및 차례화 . . . . . 진광선
- 인공위성을 이용한 저리층 연구 . . . . . 최승철·(101)
- 북극의 적화통일 전략을 해부한다 . . . . . 편집실·(116)
- 제2의 6·25를 경계하자 . . . . . 극동문제 연구소 강동만·(121)
- 아시아는 움직인다 . . . . . 김수옥·(127)

- 당신의 응지를 조국하늘에 . . . 대한적십자사 섭외부 간사 윤여훈·(135)
- 빨간 머플러의 영광을 영원히 . . . . . 공군소령 서진태·(139)

- 만화 공군 만상 . . . . . 박진래·(142)
- 피로하기 쉬운 눈 . . . . . 최안과의원 원장 최기용·(144)
- 공군의 지상사고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 . . . . 김영택·(148)
- <사법시험 합격기> 방향이 끝나고 . . . . . 공군소위 김윤호·(164)
- 군복을 벗으며 . . . . . 최홍길·(169)
- 독일인의 알뜰정신 . . . . . 아동문학가 윤석중·(172)
- 수 영 . . . . . 한공렬·(177)
- 공군 초창기의 숨겨진 이야기들 . . . . . 전재수·(183)

**● 군종특집 : 총력안보와 군종업무의 갱신 ●**

- 종교활동 업무의 갱신 . . . . . 신학대 교수 허경삼·(189)
- 도의교육 업무의 갱신 . . . . . 기독교 의료봉사회 총무 이영렬·(193)
- 상담업무의 갱신 . . . . .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간사 최 원 진·(197)
- 원호봉사 활동의 갱신 . . . . . 성모병원 경리처장 김 춘 근·(200)
- 군종활동의 중요성 . . . . . 서울여대 교목 유 병 춘·(202)

- ◀ 단 편 ▶ 고양이 . . . . . 김 병 로 ·(206)

# 공군

〈제 129 호 · 1972년 제 3 호〉

<비매품 : 무단전재금>  
발행처 : 공군본부정훈감실  
발행겸편집인 : 공군대령 신찬  
인쇄처 : 공군교채창  
인쇄인 : 공군대령 홍순옥  
편집실 : TEL. 406-2204, 69-3511



## 독자에게 알립니다.

이 공군 지에는 군 보안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게재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의 적 공산계 열에서는 이와 같은 책자들도 저들의 전략정보자료로 이용코자 혈안이 되고 있으며, 최근 정부 기타 공공기관에서 발행되는 책자들이 온갖 수단으로써 간첩들의 손에 의하여 공산진 영에 유출되는 사례가 발전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 간행물의 독자 제위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부지중에 적에게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 책자의 취급 및 보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본부 정훈감실

## 권 두 연

고대 그리스 사람은 낙천적인 민족으로서 많은 축제일을 갖고 있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올림피아의 경기로서 현재의 올림픽으로 계승 발전되었다. 당시의 올림피아 경기는 오늘날의 올림픽이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 들듯이 그리스의 여러 폴리스에서 누구나 출전하여 승패를 겨루는 민족적 제전이였다. 이 경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우승자의 기록이 전해지는 것은 기원전 776년이라고 한다. 경기종목은 처음에는 달리기와 레슬링 뿐이었던 것이 점차 수가 늘어 전차경기, 보병의 행군경기 등도 추가되었다. 그리고 경기는 지금과 같이 4년에 한 번씩 개최되었는데 만약 그때 폴리스 간에 전쟁이 계속되는 중이면 전쟁은 일단 중지하고 경기에 임했다.

경기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우승자 개인에게만 영광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폴리스 전체의 크나큰 영광이 되었다. 반면 상품은 오직 올리브 잎으로 만든 월계관 하나뿐이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했다고 한다.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아마추어 정신이라 하겠다.

또 그리스의 아테네는 민주주의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 정신적 주체성과 육체적 단면

교육학 박사  
성대교육연구원장 임한영

### 머리말

영국의 철학자 John Locke는 그의 유명한 저서인 교육사상 (Some Thought Concerning Education) 에서 건진한 정신은 건전한 신체에서 (The Sound Mind in the Sound Body)라는 진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은 육체와 정신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정신을 갖고자 하면 먼저 몸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기 때문에 영국 사람 들은 정신이라는 것과 육체와를 따로 생각하지 않는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군대에 있어 올바른정신을 갖게 하기위하여 신체적 단련이야 말로 엄격한 것이며, 또한 가정에 있어 어릴 때부터 좋은 교양을 넣어 주기 위하여 체벌을 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흔히 가정에서 쓰는 격언이 있는데, 즉 매위에는 장사가 없다라는 것이다. 이는 오늘과 같이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체벌이라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 부모는 아들의 잘못을 징계하는 방법으로 눈물을 먹으며, 종아리를 피가 나도록 때리는 것이 전통이 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체적의 별이란 연소자를 위한 교육의 훈계하는 법의 하나이다. 이는 육체의 고통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피교육자의 정신을 바로 갖게 하는 보수적 방법이다. 또 하나의 전통이 있는데 이는 성인이 되게 하는 육체적 단련방법이다. 예를 들면 지금으로 부터 50여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년들이 머리를 기르고 장가를 들기 전에는 땀을 닦고 다녔던 것이다. 이들이 결혼식을 올려 어른이 되기까지에는 그들은 여러 가지 괴로운 육체적 고통을 겪어야만 되는 것이었다. 그 중에 심한 것이 상투를 땀아 올리는 것이었다. 상투를 땀아 올리는 일은 물론 어른들이 옆에서 도와주는

그들은 민주주의와 이 아마츄어 정신이 서로 상통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댓가를 바라지 않고 오직 영광만을 추구하는 정신이 바로 민주주의의 근본정신과 부합된다는 것이다.

근래 각 부대에서 크게는 대외적인 출전에서 작게는 내무반 대항 운동경기가 벌어지고 있다. 대소 경기를 막론하고 군대경기의 목적이 전기를 연마하는 훈련의 하나라고 본다면 진정한 스포츠정신은 우리가 가져야 할 정신전력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민주 조국을 보위할 소임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물론 지금 우리에게 현존 전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전력 증강은 어느 한 사람의 힘만으로 완수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 목표를 위해 우리의 일상생활 전부를 여기에 연결하며 힘을 합쳐야 한다. 또한 이것은 정신전력의 밑바탕이 되는 아마츄어 정신을 생활화하는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것이지만 본인에게는 아파도 참고, 괴로워도 참고, 싫어도 참고, 무슨 일이 있어서도 한 마디의 불평도 없이 그저 묵묵히 어른들이 해 주는대로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 상투에는 반드시 망건을 써야 한다. 소 꼬리 척으로 만든 강한 것으로 짠 망건을 머리와 이마에 맞도록 줄여 댈 때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이마에 피가 나는 경우도 있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3, 4시간의 긴 시간을 일언반구 말 한 마디 못하고 참아야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이란 어려운 것이었다. 이렇게 성인이 되면 어린아이가 하는 유치한 버릇을 버려야 하며, 성인들 사회에 끼어 불과 20세 전후한 초립동이가 몸가짐이나 말솜씨를 어른들이 하듯이 겸손하게 점잖게 해야만 한다. 이리하여 그들은 자기의 가문이나 조상에게 물려받은 가풍을 지키며 뚜렷한 주체의식을 가지고 행동하게 된다.

이러한 전통은 동양 사회뿐만 아니라 서양사회에도 있었다. 소위 성인입문식(成人入門式)이라는 것이다. 서양에서는 원시사회에 있어 남자의 경우는 할례(割禮)를 통하여 성인입문식을 행했으며, 아픈 육체적 고통을 경험케하여 자기가 어른이 된다는 것을 자각케 했던 것이다. 중세기에 있어서 종교적 금욕주의의 생활을 통하여 순결된 생활을 시도한 것이 수도원(修道院)의 생활이며, 이성(異性)을 부정하면서까지 속세를 떠나 고행의 길을 닦으며, 정신적 참된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동양에 있어서의 절간 속에서의 승려(僧侶)들의 생활이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인간의 가치의 생활을 더듬어 볼 때 참된 목적적인 정신적 생활이란 육체적, 신체적 단련과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희랍의 스파르타의 애국주의 교육과 중세의 수도원의 단련주의 교육과 오늘의 영국의 퍼블릭스쿨의 엄격한 규율주의 교육의 현실을 설명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주체성의 확립이란 엄격한 규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인식하고자 한다.

### 스팔타의 애국주의 교육

우리가 스파르타라는 말을 듣기만 하여도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관념은

엄격한 군국주의 사상일 것이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스파르타식 교육은 군국주의의 표본이었고, 역사적으로 애국주의 사상을 주입시키는데 크게 성과를 거둔 제도이다. 이러한 스파르타식 교육 방법은 20세기의 오늘에까지 그의 영향이 미쳐왔기 때문에 보수주의를 숭상하는 국가에 있어서 이러한 규율주의 훈련 방법을 아직도 채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스파르타식 군국주의 교육이란 어떠한 것인가를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스파르타에서는 신생아가 탄생이 되면 부모는 이에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그 도시 국가의 검증관(檢證官)에 의하여 그 아이는 검사를 받게된다. 건강하다고 판정된 아이만이 어머니의 손에 되돌아 가고, 병약이나 허약하다고 낙인이 찍히게 된 아이는 산골짜기나 허허 벌판에 내어 버려지게 되면 금수의 밥이 되거나 운이 좋으면 노예에 의하여 생명이 구조된다.

강하다고 합격된 아이는 어머니의 손에 의하여 양육이 되다가 7세가 되면 강제로 국가가 경영하는 공동교육장으로 수용된다. 그들은 교육감독관의 엄한 명령에 따라 무자비한 육체적 단련을 받게 된다. 그들은 18세까지 공동숙사에 같이 침식하면서 학습한다. 침구나 거주(居住)의 형편이야 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거칠며 보잘 것이 없다. 문헌에 나타난 것 에 보면 그들은 대체로 맨발로 뛰고 맨발로 경주하면서 훈련을 받는 것이었다. 만일 감독관의 명령에 불복했을 경우 그들이 체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러한 신체적 단련이란 장차 나라를 위하여 싸울 수 있는 강병(強兵)으로서 필요한 강력한 신체와 인내력과 복종심을 기르는 방법에 불과한 것이었다. 독서 산로 같은 학과는 필요한 것에 국한시켜 가르쳤다.

18세까지 주로 경주와 축구와 레슬링과 투창, 그리고 원반(圓盤)던지기 같은 체육의 훈련을 소년들에게 시켰다. 그리고 18세 이후 청년이 되면, 검술(劍術), 승마, 수영 등의 훈련을 받는 것이며, 원정이나 수렵(狩獵)을 가는 경우 그야말로 20여일 동안 허허 벌판으로 돌아다니며 몇끼씩을 결식하는 일이 있더라도 꼭 사냥을 해야만 귀대할 수 있는 것이었다. 눈이 오는 산중에서 길을 잃어버려 동사하는 사례가 허다했던 것을 우리는 문헌을 통하여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경 속에서도 불평이 없이 훈련을 받는 옛날 스파르타의 청년들이야 말로 튼튼한 몸과 씩씩한 애국심의 소유자이었다.

20세부터 30세까지의 청년은 현역으로서 항상 같은 숙사에서 공동생활이라는 규율 밑에 군사훈련을 받게 되며, 그중에 애국심이 투철하고 전투력이 강하고 체격이 튼튼한 병사를 300명을 선발하여 왕의 친위병(親衛兵)이 되는 것이었다.

30세가 되어 비로소 성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그들은 시민권을 얻게 된다. 그러나 그 후 도 하루의 일과는 체육장에 나타나 공동으로 종교행사나 합창제(合唱祭)나 체육대회와 같은 큰 행사에 꼭 참가하여 꾸준히 도시국가를 위하여 공동생활을 영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자도 공동교육장에서 군사훈련을 제외하고는 거의 남자가 받는 똑같은 신체적 훈련을 받아야만 한다. 재미있는 것은 결혼 후일지라도 일시적인 신랑 신부가 한 거처에서 생활하도록 허용이 되나, 신랑은 남자만이 생활하는 공동생활을 신부는 여자만이 생활하는 공동 생활 속에서 각기 엄격한 규율있는 생활을 해야만 되었다. 당시 동성애가 유행이 되었다고 하며 동성애의 기원은 2천여년 전의 오랜 옛날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질서있게 훈련을 닦은 스파르타의 청년은 국가에 대한 충성과 투철한 조국애의 의식을 굳게 가졌기 때문에 전쟁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승전을 쟁취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육체적 단련을 통하여 정신적 주체세계를 확립한 것은 수도원(修道院)주의 사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중세 수도원주의와 금욕생활

크리스도교의 고전적 성격은 인간자신의 현실적 육정적(肉情的) 생활을 부정하며, 금욕주의(禁慾主義)적 입장에 인간의 영적: 구원을 하나의 지상목표로 삼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수도원주의이었다. 수도원은 동방(東方)에서 그 기원(起源)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3세기경부터 이 집트 및 구라과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수도생활이란 세속적인 것에서 격세(隔世)되어 고독을 즐기며, 금욕생활에 들어가서 때로는 단식(斷食)을 하며, 혹은 육체를 괴롭히면서 깨끗하고 순결한 정신의 세계 속

에서 명상과 기도를 일삼는 생활을 뜻하게 되었다. 제 4세기에 이르러 이러한 수도생활은 그리스도교의 특히 가톨릭교도들의 승려(僧侶)의 은둔의 생활 처가 되어 버렸다. 이리하여 이는 마침내 문화보존과 세속계(世俗界)를 멀리하는 교육의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수도원 생활을 엄격한 교육의 집단생활의 장소로 만든 것이 유명한 성베네딕트(St. Benedict, 480~543)이다. 그는 자기의 집단을 위한 73의 계율을 작성했다. 물론 그 집단생활의 공통된 근본이상은 금욕주의이었다. 승려들의 미덕은 자기들의 육체를 괴롭게 함으로써 정신을 순화시키는데 있다. 즉 선행과 인내가 그들의 가치관이다. 즉 자기 몸을 들보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부적당한 음식과 불충분한 수면을 취하면서도 정신적으로 만족을 느끼며 외형적인 의복이나 신체상의 불결같은 것은 조금도 구애치 않는다. 이러한 현실적 외형생활의 부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성장과 도덕적 향상을 목적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수도원에 입원하는 승려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를 서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수도원을 자기 일생의 거주처(居住處)로 삼을 것. 둘째, 물욕과 육욕을 버리고 청빈과 정조(貞操)를 지킬 것. 셋째, 연장자와 상사의 명령에 복종할 것 등이다. 이를 요약하면 정결과 궁핍과 인내의 생활을 그의 신조로 삼는다는 것이다. 가정을 버리고 물욕이나 정색을 부정하면서 인내의 생활을 하기까지는 말할 수 없는 고행과 단련과 훈련이 필수 조건이었다.

성베네딕트의 계율은 일반적으로 의무와 예배와 훈련과 형벌 등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 중에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기도하며 또한 부지런히 일해라 하고 훈계했으며, 매일 일곱시간 이상의 노동과 두시간 이상의 독서를 장려했다. 이렇게 노동의 중요성을 규정한 것은 교육에 있어서 노작(勞作)의 가치를 최초로 인정된 것이 의미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작생활을 통하여 승려들은 가만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경작법을 농민들에게 시범을 보여주었으며, 공작이나 건축이나 금세공같은 방법을 공작인(工作人)에게 가르쳐 주었다. 필자가 영국 런던교외의 한적한 곳에 있는 수도원을 방문한 일이 있다.

남자 약 50여명이 집단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 속에서 현실의 부정과 부패와 육정의 생활을 외면하고 오로지 순결의 세계를 찾아보고자 온갖 육신의 고향을 참고 지내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물욕을 모른다. 그들의 이상은 육체적인 허용이나 사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만이 경험할 수 있는 순결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금욕주의 생활방법은 구라파에까지 영향을 주어 현재 영국의 국민들의 이상상(理想像)이 되고 있는 신사도의 정신면에까지 미치고 있다.

## 영국의 퍼블릭 스쿨의 규율

영국사람들의 사상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것과 비슷한 점이 많다. 영국 사람은 미국 사람과 달라서 새것보다 변하는 것보다 오랜 것, 보수적인 것, 그리고 변하면서도 변치 않는 것을 더 좋아한다. 한국 사람이 과거의 족보를 따지는 것을 좋아하고 전통을 소중히 여기 듯이 영국 사람도 그렇다. 더우기 영국의 가정교육이 엄한 것은 구라파에 있어 유난히 알려지고 있는사실이다.

한국의 어린이들이 가정에 있어 웃어른에 대한 버릇과 교양을 중요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국의 아동도 가정에 있어 가장 엄하게 훈련되는 것이 그들의 언행심사(言行心思)이다. 결코 영국의 소년은 길거리에 나와 노는 버릇을 용서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방해되는 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지 못하도록 어릴 때부터 심하게 훈련시키는 것이 영국의 가정교육이다. 그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 사회에 대한 봉사, 소속집단에 대한 명예를 자기의 개인적 행복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생활 양식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정신이 그들의 이상적 인간상(人間像)이 되고 있는 신사도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 학교에서 엄한규율 밑에서 훈련이되어 사회의 실생활 속에서 실현이 되는 것이다. 적은예일지 모르나 영국시민은 결코 버스를 탈 때 새치기를하는 사례가 없다. 또한 밤 열시가 되면 어떠한 식당이나 호텔을 막론하고 주류를 팔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필자가 영국을 처음 갔을 때 밤 9시 50분에 멋도 모르고 한국식으로 맥주홀에 가서

맥주를 달라고 했을 때 적지 않은 창피를 당한 일이 있다. 그들은 일정한 범규와 질서 밑에서 사정이나 폭력이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한 정신은 영국학교의 특색이 되고 있는 퍼블릭 스쿨에서 훈련이 되고 있다. 전 수상이었던 처칠이 졸업한 이든 퍼블릭스쿨의 학생들의 생활의 일면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이 학교는 고등학교, 혹은 미국의 초급대학 정도의 학교이다. 연한은 예과가 2년, 본과가 4년이다. 이 학교는 전원기숙사 생활을 강제로 삼고 있다. 그들의 생활 속에는 개인의 독자적 자유란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공동의 집단생활이 준군대식(準軍隊式)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면 일주일 동안은 학교 캠퍼스 밖의 외출이 금지되고 있으며, 제이무리 자기 집이 학교 근처에 있더라도 한달 동안에는 부모나 가족을 절대 면회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학교의 24시간의 생활이야말로 철두 철미 군대식 규율과 질서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와 학생과의 긴밀한 접촉에서 이루어지는 인격도야가 있는가 하면 또한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희생이라는 것도 그들은 각오하고 있다. 그들은 한 기숙사에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쉬면서 자유없는 공동생활을 실천하는 것이 영국 퍼블릭학생의 오늘의 진지한 모습이다.

필자가 경험한 것에 따르면 그들은 아침 6시에 기상한다. 겨울 영하 10도가 넘는 차가운 새벽에도 5분 동안 전원 냉수마찰을 해야 한다. 조반먹을때 반드시 신에게 기도한다. 조회 때는 성경을 읽고 교장이 10분간 설교를 한다.

오전에 세 시간, 오후에 세 시간 학교 공부를 마치면 과외활동을 두 시간 갖는다. 그리고 저녁먹는 시간까지 약 한 시간 자유시간이 허용된다. 7시에 저녁을 먹고, 8시부터 9시 50분까지 자기 방에서 복습, 연습을 한다. 9시 50분에 점호(点呼)가 있다. 열시가 되면 취침, 열시 반에 소등 이것이 24시간 동안의 책임과 규율의 확고한 신사도의 준비 생활 교육이다.

이러한 자유가 없는 규율의 테두리 속에서 영국황실에 대한 충성심과 모교의 명예심, 개인의 자부심이 형성되는 것이다. 영국 사람처럼 자만심이 강하고 실력이 있고,

말없이 실천하고, 인내심이 강한 민족은 보기 드물다고 하는 것이 세론이다. 그들은 육체적 고통과 단체적 훈련 속에서 자기 개인보다는 민족을, 자기 자유보다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자기의 이익보다는 공동의 권익을 먼저 생각하도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주체성은 확고한 것이며 그들의 가치관은 뚜렷한 것이다.

### 결론— 육체와 정신과의 조화

이때까지 우리는 육체적 훈련을 통하여 정신적 주체 의식이 확고해 질 수 있다는 경험주의 사상을 논해 왔다. 그러나 이는 정신적인 것이 높고 육체적인 것이 낮다는 뜻도 아니요, 물질적인 것이 못하고 정신적인 것이 낫다는 의미도 아니다.

과거 관념주의 사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를 오관을 통하여만 겨 볼 수 있는 물질의 세계보다 가치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또한 공산주의나 마르크스주의는 물질이나 경제를 종교나 자유보다 절대적인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종교는 인간보다 초자연적인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

이러한 사상들은 오늘의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다. 민주사회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소중히 생각한다. 그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나 눈으로 볼 수 없는 정신적인 것이나 우리는 똑같이 소중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대립시킬 수도 없는 것이요 또한 상반되는 것도 아니다. 정신과 물질, 육신과 마음, 이론과 실제, 이상과 현실로 같은 것은 각기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협조하여 조화를 이룰 때 여기서 하나의 참된 창조와 건설의 세계가 이룩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의 이념을 우리의 용기와 인내와 실천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때 우리는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 × ×

## — 자주국방대제 확립과 군의정예화

〈하〉 —

이 창 록  
〈전우신문 논설위원〉



### (4) 북괴군의 전략 전환 계속

미국과 중공의 화해무드가 세계정세에 역류작용(逆流作用)을 불러일으킨 결과에 관해서는 지면관계로 상술할 수가 없으나 북괴의 반응에 초점을 겨누어 본다면 우선 그 전쟁개념의 변질을 들 수가 있다.

즉, 북괴는 미국과 중공의 접근으로 인해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 전쟁 도발의 기본 전략을 바꾸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북괴 자체로 본다면, 중공의 후회전은 그들에게 장기전략의 차질을 가져오게 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괴의 배후는 소련과 중공인바, 특히 6·25이래의 중

공과의 유대는 공히 이른바 반제투쟁(反帝鬭爭)이라는 이념하에서 유지되어 온 터이고, 중공이 미국을 적대시(敵對現)하며 팽팽한 대립을 계속하는 한에서는 대남전략의 배후지원도 장기성을 띠게 될 것인데도 오늘날과 같이 중공의 대미 관계가 누그러지게 되자 북괴 자체로서는 전쟁도발의 시한성(時限性)을 통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전쟁도발의 시기선정에 있어서도 중공의 보장이 희박해질 것이고, 일단 전 단을 연후에도 6·25당시와 같이 즉각 참전이라는 보장도 역시 희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중공의 사수에 따라 한반도의 긴장도(緊張度)를 신축시킬 수가 있었으나 이 제는 오히려 전쟁도발을 견제할지도 모른다는 초조감에 빠지게 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정세변화의 결과, 북괴는 이른바 속전속결(速戰速決)의 전쟁개념으로 굳히게 되었다. 그리고 전쟁수행의 제1차 목표를 우리의 수도권 장악에 두게 되었다.

전면전쟁의 방아쇠를 당기자마자 최단시일 내에 수도권을 장악하고, 기어이 남한지역을 점 차적으로 적화시키겠다는 것이 이 속전속결의 기본개념인 것이다. 김일성은 그 전쟁기간을 20일간으로 호언하고 있다. 중동(中東)의 6일 전쟁을 모상하고 있는 전쟁개념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 (5) 자주국방의 기본 여건

그러나, 김일성의 이 광적인 호언을 여유있게 웃어넘길 수 있는 <힘>의 바탕이 과연 우리에게 충분한가를 고찰 할 때, 우리는 자주국방태세 확립의 시급성(時急性)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의 국가안보를 대미의존(對美依存)의 일변도(一邊倒)로 유지해 왔던 과거를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청산하고 우리 자신의 국력으로 국가안보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1972년 12월 6일의 국가 비상사태 선언에서 박정희대통령각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방 미국의 사정을 살펴 볼 때 미국도 우리가 언제까지나 우리의 안보를 종전과 같이 의지하거나 부탁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다. 미국의회에서 의원법안을 둘러싸고 거 듭된 논란은 수원국가들의 자주안보를

촉구하는 신호라 아니 할 수 없으며 주한 미군의 추가 감군문제는 이미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말씀은 대미의존을 하루속히 탈피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안보를 이룩할 수 있는 자주국방의 시급성을 강조하신 것이다.

또한 72년도의 연두 기자회견에서는

<과거 한국안보는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해 왔으나 앞으로는 전쟁이 나더라도 6·25때와 같은 지원은 기대할 수 없으며 제한된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씀하셨으며, 지난 5월 8일, 동남아 공보관회의에 보낸 유시에서는<최근의 월남전이나 지난번 인도-파키스탄전쟁들이 실증하듯이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와 비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국가이익을 바탕으로 하는 주체적 위치를 확고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박 대통령각하의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의 국가 안보의 기틀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구축하지 않으면 시대조류에 뒤떨어질 뿐 아니라 북괴의 재침 앞에 굴복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시대적인 경종이 아닐 수 없다.

북괴의 재침위협을 배제하고 국제사회에 부각되는 국가상(國家像)을 견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국가안보의 기틀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인데 자주국방력은 그 기저(基底)를 이루는 <힘>이며, 우리의 생존과 번영의 밑거름이 된다.

우리 군인은 군인의 위치에서 자주국방에 기여하는 자신의 공헌이 무엇이겠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한다. 내 자신의 존재가 곧 자주국방의 기본여건이 되는 것임을 깨달으면서도 실천면에 있어서는 과연 미흡한 점이 없는가를 따질 수 있는 군인이 되어야 한다.

자주국방력은 종합된 국력의 극적(極的)인 표징(表徵)이다. 우리는 지금 북괴의 전쟁도발에 대비하는 자주국방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북괴의 전쟁개념의 변천에 예리하게 대응하는 여러가지의 여건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은 두 말할 여지도 없으려니와 그중에서도 공군력의 강화는 그 기본여건의 핵적(核的)인 <힘>이 되는 것임을 알게 된다.

## (6) 공군의 무거운 짐

국민들은 자주국방의 기대를 공군에 걸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현대전의 성격과 규모를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속전속결을 호언하고 있는 북괴가 어떤 전법(戰法)으로 나올 것인가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공권(制空權)에 따라 전세의 귀추가 판가름된다는 일반적인 상식은 널리 보급되어 있다.

공군 장병 자신은 만성이 된 하나의 사실이 국민들에게는 비상한 관심거리로 되어 있다. 다름 아닌 공군기의 비행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제트엔진의 폭음도 요란하게 편대비행하는 모습을 올려다 보며 국민들은 우리공군의 존재(存在)를 고맙게 생각하며 마음 든든한 자주국방을 다짐하게 된다. 이 신뢰감과 기대감은 어디서 연유되는 것일까. 24시간의 불침번을 자처하는 공군이 존재함으로써 우리의 영공(領空)이 안전할 수 있다는 안도감, 북괴가 전면제침의 방아쇠를 잡아당기면서 맨 먼저 투입하게 될 공중선제공격에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줄 자주국방의 제1차적인 <힘>의 근원이 공군이라는 기본개념이 국민간에 보급되어 있음을 공군장병은 몰라서는 안 될 것이다.

1967년 6월의 중동전쟁(中東戰爭)이 남긴 교훈은 공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을 한층 깊게해 주고 있다. 이른바 속전속결을 호언하고 있는 북괴가 서전에서 취할 전법이 바로 이스라엘공군의 기습 선제공격을 모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6일전쟁으로 불리우는 이 중동전쟁은 전투시간 1백 30시간 30분의 세계전사에서도 가장 짧은 전쟁으로 기록된다. 이스라엘공군은 개전(開戰)과 동시에 기습 선제공격을 가하여 아랍연합군의 절반에 해당되는 2백 50기를 격파하여 제공권을 완전 장악했다. 이 공중기습의 성공이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승리를 최단시간 내에 가져오게 했다. 이스라엘공군의 공중작전은 문자 그대로 완벽한 전격작전(電擊作戰)이었다. 불과 4일만에 광활한 시나이반도를 석권 하고 스에즈운하를 휘어잡게 된 것은 이 제공권 하에서 기갑부대가 중형무진으로 아랍군을유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중동의 6일 전쟁 — 이스라엘이 숫적으로는 열세하면서도 서전에서 공중 전격작전에 성공함으로써 일방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 전쟁은 현대전에 있어서의 공군력의 비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규범적으로 보여주었다.

북괴가 이른바 20일 기한의 속전속결을 피할 때, 최신행을 자랑하는 미그21을 비롯하여 경폭격기를 총동원, 우리의 상공에 쇄도할 것을 생각하면, 우리공군의 역할은 존각을 다투는 긴급상황에서 실로 국가안보의 안위(安危)를 결정짓게 되는 것임을 절감하게 된다.

## (7) 공군의 정예화

이 무거운 짐을 걸머지고 있는 공군의 역할에 비추어 국민들은 한결같이 공군의 정예화(精銳化)를 원하고 있다. 오늘의 국가실정에 비추어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공군력인 관계로 우리 자신의 손으로는 기종(機種)의 개발개량이라든가 양산(量産)이 임의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국민들은 공군의 현대화와 정예화를 원하고 있다.

북괴 공군에 비하여 우리 공군이 열세에 놓여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미공군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북괴는 미그21형 1백대를 주축으로 하여 각종 공격용을 5백대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적진기지를 휴전선 가까운 지점까지 남하시키고 있다. 그 의도는 분명하다. 기지를 발전하여 불과 5분도 안 되는 지근거리에 우리의 수도권을 접근시켜 서전에서 적격기습을 가해보자는 것이다.

수도 서울을 비롯하여 수도권 일원과 전국각처의 군사 및 교통 산업의 주요 지점에 적기 내습이 있을 것은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내일 새벽이라도 김일성이가 원한다면 쳐들어올 위험선상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 위급한 상황을 알기 때문에 국민들은 한결같이 공군의 정예화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공군의 정예화를 원하고 있는 것일까 - 이 점에 관하여 공군장병은 진지한 해답을 내놓아야 할 줄로 안다. 즉, 비행기의 자체생산이 여의치 않은 실정에 비추어 무엇을 어떻게 개발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 - 필자는 국민들을 대신하여 공군장병에게 간곡히

원하고 싶다. 바꾸어 말하면, 백절불굴 필승의 신념을 스스로 배양함과 아울러, 복귀 공군의 전기(戰技)를 완전 제압할 수 있는 역량을 연마하는 것이 우리 공군에게 맡겨진 정예화의 일환이 아니겠는가. 기종의 개량과 장비의 현대화 문제는 미국과의 정부 간에 맡기기로 하자. 공군의 정예화의 첫장이 기종의 개량과 장비의 현대화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면서도 오늘의 실정은 공군장병에게 자체역량의 양성이라는 과제를 첫 장으로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의 변에 따르면 항공계의 변화는 냉엄하기 짝이 없으며, 각국의 경쟁이야말로 불꽃튀기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의 신기종(新機種)도 내일이면 벌써 구형(舊型)에 속하게 되리만큼 그 개량발전의 템포는 변화무쌍하다고 한다. 하나의 전투기만 해도 항상 상대적으로 비교 검토되면서 개량을 거듭하게 된다. 상승력과 회전력, 그리고 화력장비 등의 모든 전투제원(戰鬪諸元)에 걸쳐 한 치의 이점이라도 더 따고자 하는 것이 항공기의 경쟁이다. 이 가운데서 우리 공군은 자체생산력의 미비로 인해 주로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존하게 됨으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기종을 갖추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 공군은 이 안타까움을 짓씹으며 무(無)에서 (有)를 창조해 내는 각고(刻苦)를 겪고 있다. 그러나, 순간으로 결판나는 공군의 세계에서는 한시인들 안이할 수가 없으며, 전기면(戰技面)과 정신면, 그리고 체력면에 있어서 초음속(超音速)의 선평과도 같은 순간의 승부세계를 능히 이겨 넘길수 있는 자체연마에 정진하지만 안 되는 것이 공군장병의 전부라고 봐서 과언은 아닐 것 같다. 패전일보의 항공자위대를 재건하기에 여생을 바쳤다는 겐다미노루(源田實)공장(空將)은 항공총대사령(航空總隊司令)직에 있으면서 6순(旬)의 노구를 무릅쓰고 매주 서너번씩은 제트기를 탔다고 한다. 발전하는 항공기에 뒤지지 않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이다.

그는 말하고 있다. 파일럿에게는 극단적인 자제력(自制力)이 요구된다. 즉, 초음속의 가혹한 세계를 이겨내기 위해 개인적인 모든 일락(逸樂)을 삼가면서 오직, 정신력과 체력을 단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초음속 전투기는 대개 5만 피트(약 15킬로)의 고공을 비행하게 된다. 공기의 양을 지상의 5분의 1에서 10분의 1까지 내려간다. 산소를 호흡하지 않으면 30초에서 1분간 내에 실신해 버린다. 또한, 음속의 벽을 돌파하는 순간에 생기는 충격파(衝擊波)로 인해 인체의 내장과 피부에 맹렬한 충격을 받게 된다. 죽음의 위험마저 따르게 된다. 물론 이러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특수 비행복을 착용하여 기압(氣壓)과 혈액변화를 견디어낼 수가 있지만, 이러한 과학적인 예방조치를 보완하는 것이 파일럿 자신의 정신력 과 체력인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공군의 정예화를 논하면서 이 개인적인 연마를 등한한다면 뿌리없는 나무를 황무지에 심는 것과 다를바 없다. 파일럿트는 비행기를 구사하는 기량과 정신력 및 체력연마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은 물론이려니와 비행기의 성능을 유지하고 정비사의 노고도 또한 공군정예화에 빼놓을 수 없는 긴요한 분야가 아닐 수 없다. 정비사의 노고는 공군전력을 유지하는 분야에서 핵심적인 공헌이랄 수 있다. 평범한 말 같지만, 아무리 우수한 파일럿이랄지라도 정비불량한 비행기로서는 날개 잃은 독수리에 불과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군사지원으로 유지되는 공군의 장비이고 보면 우리 공군에게는 나사못 한 개라도 소중한 재산이 아닐 수 없다. 군사지원에는 제한선이 그어지게 마련이다.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주어지는 지원장비의 성능을 제대로 유지하며 발휘케 하는데는 정비분야의 숨은 공로가 절대 불가결하다.

필자는 연전에 대구기지의 재생창을 견학한 일이 있었다. 격납고에 즐비한 각종 기종에는 여러 명의 정비사들이 매달려 제각기 담당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이 텅어린 작업광경을 바라보면서 필자는 뼈저리게 느꼈다. 우리 공군의 생명선이 여기에 응결해 있다는 느낌이였다. 가열되는 음속돌파의 순간 저기체 내는 어느 한구석이건 간에 실날만큼이라도 흠이 있다면 기체는 여지없이 산산조각이 날 것만 같았다. 나사못 한 개를 가지고 전력을 기울이는 정비사의 진지한 눈초리에 그러한 책임감이 반짝이고 있다. 자기의 생명을 기체에 부어넣는듯이 보여 필자는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기까지 했다. 그와 동시에 우리 공군이 정예화가 지니는 차원을 깨달았다. 저 진지한 작업모습 속에 공군 정예화의 원천이 고여있는 것이라고 느끼면서

북괴 공군을 능히 제압하는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음을 통감했다.

그러나 우리 공군은 언제까지나 남이 주는 지원에만 의존해야 할 것인가 - 결코 그럴 수는 없다. 우리 자신의 손에 의해서 세계열강의 신예기에 못지 않은 기종이 개발되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공군력을 갖출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는 노력이 병행되어야만 한다. 필자가 과분한 탓으로 이 연구분야에 관해서는 논급할만한 자료가 없지만 평범한 상식이나마 우리 공군이 자체생산의 수요로 충당되는 날이 하루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가 간절하다.

### (8) 승리를 향해

그러한 날을 뒤로 밀고, 지금 당장 우리 공군이 집념해야 할 것은 북괴공군을 완전 제압하는 목적의 정예화가 아닐 수 없다.

따지고 보면, 북괴 공군 역시 소련이라는 배후공급처의 지원으로 현대화에 혈안이 되고 있다. 기종(機種)으로 본다면 미국과 소련의 대결장이 바로 우리 한반도의 상공이랄 수도 있다. 1967년의 중동전쟁은 프랑스의 밀라주기와 소련의 미그기가 대결한 결전이었다. 그 결 과는 밀라주기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밀라주기가 미그보다 월등하게 우수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스라엘이나 아랍이나 똑같이 외국의 원조를 받았으면서도 또한 성능면에서도 비등한 항공기로 대결했으면서도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연유를 생각해 본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량 및 정신력의 차이에서 오는 차이였다. 집념이 방심(放心)을 보기 좋게 때려눕힌 본보기였다. 이스라엘공군은 프랑스에서 구입한 밀라주기를 놓고 필승을 다짐했다. 국가의 운명을 그 기체에 불어 넣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공군은 피땀어린 훈련과 정 비, 그리고 모든 정보수집에 면밀한 계산을 했다.

이에 반해 아랍공군은 그저 숫적으로 우세한 세력에만 만심하여 훈련이 부족했다. 꼭 이겨야겠다는 집념이 결핍했다. 이 집념은 장병개개인에 속하는 정신분야일 뿐, 누구에게서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소련이 수많은 미그기를 제공하면서 꼭 이겨야 한다는 집념까지 곁들여 준 것은 아니다.

1967년 6월 5일 미명, 이스라엘공군은 일단 지중해(地中海)상공으로 집결하여 그대로 아랍을 역습했다. 편대마다 정해진 목표를 향해 일직선으로 급강하했다. 시대의 총아 레이더도 새벽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상태였다. 이스라엘의 파일럿들은 습관적으로 발사장치의 버튼을 눌렀으면 되었다. 로키트탄과 폭탄, 그리고 기총탄환은 한 발의 허비도 없이 모조리 목표물에 명중했다. 그것은 지남철에 빨려드는 쇠붙이처럼 어김없이 목표물에서 폭발했다. 쌓이고 쌓인 맹훈련의 전과였다. 면밀히 계산된 도상(圖上)의 행동과 다름없었다. 다만 손에 익은 기술과 머리에 박혀있는 판단력이 습관처럼 작용했을 뿐이다.

우리는 여기서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 집념과 훈련, 그리고 그위에 올려놓는 필승의 신념, 나머지는 주저없이 해치우는 과감한 행동이 있을 뿐이다.

국민이 바라고 있는 현재 이 시간의 공군정예화의 뜻을 여기에 집약컨대 공군장병 여러분은 자신의 가슴 속에 자문자답해주시기 바란다.

<나는 지금, 과연 북괴 공군을 의식하여 나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 공군현대화의 목표는 멀지만 거기에 도달하기까지의 집념이란 노력은 지금 당장 치루지 않으면 안 된다.

24시간의 불침번 - 육안으로는 우러러볼 수도 없는 5만피트 상공에서 가없는 창공에 젊음을 불태우고 있는 공군장병의 흥금을 그리면서 조국의 오늘과 내일이 24시간의 불침번에 의해 굳건히 지켜지고 있음을 마음깊이 고맙게 생각할 따름이다.



## 새로운 군 기풍과

## 정신평토의 쇄신

작가 김 팔 봉

### ◇ 상급자는 반성해야

몇 달 전에 여배우 모양의 집에 도둑이 들어갔다 물건을 훔쳐내지도 못한 채 총알을 맞고 쓰러져 버렸는데 그때 도둑에게 권총을 발사한 사람이 여배우의 정부 현역군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군인이 영내에 있지 않고 여배우 방에서 잠자고 있었느냐고 사회에서 말이 많았던 일이 있다. 권총을 쏜 군인은 어느 장성의 부관이요, 그의 아버지는 이름있는 기업가요, 재산가라는데 더욱 말썽거리가 되었던 모양이다.

군대 영내에서 복무해야 할 장병이 이름만 걸어놓고는 영내에 출근은 안 하고 제 맘대로 생활하도록 내버려둔다면 그런 군대는 이미 쓸모없는 존재가 아닌가. 누구는 영내에서 먹고 자고 일해야만 하는데 누구는 코빼기도 안 보 이면서 제 맘대로 행동한대서야 법도 규율도 질서도 아무것도 없는 무리들이지, 하나의 조직된 집단이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는 인간의 다른 어느 집단보다도 규율이 엄중해서 모든 장병들이 각기 지켜야 할 규율에 절대복종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까닭으로 엄중하고 공정한 규율이야말로 군대의 제일 요건이다.

그런데도 규율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각급 지휘자와 선임자는 규율이 지켜지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가고 검토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기에 노력해야 한다. 만일 규율에 모순점이 있다면 그 규율을 수정해야 하겠기 때문이다. 그리고서도 규율이 만족스럽게 지켜지지 않으면 그때 각자가 자기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규율을 잘 지켰는가 스스로

물어보아서 자기가 규율에 위반된 행동을 했던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단연코 두 번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결심하고서 노력해야 한다. 자기는 규율을 위반하고서도 남에게만 규율을 엄수하라면 그 말이 통할 이치가 없기 때문이다.

공정하다는 말은 공평하고 정당하다는 뜻이다. 상관에게도 사병들에게도 각기 지켜야 할 규율이 분수에 알맞게 짜여져 있으므로 이것을 공정하다고 말하는 것인데, 만일 여기서 공평한 정신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다면 정당하다고 주장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것이 발견되거나 즉시 수정해가지고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공평함과 정당함은 인간이 사회에 처세하는 기본자세다. 정직·순결·협동·봉사 등... 이같은 덕목(德目)도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자세거니와, 군대 내에 있어서는 공정한 규율의 엄수가 으뜸가는 조목이다. 군대의 규율이 공평하고 정당하게 짜여져 있고 그리고 그 규율이 엄수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조목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니라 상급자의 사생활(私生活)이 결백하고 검소하고 단정해야겠다는 조목이다. 만일 상급자가 분수에 넘치는 호화생활을 한다든지... 그렇게 사치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랫사람이나 혹은 민간인으로부터 공것이나 잘 받아먹는다든지... 심지어 군대의 물품을 부정유출시킨다든지 한다면 이거야말로 군대내부의 규율을 엄수하는 체하는 상급자의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다. 상급자의 사생활이 일반 하급자들한테 칭송을 받을 만큼 청렴 결백하고 근면 검소 단정하다면 모든 사병들이 그런 상급자를 우러러 보게 되고 진심으로 존경하게 된다. 평소엔 부하들은 좋지 못한 음식을 먹는데 상급자는 아주 좋은 음식만 먹어보라 하급자들의 가슴 속엔 불평의 씨가 싹트고 그것이 자라서 반발하는 마음으로 뭉쳐지고 하여 나중에는 끓아 터질 우려마저 생기기 쉽다. 최근에 월남공화국에서는 북부 지방의 어떤 성도(省都)를 방어하던 군대가 저회 부대의 사령관과 고급 장성들을 버린채 6천여명이 모두 피난민 틈에 끼어서 민간인 복장으로 변장해 가지고 도망쳐 버렸다는 보도가 있었다. 월맹군이 비무장지대를 월경하여 남침해 오기 32일만에 최초로 함락된 월남북부 성도에서 일어났던 사실이다. 평소엔 사병들이 자가부대의 사령관 이하 지휘관들을 존경하고 있었다라면 그렇게 상급자를 내버리고서 도망가지 못했을 것이다.

## ◇ 규율보다 중요한 것

군의 기강은 법률 조문처럼 적어놓은 규율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규율도 있어야 하지만 그 규율을 뒷받침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상급자와 하급자가 서로 전우(戰友)로서 굳게 맺어진 끈을 해야 끊을 수 없는 형제같고 어버이같은 관계임을 인식하고 그같은 심리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아야 한다. 6·25당시 중공군이 개입해서 전투가 한참 가열했을 때 어느 국군사단에서는 사단장의 밥상에 반찬이 즐비하게 놓아 가지고 사병이 그 밥상소반을 자기 얼굴 턱어리 위로 올라올 만큼 높이 받들고서 사단장실로 가져가야만 했다. 두 팔을 쭉 뻗고서 소반을 높이 치켜들지 않고 들어갔다가는 '이놈, 네가 밥상을 갖고 오다가 기침을 한다면 침방울이 밥상 위에 떨어진다말야... 망할자식!' 이같은 욕지거리가 벼락같이 떨어지는 것이었다 한다. 사단장이나 사병이나 국가의 간성으로서 하나의 전우(戰友)인데도 이 같은 사단장의 자세에는 사랑이라곤 추호도 없지 않은가. 어버이같은... 형제같은... 그런 마음씨가 있다면, 자기만은 특별히 만든 요리로 아침 저녁 식사를 해야 하고, 밥상소반을 턱 위로 높이 치켜들고서 가져오라고까지는 못했을 게 아닌가 말이다.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해 사랑이 부족한 사례는 허다하게 많다.

서울수복 직후 몇 사람의 교수와 함께 일선에 강연을 나간 일이 있었는데, 나와 함께 어느 군단에 동행했던 교수는 어느 사단에 가서 이틀 동안 체류하였건만 강연은 커녕 좌담회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하고서 사흘만에 군단본부에서 우리 일행과 회동하여 가지고 서울로 돌아오면서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들려 주었다. - 즉, 그 사단에 도착하니까 정 훈부장 이하 만나는 장교마다 아주 풀이 죽어서 맥을 추지 못하더라는 것이다. 서울서 온 손님한테 권해드릴 담배 한 갑도 없다고 하더라는 것이다. 어찌 된 일인가 나중에 취침할 무렵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날 사단장이 미국의 참모대학으로 공부하러 가게 되어 사단본부에서는 사단장 이임식이 있었는데 아침

아홉시부터 광장에 집합시키는 전 장병들을 두 시간 이상 광장에다 세워놓고서 사단장이 나타나지 아니 했다는 것이다. 그 전날 이미 사단의 전 장병들은 주머니를 털어서 몇 백만원인가의 돈을 거두어 사단장한테 바쳤는데, 이임식하던 날 아침에 사단장은 그래도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또 부하 어느 연대장한테 전화를 걸고서 자기가 그곳을 방문하겠노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사단광장에 집합시킨 장병은 아랑곳하지 않고서 연대장한테로 갔다. 연대장은 이미 송별금을 거둬바친 뒤이지마는 자기 연대를 방문은 사단장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할 수가 없어서 또다시 부하장병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30만원인가 일만가를 사단장한테 바쳤다. 이런 뒤에 사단장은 사단광장에 집합한 장병들 앞에 나타나서 이임식을 거행했다는 것이다. 대학교수가 도착했던 날이 바로 이날이었기 때문에 모든 장병들은 주머니에 돈은 떨어지고 아침엔 추위에 떨고 지쳐서 맥이 빠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강연회도 좌담회도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니 그만두자는 것이 사단정훈부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교수는 이틀 동안 구경만 하고서 군단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였다. 그때 나는 견디기 어려운 의분을 느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상급자가 이래가지고 서야 군의 기강을 어찌 바로 세울 수가 있으랴. 실로 한심스런 이야기가 아닌가. 만일 그 사단장 마음 속에 장병들에 대한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렇지 아니했을 것이다.

## ◇ 사랑하는 마음

옛날에 오기(吳起)라는 장수는 부하 사병이 등어리에 종기가 쏴아가지고 고통한다는 것을 알고 그 사병을 데려다가 자기 손수 고름을 짜내고 그 종기 구멍에다 입을 대고서 힘껏 빨아 엉어리를 뽑아준 후 고약을 붙여주었다. 그래서 그 사병은 병이 나았다. 이같은 소문을 듣고 그 사병의 어머니는 슬피하며 울었다. 이웃 사람들이 왜 우느냐고 물으니까 '대장님이 아들놈의 종기 난 자리를 입으로 빨아까지 주셨으니 내 자식놈이 얼마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러니까 인제 자식놈은 그 은혜를 갚으려고 목숨을 내놓고서 대장님을 위해 싸울터이니 아무래도 맨앞에 나가 싸우다가 죽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인제는 죽은 자식이나 다름바 없어서 그걸 생각하니 슬퍼서 눈물이 납니다고 대답하더라는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을 후 과연 미구에 적과 접전이 벌어져가지고 그 사병은 최전선에서 용맹히 싸우다가 전사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2천년 전 중국에 있었던 기록이다. 그리고 이같은 사례는 중국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다.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이 막강한 군대를 만드는 일인 까닭으로 군을 통솔하는 최고책임자는 항상 각급 지휘관에게 군기(軍紀)를 확립 하라는 지시를 하는 터이지만, 비상사태가 선포된 작금의 현실은 더욱더 군대의 기풍이 다들어 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작은 집단이거나 큰 집단이거나 하나의 집단은 첫째 화목(和睦)해야만 이루어지는 법이다. 그리고 서로가 화목하게 지내려면 마음바탕에 사랑이 깔려 있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집단의 모든 요원(要員)들은 사랑하는 마음의 정신자세부터 가다듬어야 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란 어떤 마음을 일컫는 말인가 한 번 생각해 보자.

#### ◇ 꽃다발은 저 사람에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저 사람을 아끼기를 내 몸같이 아낀다. 저사람이 고통을 당한다면 그것을 곧 나의 고통으로 느낄 만큼 정이 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까닭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저 사람한테 고통이 안 가도록 보살피 준다.

그리고 저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면 내가 양보하는 것이다. 내가 양보함으로써 저 사람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돕는다. 그리고 저 사람이 차지할 몫을 내가 가로채는 일은 절대로 안 한다. 혹시 순서가 바뀌어져서 내가 저 사람 앞에 나서게 되었을지라도 그것을 안 이상 절대로 앞에 나서지 않고 양보한다. 그래야만 정당한 순서가 되기 때문이다.

양보하는 마음과 함께 항상 동행하는 마음은 겸손하는 마음이다. 겸손해서 자기를 저 사람보다 돋보이게 나대고자하는 생각을 안 갖고 저 사람을 올려 준다. 여러 사람이 큰일을 이루어놓았을 때 누가 그중 애를 썼느냐고 물으면,

힘을 많이 쓴 사람은 모두 저 사람들이라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마음이 겸손하는 마음이다. 사실은 자기가 가장 노력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손치더라도 자기를 빼놓고 다른 사람한테 공로를 돌려주는, 이같은 마음가짐이야말로 아름다운 마음씨다. 얼른 생각하면 애를 제일 많이 쓰면서도 공은 남에게 돌린다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이라고 손가락질 받기 쉬운 일 일지는 모르지만, 결국 공평하게 보는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게 알려지고야만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애를 썼다고 주장하지 않아도 자연히 진상은 알려지는 것이니까 이렇게 되면 겸손했대서 손해 본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오히려 자기와 함께 공동작업한 동료들한테 친절하고 존경하는 뜻을 표했던 것만큼 손해 보기는커녕 동료들로부터 탄복과 존경을 받게 됨으로 자기가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일본 속담에 ‘꽃다발은 저 사람에게 돌려줘라’는 말이 있다. 무슨 환영회라든지 기념회라든지 흔히 단상에 앉혀 놓고서 꽃다발을 증정하는 일이 많은데, 그럴 때 여러 사람으로부터 꽃다발을 받는 사람은 가장 공로 많고 명예로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까닭으로 못사람이 다 자기가 꽃다발 받는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사람들의 심리가 이런 줄을 알고 있다면 될 수 있는대로 자기는 양보하고서 꽃다발을 다른 사람한테 돌아가게 해주라는 말이다. 자기는 꽃다발을 받아 귀고서 기뻐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뻐해주는 것으로써 만족을 느끼면 그만이라는 말이다. 보통 사람으로서 마음가짐이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지만, 자기가 마음으로 훈련을 쌓으면 이같은 겸손이 몸에 밴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겸손하는 사람으로 알려진다면 남들이 그의 겸손을 존경하게 되니까 결과에 있어서는 아무런 손해가 없게 마련이다.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남을 내 몸같이 아껴주고... 자기가 남보다 위로 올라가려고 나대지 않고 양보하며... 명예를 탐하지 않고 겸손하기를 잘하면 그는 자연히 남들한테 봉사(奉仕)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이 되면 그가 자기를 희생하는 자세를 남들도 알게 된다. 저렇게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봉사하는 친구야말로 우리의 보배라고 주위에서 친구들이 일컫게 될 때 비로소 그는 인생에 대하여 깊은 사랑을 가질 줄 아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마음이란 대개 이런 것이다.

## ◇ 정신자세의 혁명

이제 비상사태 아래 놓여있는 우리 군대의 새로운 군기풍은 공정한 규율이 엄수되어야 겠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전체 장병들은 각기 자기 정신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어야겠다. 정신혁명을 이룩해야 겠다는 말이다.

지금 월남전쟁은 기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월맹군이 비무장자대를 대거 월경한 이후 현재 점령하고 있는 월남땅의 지역을 월맹한테 맡겨 주고서 휴전이 성립된다면... 그리고 티우대통령이 망명해 버리고 베트남과의 연립정권이 세워진 후 총선거가 실시되기로 미국과 월맹과 소련이 합의한다면... 그 다음에 올 것은 무엇인가 말이다. 일찌기 십년 전에 5·16혁명이 있은후 대한반도에 서 간접침략의 음모가 분쇄되어 버리니까 국제공산도당들은 월남공화국의 정국 혼돈의 틈을 타서 소위 전선(戰線)없는 전쟁을 유발해 온지가 벌써 10년이므로 월남휴전성립 후엔 또 다른곳에 불장난을 일으킬 가능성이 예상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비상사태를 날카롭게 주시해야 할 처지인 만큼 정신을 새로 가다듬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이다.

언제든 위기(危機)는 상급자의 잘못으로 고름이 깊어가지고 터지려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한 국가의 위기도 국왕이나 지배계층의 실정(失政)과 잘못이 쌓이고 쌓여 서 조성되는 것이고... 한 가정의 파산도 그 집 가장의 실패와 잘못이 쌓이고 쌓여서 살림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던가.

그런 까닭으로 파국에 직면한 집안살림을 다시 일으키려면 가장과 주부와 집안식구 전부가 일심협력하기로 마음을 고쳐 먹고서 분발하지 않고는 안되며... 비상사태에 직면한 국가도 난국을 극복하고자 진진하려면 상하가 일심협력하기로 마음을 고쳐먹고서 분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전체 요원들의 정신자세에 혁명을 일으키려면 먼저 상급자-지휘관-고위층이 솔선수범해서 자기혁명을 보여야 한다.

부하를 사랑하라. 동료와 선배를 사랑하라.

사생활을 단정하게 하라. 누구한테서든지 비웃음 받고 미움을 받을 그런

따위 사치스럽고 치사스럽고 분수에 넘치는 음식...의복...주택...오락행위를 하지 말라. 언제나 청렴결백하라. 누구한테든지 공물을 탐내지 말라. 하늘을 쳐다보고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양심을 자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양심대로 행동하라.

그리고 공정하게 규율을 정해 가지고서 그 규율이 명하는대로 엄중히 실천하라. 공정한 규율을 위반했을 때는 계급이 높거나 낮거나 똑같이 규율에 정해진 바 대로 처분을 달게 받을줄 알라.

이같은 새로운 정신풍토를 이룩하지 않고서는 지금 이 난국을 헤치고 전진하기 어렵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겠다.



### <마음의 양식>

- 빈곤이 범죄의 어머니라면 예지의 부족은 그 아버지다. <라·부류이엘>
- 지나치게 많은 것을 탐내는 사람은 항상 가난한 것이다. <클라우디우스>
- 빈자는 부자보다 잘 웃을 수 있고 마음 편할 수 있다. <세네카>
- 빈자는 거개가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고 부자는 그 반대이다. <하리바이튼>
- 잃어버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다. <괴테>



## ●●● ●●● 백두산과 정계비

서 중 석 <경희대 교수>

### 1.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주산영봉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발상지인 동시에 우리문화의 요람이며 젖줄기인 것이다. 백두산 천지변의 사자바위 망천후리는 이름 그대로 하늘을 우러러 사자 후 하듯 동북아시아에 우뚝 솟은 영봉은 산해경이 불함산이라 일컬었고 당시에는 태백산이라 기록하였다. 정다산(정약용)의 강역고에는 백두산을 백산이라 전제하고 백산, 개마 등의 여러가지 명칭을 합하여 범유팔각이라 소개하였고 육당 최남선의 불함 문화론에는 불함은 곧 「Bakran=붉?」이라고 하여 우리 민족이 태양을 일컫는 성어이며 백은 즉 「붉」은의 대자(對字)였던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이와같이 더듬어 보면 아득한 옛날부터 태양인 햇님을 숭배하고 신앙해온

우리 민족은 그 삶의 강역에 솟구친 대소의 많은 고산준봉들을 백자(白字)를 붙여서 이름지어 광명하고도 고상한 민족 신앙의 모습 상징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백산, 장백, 태백 등은 백두산의 별칭인 것이다. 우리 민족이 우리 강역내의 주산을 백두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여름에도 산정에 백설이 덮인 그 모습만으로 일컫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의 근본 원천도 이에서 비롯하고 이에서 발전하게 된 것이라고 신앙하게 된 때문이다. 우리의 개국설화에 서 찾아 볼 수 있는 신사의 건설이나 천평의 개척등이 모두다 태백산=백두산에서 이루어 졌다는 것도 결코 근거없는 설화는 아닌 것이다. 만주 대륙으로부터 한반도에 걸친 동북아시아의 지도를 펼쳐 놓고 볼 때 상고(上古)부터 이 지역의 인문이 발달되어 온 자취와 모습을 더듬어 본다면 단군과 부여의 고조선은 말할 것도 없고 근고(近古)의 삼국시대만 하여도 고구려 중심의 우리 민족이 차지한 북방강역은 백두산을 중심하고 요하로부터 흑수=Amur에 이르는 소위 백수 흑수 의 지역을 차지하여 타에 비할 수 없는 동 방문화의 창조와 발전에 빛나는 업적을 쌓아온 것이 사실이었다.

그리하여 고구려의 우리 선민들은 아시아의 중원대륙에서 흥기하므로 언제나 강성함을 자랑하던 한민족의 국가들과 치열한 공방전을 거듭하였지만 요하이동(遼河以東)의 강토를 저들에게 맡겨본 적은 거의 없었다. 그 후의 고려 때만 하여도 그 강역을 부지코자 노력하였으나 명·청(明清) 양조를 상대하는 이조의 정책이 퇴위위축되어 오늘의 압록, 두만 양강이 이 나라의 북계로 되었고 할망정 그래도 저 백두산만은 의연히 우리 국토의 주산영봉으로 피아가 인정해 온 것이 사실이니 결코 당, 송, 원, 명, 청따위의 이국 소유가 아니었다.

### 2. 간도문제의 발단과 백두산 정계비

#### (1) 간도의 지리적 위치와 행정지역

한국 근세의 북방강역 문제는 백두산보다도 간도의 귀속문제가 한·청 양국 간의 중대 문제로 말썽이 많았다. 간도라는 명칭은 이조 인조때에 병자호란을 치르고 한·청양국간에서 압록강과 두만강 하류의 백두산 서북록을 공간지대로 설정한 이후에 생긴 명칭이 틀림없다. 이조 후기에 우리 농민들이 이 지방을 개간했다는 의미에서 근세의 우리나라 문헌에는 간도 혹은 간도로도 기록되었다. 행정지역으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시까지 연길왕청, 화룡의 3현을 북간도 혹은 동간도라고 하였고 안도, 무송,

장백의 현을 서간도라고 하였는데 국경문제는 서간도보다 북간도가 논쟁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간도라고 하면 흔히 북간도만을 의미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지역은 두만강과 그 북동쪽 해란하로부터 훈춘하에 이르는 여러 지류의 연안을 중심으로 옥야와 구룡의 배치가 수리에 대단히 편리하며 지질도 좋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일찍부터 수전개간과 기타와 농경에 착수하여 실질적으로 우리국토의 연장으로 간주되었었다.

## (2) 청제국의 탐욕과 백두산 정계비

청제국의 탐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여조(麗朝)부터 이조 초엽까지 여진 부족이 백두산 후록의 간도지역을 침범하여 말썽이 많았다. 그러나 여조에 중세대에 윤관이 저들을 정복하여 구역을 개척한 이후로 저들이 여조에 공순을 서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 후 여말에 이르기까지 성패와 기복은 없지 않았으나 이태조가 두만강 유역을 그의 발상지로 삼아 근세조선 왕조를 이룩했다는 사실과 제4대의 세종대왕을 중심으로 여진의 후예인 오랑캐족을 정복한 다음 동북강역의 개척에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사실 등은 그 어느 모로나 이 지역 개발을 위해 우리 민족이 다시금 절대우위를 차지하는 동시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조와 이조에 걸쳐 중원대륙의 한족국가인 송나라나 명나라는 이 지역을 황한 무인의 지대로 간주하고 그다지 보살피지 않았으며 여진족은 여진족대로 우리나라에 8조 내부할 정도였으니 이 지역에 대하여 영유권을 주장하고 우위를 자랑한 자는 별로 없었다. 그러나 청태조 노아합적이 흥기하여 새로운 제국을 건설한 이후부터 간도지역이 백두산과 함께 국제적인 경계문제로 등장하였다.

청조는 그들의 발상지를 장백산 곧 백두산이라고 내세우며 동북 경계에 대하여 새삼스러운 관심과 야망을 표시하게 되었다. 특히 그들이 강성하여 서남으로 명제국의 정벌을 꾀하게 되자 일본 앞서 우리 한반도에 입구하게 되었으니 이조 때의 병자호란이 그것이다.

이 전란이 끝난 후 그들은 패배당한 조선왕조에 강요하여 백두산 후록의 이 지역을 소위 불금지대 즉 공간지대로 설정하고, 한·청 양측이 다 입주 못하도록 금제하였다. 1709년에 당희제의 명령으로 국토 측량에 종사했던 불국선교사 파-레지스(P. Rag)의 감수하에 제작된 지도와 지리지록에 의하면 이 당시 한·청 양측은 한·청 양국의 중간에 공간지대를 협정하였고 청국은 동북경계에 장책을 세우고 이 장책을 한계선으로 삼았던 것이 사실이다.

후일에 이르기까지 저 공간지대의 관리와 이 지대를 통과하는 사신들의 경호 책임 등을 한국측에 일임한 사실에 비취보아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강희제에 이르러 그들의 야망이 그들의 영지라고 내세운 장백산 즉 백두산지방을 조사 측량하여 대청일통지에 역입함은 물론 이 지역에서 산출되는 선약재의 인삼채취권을 중심으로 한·청 양국인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점도 불소하니 차제에 백두산 일대의 경계를 명백히 하자고 서둘러 1972년 숙종 38년 5월 (강희 51년)에 오라총관 면극등을 파견하여 51년 한국측과 더불어 이 지방의 경계를 공동심사케 하였다.

이때 한국측에서는 청국정부의 통첩을 받고 접반사에 박권과 함경 관찰사 이선부를 임명하여 면극등 일행과 더불어 현지에 출장회상케 하였다. 그리하여 5월 5일에 면극등 일행을 헤산진까지 가서 영접하였다. 백두산을 등반할 때에는 중도에서 면극등이가 한국측 접반사는 연로하여 도보할 수 없으니 무산으로 선행하여 대기하라고 하였다. 연로 무책임한 박권과 이선부 양사는 이를 구실로 낙오해 버리고 수원인 이의복 이하의 하급관원만이 저들을 수행했던 것이다.

당시의 양국 대표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청국측은 강대국의 위엄을 자랑하여 어디까지나 교만하고도 고압적인 태도로 임하였고 우리측은 강약의 부동이라 굴종하는 태도를 면할 수 없었다. 즉 언어도단의 위협공갈을 감행하면서 청국측의 독단과 탐욕대로 장소를 결정하고 세운 것이 곧 현재까지 전해지는 백두산 정계비인 것이다.

이와같이 백두산 정계비는 세워졌고 지나칠 정도로 간단하나마 한·청 양국의 경계를 규정하는 서위압록, 동위토문 운운의 금석문자도 불변의 협약으로 나타났으며 그 후 사은사라는 행차가 사정계표를 만들어 북경으로 왕래도 하였고 청국측도 역시 내심은 여하간에 그 이상의 말썽을 부리지 않은채 한말까지 끌어왔던 것이다.

## 3. 한말의 간도문제와 일제의 불법할양

한말 고종초부터 간도지역은 한·청·노 3국간의 중요계쟁지대로 등장하게 되었다. 1860년대에 제정 노서아 북경정부를 위협하여 삼시간에 오소리강 동철 백리지역을 병탄하게 되자 흑룡강 서안과 두만강 이북의 간도 땅은 한·청·노 3국간에 국제강역상 요지요부로 새삼 중요시하게 되었다. 이조 왕조 말엽의 확정과 흥군에 시달린 우리 농민들이 남부여대하고 새로운 생활의 근거를 찾아 이 지역으로 이주하여 수전 기타의 농경지를 개척하는 모습은 국제적인 주목을 끌게

되었던 것이다. 종래에는 이 지역을 무인황한의 공간지대로 도외시 했던 청국의 지방관민도 새삼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한 극동의 새 영토인 연해주를 개척하려는 제정 노서아측도 내심으로 한국 사람의 이주를 환영하고 묵인했기 때문에 간도와 연해주를 중심한 한국인의 월경 이동은 본국정부가 정치적인 면에서 엄중 단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을 길이 없었다. 1880년대 이후로는 노·청 양제국이 모두다 한국농민의 놀라운 증가율과 그 생활력에 주목하여 차츰 경계하며 제한하고 박해하였던 것이다. 노영인 연해주에 있어서는 1884년까지 이주한 한국인에게 저희 국적에 편입하기를 요구하며 매호당 15 데사이진의 농지면적도 분배해 주는 동시에 그 이상의 이주에는 엄격한 제한을 가하였다. 이와 동시에 간도지방에 있어서는 애당초 한·청 양국간의 경계선을 따지지 않고 우리 농민들이 피와 땀으로 이 지역을 개간하여 농경지에 있어서나 인구에 있어서나 80% 이상을 점유하게 되니 소수 청국인들이 이모저모 억지떼를 쓰기 시작하여 반목, 분규가 심해졌다. 그 후 1882년에 민비 정권이 극도로 부패하여 임오군란을 겪게 되고 이 기회를 이용하여 청국정부가 무력으로 내정에까지 간섭하게 되자 간도문제도 다시금 표면화 되었다. 이해 2월에 청국측이 우리 농민들에게 강제로 조세를 징수하고 저희 국적에 편입시키는 동시에 정교 양면에서 통치권을 주장하는 내객의 조회문을 보내왔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동년 8월에 간도주민의 청국적 편입은 중지하기를 요청하는 동시에 1년 이내에 쇄환시킬 것을 부득이 약속하여 일단락을 지었다. 그러나 이러한 타협이 결코 가능한 일은 아니었으니 수십년 동안 피땀을 흘려 그 땅을 개간하고 그 땅에 정착한 우리 농민들을 무슨 방법으로 1년내에 소환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해 1883년에 우리 정부는 서북경략사 어윤중이 토문·두만 양강 연변을 순시하며 미결된 여러가지 사항을 처리하게 되자 간도문제의 진상과 이에 수반되는 강역 문제도 비로소 그 입지적인 실태를 파악하게 되었다. 즉, 변민들의 백두산 정계비와 강원을 상세히 조사 보고한 것을 근거로 재조사한 결과 청국측이 토문강과 두만강을 일부러 혼동하여 저의 탐욕만을 내세웠다는 사실과 수백년 동안 희미하게 내버려 두었던 우리의 강역을 이때에 와서 비로소 밝혀 조사하고 재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와같이 하여 부득이 시일을 끌던 간도 문제는 갑신정변을 치른 후 1885년 4월부터 다시 말쑥이 되었다. 청국측은 토문간계문제는 불문에 붙이고 우리 농민들을 강제 축출하게 되자 한국측이 앞서부터 제기한 토문간계문제를 우선 해결하자고 요청하였고 청국측도 이에 응하여 쌍방 대표가 중요시되는 두만·토문의 양강원과

백두산 정계비까지 공동답사하였으나 아무런 타협도 보지 못하고 2년후인 1887년4월에 다시 토문간계문제가 재연되어 현지 답관을 전개하였으나 역시 아무런 결론도 얻지 못하였다. 이와같이 하여 간도문제는 결국 미해결인체 창·일 전쟁을 치루고 그 전쟁의 꼬리를 잡아 제정 노서아의 극동진출이 현저하게 되자 당시의 한국정부는 여러가지 난관도 많았지만 그래도 간도를 중시하여 1897년에는 함경북도 관찰사 조준우에게 백두산 정계비와 분수령 및 간도 간계문제등을 철저히 조사 보고 하도록 지시하였던바 조준우는 철저한 현지 조사를 한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토문강 상류로부터 하류에 이르러 입해하는 이동의 지역은 우리 한계 내의 지역임이 틀림없는데 청국측이 저희 강역이라고하며 심지어는 오소리강등을 저희 멋대로 아라사에게 할양해 준 것부터가 잘못이었다고 지적하고 이 지역에 유관한 한·청·아 3국이 상호기약을 성명하고 3국이 공동으로 파원하여 백두산 정계비로부터 토문강의 원류와 그 입해처까지 답사한 다음 피차가 만국통행의 법례를 완용하여 공평타당하게 한계를 결정하는 것이 본국변민들의 안정만이 아니라 3국간의 화의돈독도 도모할 것이라는 해결책도 건의한 것이다.

이상은 진실로 우리 민족 본연의 강역을 찾고자 나선 정정당당한 주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인즉 탐욕은 청제국만이 아니었다. 노·일전쟁의 결과 우리의 주권을 일제에게 침해 당하게 되자 반반세기 동안 항쟁해 오던 간도문제도 그 이상 부지할 수는 없었다. 일제의 소위 통감정치가 시작된지 얼마 안 되어 1906년 11월에 당시의 참정대신 박제순 명자로 간도제류 한국인의 생명재산을 보호해 달라는 의뢰문이 통감 이등박문에게 전달되자 일제는 이를 구실로 즉시 간도문제에 착수하여 다음해인 1907년 8월에 소위 통감부 간도 파출소라는 것을 설치하고 상당히 강경한 태도로 청국에 임하였다. 이때에 간도에 대한 시정방침의 첫머리에 간도는 한국영토라 간주하고 행동할 것을 성명했으며 더 나아가 간도의 가정경계선을 책정하고 청국측 간섭에는 무력으로 대항할 것도 사양치 않는 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주권은 침해해서도 그 강역문제에는 종래의 우리 주장을 계승하여 수호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제같은 침략자의 야욕은 언제나 이해 타산에서 목전의 실익을 탐내는 것이 사실이라 그들은 간도 파출소라는 것을 설치한지 불과 2년인 1909년에 만주의 다른 권익(소위 만주 5안건)을 탐내어 (1) 안봉철도 개축문제 (2) 무순탄 갭문제 (3) 연태탄 갭문제 (4) 영구지선의 철수문제 (5) 관외철도의 범고 내연장 문제등을 일제 요구대로 해결

한다는 교환조건으로 우리 민족의 영역인 간도는 불법하게도 청국영토로 할양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1909년 9월 4일 북경에서 조인된 간도에 관한 청일협정으로 토문강 유역은 물론이요, 홍토수에서도 후퇴하여 두만강 상류의 석을수를 한·청 양국의 경계선으로 책정하고 말았다.

이것은 보호라는 미명하에 한국의 주권과 역사까지 전연 무시해 버린 처사였다. 따라서 간도 문제를 청·일 양제국이 일단락을 지은 이후 일제는 드디어 한국을 병탄하는 바가 되어 한국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으므로 간도 귀속에 대한 우리의 종래 주장도 그 여음을 남길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2차 세계대전에서 일제의 패망에 따른 한국의 독립회복과 특히 한일국교 정상화 조약체결에 따른 구조약의 일괄폐기란 현시점에서 청·일간에서 부당하게 처리되어 청국의 영토로 할양된 간도의 현상태를 그대로 방치시킬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간도의 역사성과 청국 자신이 입비한 백두산 정계비면의 분계귀절은 간도가 엄연히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또한 1931년 7월 28일에 이 정계비가 홀연 그 자태를 감추고 그 대석결에 백두산 등산도라고 표시한 목표가 세워져 있다는 사실은 사적을 인멸하여 국경을 막연하게 하려고 한 계획적인 소행이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이 처사는 정계비에 각기한 분계귀절이 한·중국경확정상에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확고한 표지라는 신념을 더욱 굳게 해줄 뿐이다. 한·중국경은 당연히 비문의 분계귀절대로 확정되어야 한다.

국경이 비문에 표시한대로 확정된다면 간도는 마땅히 한국영토인 것이다. 그것을 일제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청국에 할양한 것이므로 한·일간의 구조약이 일괄 폐기된 오늘의 현실에서 간도문제는 당연히 을사조약 이전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도 한국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지면적의 태반을 한국인이 소유하고 전인구의 80% 이상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간도는 반드시 한국에 귀속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방 자유중국이 그 본토를 수복하게 되고 한국이 북한 지역을 수복하게 되었을 때 간도의 한국 귀속 교섭이 한·중 양국간에 우호적으로 추진되어 실현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 × ×

수필

## 말 많은 백성

이 승 념 <문학·서울대학원장>

우리들의 생활태도에서 말이 많은 것이 큰 결함이라고 하겠다. 즐겨 남의 평을 하고, 어느 사건이 생기면, 마구 떠들고 나서는 것이 우리의 반성할 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야기할 때의 목소리의 높이(聲量)의 문제요, 또 하나는 말을 삼갈 줄 알아야 한다는 문제다.

옛날에 북경으로 사신을 가면, 청나라 정부에선 외국사신의 거처로 객관(客館)을 마련해 주는데, 우리 사신의 일행이 묵는 객관은, 각국 객관 중에서 가장 떠들어대어 소란해서 창피했다고 한다. 이런 혼란이 옛날부터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려니 한다. 제1차 대전 때 독일의 제펠린 비행선이 런던을 밤에 폭격하고 나면, 그 이튿날 아침 시민들이 폐허가 된 폭격자리를 보고 지나는데, 한 사람도 입을 열고 떠들지 않고, 묵묵히 보고만 지나간다고 한다. 이것을 일본인이 보고 칭찬한 기사를 나는 읽은 일이 있는데 어딘가 신사도의 혼란이 된 느낌이 난다. 우리 같으면 거리거리 떠들어댈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한 교수가 런던에서 우연히 친구를 만나 반가웠다고 한다. 그래서, 둘이 이웃 식당에 들어가서 맥주를 먹고 우정을 나눌 때, 뒤에서 누가 등을 두드렸다. 돌아 본 즉, 영국신사가 하는 말이 '목소리 낮추어 이야기 하시오. 여기는 당신들 둘만이 엔조이하는 곳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여러 사람이 엔조이하는 곳이니……'라고. 그래서 그 친구들은 창피하여 그 식당을 나왔다고 한다.

한국식으로 떠든 것만은 짐작이 간다. 우리는 둘이 이야기할때, 셋이 이야기할때의 목소리의 높이를 구별할 줄 모른다. 둘이 만나도 한 소대병력에 혼시하는 목소리로 떠드는 친구도 많은 터이니, 화술(話術Speech)의 교양이 거의 낙제란 말이다. 야행기차에서 잠이들 무렵 소리를 질러 떠드는 패가 얼마라도 있으니, 외국인이 볼 때, 무교양이란 국민으로 평가될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외국의 기차 속의 정경은 참 조용한 것이다. 이야기도 소곤소곤, 남의 정신적인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그 태도가 흐뭇해 보이니 부럽기만하다.

끝으로 남의 가정사나 그외의 일에 흥미를 가지고 평하는 버릇을 없애야 할 것을 일언해둔다. 남의 가정의 일을 화제로 한다든지, 거리의 사건이 있자마자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 나름으로 떠들어대는 것도 교양있는 사람의 할 것이 아니다. 서방에서는 남의 일이 화제가 되면 '미안합니다. 저는 이 그 이야기에 흥미가 없습니다'로 잘라 말한다. 우리 국민은 모두가 정치가요, 모두가 사회평론가와 같아서, 도리어 혼란이 오고, 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유연비어도 나오기 쉬운 것이 아닌가 한다.

말많은 백성이란 결코 명예로운 것은 아니니, 적어도 영국의 신사와도 같은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박 대통령 문언록>**

◇ 가난한 나라에서 경제건설을 하자면 한 개인이 자수성가하기 위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덜 쓰며 아끼는 경우와 같이 국민의 근면 및 절약에 바탕을 둔 저축의 힘이 없이는 그 성과를 거둘 수 없다.

◇ 제 2경제 운동이란 우리의 뿌리깊은 조국애에 바탕을 둔 것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근대화를 물량면이 아닌 정신적이고 생활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민생활의 새 물결인 것이다.

수필

**아는 진리는 착각이다**

김 은 우<이대 시청각교육원장>

우리는 보통책을 읽거나 누구의 말을 듣거나 또는 폭발적으로 쏟아지는 매스컴을 통한 여러가지 정보와 지식을 듣고 이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게되면 나도 그런 것을 안다고 하며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그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하기가 일쑤다.

그러니까 '알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우리는 곧잘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요새 와서 하나의 착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은 아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니까 알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무엇 이나 자기가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그것에 대한 지식은 단지 종교품이 된 남의 지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다 같은 처지에 놓여있고, 다 비슷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한 사람도 똑같은 처지와 상황에 놓여있는 일이 없고, 또 같지가 않다. 누구나 다 다른 공간과 시간 속에서 다 다른 외적 조건과 내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 얼굴도 사람의 얼굴은 다 같은 것 같지만 한 사람도 같은 것이 없듯이 사람의 가슴 속에 박혀있는 사과씨 같은 운명과 생명의 의미(意味)도 다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인생 항로를 달려가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다른 상황 속에서 자기 항로를 헤어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요트를 타고 가는 조종사와 같다.

바람 없는 바다가 없고, 풍랑 안 이는 바다가 없다. 폭풍우도 있을 수 있다. 그 바람이 북풍이나 동풍이나 남풍이나를 누구나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바로 자기가 출발하자마자 역풍이 일어날 수도 있고, 순풍이 일어날 수도 있다. 어쨌든 길길은 하나지만 마음대로 조정 못할 바람이나 풍랑은 시간에 따라 다르게 장소에 따라 다르다.

그러면서도 이것을 자기가 조정할 수 있는 키를 어떻게 잡고 미묘하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목적지에 빨리도 가고 더디도 가며, 혹은 난파도 당하게 된다. 여기에는 남의 아는 지식이 소용없다. 오로지 자기가 실존하고 있는 오늘의 이 순간과 이 장소와 자기가 가고자하는 방향만이 실존할 뿐이다.

여기서는 합리적으로 아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가겠다는 의지와 신념과 용기 그리고 번개불같이 번쩍이는 직감적인 예지와 결단도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다. 이제는 과학적인 진리를 탐구하는데도 바로 이러한 정열과 감각이 필요하게 되었다. 모든 행동의 결단과 실천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현대과학의 총아격으로 나타난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라는 학문 분야다.

공군·해군·육군·정치·경제·교육·문화 사회과학이 모든 분야가 이제는 어떻게 사이버네틱스의 원리를 잘 적용하느냐로 골몰하는 시대가 왔다. 아는 것만으로 진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니까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갖게 되는 시대가 여기에 왔다.

**<박 대통령 문언록>**

◇ 남이 잘 하는 비법, 남이 잘 사는 비법을 다만 지식으로 살거나 감상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 우리가 염원하는 빈곤의 추방이나 경제적 번영은 빈틈없는 착실한 계획과 중단없는 줄기찬 실천에서만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군인의 기본 자세**

**확립을 위한 정훈강좌**



- 군인은 국토방위에 앞장 설 주역자로서 사고방식 등 정신적인 합리화를 비롯한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합리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



## 서론

군은 장병들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제반 조건과 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군대사회는 그 성격이 가장 특수한 사회중의 하나다. 그러나 아무리 특수사회라 할지라도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들은 하루 아침에 형성된 인간들이 아니고, 일반시민사회에서 자라나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대 사회의 문제는 그 사회가 속해 있는 전체사회의 문제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군인은 국가의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며, 국가를 방위하

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나아가 국제평화 유지에 공헌함을 그 사명으로 하고있다. 이러한 막중한 사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인은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와야 한다. 그런데 그 승리의 필수적 요소의 중요한 하나는 군인정신의 바탕으로서 죽음을 무릅쓰고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력이다. 이 정신전력의 핵심은 곧 신앙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전군에 전개되고 있는 전군 신자화 운동은 장병개인의 인생관 확립을 위하여나 군인으로서의 사명완수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차원 높은 의를 가지고 있다 하겠다.

### 1. 군대사회의 성격

군은 특수사회로서의 군(軍)공동체이다. 대학이 학문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교회를 신앙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으며, 군사회는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한 가지 목적에 의해서 조직된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군의 조직, 규율, 훈련, 계급은 이 목적 하나의 수행을 위해서 이루어진다. 한편, 종교적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군은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목적의 중요성 만큼 군사회는 인격적 관계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뜻에서 인간의 공동체라고 전제하게 된다.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군 공동체는 그 안에 내재할 수

있는 비인간화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젊은이들의 터전이며, 그들의 삶이 이모저모로 부정되고 다시 형성되는 엄숙한 도장(道場)임을 긍정하게 된다. 우선 군 공동체 안에는 돈있는 자나 없는 자나 지식이 있는 자나 무식한 자, 종교인이나 무종교인이 함께 살아야 할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배워야 할 곳인 것이다. 형식과 전통, 가문과 학문의 가리움 없이 가장 소박하고도 진실된 삶의 문제와 경험을 공동생활양식을 통해 배워야 하는 곳이다. 그러기에 군 공동체는 근본 인간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을 수 없으며, 그곳엔 비인간화의 위험성이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내재하고 있음도 잊을 수 없다. 동시에 그곳은 인간화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인 것도 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군을 위한 신앙운동은 신학적 견지에서 다음 몇 가지를 이해해야 한다. 첫째는, 군 공동체는 교육의 장(場)일 수 있다는 전제로 인위적 공동체는 가장 자연스러운 교육의 장이며, 젊은이들만으로 형성된 삶의 정황(Context)에서 제기되는 물음에 경청하는데서부터 신앙의 가능성은 나타난다. 둘째는, 군 공동체는 가장 진실하게 삶의 궁극적인 의미가 질문되는 곳으로 종교인들은 과거의 신앙의 틀이 검토받게 될 뿐 아니라, 종교인으로서 자기의식(Identity)을 재삼 모색하게 된다.

무종교인들이 처음으로 종교적이 될 수 있는 곳도 이곳이다. 폴 틸리히교수는 신앙은 궁극적 관심이라 했다. 군 안에 있는 젊은이들은 삶의 궁극적인 의미, '절대적 주체는 존재하는가?' '나는 누구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종교적 차원의 질문들을 제기하는 것이다. 사람이 외로와지면 철인이 된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군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수없는 젊은이들의 실재에 대한 물음에 민감하므로 그들의 질문의 핵심을 포착하는 것이다. 셋째로, 군공동체 안에서 종교인의 현존은 귀중한 것이지만, 그들의 현존이 절대자의 임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겸손한 인식에서 가능하다. 여기에 군 공동체는 절대자와 젊은이들 사이에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군대사회를 그 특수성과 필요요건으로 보아 4대성격을 가진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첫째로, 군대사회는 의무에 의하여 형성된 사회이다. 이 사회는 많은 모순과 부조리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군인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기쁨과 희망적인 삶의 자세로 군입무에 충실해야 한다. 둘째로, 군대사회는 엄격한 계급사회이다.

'법 앞에 만민은 평등하다'든지 '사람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것은 무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가장 엄격한 계급사회가 있다면

그것은 군대사회이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군대사회는 계급을 떠나서 조직될 수 없다. 때문에 군대사회에서 계급은 필수적이며, 불가결한 것 인지도 모른다. 여기에 건전한 계급의식을 필요로 한다. 즉, 계급은 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일을 기능적으로 보다 효과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있다는 점이다.

군대사회는 이등병도 있고 대장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무적인 차별, 자격의 차별로서 봉사에 관련된 것이지 개인의 가치의 차별은 아닌 것이다. 사병은 장교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러나 장교가 사병 보다 본질적으로 더한 것은 아니다. E. 브른너는 '사회의 계급은 그 사회의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봉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계급의식이 결여된 엄격한 계급사회는 그만큼 독재사회가 되기 쉬운 것이며, 계급의 상호관계는 유기성을 상실하게 된다. 셋째로, 군대사회는 절대명령의 사회이다. 명령으로 시작하여 명령으로 끝나며, 명령으로 움직이는 절대명령의 사회이다. 명령의 사회가 군대만은 아니지만 계급사회가 그러하듯 다른 유형의 명령보다 군대의 명령은 철저하다. 군대사회의 명령은 강점과 약점이 있다. 강하다는 것은 그것의 신의 명령과 같이 절대권을 가졌다는 데서고, 약하다는 것은 그 강점이 건전하게 사용되지 못 했을 때 보다 큰 비극이 일어난다는 데서 그러하다. 군대사회의 명령은 거룩한 것이며, 당연히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다. 군대명령의 절대성은 군대사회가 엄격한 계급사회라는 것과 그 명령의 근거가 하늘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는 데 근거해야 할 것이다. 네째로, 군대사회는 극한상황을 전제 한 사회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는 제국주의나 공산주의 국가의 군대와는 달리 침략을 목적인 것이 아니고, 국토방위에 목적을 두고 조직된 것이다. 그러나 어떤 국가형태에 있어서의 군대이든 군대는 전쟁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일은 없다. 침략적인 것이든 방위적인 것이든지간에 군대는 싸움을 위해 있으며, 싸워 이기려 한다. 이 싸움은 생명을 내건 싸움이다. 적과 내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면 내가 죽어야 하는 싸움이다. 이 극한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군대 사회는 사람에게 심한 긴장감을 주게 된다. 이 긴장은 생과 죽음 사이의 긴장이기 때문에 그 긴장을 초월하기 전에는 심적 갈등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다.

## 2. 장병의 정신무장 강화와 신앙

신앙은 인간의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러므로 건전한 인생관과 사생관 확립을 위하여 신앙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신앙은 현대전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정신전력의 핵심과 모체가 되므로, 확고한 신앙심과 신념은 전쟁에서 필승할 수 있는 정신적 바탕과 그 요건이 될 수 있다.

필자는 앞에서 군대사회의 특수한 성격을 말하였다. 그 특수한 성격들은 그 목적과 본질적인 면에서 정당하고 위대한 것이지만 그 운영과 이해의 실제면에서 볼 때 수많은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문제의 올바른 긍정과 이해,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성실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군인은 확고한 인생관과 국가관이 확립되어야 하며, 거기에 핵심을 이루는 신앙은 필수요건이 되는 것으로써 종교적 신앙은 군인 각자의 인생관과 국가관을 확립시켜 줄 것이며, 그 신앙에 근거한 군인정신은 필승의 신념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신앙은 과연 무엇인가? 보편성있는 신앙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열거치 못하는 아쉬움이 있음을 먼저 말해둔다. 인생문제의 해결은 종교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말 할 수 있다.

사람의 생활에는 여러가지 면이 있다. 정치, 경제, 예술, 도덕 등이 있다면 종교도 그중의 하나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다른면과 동일한 차원이 아니고, 그 이상의 높은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인간이 양심대로 산다는 말은 곧 종교적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의미와 같다. 종교에는 반드시 신앙이 있어야하고, 신앙에는 신앙의 대상이 있어야 한다. 그 대상은 영원자이며 무한자라야 한다. 신을 신앙한다는 것은 신의 뜻대로 산다는 것과 같다.

여기서 종교는 만인이 신앙할 수 있고, 만인의 인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를 의미한다. 즉,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보편, 타당성을 가진 종교를 말한다. 인생을 공짜라고 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과 부모로 인하여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신앙은 철학의 논증에서 얻는 것이 아니다. 철학의 논증은 신앙을 표현할 때에 보조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앙은 신의 광명을 받는데서 얻는 것이다. 사랑을 받아도 무의식중에 받으면 아무런 신앙이 생기지 않는다.

신의 사랑을 자신이 느끼게 되면 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신앙하게 되는 첫 과정이다. 칼날 위를 걸어 가는 것과 같은 위기의식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신앙은 절실히 요구되며, 필요한 것이다. 필자는 종교적 신앙의 가치와 그 효과를 설명하기 위하여 육군의 장경석 장군의 군중 활동의 실제와 그 효과라는 논문 중 다음과 같은 글을 소개하려 한다.

군중활동은, 장병의 정신적 각성과 각급 지휘관의 극진한 지도는 장병들의 신앙을 생활화 시켰고, 이로써 군대 본연의 기풍이 진작되어 왔으며, 과거 부대

지휘에서 장애요소가 된 각종 사고, 군풍기 위반, 범법행위등의 현저한 격감으로 많은 실적을 통계상으로 뚜렷이 찾아 볼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침체한 병영생활의 분위기를 활목할 만큼 명랑하게 만들었음을 말해 주었다. 또한 비전투시에 있어서, 상기한 제장애는 부대의 인적, 물적 손실을 격증하게 하여온 경험에 비추어 군중활동이 비전투시 부대의 유지에 있어 무기력한 기풍을 일소하여 다대한 성과를 나타내는데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실증해 주고 있다. 또한 아래와 같은 통계를 제시하여 주목을 끌게 하였다.

### 가. 사고의 감소

사고자 통계(차량 및 기타)

연도 분기	63년도			64년 도
	2/4	3/4	4/4	4/1
불신자	4	3	0	2
신자	0	0	0	0

### 나. 군풍기의 확립과 범법자의 격감

(1) 도망병 통계

연도 분기	63년도		
	2/4	3/4	4/4
불신자	8	5	3
신자	0	0	0

(2) 군풍기 통계

연도 분기	63년도			64년 도
	2/4	3/4	4/4	4/1
불신자	49	54	55	31
신자	0	5	0	2

또한, 참된 인생관과 세계관을 지니지 못한 자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위대한 종교는 위대한 민족을 낳는다는 말이 있듯이 종교를 바탕으로 않는 여하한 사상이나 집단도 쉬 무너지고 마는 역사의 실례를 볼 수 있다. 참다운 신앙은 백절불굴의 강한 용기와 확고한 신념을 제공해주며, 거룩한 희생의 제물로 뉘를 즐겨하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초인적인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삶의 패배가 있을 수 없고, 실망과 자학이 있을 수 없으며, 향시 전진하는 의욕만이 용솨음치는 것이다.

60만 국군장병은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군의 정신무장을 확립하는 길이며, 방공태세를 완비하는 첩경이다. 장병들은 군대사회의 특수성에서 오는 심적 갈등을 느끼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몇 가지 필수요건이 있다. 그 첫째는 자아확립이다. 인간에게는 각자의 특수한 삶의 길이 있으며, 그가 형성해야 할 삶의 모습이 있다. 우리의 삶은 진보 전진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 자아의 확립이 필요하다. 둘째

는 인격적인 관계이다. 나와 너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을때 상하의 계급은 조화를 이룰 수가 있으며, 명령자의 명령은 정의에 입각하게 되고, 피명령자의 복종은 자 발적인 것이 된다. 그리하여 이들은 큰 톱니바퀴가 서로 이가 맞아 돌아가듯이 서로가 생명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세제는 사랑의 관계이다. 인간은 나와 너가 사랑으로 관계지어 지도록 피조되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Image of god)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도 있게끔 지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랑의 관계가 가장 강하게 작용되어야 할 사회는 군대사회이다.

이 사회의 특수한 성격이 그것을 필요로 한다. 명령에 의해 살고, 죽는 사회, 삶의 극한상황을 전제로 한 사회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랑의 관계가 요구된다. 명령자가 사랑의 마음, 즉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명령하고, 피명령자가 사랑의 심정으로 그 명령을 받을 때 그 명령은 철저하게 수행되면서도 아무런 심적 갈등도 일으키지 않는다. 이 사랑은 적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랑을 말한다. 그렇다면, 적이 공격해 왔을 때 내버려두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내버려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적극적인 관여이다. 적의 불의에 간섭하며, 인류평화에 대한 적의 공격에 간섭하는 것은 사랑의 행동이다. 그것은 적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사랑의 힘으로 적의 행동을 중지시킬 수 만 있다면 총을 들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할 때 더 큰 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총을 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총을 들었으나 야수로서 든 것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사랑으로 든 것과는 다른 것이다. 후자와 경우에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심적 갈등이 극복될 수 있다.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군대사회에서 꽃이 필 때 군대사회에서 심적 갈등에 의한 비극은 없어질 것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나 사랑은 피보다도, 죽음보다도 강한 것이다. 군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성격을 인간이 소극적 또는 부정적으로 대할때 그것은 인간의 심적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성격을 적극적 또는 긍정적으로 대할때 군대사회는 오히려 인간에게 깊고 넓은 생의 경험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고상하고 성숙한 사랑은 종교적인 신앙에서 성장되고 실현이 가능한 것이다.

### 결 론

필자는 본론에서 군대사회의 특수한 성격과 그 문제성에 대한 해결책을, 그리고 장병의 정신무장 강화와 신앙에서 신앙의 필요성과 그 효과를 말하였다.

× × ×

사람은 같은 물에 두번 다시 몸을 씻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희랍의 철인 히포크라테스의 말이다. 이 뜻은 같은 과오를 두 번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바로 우리의 자취를 돌아보라는 명제이다. 이제 우리의 입장과 사명과 본분을 다시 돌아보아야 하겠다.

× × ×

‘나는 내일 이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이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고 한 스피노자의 말.

최후의 죽는 순간까지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한 코페르니쿠스의 말.

쓰러져가는 조국의 전선에서 용감히 싸운 성웅 이순신장군의 ‘의의 편에 서서’라는 말.

‘당신들의 빛나는 내일을 위하여 우리의 오늘을 바쳤노라’했던 위대한 용사들의 말.

이 모든 말들이 점철되어 역사의 조수를 불러일으켰다.

역사의 물결, 땀, 피, 생명, 전통을 이어받은 그 인격을 우리는 심어야 한다.

이 인격이 심어져서 결실을 맺는 날 최후 승리를 위해 전진의 대열을 이어온 우리 군인의 개선행진곡이 울려 퍼질 것이다.

이것이 인격을 의식할 수 있을 때의 기쁨이다. 군인에게 인격은 누구보다도 필요하다. 인격완성을 위해 너와 나 모두 함께 노력하는 대열로 가자.



### 1. 법의 존엄성

민주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적 권리는 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국정은 법에 의하여 운영된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법치주의, 또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의미하며, 민주주의와 국가의 발전은 모든 국민이 법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이룩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법의 지배만이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확립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민주국가에서 법을 준수하고 따른다는 것은 법이 가지는 강제

성과 실효성 및 타당성 이외에 법을 모든 국민의 공동의사의 표현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준법정신이 고취되는 것은 국민의 자율적 실천의 요구에서 유출되는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요소로 하고 있으며, 법과 제도는 이러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이념과 실현은 국민들의 자율적인 준법정신에 의존하고 있다. 국민의 준법 없이는 질서의 확립이나 경제적인 번영도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국민 각자는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의무를 먼저 이행하고,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기 전에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 마치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이 평등한 것과 같이 법은 그 제정, 적용, 집행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이다. 따라서 법은 공평, 타당성을 그 생명으로 한다. 이러한 법을 국민이 잘 준수하는 것은 질서 정연한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국가는 물론이요, 개인을 향상 번영하게 하는 길이며, 법을 가볍게 여기고, 어기는 일은 국가의 명령을 어기는 것으로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개인을 파멸시키는 것이 된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중국의 결주(桀紂)는 만승천자의 신분이었으나 법을 잘 지키지 않고, 백성을 우롱하다가 결국은 패망하였고, 탕무(湯武)는 비록 제후의 신분이었으나 법을 잘 준수하고 백성과 일치된 정치를 하여 나라가 번성하였다 한다. 또 근대에는 영국, 미국 등의 자유국가의 국민들은 전통적인 준법정신으로 오늘과 같은 빛나는 문명국을 이루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국민의 투철한 준법정신은 애국하는 첫 길이며, 민주국민으로서의 생활태도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 개개인은 평소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까지 법을 생활화함으로써 준법정신을 앙양하여야 할 것이다.

### 2. 군 사회의 특질과 군 관계 법령

이와 같은 법의 존엄성의 인식과 준법정신은 군 관계법령에 있어서도 같은 것이나, 오히려 더 엄격하다 할 수 있다. 군은 국토방위라는 특수한 사명과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엄격한 군기를 필요로 한다. 군의 구성원인 군인은 국가의 위기에 처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싸워야 하는 윤리적 의무자인 것이며, 따라서 한 사람의 군기침해가 군대 전체를 생명의 위험 아래 몰아넣을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군인은 다같은 특별권력관계에 있으면서도 일반공무원은 민간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법령의 적용을 받으나, 군인은 운명공동체적 성격

에 대응하여 요구되는 고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군 관계법령의 규율을 받을 필요가 있다.

법은 사회가 있는 곳에 비로소 존재하며, 또한 사회는 그 구성원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 없이는 존재하지 못한다. 인간사회는 반드시 사회적 제규범이 존재하는 것이고, 인간의 합리적 본성은 이를 문화적 방법에 의하여 인류생활을 획적 종적으로 보급, 보존시켜 나가는 것인바, 이러한 과정은 결국 사회의 내부질서를 위한 인간본성의 자연적 노력의 표현으로, 사회있는 곳에 법이 있다. (ubi societas, ibi jus est)라는 말은 인간집단에는 그 조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이 필요하다는 표현이다.

따라서 내부질서의 표현인 법규범의 내용은 그것이 규율하는 사회생활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사회의 성질과 법규내용과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 사회의 내부질서를 규제하는 군관계법령의 성격과 내용도 필연적으로 군사회의 특질에 의하여 일반 법령과 다른 성격과 기능을 가지게 된다.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회의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법규범의 존재가치와 그 진정한 내용, 의미 및 목적을 발견할 수 있고, 법에 있어 정의는 실현되는 것이다. 무릇 사회라는 것은 교섭, 문화, 협력, 조직 및 권위의 서열을 갖는 것인바, 이러한 요소는 군 사회와 일반사회를 비교하여 보면 많은 차이가 있다. 어떠한 사회도 구성원 간의 공동목적을 위한 협력과 조직을 통하여 공동이익과 행동목적을 갖는 것이다. 군의 조직은 그 구성원이 단일 목적을 가진 동질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결합된 것이다. 즉 일반사회의 공동목적은 각자의 개인적 목적 달성이 동시에 공동목적달성이 되는 것이나, 군 사회에는 개인적 목적과 공동목적의 구별이 없는 것이다. 군 사회의 목적은 전투에서의 승리라 할 수 있는바, 이는 헌법 제34 조(국방의 의무) 및 국군조직법 제3조(군의 임무)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유일한 목적이고, 그 구성원의 개인적 목적은 군의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군의 목적은 국가의 존립을 위한 것이므로, 그 구성원에 대하여 많은 희생적 협력을 요구하게 되며, 구성원의 자유와 안전 및 행복의 추구는 이차적인 문제가 된다.

일반사회는 능력과 성격이 상이한 이질적 인간의 집단으로 각자의 능력과 자질등에 의하여 자유로운 생활을 함으로써 사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나, 군사회의 구성원은 동질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전투에 있어 모든 군인은 훈련과 교육을 통하여 직책에 따라 부여된 업무를 완전히 수행할 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며, 개인적 지위는 고려되지 않는다. 즉 군 사회는 그 구성원인 군인 개인

보다 군인과 군을 혼연일체로 취급하게 된다. 예컨대 초병이나 상관은 개인적 의무보다도 군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호가치를 갖는다. 또한 군 사회의 권위의 서열은 군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군 사회는 조직화한 단체생활을 집단적으로 영위하고,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며, 법이 이를 보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군 사회의 특질은 군 관계법령에 있어 독특한 가치판단의 기준을 갖게 한다. 군기는 군의 생명이며, 군기의 이완은 마치 인간의 신체에 있어 동맥의 정지와 같은 상태를 초래하는 것과 같으므로, 군조직체에 있어서는 군기의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전력하여야 한다. 군기유지의 최선책은 군사법원의 준엄한 행사와 준법정신의 양양이다. 따라서 군은 군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사회와는 달리 군형법, 군법회의법, 군행형법, 군인사법, 군인복무규율 등의 군 고유의 제 법령과 군 특유의 재판, 처벌 등의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군 관계법령이나 제도는 일반사회의 것보다도 특수하고 엄격하다 하나, 이는 건전한 상식에 의하여 습득할 수 있으며, 특별히 어떠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군대는 조직적인 단체생활로서 엄격한 통제와 함께 강인한 체력과 높은 사기를 필요로 한다. 여기서

강인한 체력은 훈련, 전투 등에 필요한 신체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다면, 사기는 엄격한 규율과 제도 및 군대생활 등에 적응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기는 법의 인식의 문제로 볼 수 있으며, 국방의 임무를 맡은 군의 구성원인 군인이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국가를 위하여 바칠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가치관과 신념이 필요하며, 또한 모든 군인이 준수하여야 할 군관계 제법규와 제도가 군의 법의식에 의하여 지시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군 관계 제법규는 민주주의 원리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시에 공정하게 실시되어야만이 군의 사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삼국지에 제갈공명이 전투에서 군율을 어긴 아끼던 부하 마속을 눈물을 흘리면서 군법에 따라 참형하였다는 고사(位斬馬謖)가 있듯이, 군관계 법규는 사사로움을 떠나 대의와 공정을 위하여 엄격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 3. 정신전력 강화의 길

일반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 비행 등은 군대라 하여 전혀 없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범죄는 국방의무의 신성과 윤리성 등을 충분히 인식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군에서 내란, 외환, 간첩, 군수물의 부정처분, 군기밀의 누설, 군시설의 파괴, 적에의 귀순,

투항, 전의상실 등의 사건이 빈번히 발생한다면, 이는 국가와 군의 존망에 대한 중대한 것이 된다. 이와 같은 것은 극단적인 것으로 군 자체의 사기가 이 정도 되면 엄격한 통제나 처벌로서만은 이러한 현상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며, 근본적으로 군 전체의 군기와 사기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검소와 근면을 기조로 할 군 사회에 일반사회의 사치, 허영 등의 퇴폐 풍조 등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과 같이 병폐를 초래하게 하므로 평소의 엄격한 훈련과 정신연마로 이를 방지하여야 한다. 또 군대의 상관들의 생활태도, 내무생활, 군을 둘러싼 사회풍조와 환경 등은 군의 사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우선 이러한 요인들을 정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군의 높은 사기와 전의, 즉 엄격한 통제와 훈련을 감수할 수 있는 법의식은 국가의 역사, 전통에 대한 굳은 신념과 깊은 감동에서 배양될 수 있는 것이다. 군인은 애국심과 민족적 사명감에 충실할 때에 자기의 생명을 초개와 같이 국가를 위하여 바칠 수 있는 것이다.

높은 정신적 지표를 가진 군은 특유한 군관계의 법규와 제도가 아무리 엄격 하더라도 오히려 그 엄격성을 궁지로 삼는 법의식을 낳게 하는 것이다. 그러한 풍토 위에서 군인은 내무생활을 명랑하게 하고, 군복무를 충실히 할 수 있으며, 군은 국민의 신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복귀의 위장평화계략과 호시탐탐한 무력침략기도를 분쇄하여야 할 이 즈음에 드높은 사명감과 사기에 충만한 군대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선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중대한 사명과 임무를 지닌 군인은 준법정신에 투철하여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4. 군 범죄 실제

범죄와 준법은 Chaos와 Cosmos와 같이 상반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여기서 군대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범죄사건을 고찰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준법정신의 필요성을 고취하고자 한다.

군사범죄는 구성요건상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첫째로, 일반사회에서는 도저히 범죄로 규정하지 못할 성질의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순정군사범이라 하며, 예컨대, 자해행위(군형법 제41조), 합의추행(Sodomy, 군형법 제92조), 정치관여(군형법 제94조)와 같은 것이다. 이러한 것은 일반사회에서는 처벌가치, 보호의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군 사회에서는 그 가치가 충분히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일반사회에서 범죄로 규정한 것이라도 그 구성요건 및 양형에 있어 변경을 가하여 군의 목적에 적합하게 구성요건과 처벌을 수정

하고 있는바 이를 불순정군사범이라 하며, 예컨대, 상관 및 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상해, 살해(군형법 제9장) 및 지휘관의 직무유기(군형법 제24조)등과 같은 것이다. 셋째로, 군사범죄에 대한 군형법의 법정형은 사형, 징역, 금고에 한하고 재산형이나 신분형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엄벌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물론 군인이 형법 기타 일반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으며, 위에 열거한 형벌 이외에 재산형이나 신분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넷째로, 군형법은 일반 형법 등과 달리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를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전력유지의 주체인 군이 보호의 객체로 되고, 행위의 객체인 개인의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

군사범을 분석하여 보면, 소속군별에 있어서도 다르고, 그 원인, 범죄시의 환경, 계급, 병과 등에 따라서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고찰은 군형사정책상은 물론 군사범 운영상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것이다. 군범죄에 대한 통계에 의하면, 군범죄 형태는 군무이탈, 무단이탈, 차량사고 및 총기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용물에 대한 절도 횡령 및 기타 일반 재산범죄 폭력사건, 자해, 명령위반, 항명 기타 일반 범죄사건으로 되어 있는 바, 그 원인은 금욕(金慾), 군무염증, 음주, 부주의, 가정사정, 향수심, 처벌우려, 위협기피, 신병, 기합과도, 이성관계, 인사불만 등인바, 이는 군 사회의 특질이 군범죄원인에 잘 반영되고 있다 할 수 있다.

또한 범죄시의 환경을 살펴보면, 일반군무 중이 가장 많고, 군무이탈, 무단이탈, 휴가, 외출 및 출장중의 기간 등 엄격하고 규칙적인 군 사회의 생활에서 벗어나 긴장이 해이된 환경에 있어서 범죄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 통계에 의하면 군범죄는 계급에 따라 그 분포가 결정되어 지고 있다.

즉, 장교에 있어서 위관급에서는 진급에 따라 범죄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나 중령급에서부터는 격감되고 있으며, 사병은 신병보다는 입대 후 1-2년 경과하여 군내부의 사정을 다소 알고, 군인생활에도 익숙한 고참병에 많다 한다.





### 1. 생활은 행동이다

우리는 생활준칙으로서의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 제2465호)과 행동원리로서의 군인의 길, 국민교육헌장 혹은 총력안보의 개념 및 지도요강 등을 이미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허구많은 정훈교재들 속에 훌륭한 생활지침들이 실려있어 범람할 정도로 우리 주변에 쌓여있고, 무수한 말들이 정훈교육, 지휘관 직접교육, 부대교육 등의 시간을 통하여, 또는 각종 지시문서를 통하여 전달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문건(文件)이나 말들을 통하여 시달되고 전달된 정신이나 지침

들이 얼마만큼 실천되고 우리들의 생활 속에 스며들어 생활화되었느냐는 것은 의문이다. 그것은 인간심리의 심층과 교섭하는 과정에서 이룩되는 껍이나 어려운 일이기도 하거나 설령, 좋은 글이나 말은 아무리 하여도 지칠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소화(消化)되지 않는 포화상태에서 아무런 자극 없이 타성적으로 반복되는 현실이라면, 이제는 이런 일을 해라, 그런 일을 해서 안 된다는 따위의 그 수다한 말들을 더 이상은 말자. 이제부터가 아니라 벌써부터 했어야 할 일은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구현시키기 위한 실천적 방법을 강구하고 행동에 옮기는 일이었어야 할 것이다.

### 2. 모범시민 = 모범군인

민주국가의 군인에게 요구되는 생활태도와 민주시민에게 요구되는 생활태도에는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그 까닭은, 오늘날 총력안보의 요청에서 보면 군인이외의 국민들도 국민으로서의 병역의무는 차치하고라도, 국가의 안녕과 무관한 국외자(局外者)일 수는 없는 때문이라고 해서만이 아니다. 군인은 국토방위의 일선에서 적과 접촉하여 직접적으로 무력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일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국토방위에만 전념하도록 신분상으로 속박되어 있으며, 이를 위하여서는 생명의 안위(安危)도 돌보지 않도록 요구되고 있는데 기타 국민들과의 차이가 있어,

구체적인 생활내용이 다르며, 현실적인 생활의 여러 국면에서 기타 국민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민주적인 기본권상의 제약에 순응하여야 되는 일면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군인의 생활내용들은 구체적으로는 되풀이되지만, 군인복무규율에 규제되어 있고, 개념상의 행동원리는 군인의 길등 서두에 열거한 일련의 문건들에 밝혀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율이나 원리를 군인으로서 얼마나 준수하느냐 하는 것과 기타의 국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이 사회에 규범을 얼마나 지키느냐 하는 것은 전혀 동일한 생활태도 또는 정신자세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권리와 의무를 올바르게 분별하고 책임을 다 할 줄 아는 모범적인 민주시민의 생활자세는 곧 훌륭한 군민의 생활자세이기도 한 것이다. 단지 군인은 의무와 책임을 다함에 있어 민주시민의 기본권을 구속하는 특수한 규율을 지켜야 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요하면 목숨도 바칠 수 있도록 생활과 마음가짐이 정리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 3. 애국은 논리가 아니고 정열이다

주월(駐越) 미군 장병이 전사할 경우에 전사자의 유족들에게 보내는 현지 사령관 명의의 전문(電文)내용은 전사소식을 알리게 된 데 대한 유감의 표시와 금전(金錢)적인 문제만을 포함한다고 한다. 자유와 평화와 혹은 정의를 위하여 국가나 인류에 공헌하다가 값있게 생을 다 하였다는 유의 비록 형식적일망정 마땅히 한 마디 있음직한 전사자에 대한 찬사가 없다는 데에 비단 유가족뿐 아니라 제3자까지도 저항을 느끼게 하고, 여간 허망한 것이 아니다. 젊은 생명들이 왜 이국만리까지 가서 죽어야 했는지 알다가도 몰라질법한 일이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자유를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하고, 한 두번 뇌였다고 해서 자식을 잃은 슬픔이 가셔지고 총탄앞에서 전전긍긍하는 병사들에게 용기를 돌아줄 수는 없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한 반면에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소임을 다하게 하는 것은 기실 평소의 일상생활에서 감득(感得)되는 하나의 느낌인 것으로써 죽음앞에 초연히 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은, 자유다 조국이다 평화다 하는 개념들이 중심이 된 논리다, 혹은 철학이다 하는 어려운 말로써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이 부조리한 만큼이나 비논리적이고 인간적인 감정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애국이다, 자유·평화다 하는 형이상학적인 말의 설득자체보다도 이러한

느낌 내지 감정을 일상생활을 통하여 응결 시키는 일이 중요하며, 이러한 말이나 구호들의 반복은 군인들의 생활 속에서 왜를 따지기에 앞서 책임완수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 할 수 있는 한에서 의미가 있고, 따라서 그에 상응한 행동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 4. 왜를 초월해서

경계지역의 외곽순찰을 명받은 주월 미군병사가 도시 납득이 안 가는 임무를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데 대한 불평스러운 사연을 자기 가족에게 편지하였다는 얼마 전의 신문기사를 우리는 기억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이 자기가 죽어가야 할 까닭에 회의를 가진 병사가 죽음의 위험이 깔린 그 순찰임무에 얼마나 충실하였는지 의심스럽다.

주월 미군의 전사한 병사들의 심정은 이와 같은 데서 그 일면을 볼 수 있거나와, 그들 병사가 주어진 소임을 앞에 놓고 왜를 따지고 있었다면 모르긴 몰라도 심중팔구 미국군이 월남에서 이기는 전투를 하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최근 도하(都下)일간지에 6·25사변당시의 체험에 관한 특집이 연재되고 있는데 그 중 사변 때부터 줄곧 일선에서 복무하여 온 항공기 정비사의 말인즉 '요사이의 병사들은 이유가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유를 따진다는 것은 태도 치고는 과학적이요 논리적이다.

그러나 애국이다, 자유다, 평화다 할것 없이 어떤 일을 위하여 멸사봉공하는 태도는 과학의 용어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맹목적인 일면을 가진다. 아무리 논리 정연한 논변(論辯)을 늘어놓아도 그것들이 병사들의 마음에 심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것들은 병사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일상적으로 보고 느끼는 분위기 속에서 그들 마음의 심층에 호소되는 그 무엇들이 집적(集積)되어 가는중 부지부식 간에 형성되는 것으로 하나의 느낌으로 오는 것일게다. 그리고 이러한 느낌이 병사들 가슴 속에 충만할때 우리 주위에 싸여 있는 규율이나 행동요강, 원리에 병사들 스스로 적응하여 건강하고 규율있는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다.

문제는 병사들 마음깊이 이와 같은 느낌을 심어 줄 수 있는 실천적인 계도(啓導)의 성패에 따라서 판가름된다.

#### 5.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군은 그를 구성하는 장병이 애국심과 용기를 가지고 일체감으로 뭉칠 때 강해진다. 그리고 애국심과 용기는 이론상 군의 각자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군의 사명 또는 역할과 이의 중요성

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의 일익을 담당하는 자랑스러움과 보람을 가지는 데에서 형성되는 것이고, 이론적으로 애국심은 곧 군의 일체감을 형성하는 바탕이 된다고 보는 것이 순리이겠으나 실제적으로는 일체감을 실천적으로 형성함으로써 이를 애국심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법일 것이다.

그런데 군의 일체감이 라는 것은 상경하애하고, 동고동락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짝트는 소속감(WeFeeling) 일 것이고, 이는 부하의 입장에서 서서 인정(人情)의 기미(機微)를 자상하게 살피는 자애로움과, 대범한 안목에서의 폭넓은 도량과 사리사욕이 개입되지 않는 공평함과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갖춘 각급 지휘관의 성실한 통솔역량에 형성되며, 합리적으로 정돈된 명량한 병영생활에서 생리화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체감이 생활화되어 군을 사랑하고 지휘를 무한히 신뢰하게 될 때 임무를 위하여 왜를 따지지 않고, 생명의 안위를 돌보지 않는 용기와 규율, 또는 지시를 스스로 지키는 기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강장(強將)밑에 약졸(弱卒)은 없다 군인들이 기왕에 밝혀진 규율대로 이념대로 건실하게 생활을 영위하고 필요할 때 죽을 수 있도록 하는 열쇠는 바로 각급 지휘관들의 민주적인 통솔역량에 달려있는 것이다.

#### 가. 권위주의를 별여라

민주군대는 합의에 의한 계급사회이다. 그래서 모든 군인은 계급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객관적인 법에 의하여 복무한다. 만약 우리 군 내부의 상하의 관계를 마치 봉건시대의 신분적인 관계로 착각하여 상급자는 인간적으로 우월하다는 망상에서 오만하게 자처하고 하급자를 인격적으로 열등한 자로 경멸하며, 그래서 상급자는 부하를 개인 소유의 물건처럼 권위주의적으로 군림하는 반면 윗사람에게는 비굴하게 굴종하는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형태를 가진다면, 군 내부의 상하간에 적대감정이 싹틀 가능성이 있다.

그리하여 하급자는 상급자를 경원하고, 심하게는 증오의 대상으로 삼게 될 때 명령이나 지시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는 반발부터 앞세워 그의 이행이 순조로울 까닭이 없고, 사지(死地)로 뛰어들 용기나 충성심을 기대할 수는 더욱 없다.

#### 나. 파벌을 부셔라

민주주의는 개인주의를 기초로 한다. 이러한 개인주의에 입각한 자아(自我)의식이 확립된 인간들의 사회에서 혈연, 지연, 학벌, 문벌 따위는 순조롭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러한 전(前)근대적 잔재가 스며들 때 요원들 간에는 이질감(異質感), 불신감

또는 거리감이 싹트고 대립관계가 형성되어 아무리 일체감 조성이나 단결을 호소하여도 집단적 연대감에서 우러나는 무대의 궁지나 생사를 같이하는 전우애를 바랄 수는 없다. 모든 지시나 명령되는 일들은 날들을 위한 것이지, 자신의 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다.

다. 요령주의를 경계하라

군대는 요령을 본분으로 한다는 일본 군인들의 권위주의적 계급관에서 연유하는 부정적인 일면을 노출하는 말이다. 이러한 요령주의가 만연하면 표면상 상급자에게는 충실하게 복종하는 채 하면서 상부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때나 장소에서는 익히 알고 있는 복무자세를 문란케 할 뿐 아니라 어떠한 탈선행위도 서슴치 않기가 일쑤다. 그래서 표면상 맹목적인 상급자에의 복종을 가식하는자는 영달(榮達)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임무에 종사하는 자는 언제나 그늘에서 정채하게 되는 풍토가 조성될 때 부정부패가 성하고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하게 되어 복무규율이나 기타의 행동원리는 빛좋은 공염불이 될 것이다.

라. 진두(陣頭)에 서라

군 기강의 원천(源泉)은 지휘자의 솔선수범에 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충성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입장은 스스로가 국가와 민족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듯이, 병사들에게 우리의 복무규율의 준수나 생활화를 기대할 수 있는 길은 말보다 앞서 행동적으로 솔선수범하는 일이다. 부하에게 규정이행을 강요하면서 자신만은 예외자로 자처하고 처신하는 한 부하는 자기 부하가 안 되는 것이다.

6.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길

공인(公人)으로서나 사인(私人)으로서 군인의 생활 자세가 어떠하여야 한다는 것에 관하여는 새삼스럽게 거론할 바가 없을 정도로 알려져 있고 기실 그것은 민주시민에게 요구되는 생활자세와 근본적으로 매일반인 것이다. 그래서 그것들은 애국하는 정신과우리가 가진 것, 다시 말해서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확신하는데서 스스로 갖추어 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이론적인 설득에 의해서보다는 각급 지휘관이 행동적으로 수범하는 민주적 통솔풍토에서 싹트는 일체감 속에서 부지불식간에 터득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생활자세를 건실하게 다시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긴요한 것은 진두에서 수범하는 민주적 통솔풍토이다. 이러한 풍토를 가꾸기는 작업을 양심과 대의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면 할수록 때로는 껍이나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것을 이겨나가는 의지가 또한 소망스럽다.

무장강화를 위하여 군종장교들의 활동으로 군종업무가 실시되고 있다. 군종업무는 크게 종교활동과 정신지도 활동으로 분류된다. 군종장교들은 장병들의 신앙지도를 위하여 항상 장병들을 찾아 대화하고 있으며, 또 기다리고 있다.

위대한 인간, 아니 위대한 군인이 되기 위하여 장병 각자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다. 신앙인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확고한 인생관과 국가관을 가지게 된다. 우리 60만 국군장병이 신앙인이 되어 신앙으로 정신무장을 하게 될 때 군의 정신무장은 확립될 것이며, 공산주의에 대한 반공태세는 완비될 것이다.



우리는 모두 군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이다.

우리는 지금 내 사랑하는 조국의 현실속에서 겨레의 앞장을 서 전진의 대열을 향해 나가는 막중한 과업을 맡고 있다.

밤이 어두워도 찬바람, 눈보라쳐도 땀흘려도 이 전진의 행로에 한 대원으로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지치고, 비틀거리고 쇠잔하는 일이 있을 지라도 최후의 승리, 영광의 그 날을 위해 인내로써 극복하고 힘찬 전진을 계속하고 있다.

× × ×

우리는 모두 이 나라의 젊은 엘리트이다. 국방의 간성이다. 엘리트란 선택받은 사람을 의미하며, 임무를 멋있게 책임있게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한 나라의 운명은 이 엘리트에게 달려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다.

국방의 전위, 군인 이 젊은 엘리트의 생각과 행동- 실로 우리 앞엔 태산같은 과제가 놓여있다.

× × ×

놓여있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길이 있을 것이다.

열심있는 복무, 남 모르는 봉사, 피끓는 정열, 사명감 등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생각을 해보아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군인이기 이전에 던져보아야 할 인간적인 도전이며 인간적인 물음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인생에 있어서 꼭 해야 할 일과 그 시기와 대상은 무엇일까라는 문제에

시달리던 황제가 산야에 묻혀서는 초라한 철인에게 찾아갔다. 세 가지 절실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처구니없이 소박하고도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지금 이 시간이 지금 내 앞에 마주하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일생의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시간이요 대상이요 과업입니다.라고 한 이야기이다. 여기서 주어진 제목에 대한 답이 이미 나왔다고 생각이 된다.

× × ×

국어 대사전을 보면 인격(人格)의 뜻이 여러가지로 설명되어 있다.

심리적 면에서는 사람의 품격, 개인의 자·정·의 및 육체적 측면을 총괄하는 전체적 통일체로, 윤리적 면에서는 도덕적 행위의 극체로서의 개인 결정적이며 자율적 의지를 가진 개인으로, 법적인 면에서는 법률관계 특히 권리·의무의 주체이며, 법률상 독자적 가치가 인정되는 자격을 말하며, 종교적 면에서는 신에 대해서 인간적 자격을 갖춘 품격을 인격이라고 했다.

철학에서는 인격을 페르손(Person)이라고 한다. 이것은 라틴어 페르조나(Persona)에서 유래하는데 원뜻은 얼굴 또는 가면을 의미한다. 배우가 무대에서 쓰는 분장과 동시에 역할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역할은 저마다 저다운 성격을 가지고 사회라는 무대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페르조나는 개인의 인격을 말한다.

현대에 와서 많은 사람들은 인격의 개념에다 풍성한 내용을 부여했다.

칸트(Kant)는 이렇게 말한다. ‘인격은 우선 자각의 극체이다. 즉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의식하고 있는 것이 인격이다.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의욕하는 것을 통일하여 어제의 나 자신, 오늘의 나 자신, 내일의 나 자신의 사이에 흐르는 정신작용의 극체이며, 자유임’이라고-

이상의 관점에서 볼 때 인격이라 함은 사람의 모습, 자격, 스스로의 행위, 정신 작용 등으로서의 공통점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격이라 함은 완전히 굳어진 형태가 아니고, 형성시키는 과제이며, 완성품이 아니라 미완성으로 완성을 향해 언제나 노력이 필요함을 내포하고 있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인격은 공동사회와 역사를 통해서 또 그 안에서 개인적인 결단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형성시키고, 조정시키고, 변화시켜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 ×

군에 복무하는 동안 숙지해야 할 많은 지식이 있다.

군인의 길 군인복무 규율 국민교육

현장 기타 구호 및 규정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군인이기 때문에 해야한다는 의식이 많이 들어있다. 남들도 암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한다는 생각이 앞선다고 본다.

그러나 먼저 군인이기 이전에 이것을 숙지 시키고 싶다.

어떤 시인의 글에서

장병들이여,

내일 조국의 푸른 기수들이여,

민족의 염원이 그대들 두 어깨에 있음을 깊이 새기라.

용감한 군인, 신념의 군인, 완전한 군인다운 인격을 가지라.

내일을 위해서 그날 하루 한 순간을 알찬 희망과 노력으로 본분을 다하라.

임무를 성실히 실천하라.

그리곤 멋있게 웃어라.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격 수양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념과 긍지와 정서 속에서 군복무의 뜻과 의미가 새겨질 성싶다.

지금까지 군인은 그저 정신교육의 일환으로 사명감, 애국정신, 전우애, 희생정신을 들어왔다. 그리고 강요되어 왔다.

이제 이러한 주입적이고, 고식적이고, 막연한 교육이 지양되어야 할 때가 왔다.

이제 ‘우리가 군인이다.’라는 이유 하나만이라도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복무할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복무를 하는가?

하는 질문에 스스로 답변을 하는 자연적이고 힘찬 분위기의 교육이 요구되는 때이며 인격이 필요한 때이다.

군 사회 아닌 일반 사회교육, 학교교육 등은 앞으로 전진하는데 민주군대를 말하는 군인정신교육만 유독 주입적이고, 강제적이어서야 그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오늘날의 군인은 젊고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으며, 그 나름대로의 주관이 있음을 알아 이들로 하여금 군의 존립과 복무의 이유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군 병영생활의 도장이 되도록 선도하여야 한다.

철학적 인격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바로, 어떻게 알차게, 어떻게 아름답게, 어떻게 보람있게 살 것인가? 하는 물음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는데 있다.

마찬가지로 군복무에 대한 태도도 어떻게 바로, 알차게, 멋있게, 보람있게의 응답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인격체의 수양도장에서 성립되어야 한다.

우리는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안다. 독배를 눈 앞에 두고도 태연하게 자기가 세운 목표, 진리, 정의를 위해 죽어가는 모습을 생각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의 교훈을 볼 수 있다.

× × ×

군인도 목표, 진리, 정의가 이미 세워져 있다.

그저 시간만 보내며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수행할 까하는 인격의 행동이 필요하다.

여기에 몇 가지를 강조하자.

### (1) 책임완수의 인격이 되자

모든 일에 책임을 선행시키는 자에게 존경과 명예가 주어지나, 명예와 양명 만을 탐하는 자에겐 빈축과 경원이 따른다는 교훈을 명심하여 주어진 여건, 환경, 무사에 대한 책임있는 응답을 해야 한다.

책임을 Responsibility라고 한다. 이의 어원은 Response(응답) + Ability(능력)이다. 응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마련하고 늘 준비성있는 마음, 자신있는 마음, 태도가 곧 책임을 진다는 말인 것이다. 군인은 특히 책임을 강조한다.

군인은 언제나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책무에 방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자각은 곧 국가와 민족에 충성을 다하는 책임이 강조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자신에게 어떠한 위험이 몰아쳐도 장애나 위험이 닥쳐와도 하여야 할 것을 하는 것이 바로(A man does, what bernust)책임의식이다.

이러한 책임의식을 군 사회는 요구하고 군인은 여기에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 (2) 대화의 인격이 되자

마틴 부버(Martin Buber)는 네 가지 대화를 말했다. 독백, 대화 속의 독백, 학술적인 대화, 그리고 인격적 대화이다.

독백은 관심을 끌지 못하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대화 속의 독백은 연극에 지나지 않으며, 학술적인 대화는 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진실한 인격적 대화가 필요하다. 인격과 인격이 대화를 나눌 때 이해와 관계가 성립되며, 좋은 상태로 발전하여 동료 인간이식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곳에 전우애, 희생정신, 동정심, 숭선수범, 용기가 싹틀 수 있다.

진정한 대화, 공동생활에서의 대화는 힘과 용기를 준다. 또 불의가 굴복을 강요할 수 없다. 상경하애의 정신, 상명하복의 정신도 진정한 인격의 대화에서 이룩된다. 장병 모두가 대화를 찾자. 우리 주위의 의사를 경청하고, 상호관계를 개선하고, 말단장병으로부터 지휘관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필요한 인격적 대화를 찾자. 그리고 참다운 대화를 나누자.

### (3) 참 실력을 가지는 인격이 되자

몸은 남산을 오르내려도 마음은 북악에 걸려 있다.

몸 가는데 마음이 안 가고, 마음이 가는데 몸이 못 갈때 마음은 흩어지고 발 걸음은 무겁고 초조하고 당황한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확고한 신념,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류의 역사는 내게서 시작된다는 깊은 자각이 필요하다. 이 깊은 자각이, 바로 실력이다.

‘너 자신을 알라’고 한 것도 바로 확실한 실력을 의미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제복을 입고, 훌륭하게 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채찍이리라. 너는 군 복무에 대한 확실한 신념과 견딜만한 실력이 있는가? 라는 물음이리라. 여기에 우리는 떳떳해야 한다. 주어진 환경, 생활과제에 대해 자신있게 처리하고, 끝내고, 정리하고, 또 계획하는 실력이 필요하다.

마음가는데 손이 가지 않는 그런 흔들림은 군 사회에선 금물이다. 일체감 형성을 위해 통일된 실력이 필요하다. 아는 체하는 모름은 큰 사고를 유발함을 알아 시간이 있고, 여가가 있을 때마다 보라, 그리고 음미하라, 그리고 사색하라, 행동해 보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 성장했고 실력이 쌓였으리라. 참실력은 행동이다. 행동에 실력있는 인격이 되자.

× × ×

군생활은 사회생활의 연속이다. 사회에도 인격이 있고, 군에서도 인격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뜻의 인격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적응만 달리하는 인간 본연의 자세이다.

우리는 일정기간 동안 군복무를 하면서 나 자신의 인격에 새로운 해석을 가해 보아야 한다. 국가에 대해서, 군에 대해서, 동료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책임있는 인격이 되었나?

대화하는 인격이 되었나?

실력있는 인격이 되었나?

행동하는 인격이 되었나?

매 순간 순간에 전개되고 주어지는 업무속에서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보고, 듣고, 배우고, 노력하자.

× × ×

우리 앞에 많이 놓여 있는 과제들, 사명들, 기대들을 하나하나 소화하고, 이룩해 놓을 때, 우리의 군, 국민, 국가는 가슴펴고, 팔 다리펴고, 우리들의 노고에 고개숙여 감사할 것이다.

그리고 찬사를 보낸다.

‘대한민국 군인은 참으로 훌륭한 군인이다. 생명력이 있는 군인이다. 믿을 수 있는 군인이다’라고.

그곳에 군민유대와 신뢰가 자연히 심어질 것이다. 이것이 완전한 인격을 가진 군인이 되었을 때의 보람이요 자랑

# 군생활 소고(小考) 이 동 익

## 1. 감상적(感想的) 머리말

4년 전 봄이었다.

눈이 내리고 찬바람이 계속 일었던 그런 3월 이었다. 스산스런 날씨는 후보생의 딱지가 붙은 우리들 피교육자들의 마음을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고, 내무반 연병장, 식당, 학과장이 모두 낯설고 차디찬 감옥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난 군인이 되어 가고 있었다. 그날도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다. 학과장 안은 오히려 더 추웠다. 기다리던 교관이 들어섰다. 선글라스에 팔각모, 검게 탄 얼굴에 땅땅한 체구, 손엔 몽둥이가 쥐어져 있었다. 후보생들은 일제히 굳어졌다. 허리는 곧고 두 주먹은 무릎 위에, 턱은 당겨서 목에 주름이, 시선은 상방 15도 허공에 머물러 있었다.

“군대 생활은 말짱 헛거다!”

교관의 소리였다. 그 소리는 나와 귓속으로 깊게 깊게 울려 들어갔고 그 교관의 모습은 내 눈에 환각이 되어 번쩍였다.

결국, 그 소리는 내가 군인이 되어 가면서 군인의 입에서 처음으로 들은 군인의 소리가 되었고, 그때 그 교관의 모습은 내가 군인이 되어 가면서 가장 강하게 본 군인의 모습이었다.

그러면서 우리 후보생들의 훈련은 계속되었다. 자고 먹고 뛰고 기고 맞고 하면서 소위 군생활에 익숙해져 갔다. 모두가 백전노장처럼 서슬이 퍼런 눈을 굴리고 있었고, 모두가 통나무처럼 탄탄해졌다. 외출, 외박이 허용되고, 완전 자치제가 실시 되면서 우리 즐겁게 나날을 보냈다. 봄별도 이제 따사했고, 아지랑이도 활주로 주위에 물씬 피어올랐다. 그리고 대전서 유성간 시골길에 늘 어선 가로수에 잎들이 날로 커갔다.

그 후 후보생들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망의 소위로 임관되었다.

임관 후 4년이 지났다. 이젠 모두가 중위·대위가 되었고, 저마다 각 근무처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후보생 시절의 이야기는 점점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갔고, 그때 보고들은 소리와 모습과

소문들은 아예 기억 밖으로 밀려난지 오래다. 거의가 다 군생활의 철학을 터득했고, 자기 나름대로 생활의 시간을 요리하면서 지내고 있다. 가끔 우리들은 동기생이라는 이름 아래 술자리를 많들기도 했고, 열차나, 항공기 여행을 같이 즐기기도 했다. 그리고 대화도 나누었다. 길고 긴 만남과 대화였다.

이제 난 이런 질문을 던져 본다.

4년간의 만남과 4년간의 대화는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왔는가 무엇을 말하려 했고, 무엇을 배워 알았는가

× × ×

군인과 생활, 그 생활 속에서 우린 많은 소리와 모습과 소문을 보고 들었고,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면서 나름대로의 생활을 이끌어 나와 왔다.

때로는 단절과 도피의 소리 모습 소문에 접했고, 혼란과 용기를 보기도 했으며, 때로는 교통과 참여의 소리와 모습 그리고 소문에 접하기도 했다.

## 2. 단절(斷絶)과 도피(逃避)

우린 지금 단절과 도피의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 신(神)이라는 절대타자(絕對他者)를 거부하기도 하고, 인간 스스로를 회의하기도 하면서 불안과 부조리를 되짚으며, 20세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인간내재의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단절과 도피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단절과 도피를 강요받고 있다. 사상의 갈등, 국제사회의 힘의 원리, 먹고 사는 것 그 자체의 어려움, 기존 가족개념의 붕괴 등 정치적인 동물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동물된 입장에서 우리는 보다 복잡하고 무거운 단절을 느끼게 된다.

한편 우리 군 사회에도 군내재의 독특한 단절과 도피의 풍(風)이 저변에 넓게 퍼져 있는 것을 무겁게 느낄 수 있다.

군 사회에 내재한 단절과 도피의 기운은 어떠한 것이고, 그 상황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는 무엇이며, 과연 그러한 군 사회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군인들이 그 요소를 발견하고 전체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들은 꾸준히 던지고 있는 것이다.

군 사회는 지금 단절과 도피상황에 놓여있다.

상관으로부터 나를 단절시키고, 나를 부하에게 주지 않고 있으며, 나와 동료의 관계는 동기생의 관계를 탈피하지 못한채, 상하좌우를 막론하고 자신을 그 사회에서부터 멀리 도피시키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그럭저럭 지내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군의 위계 질서는 합리(合理)를 바탕으로 정립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치에 맞지 않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린 가끔 볼 수 있다. 가장 심각하고 문제시해야 할 것은 모든 일이 편견에 의해 좌우되는 수가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의 계획이 세워지는 것에서부터 완전히 결정이 되고, 또 그 결정이 실천에 옮겨지는 것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너무나 간단하고, 순간적인 지식과 편견이 지나치게 개입이 되는 경우가 있다.

즉 일개인의 편견으로 인한 불합리가 군이 생명으로 하는 소위 명령·복종의 위계질서를 명분으로 손쉽게 합리화되고 있다면 모순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생활은 단절과 도피의 연속일 수 밖에 없는 것 인지도 모른다.

### 3. 혼란(混亂)과 용기(勇氣)

최근 우리 공군에서는 제2전력이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현존전력의 극대화를 위한 정신전력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한 조직체의 현상(Status Quo)을 분석하고 보다 나은 상황을 도출하기 위해 특별연구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군에서는 하나의 획기적인 일이며, 꽤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군 사회는 두뇌를 가벼이 여겨 왔다. 연구의 깊어치를 경시해 왔으며 눈으로 보이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불과 일주일 안에 그 결과를 드러냈지만, 장사병의 사고구조나 가치기준을 분석한다거나, 교육제도개선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을 분석하고, 파헤치는데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우린 또 과거에 행동과 결과를 너무 중시해 왔다. 어떤 명령에 대해 조속한 행동이 중요했고, 빠른 결과를 원했다. 하나의 명령에 대한 일사불란한 실천과 결과는 군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것이다. 더구나 요즈음처럼 전격전의 양상을 띄어가는 현대전에 대비한 신속한 행동과 결과는 필수불가결의 요소인 것이다.

여기서 우린 몇 가지 문제점을 염두에 두어야겠다.

하나는 명령이전의 과정, 즉 계획수립과 정책결정과정에서 대다수의 참여와 충분한 토론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계획수립자들이나 정책결정자들이 얼마나 대의를 반영했고,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을 했는가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명령의 하달과정이다. 즉 실천과정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룹의 바탕과 자제가 어떠한가라는 문제이다. 불합리와 무관심, 단절과 도피현상이 팽배하게 깔려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의 명령이 하달될 때 그 실천 속도가 빠르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번지르르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돼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 이것은 또 다른 하나의 무관심을 유발하고, 또 다른 불합리를 누적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여기에 용기가 필요하게 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과감한 군 사회인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질 않은 것이 현실이다. 놀랄 정도로 보수적인 데가 군 사회다.

눈에 보이는 일에는 모두가 서둔다. 또 모두가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만족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는 모두가 엄두를 내지 않고 있다. 참여하는 자들이 별로 없다. 모두가 물질에만 모여 응성거리고 정신엔 아랑 곳 없다. 진정한 용기가 여기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상(Status Quo)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계획을 전제로 한 하나의 명령이 하달될 때, 그리고 그 명령이 그동안 우리 사회저변에 뿌리를 박고 있었던 불합리와 무관심에 충격을 가하는 작업일 때, 그 사회는 일시 혼란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우린 그 혼란을 감지해야 한다. 또 예측할 수 있는 혼란, 반드시 있어야 할 혼란은 되도록 빨리 일으켜야 한다. 그 일시적인 혼란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 근본적인 수술의 메스를 들기 꺼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정한 용기란 근본적인 상황에 대한 희생적인 도전이며, 그에 따른 일시적인 혼란도 감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진정한 용기를 끊임없이 발산하는 생활, 그것이 진정한 군인의 참된 생활이 아닐까 한다.

### 4. 교통(交通)과 참여(參與)

칸트는 '인간은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야스퍼스는 '상대방을 새롭게 인식해가는 과정이 바로 사랑'이라고 했다. 우리는 지금 군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어디서 어떤 생활을 하건 남과 더불어 사는 것이기에 그 생활은 인격과 인격의 관계이어야 할 것이다. 상대방은 항상 하나의 인격이며, 서로가 사랑으로 포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인격간의 관계는 폭넓은 대화와 진지한 토론으로 지속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화와 토론은 인간생활의 진수요, 한편 민주화과정에서 제일 먼저 밟아야 할 기본요소이다. 대화와 토론이 없는 모임은 죽은 모임일 수밖에 없으며, 발전이란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인격간의 관계를 전제한 대화와 토론에 의해서만이 완전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가 있다. 우린 지금 많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나라 전체가 어려운 역경 속에서 극복해야할 숭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우리 군은 군 나름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금이다. 이와 같이 사회의 전반적인

체제가 현존의 생활양식을 비롯한 제반 양식을 포용할 수 없는 상황아래서 군이라는 조직체가 그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군 사회 체제를 다른 차원에서 재정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다른 차원에서 체제를 재해석 한다는 것은 곧 그 구성원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기준, 그리고 생활양식이나 생활의 철학을 밑바탕에서부터 혁신을 하는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우린 군인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는 터이다. 궁극의 승리를 위해 칼을 갈며, 칼을 다루는 솜씨를 익히고 있는 것이다. 그 칼이 얼마나 잘 갈아져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칼을 다루는 사람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F5A기 나 F4D 팬텀기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전투기를 조종하는 사람이 어떠한 정신과,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의 철학이 민중에게 호소력과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는 철학인가 하는 것, 더 나아가서 불 때 종교와 예술, 그리고 국가의 차원에까지 승화를 시킬 수가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다 어울려야겠다. 진정한 인격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이상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을 아량으로 포용하면서 우리가 향하는 최대 공약수를 찾아 다 함께 참여(參與)하고, 서로서로 교통(交通)을 해야 하겠다.

### 웃어봅시다.

<영큼한 마음>

◇ 엘리베이터 ·결과 단 둘이 탔을 때 고장나기를 바라는 녀석들.

<맛의 차이>

◇ 외상 술맛이 좋은 것은 갚을 때의 맛이 씹쓸하기 때문.

<수상하다>

◇ 눈썹없는 그 놈들

모두 소록도 출신 아니냐!

<그 누가 말했나>

◇ 자고로 영웅호걸은 주색을 좋아해야 된다고 매일 술만 먹고 외박을 했더니 미누라가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가더라.

## 공군에 기대한다.



<서울대 교수> 장 병 립

내가 지금은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국민학교 시절에는 동네에서 유명한 개구쟁이였을 뿐만 아니라 골목대장이었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속을 여간 썩힌 것이 아니었다.

내 바로 밑 동생이 두살터우리로 태어난 탓으로 나는 주로 할머니와 할아버지 슬하에서 자라났으므로 정도 부모님보다 더 많이 들어서인지 지금도 주로 이분들이 나에게 여러 가지로 해주던 생각이 난다.

여름방학 직전에 학교에 갓 나오면 할아버지는 나를 위해 참오이를 사갖고 기다리고 있던 생각이거나, 또 내가 자라난 함흥근처에 처음으로 비행기가 왔다가에 이것을 구경하려고 국민학교에서 단체로 약 30리나 되는 연포(漣浦)비행장에 갔었는데, 이때 할아버지가 나 몰래 뒤따라와서 무엇을 사주고, 데리고 오던 생각이 난다.

이때가 지금부터 약 50년 전의 이야기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일본사람들이 처음으로 연포비행장을 닦고, 이 곳에 잠자리 비행기를 착륙시킨 것 같다.

이때 이 비행기를 본 나는 어린 마음에 나도 한 번 비행기 운전사가 되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짝 차 있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비행기 소리만 나면 밥 먹던 숟가락을 내던지고 마당에 달려나가 바라보곤 했으나 결국 비행사가 못되고 말아버렸다.

그 당시에는 비행사가 되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든가 애국적인 심리에서 보다는 창공을 씩씩하고 용감하게 거침없이 훨훨 날아다니는 것에 단지 매력을 느끼고, 이런 포부를 품었던 것 같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자라서 중학을 졸업할 때에는 일제 말엽이었으므로 좀체로 비행기 학교니 또는 공군사관 학교니 하는 곳에는 좀체로 갈 수 없었다.

물론 공부도 잘 해야 하지만 기독교 가정이라서 중학교의 추천도 받을 수 없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내가 그때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는 것을 요즈음에 와서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그때 만일 비행사가 되었다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활약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아마 2차 대전 때에 일본 비행사로 활약하다가 무의미한 죽음을 택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본다.

그러나 지금 내 나이가 17~8세경이라면 공부를 열심히 하여 공군사관학교에 지원 할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키가 작고, 얼굴색이 흰 탓으로 약전한 샌님으로 보고 있지만, 실은 중학시절에는 축구, 농구, 정구, 육상, 스케이트 선수로 활약하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스포츠맨적인 소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려서 비행기 운전사가 되려는 생각도 해보게 된 것이 아니었는가?

이제는 해방도 되었고, 국방을 우리 손으로 지켜야 겠으므로 비행사가 되려는 것이 더욱 의의가 있지 않을까 본다.

남자다운 남자라면 한 번 해 볼 만한 일이 아닐까?

점점 비행기도 발달해가고 있지만 비행기 조종기술도 향상되고 본즉 더욱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원컨대 현재 우리나라의 공군을 담당하고 있는 비행사들이 지금보다 더욱 노력하고 분발하여, 비행기 제작면에서부터 시작하여 조종에 이르기까지 어느 나라에도 못지 않는 기술을 습득하여 비행기 하면 한국산 비행기가 세계적으로 으뜸가게끔 해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또 조종사하면 한국인 조종사 아니면 안심할 수 없다는 정도에까지 이르렀으면 하는 욕심이 없지 않다. 내가 무턱대고 허황된 기대나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심리학적으로 보아 우리 반도의 사람들은 재주가 비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도 하고 있는 것이다.

삼면이 바다요 일면이 대륙에 접해 있는 민족은 대륙적인 민족의 성질을 일부 갖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삼면이 바다에 접해 있기 때문에 섬나라 사람들의 성질도 약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주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꾸준히 노력만 하면 언젠가는 서광이 비칠 것으로 본다.

## 공군에 기대한다.



<철박·동국대 불교대학장> 서 경 보

단군성조(檀君聖祖)께서 낳으신 우리 동포와 우리가 물려받은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백절불굴하는 용감한 정신으로 비행복을 입고, 빨간 머플러를 두르고, 하늘을 주름 잡으며 창공을 치솟는 광경이라든가, 편대를 짜가지고 천지를 진동시키며 날아가는 모습은 위풍당당하고 참으로 용기백배가 나는 광경입니다. 그야말로 불법을 수호하는 팔부신장(八部神將)이 기치(旗幟)와 창검을 손에 들고 허공계(虛空界)의 구름 속에서 부처님을 경호하는 것과도 같이 공군 여러분들은 우리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고 천마외적(千魔外敵)을 섬멸하는 호법신장(護法神將)들입니다.

지나고 본 우리나라는 참으로 뼈아픈 세월이였습니다. 일제 36년간의 통치를 겪었고, 또한 중공군의 한반도 개입을 뼈아프게 경험한 우리에게 앞으로의 역사적 과제는 민족의 예지와 총력의 발휘를 엄숙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즈음 중공의 확대와 불붙는 북괴의 야욕은 잠시도 긴장을 풀 수 없는 형편입니다.

오늘도 월남은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괴와 학살이 춤을 추는 전쟁, 생각만 해도 괴로운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전쟁의 첩화로부터 벗어나야겠습니다.

하지만 안일한 타협이나 비굴한 굴종을 더 이상 역사상에 남기면 안되겠습니다.

항공력은 단시간 동안에 적을 박멸시킬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국민이 가장 신망 할 수도, 또는 염려되기도 하는 것이 항공세력입니다.

물론 우수한 공군이 되는 데는 빼놓을 수 없는 첨예화된 장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는 물질이 지배해 온 것이 아닙니다.

## 공군에 기대한다.



〈소년한국 주간〉 조 풍 언

어디까지나 정신의 역사입니다.

공군에 계신 여러분!

기체가 지상을 막 뜨려는 찰나,

떠나 보내는 명령자나 시동을 거는 주행자나 똑같이 숨을 죽이고 묵상하지 않습니다. 장구(長久)를 비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 자기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의 소리에 관련시켜서 자기의 지식이나 기술에 적응하는 현명이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이와 같이 정신력을 집중시키는 것을 선(禪)이라고 합니다. 달마 이래의 선(禪)의 공헌은 호국(護國)과 호법(護法)에 관련해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선(禪)은 모든 불안을 없애고, 남보다 뛰어난 정신력과 지도력을 보유하게 해 줍니다.

여러분은 남보다 뛰어난 인간이 되고프지 않습니까?

선(禪)은 예술이요, 과학이요, 그 이상의 것입니다. 무한한 힘이 각자의 개성으로부터 쏟아져 나옵니다.

전후 일본의 부흥이 우리나라의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으나, 이는 일본 국민의 뛰어난 정신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쟁과 패망에 무시무시한 실력을 발휘했던 정신력! 온 일본국민이 무장했던 그 정신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들의 대부분(물론 지도자지만)은 시간만 있으면 참선(素禪)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온 공군이 하나같이 뭉쳐 선(禪)의 정신에 입각하여 행동한다면 우리 국민은 얼마나 마음 든든할까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토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하여 척사현정(斥邪顯正)의 활인선검(活人禪 劍)을 높이 들고, 민족적 정기(正氣)와 용기를 발휘하여야 할 때입니다.

이 척사현정(斥邪顯正)의 활인선검(活人禪 劍)은 검은 것이 오면 검은 것을 쳐 물리치고 붉은 것이 오면 붉은 것을 무찌르는(胡來胡打, 漢來漢打) 호국호족(護國護族)의 하늘에 닿아 찌를만한 긴 칼(倚天長劍)입니다.

선검일치(禪劍一致)의 사상(思想)으로 은산철벽(銀山鐵壁)과 같은 굳은 정신으로써 우리의 길을 찾아야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선(禪)은 공군에 계시는 여러분에게도 독자적인 길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소풍철이라 산과 들에 놀러나가는 사람이 많다.

모처럼 잘 놀고 일어설 때, 거기는 휴지와 쓰레기로 만수산을 이룬다. 문화국민으로서의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 국민 모두가 그렇지 않은 것이다. 국민학교생들이 단체로 갔을 때는 뒤끝이 참으로 깨끗하다. 선생님의 입에서 간단한 명령이 내리면, 어린이들은 일제히 어지럽힌 물건, 종이들을 한 군데 모으거나 쓰레기통에 넣는다. 그 모습은, 마치 그림에서 보는 이삭줍기처럼 재미나 보이고 민첩해 보인다.

십년 전에도 그랬었다. 20년 전에도 그랬었다. 그러면, 10년, 20년이 지난 오늘날에 그들은 이미 사회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지금도 오직 국민학교생만이 놀이 뒤가 깨끗하고, 일반은 지저분한 것일까?

우리나라는 병역의 임무가 있다. 지금 어떠한 직장에든, 그 병역을 마친 남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 남자들은 군대에 있을 때 몇 가지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쓰일 훈련도 단단히 배웠던 것으로 안다.

즉, 시간 지키기, 환경의 정리, 의사 전달의 명확, 책임의 완수, 그리고 명령사항에 대한 착실한 복명.

이상의 일은 군대에서 엄격히 지켰던 일이 그대로 사회에 쓰이는 훈련이었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여러 방면의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훈련을 받아본 일이 없는 듯이, 시간을 잘 안 지키고, 환경에 무관심하고, 불분명하게 말을 전한다. 그중 답답한 것은 상사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고 나서 그 복명을 앓고 주저 앉아버리는 일이다.

나는, 이러한 것에 생각이 미쳤을 때, 재학시나 또는 군대 재적시에 받은 훈련에 무엇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고 의아하는 것이다.

선생님의 명령이니까 쓰레기를 주웠고 군대에 규율이니까 명령대로 움직였을 뿐이지, 훈련 중에 자각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다.

스스로 판단하고, 훈련의 바탕을 잘 살려서, 사회에서도 응용하는 이야기로 그것은 자기의 짧지 않은 훈련 기간의 체험을 유효 적절하게 쓰는 것이라 하겠다.

이 모든 결합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자립 정신의 결핍이 그 요인이다.

국민학교생들이 제 눈에 보기에 안 돼서 일어나 쓰레기를 줍지 않고, 선생이 주으라 하니까 마지못해 일어서면, 이는 그 행위가 교육적 가치로는 별로 소득이 없는 것이 되고 만다. 군대 복무도 마찬가지다.

군대라는 집단은 반드시 전투만을 교련하는 곳은 아니다. 현대 사회라는 메카니즘 속에서 생활함에 필수적인 질서를 군대생활에서 터득한다. 그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서는 새로운 창의까지도 깨닫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중한 체험을 스스로 무로 돌리는 것은 본인을 위해 안타까울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도 손실이다.

공군 장병 및 사관학교 생도 여러분에게, 내가 바라는 말은 사실상 다 끝난 셈이다.

우리는 공군 캠퍼스 안에 몇 번 발을 들여 놓은 일이 있는데, 거기는 살기 등등하고 경계 삼엄한 군영 같지 않고, 과학을 추구하는 아카데미, 또는 스포츠의 활기가도는 젊은이의 정당같은 느낌이 드는 곳이었다.

여기서는 용사가 배출하겠지만, 동시에 신사가 육성되리라는 믿음이 있다.

공군의 역사는 비행기의 출현 이후니까 타군에 비해 역사가 무척 짧다.

짧기 때문에 새로운 맛, 즉 스마트한 맛이 전통으로 이어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나는 공군 출신이 군대에서 몸에 익힌 훈련이 사회에서도 지켜지고, 그리고 사회에 파급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그대로 씌어지지 않는다는 무슨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원인은 군대에서 분석해 시정할 일이지요, 결코 군대를 나와서 몽땅 망각하고 말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연구★

### 사무조직과 인간관계

손 용 기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연구”라는 큰 제목을 걸어놓고, 몇 개의 소제로 나누어 편집계획이 세워진 모양이다.

그 가운데, 본인에게 돌아온 것이“사무조직과 인간관계”라는 소제이다. 펜을 잡고 몇 자 적다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곤해서,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셈이 된 것이 몇 번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저 나름대로 까닭이 있다.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는 세 가지 개념(업무능률, 사무조직 그리고 인간관계)이 너무 다의적이고 또 보는 이의 생각에 따라 구구한 해석과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무엇이 업무능률을 의미하는가? 무엇이 사무조직인가? 그리고 무엇이 인간관계인가? 이 세 가지 어휘에는 비단 관리(Management)라는 학문을 동원할 필요도 없이 적어도 여러 사람과 집단생활을 함께 하는 조직인(Organizationman)으로서의 견해에 따라 일가언을 말할 수 있는 경험적 관리자이기 때문이다.

#### 1. 해석의 여러 가지

##### (1) 업무능률

업무능률에 대한 해석은 대체로 이렇다. 업무능률을 권한과 책임관계에서 구하는 견해가 있다.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이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 이야기하기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이 고루 배분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만 묻지 권한이 따르지 않는다고 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권한과 책임이 고루 갖추어진다는 주장이다.

또 한편 업무능률은 그 사무의 분석기술을 도입하여 인력을 배분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기법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즉 정보(자료)의 표현과 처리 그리고 사무처리를 위한 설계와 개선기법,

나아가서 작업측정기법의 활용이다. 그 밖에 사무소의 관리나 사무의 자동화를 포함하기도 한다.

또 업무능률에 대한 해석의 하나는 업무능률 = 업무성취도(Achievement)로 보는 주장이다. 그리하여 업무성취도를 다음과 같이 유도해 낸다.

$$\text{업무성취도} = f(\text{능력})(\text{동기부여})$$

개인의 능력과, 하고자하는 의욕의 고취여하에 따라 업무의 성취도를 측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몇 가지의 해석은 모두 인간의 종합적인 행동이라는 점에서 모두 타당한 견해이기도 하다.

## (2) 사무조직

사무조직에 대한 견해는 더욱 구구하다.

어떠한 조직 형태(계선이나 참모조직)이건 조직구조는 각 직능(Functions)의 분업, 분담이며, 협동체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사무조직은 이러한 조직구조의 기본직능을 수행하기 위한 보조적 기능의 체계화를 의미한다. 보조적 체계화는 곧 특정 조건을 가진 정보처리 작업 과정의 일원화를 말한다.

또 다른 하나의 견해는 다음과 같은 사무체계의 기본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정보(자료)의 발생에 따라 이를 수집, 축적, 분류 그리고 선택에 따라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절차를 의미한다.

그 밖에 사무조직의 해석으로써 인간관계와 결부시키는 견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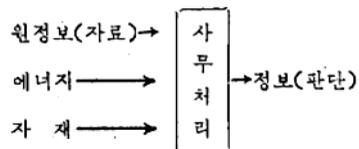
인간관계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1930년대의 "호손연구"(Hawthorne study)에서 부터이다. 이 연구는 참여관리의 일원으로서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협동체계의 강조에 있었다.

이러한 강조를 어디에서 구하느냐?에 따라 인간관계의 기법은 구구하다. 인간관계 향상을 위한 연구의 기초는 인간의 동기부여(본능적)내지는 Personality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인간관계의 통상적인 해석은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사람의 됨됨(개인의 주관적 내지는 전통적 가치)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 2. 사무조직과 인간관계

앞서 여러 가지 해석은 모두 일면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사무조직과 인간관계라는 관점을 서로 관련지어서 생각할때 여기에는 인간관리를 전제로 하는 사무조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은 먼저 특정한 업무를 분담하는데 관련지워서 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려는 능력을 위주로 하여 직능인적 성격



을 가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간은 직능인으로서 한정된 존재는 아니고, 복합적 요소로서 직능적, 합리적 요소를 가짐과 동시에 또 심리적, 감정적 인간 요소를 가진다. 사무조직은 인간의 활동을 조직목적에 동원하는데 있다. 이 인간활동의 동원은 단지 인간의 손과 발을 물리적으로 동원하는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두뇌 또는 마음의 동원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사무조직에 있어서 인간관계의 구체적인 문제로 집약되는 것이다.

### (1) 비공식적 조직

비공식적 조직하면 우리 공군에서는 여러가지 관리자 교육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 이론적 배경이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결합된 여러 인간활동 내지는 협동체제라고 하는 공식적 조직은 제도화되고, 의식화된데 근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그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이 형성된데 반해서 비공식적 조직은 의식적인 것도 아니며, 인위적인 것도 아닌 자연발생적인 조직이다. 그러므로 비공식적 조직은 제도화된 것도 아니며, 명확한 목적을 가진 것도 아니다. 다만 친밀한 대면접촉의 교체나 협력으로부터 발생하며, 개인의 사회적 만족과 개인적 호감에 기초를 두고, 개개인이 하나의

통일체를 갖는다. 문제는 이 공식적 조직과 비공식적 조직과의 상호관계이다.

먼저 비공식적 조직은 공식적 조직인 조직목적에 앞서서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그 때는 조직의 공통목적은 받아들이고 의사가 소통되며 협력체계를 이룰 수 있다. 즉 개개인의 심리적 상태를 목적의식에 규합시킬 수 있다. 이것이 사전접촉이요, 예비적인 상호교섭이다. 그러나 오늘날 규모조직에 있어서는 비공식적 조직이 공식적 조직 목적에 앞서서 간단하게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 현대적 대규모 조직의 특성이며, 또한 고민이다. 즉 공식적 조직을 계기로 하여 인간의 밀접한 접촉이 생기며, 인간의 감정을 기초로 하여 비공식적 조직이 형성되어 간다. 그리하여 그 비공식적 조직이 조직관리상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비공식적 조직에 있어서는 공식적 조직보다 단결력이 강하다. 거기에는 합리성을 따지기에 앞서서 긍정적인 태도, 이해, 습관 등으로 인해서 이미 커다란 규범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공식적 조직은 공식적 조직 속에 있으면서 그것과는 별개의 세계를 만들고 조직성원은 공식적 조직의 규율 속에 살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비공식적 조직의 사회적 규범을 항상 받고 있다. 이 비공식적 조직의 규범은 공식적 조직의 목적달성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 공식적 조직의 목적달성에 보완적이고, 촉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공식적 조직관리상 비공식적 조직의

존재를 무시할 수는 없다. 어떠한 조직이건 거기에는 인간의 조직이기 때문에 비공식적 조직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그 조직은 공식적 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저해하는 조건을 배제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기법이다.

## (2) 동기부여(Motivation)

전통적인 조직관리에서는 관리자나 감독자가 어떤 업무를 계획하고 표준을 설정하여 이를 명령하고 부하에게 실천을 요구해 왔으며, 그 실천을 위해서 적극적인 수단이 임금(Wages)이었다.

그러나 1930년대 메이요(Mayo, E) 나레트리스버거(Roethlisberger F, J)가 전개한 인간관계론에서 인간은 단순한 기계처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가지며 의사를 가지고, 또 대인관계나 비공식적 조직 등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 아무리 엄격한 명령을 한다 하더라도 업무수행의 진척이 없다.

그러므로 자발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동기부여 없이는 높은 근무의욕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물론 인간생활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경제적 욕구이다. 그래서 인간을 경제인(Economic man)이라고 일컫는 까닭도 있다. 그러나 그 밖에 인간의 감정을 움직이고 자기 일에 대한 자량이나 책임감이 높아질 때 근무의욕은 고취된다. 그러므로 하고자 하는 의욕의 고취는 인간의 욕구구조의 인식과 그의 적절한 관리에 있는 것이다. 원래 욕구에 대한 연구는 본능의 연구에서부터 많은 의견과 주장을 달리하고 있다. 오늘날 인간관계론에서나 행동과학에서 많은 조사를 통해 욕구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전개하고 있다.

### ① 생활유지의 욕구(생존의 욕구)

인간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욕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적 욕구이다. 자신의 생존, 나아가서 부양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임금과 같은 경제적 보수가 필요하다.

### ② 안정과 안전의 욕구

인간은 현재의 생활뿐만 아니라 장래에 대한 생활의 계속을 위하여 임금에도 생활보충적인 내용이 요구되며, 고용의 안정을 구하게 된다. 그리고 인간은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추구하게 된다.

### ③ 집단적 (사회적) 욕구

사람은 고립해서 살 수 없다. 가족과 더불어, 그리고 직장에서는 동료와 더불어 여러 가지 조직활동을 영위해 가면서 자기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 ④ 인격적 혹은 자주적 욕구

인간은 가치창조의 동물이다. 인간은 능력이나 노력을 공평하게 인정받고자 한다. 그리고 자기 발언권을 인정받으려 한다. 그리고 자주적인 행동(독립심)을 하려 한다.

### ⑤ 자기실현의 욕구

인간은 항상 잠재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성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간은 점차 성장함에 따라 다른 사람의 판단에서 자기 판단에 의한 행동으로 옮겨가려 하고 또 한정된 행동양식으로 부터 다양한 행동을 하려고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일시적인 관심으로부터 깊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려 하는 것이고, 직관적인 판단으로부터 장기적인 안목에서 행동함으로써 자기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아지리스(Argyris, C)나 맥그리고(Mcgregor, D)는 이러한 성장 혹은 향상을 구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설명한 다섯 가지의 욕구는 학자의 주장에 따라 약간의 표현을 달리할 뿐 인간행동의 본질적이고, 단계적인 설명에는 포괄적인 것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러한 욕구는 어느정도 충족되었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따라서는 높은 욕구수준(Aspiration level)을 가졌을 경우, 즉각적인 만족은 할 수 없다. 충족도와 만족도는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인간은 욕구충족의 동물(Need seeking animal)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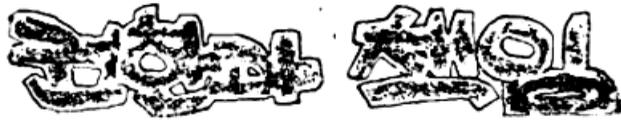
## (3) 협 동

조직관리상 인간관계의 첫째 문제는 협동에 관한 연구이다. 오늘날 인간관계를 강조하게 되는 하나의 까닭은 산업사회에 있어서 새로운 협동체계의 확립이라는 과제에 연유한 것이라 하겠다. 인간관계론은 과학적, 물질적진보, 능력의 향상에 반비례해서 고독이나 개인위주의 활동 그 밖에 여러 가지 혼란을 해결하는 과제로서 등장한 것이다.

옛날에는 협동이란 전통과 습관에 기초를 두고, 가족적인 협동체계(수직적 협동체계)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산업사회에서의 협동체계는 과학적 관리 체계에 맞는 새로운 협동체계의 확립이 요청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의 목적의식의 명확화와 그 목적에 따른 조직 성원의 수용성(Acceptance)에 있는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직성원의 행동을 무엇일(What), 그리고 왜(Why)라고 하는 점의 이해를 전제로 하는 행동의 요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민주적 협동체계로서의 인간관계의 확립이며, 공식적 조직의 발전인 것이다.



지 승 통

(1)

공군에서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초급지휘관(비행대대장) 생활을 가질 기회가 있었다.

미국 George Washington 대학에 파견되어 인간 관계를 중심으로 한 행동과학 분야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일년쯤 지난 때였다.

당시 공본에서 근무하다가 돌연 명예 의하여 ○○비행대대장으로 취임하였던바 이, 비행대대는 타 전투비행대대와는 상이한 점이 자대 내에 지원대를 갖고 있었고, 더구나 동 Level의 전투대대를 지원해야 되었었고, 같은 규모의 육군대대와는 물론, 미군 비행단과도 공존하여야 할 아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이다.

비행대대장이 되기 전에는 전투비행대대 내에서의 편대장직책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설혹 군사관리 이론면에서는 충분히 교육을 시킬만한 입장이 되어 있었고, 실제로 공군대학에서 학생장교에게 교육도 실시하였으나 이론과 실제란 커다란 차이가 있었음을 2년 동안의 대대장 생활에서 몸소 느꼈음을 말하고 싶다.

군대 생활이란 일반사회생활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 중에서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아마도 명령 즉 강제력의 유무에 있다고 본다. 본시 사람이란 남에게 명령을 받기를 원래가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군사행동 그 자체는 이것을 요구하게 마련이고 이것이 있음으로 군대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명령이야 말로 군대의 전부가 아닌가 생각되며, 또한 이것이 군 생활을 일반사회에서 말하기를 단순한 생활로 보는 점이 되어있지 않는가 생각된다.

이와 같은 명령을 중심으로 해서 야기되는 문제가 바로 권한과 책임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필자는 이러한 권한과 책임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초급지휘관으로서의 느꼈던 바를 써 볼까 한다.

(2)

필자가 지휘하였던 조종사는 약 ○○명이었는데, 모두가 Helicopter 조종사였다. 그런데 이 Helicopter란 항공기는 비교적 전투기처럼 화려한 생활은 못된다. 그늘에서 지원비행대대로서의 일선전투비행단의 지원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런데 업무 자체로 보면 무척 각양각색이어서 VIP 수송에서부터 시작하여 각종의 사고처리까지 맡아야 하며 더구나 단기(單機)출동하기 때문에 명령을 내리는 대대장의 고심이란 대단하였거니와, 전투기처럼 편대장 분대장이 쫓아다니면서 충고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보면, 단기 출동하여 돌아 올 때까지는 마음이 한시도 편안하지도 못하였다.

또한, 출동하는 조종사도 주어진 권한보다는 책임이라는 무게 때문에 많은 고심이 있었음을 보고 들을 때마다 느끼곤 했다. 더구나 전투기 처럼 Base to base 비행도 아니고, 시간의 제한도 없이 임무완수를 위하여 전국을 돌아다닐 때 Case by case로 비행 판단까지 정확히 하여야 함으로 그 숨은 노력은 짐작이 가고 남음이 있다.

더구나 이미 제대하였지만 2, 3년 전에 동해에 추락한 미 군용기 조종사 구조를 위하여 50마일이나 해상비행을 하여 임무를 완수한 안중령의 철저한 책임감에 대하여는 Helicopter를 타보았기에 느끼는 점이다.

대다수의 조종사가 주어진 명령에 대하여 기대 이상의 책임감을 갖고 자기의 권한 내에서 좋은 작전업무를 수행하여 주었기에 본인은 대대장의 재임시에 별다른 대과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간혹 자기의 권한을 지나치게 주장하는 나머지 부대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망각하는 장교도 간혹있기는 하였지만 이는 대대생활이라는 좁은 테두리에서 너무나 변동없는 생활의 결과인 듯하다.

대대장이라는 직책은 대대원을 잘 보살피 주어야 하고, 심지어는 개인생활 하나하나까지 늘 관심을 갖고 대하여야 되거니와 무리한 명령이지만 하여야 겠다고 결심하면 이것을 추진하여야 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권한보다는 책임인 직책이라고 보는 것이 옳은듯 하다.

대대장을 그만두기 전 수개월전에 VIP전용 Helicopter 도입이 있었다. 마침 정월 초하루에 도착한다 하기에 12월 말일부터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다가 2일 날인가 도입된 듯하다.

이때 가장 고마웠던 것은 정비장교가 묵묵히 정초에도 아무말 없이 무사히 이 험겨운 작업을 완료하여 주었던 일이다. 더구나 겨울이라 무척 날이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올지도 모를 할공기 때문

에 일과 개시전부터 대기하여 주었던 일...

또한, 이미 제대한 준위(정비사)가 자기의 개인의 딱한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후배 정비사 양성을 완료하고, 제대하여 달라는 대대장으로서의 부탁을 괴로웠겠지만 들어주었기에 계속해서 항공기 정비에 만전을 기할수 있었다는 점은 무엇보다 다행한 일이었다. 물론 정비사로서의 복무연한(권한)을 마쳤기에 규정에 의하여 그만두겠다고하며 대 대장으로서도 속수무책이었지만 공군에 대한 애착과 책임감이 아마도 그 동력이 되었으리라 본다.

서독공군의 F-104가 많은 사고를 내서 한때 서독공군에서 커다란 문제가 된 일이 있었다 한다.

그 중요한 내용(원인)이 바로 정비사가 임기가 되면 제대를 하기 때문에 숙련된 정비사 확보에 지장을 일으켜 이것이 원인이 되었다 한다. 물론 이것은 제도상의 맹점에서 온 것이지만 책임감의 결핍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보여준 좋은 사례인 것이다.

지나치게 권한을 추구하다 보니까 물론 명문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후배 양성이라는 도의적인 책임의 망각에서 오는 커다란 국가적 손실이 야기된 것이다.

군 내에서의 대우 문제가 일반 민간 항공회사보다 못함으로써 일어난 예가 바로 서독공군의 예였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정비장교 및 고급기술사관(준위)이 자기의 권한을 희생하여가면서 도의적인 책임을 완수하여 준데 대하여는 아직껏 마음속으로 고맙게 생각이 된다. 그렇지 않았던들 아마도 대대장으로서 비행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항상 안 놓였을 것이다. 물론 비행 안전에 있어서는 조종사의 비행기술도 중요하지만 나의 오랜 생활의 경험으로는 이것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정비기술의 우수성에 두고 싶다.

### (3)

이상은 나의 초급지휘관 생활 때의 핵심을 이루었던 작전분야에서 느꼈던 권한과 책임에 관한, 내용이었고, 다음은 타 부대와와의 관계에 대하여 느낀바를 써볼까 한다.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타 대대를 지원하는 입장에 서고 보니 무척 내 나름으로는 힘을 쓰지만 역시 한국 공군이 물자면으로 충분하지 못한 여건으로 인하여 원하는대로 지원이 되지도 않거니와 무엇보다도 피지원대의 지원을 받을 권한과 지원하여야 할 책임이라는 관계는 상호간의 이해로써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 바가 있다.

더구나 지원부서의 일반장교는 작전분야의 긴급성에 대한 이해가 간혹 결핍될 수도 있고, 작전분야의 조종사는 지원업무의 복잡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를 갖는 것도 상호관계에 좋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가끔 지원부처의 장교가 와서 작전분야의 장교가 자기의 업무분야를 침해한 데 대하여 지휘관인 나에게 불만을 표시하는 일이 있었거니와 또한 반대로 지원업무가 너무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항의를 받은 일도 있지만, 역시 이 사이는 이해력의 부족에서 야기되는 것이 태반이고, 차분히 이야기하면 양쪽이 다 수궁이 가게 마련이었다.

작전계획 수립시에 고려되는 문제점 중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무리 우수한 방안이 수립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능력의 가부가 결국은 결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휘관 상황판단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상황판단에 의하여 취하여야 할 작전명령 권한도 이를 수행할 수 있는 후방지원에 대한 고려(책임)가 절대적이다.

전쟁사를 통하여 보더라도 2차대전 당시의 인파루 작전이 가장 좋은 예였고, 가깝게는 한국동란에서도 엿볼수가 있었다.

좀 내용이 빗나간 감이 있으나, 흔히 우리들 주위에서는 권한과 책임을 중심으로 군대생활 속에서 야기되는 문제가 많다.

1950년 6·25동란과 더불어 군대생활이 시작된 우리 세대는 별로 권한이라는 말을 써 본 일도 없고, 명령이면 절대적인 것으로 되어 와 있고 지금도 그리 변함이 없다. 따라서 책임이라는 점에는 상당한 신경을 써왔다. 근래 주위에서 보는 젊은 장교들은 곧잘 권한에 대한 주장을 한다. 그런데 문제가 권한만큼 책임감이 강하지 못한 것 같다. 일본 군국주의 교육의 영향을 받은 우리 세대가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성장한 젊은 세대와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권한이란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권리가 아닌가 본다.

이론적으로는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정확히 알아서 군대업무를 원만히 수행하여야함이 논리적이기는 하나 인간사회란 그렇게 기계적이 아니라는 것이 본인의 경험의 결과였고, 인간의 사회생활이란 Hawthorne study에서도 표현되었듯이 정(Emotion)이 저류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생명체와 마찬가지로이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연구의 좋은 결과에다 이와 같은 인간적인 면을 가미하여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바로 바람직한 권한과 책임의 상호관계를 도출해 내어 주는 길이 아닌가 생각된다.

# 조직의 개혁

김 광 영

## 1. 조직 점검

원래 조직은 내외의 여건이 크게 변화해갈 때에는 고정화한 조직형태를 지속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에 적응하여 보다 효율적인 조직을 선택해 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조직의 개혁이나 재편성을 필요로 하는 조건변화의 와중에서는 다음 사항을 들 수 있다.

첫째, 새로운 경영방침이 안출되며 영업부문의 강화·확충과 관리부문의 삭감, 그 소수정예화 등 소위 중점주의(엘리트주의)가 채용될 경우에는 이러한 방침을 현실의 활동상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당연 조직개혁이 신경영방침의 책정에 부수하여 검토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규모가 크게 되거나, 또는 사업하는 일에 대폭적인 변경이 야기되는 경우에는 종래의 조직형태하에서 이와

같은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직내외의 상황과 여건, 그리고 취급하는 업무와 비중이 크게 변하고 있는데, 담당부문의 조직이 종래대로라면 업무의 부하가 언밸런스가 되어 한편으로는 업무의 정체가 생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원의 유향화가 생긴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신규사업계획이 세워지고, 새로운 사업분야에의 진출 등 소위 다각화의 방침을 안출하는 경우에는 이 사업을 경영조직 중에서 어떻게 위치 지우며 어느 조직부분에서 담당하는가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신규사업이 궤도에 오르는가의 여부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쉬운 조직이 편성되어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경우도 많은 것이다.

이와 같은 조직의 내외조건의 변화는 당연히 조직개혁 내지 재편성을 필요로 하게 하지만, 이러한 조건의 변화에 관계없이 정기적인 조직점검을 행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조직의 점검에 당하여 주의하여야 할 체크포인트의 주요한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현행 조직은 조직체의 목적과 그 목표 활동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가?

- (2) 조직체의 방침, 명령, 지시는 조직체 멤버 사이에 스프스하게 통하고 있는가?
  - (3) 관리자와 일반 멤버 사이에 권한과 책임이 적절하게 배분되어 있는가?
  - (4) 감독자 일 인당의 배치인원과 담당업무는 적당한가?
  - (5) 직접직업부분과 간접부분의 비율, 즉간비율은 적절한가?
  - (6) 업무의 부하가 커서 업무가 정체하고 있는 부분이나, 반대로 업무가 적어서 인원이 유향가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 (7) 관리의 각 단계의 의사결정 방법은 문제가 없는가?
- 이러한 체크포인트를 중심으로 조직의 정기적 점검을 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2. 조직개혁의 방향

현행의 조직을 점검하 새로운 조직에의 재편성을 고려할 때에 특히 주의를 요하는 문제가 있다.

첫째, 현재의 실태나 조건을 철저히 검토하여 그 체질에 맞은 가장 적합한 조직을 선택하여 일정한 이념이나 사상 혹은 원칙을 갖고 새로운 조직을 계획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제까지의 전통적인 조직이 낡았기 때문에 모두가 틀린 것은 아니고, 낡은 조직 중에 새로운 의의를 발견할 수는 없는가, 구체적으로는 유향화되어 있는 조직을 폐지하기 전에 그 활용을 고려할 수는 없는가를 검토할 일이다. 이 두가지 점을 무시하고 유행에 좌우되어 신조직을 도입하거나, 모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조직개혁에 당하여 일정한 이념이나 일정한 원칙을 기초로 한다고 하는 경우 실제로는 어떠한 원칙이 있을 것인가? 조직개정의 중점 원칙이라고 생각되는 최소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들 수 있다.

- |                    |                         |
|--------------------|-------------------------|
| (1) 책임체제의 확립       | (6) 분권관리의 철저            |
| (2) 조직의 간소화        | (7) 관리계층의 단축            |
| (3) 조직의 기동화        | (8) 관리직의 삭감             |
| (4) 톱 매니지먼트 기능의 확립 | (9) 스태프 부분의 삭감          |
| (5) 인사의 쇄신         | (10) 조직체의 목적 중점의 조직 재편상 |

모든 조직체는 조직의 간소화를 피하면서 조직의 질적 강화를 도모하고, 그것을 책임체제의 확립, 목적지향적(목적중점의) 조직재편성, 조직의 기동화, 톱 매니지먼트 기능의 확립 등에 의해서 모든 조직은 전진적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한다.

## 3. 조직의 간소화

조직을 새로이 편성한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후에 보면,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나 중복된 업무 내용을 가진부분이 발생하는 수가 있다. 그런가 하면 세분화하지 않고, 통합하는 편이 기능적으로 움직이기 쉬운 부분을 어느새 분화시켜버리는 수가 있다. 이러한 조직의 중복, 유사조직의 발생은 조직체가 급속히 성장하여 사업내용이 다기화하고, 관리조직의 근본적 검토를 가할 여유가 없거든, 근대적 관리조직을 정비하고자 하는 관점에서부터 조직을 세분화하여 편성하고 있는 중에 업무내용-관리내용이 유사한 조직이 각 소에 발생해버린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직 간소화를 위한 부과의 통합이 필요한가의 여부에 대하여서는 다음의 제규정을 근본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 (1) 직무권한 규정
- (2) 직무분장 규정
- (3) 업무 절차
- (4) 각종 위원회 규정
- (5) 각종 회의 규정
- (6) 경리 계산 규정
- (7) 품의규정(稟議規定)

이러한 규정은 각 조직의 실질적인 업무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직개혁이나, 조직 간소화를 단순히 조직도상에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조직에 있어서 담당되어 있는 업무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한 뒤에 비로소 조직의 개혁과 통합이 제기되어야 한다. 조직의 개정에 있어서 기본 나는 대로의 조치는 금물이며, 특히 조직의 간소화를 관리층의 축소라는 방향에서 생각하는 경우 관리직의 삭감에 수반하는 처우가 대두되며, 그렇지 않더라도 조직 개정에는 인사이동이 필연적으로 야기된다.

이와 같은 복잡한 이동을 수반하는 조직개혁을 단순한 순간적인 기분이나 충분한 조사 없이 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대폭적인 조직개정을 단행하는 이상 그 나름의 신중한 객관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조직 개정을 위하여

첫째, 앞서 열거한 각종 규정의 조사, 직무, 권한의 분석, 면접조사 등을 반드시 실시 해야 한다.

둘째, 이와 같은 조직 연구의 결과 새로운 조직으로 개정하는 경우 신조직의 원안을 책정함에 있어서 다른 조직체의 조직을 충분히 연구하여 두는 것도 필요하다. 동일한 문제에 봉착하여 타 조직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조직의 연구, 개정안의 작성을 담당하는 위원회나 담당부문을 명확하게 정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둔 후에 개정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4. 조직의 낭비배제

조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경우에 조직상의 낭비가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조직상의 낭비는 대개의 경우 의사결정의 방법에 관하여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각종의 위원회를 비롯하여 부장회의, 과장회의와 그 밖의 협의회 연락회의가 조직되어 있다. 이러한 회의의 수만큼 정확히 말하면 회의시간만큼 관리자가 관리부문으로부터 탈출하여 관리부재의 상황으로 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일일이 의견을 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간단한 문서로 보고하면 끝날 사항에 대하여서까지도 우정회의를 여는 경우가 있다.

더구나 이와 같이 해서 집단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책임소재가 아주 불명확하며, 회의에서 결정하였다면 마치 민주적인듯하여 듣기가 좋지만 그에 소요된 관리자의 시간은 관리부재의 시간이며, 그 결정의 책임이 불명확하게 된다는 마이너스가 있음에 주의하여야만 한다. 회의식 조직이 조직체내의 관리의 각 계층에 설정되는 것은 그만큼 의사소통을 좋게 하고, 또한 다각적인 견지에서 의사결정이 행해진다는 민주주의적인 장점이 있지만, 중요성의 정도에 관계 없이 회의에 의하여 결정이 행해지고, 회의의 빈도가 잦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집단적 의사결정에는 책임회피라는 요소가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조직의 기동성의 발휘라고 하는 문제는 실은 기동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 있는 조직이리는데 불과하며, 이 점에서 보면 즉각 결정을 내려야 할 문제가 회의에서 오랜 시간을 허비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점과 실제로 결정이 내려지는 시점 사이에 커다란 시간 지체가 생겨 결국 결정이 내려진 때는 상황이 변화해 버렸다는 사례까지 있을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 의사결정이 정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회의식 조직의 운영상황 등은 조직분석의 하나로써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결과에 따라서는 중요하지 않은 회의나 위원회는 그 폐지를 고려하여야하며, 조직의 의사결정의 방법이 업무를 정체시키고 있음이 명백해지면 권한의 위양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문제가 명백해진 이상, 전통적인 조직을 고수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 5. 결론

조직의 효율화를 여하히 하여, 실현하는가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다루었거니와 간단히 요약하여 매듭을 지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의 개혁이나 재편성을 필요로하는 조건이 있고, 그러한 조건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직도 의당 어떠한 형태로든 개편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그러한 조건·여건의 변화에 의하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조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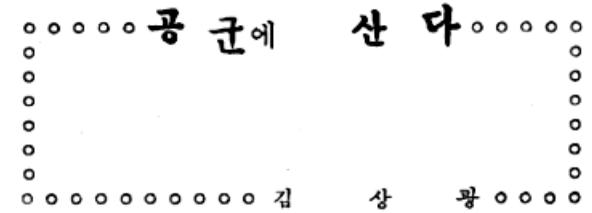
진단을 시행하여야하며, 그 체크포인트는 이미 열거한 바와 같다.

둘째, 조직개혁에 대하여는 그 개혁이나 신조직의 도입에 즈음하여 어떠한 이념이나 원칙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의 조직재편의 중점원칙은 책임체제의 확립에 놓여있음이 그 특징이다. 여하튼 이 중점원칙 없이 단순한 순간적인 기분이나 모방만으로 착수해서는 안 된다.

셋째, 조직의 간소화를 생각할 때에는 조직을 내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각종의 규정을 상세히 분석·검토하여 유사업무와 중복업무를 검토하고, 그런 연후에 통합·간소화를 피하여야 하며, 조직도상으로만 조직간소화를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다. 현행조직이 편성되고서 얼마간의 세월이 경과하면 유사부분과 중복부분이 발견될지도 모른다. 이 경우에는 우선 조직에 관한 각종 규정부터 하여야 한다.

네째, 조직상의 낭비를 배제하는 문제는 가끔 의사결정의 방법과 결부되어 있으며, 흔히 각종의 회의식 조직 위원회제도 등의 집단적 의사결정의 방법 중에 조직의 낭비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책임체제의 확립이란 견지에서 각종의 회의와 위원회 제도는 무책임한 결정 방법에 빠지기 쉬우므로 정기적으로 이러한 조직의 실태나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좋다.

요컨대 조직체 내의 인재·설비자금 등의 요청을 유기적으로 결부시키는 것이므로 이 결부방식 여하에 따라 각 요소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경우도 있고, 능력발휘를 저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인사고과나 설비의 점검이나 자금의 관리 등과 같은 개별적인 요소를 아무리 충분히 관리하여도 그것을 결부시키는 조직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조직체의 잠재능력은 발휘되지 않은채 지체하고, 유향화하며, 조직체의 목적달성은 불가능할 것이다. 조직의 정기점검의 필요성을 거듭 제창하는 바이다.



높고 푸른 창공에 두 줄기 흰 직선을 그으면서 저멀리 사라져 가는 물체를 바라보며, 나는 언제 저러한 상쾌하고 통쾌한 비행을 할 수 있을까 하고, 하늘을 동경하던 학창시절이 엇그제 같은데 그 꿈이 이루어져 공군에서의 비행 생활도 어언 20년에 접어들니 하늘에 살면서 스쳐간 여러가지 추억이 새롭게 되살아 나는 것 같다.

1952년 4월, 처음으로 L4 경항공기로써 시작된 비행훈련이 그 후 AT-6, F-51 무스탕 전투기로 옮겨지면서 맹훈련으로 말미암아 비행복이 땀에 젖어 물에 빠진 생쥐같이 좌석에서 기어 나올 때의 붉게 타는듯한 홍안의 모습들, 불의의 사고로 말없이 조국의 하늘에서 산화한 전우들의 안타까운 사연들, 조국을 지키는 보라매가 되겠다는 의지로 술한 괴로움을 참으면서 오직 내일을 위해 살겠다는 굳은 신념이 없었던들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무스탕 전투기로 마지막 사격훈련을 끝나치고 빨간 머플러와 조종홍장을 받을때의 기쁨은 말할 것도 없었거니와 그것은 또 나의 생애에 가장 경사스런 순간이었다.

빨간 머플러를 목에 두르고 전진기지로 가기 위해 씩씩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수송기에 오르는 선배 조종사들을 전송할 때가 엇그제 같았는데 막상 우리가 같은 길을 떠나게 될 때는 가슴이 벅차 말이 나오지 않았었고, 전진기지에 대한 호기심으로 마음이 부풀곤 하였다. 강릉에서의 생활은 전선을 바로 눈앞에 두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전황에 따라 출격 임무가 부여되니 매일같이 출격하는 생활이 스틸과 공포, 젊은 혈기가 약동하는 멋과 낭만이 있었다.

새벽 일찍 기상하여 잡자리를 정돈하고 전투군장을 갖출 때는 내가 다시 이 잡자리에 되돌아 올 것인지?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전우들이 나의 자리를 정돈하겠지? “이 친구 뭐 이렇게 너저분해!”할지도 모르니 잘 정돈해 놓아야겠다는 생각, 나의 보금자리를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돌아보는 습성이 몸에 배었다.

전체작전 Briefing이 끝나고 Flight Line으로 갈 때의 긴장된 분위기, 누구하나 말하는 사람은 없다. 버스 창문으로 하늘을 쳐다 보는 사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눈을 감고 있는 사람, 목표의 지도 및 항공사진을 대조하는 편대장, 이를 바라보는 조종사, 각기 자기의 생각과 습성에 따라 움직이고 앉아있는 것으로 보아 생과 사의 기로에서 투쟁하여야 할 비상한 각오가 감도는 순간순간이다.

에기(愛機)의 폭탄, 로켓, 기총의 상태를 확인한다 웃을 일이 있어도 웃지 않는다. 정비사에게 농담을 하려 하다가도 멈춘다. 내가 돌아오지 않을 때 나의 정비사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무엇을 예상한 이야기 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다.

이러한 착잡한 생각도 프로펠러가 힘차게 회전하기 시작하면 머리속은 아침 안개가 개이듯이 깨끗하게 맑아진다. 이상할 정도이나 기인동체의 일면도 바로 이것이겠지. 편대장이 이륙 후 기지상공을 한 바퀴 돈다. 편대구성이 완료된다.

동해에 해가 뜰 무렵 커다란 폭탄을 가슴에 안고 유유히 서북쪽으로 대관령을 넘어 솟구쳐 올라간다.“올라온다!”하는 대장의 목소리, 정신이 번쩍 든다. 아마 까마귀 떼 겹치(고사포가 작열하면 흡사 까마귀가 나는 것 같기 때문이다). 발고랑 사이에 선 솜꽃이 피어오른다.

아마 자동포화겠지! 한 대 두 대 곤두박질로 내려간다. 기총은 불을 뿜고, 폭탄은 작열한다. 목표는 불바다, 연기바다로 지척의 분간이 어렵다. 많은 동포가 죽어가겠지, 국제정치의 알곳은 장난으로 우리 강토의 허리가 찢리우고 이로 인해 벌어지는 동족상쟁의 비극, 지난날의 국력의 미미함을 탓하기보다 앞으로 닥쳐올 우리의 사명을 다하여야지. 출격 중 위험하였던 일, 목표의 명 중, 적의 대공포화 랑데뷰 지점에서 편대장을 잃고 이리저리 찾아 헤매는 웃지 못할 일들, 이 같은 미성년 공군생활도 휴전으로 끝나고, 공군현대화 계획에 따라 Mustang에서 제트 신예기로 기종이 전환됨에 따라 지난 일들은 한가닥 추억으로 남기고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니 자연 마음가짐도 달라지게 된다. 조종사에게는 훈련과 실전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그간 한국 전쟁을 통해서 오늘날의 공군으로 육성되기까지는 수많은 우리 선배, 동료 및 후배 조종사의 피가 상년 공군을 이룩했고, 오늘날의 정예공군으로 그 막강함을 과시하게 된 것임을 잊을수 없으며, 다시금 고인들의 명복을 빌게 된다.

말썽썽 애국하기란 쉽지만은 참다운 애국이란 힘이 드는 것이며, 공군이 할 일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국가 비상시에 우리의 공군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적의 공군력을 무력화시켜 전승을 기하는데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법이 중요하다. 적보다 열세한 우리의 공군력으로 적의 공군세력과 대응하기 위해서는 1대 5아니 그 이상의 능력을 가져도 부족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전투조종사 개개인이 확고한 신념을 지녀야 할 것이고 이러한 신념은 꾸준한 노력과 훈련으로 자기에게 부과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완전무결한 전술전기를 몸에 익히고, 나와 온 겨레를 위하여 이 몸을 바치겠다는 자세가 확립될 때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현대전에 있어서 공군력만으로 승리할 수 없으나 공군력 없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스라엘 대 아랍의 6일 전쟁이 잘 말해 주고 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공군이 필요하지, 싸워서 패하는 공군을 만들려고 말하는 자는 없다.

그러나 말은 쉬워도 이를 실천하기란 용이한 일이 아니다. 피땀어린 계속적인 노력, 너나 할 것 없이 묵묵한 실천만으로 이루어 나가야 하겠다. 특히 공군작전은 시간적인 제한 속에 이루어짐으로 복귀를 바로 눈앞에 둔 우리로서는 적의 기습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5분내지 10분에 불과하다. 초전에서 승패에 전쟁 자체의 승패가 좌우 될지도 모른다. 전쟁을 하다 공군력의 열세를 보완 “승리하는 전쟁은 사전에 준비하고, 패하는 전쟁은 전쟁이 난 후 준비한다”는 전사가 말해주듯 하면 되겠지하는 단일한 생각을 가졌다면 이같이 위험천만한 일은 없을 것이다. 패자에게는 할 말이 없는 것과 같이 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 공군을 위해 오늘날까지 나의 청춘과 정열을 쏟아온 공군, 한반도에 재차 전쟁이 발발한다면 종전과 같이 미공군이 지원하겠지 하는 따위의 의존심은 아예 부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국의 국가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타협과 협상을 서슴치 않는 냉혹한 국제정치의 생리를 이해한다면 자주국방의 중요성은 재언을 필요치 않는다.

오늘도 여명을 기해 조종간을 힘차게 잡고 거칠 것이 없는 창공을 향해 조국수호, 영공수호의 임무를 띠고 솟구친다. 수도, 서울은 아침 안개 속에 고요히 숨 쉰다. 초가집에서 가느다란 연기가 실같이 가늘게 올라온다. 동서남북 마음껏 비행할 여지가 없는 좁은 하늘이다. 마음껏 뻗어 날아갈 수 있는 하늘이 될 때까지 이 좁은하늘을 지키는 것이 나의 삶이며, 생활의 전부이다. 맑은 하늘을 쳐다보며 나의 젊은 시절의 꿈을 누가 대신 꾸고 있겠지. 하늘을 주름잡는 사나이의 싸움터 힘차게 자라가는 공군의 내일을 위해 새삼스럽게 마음을 가다듬는다.

# ECM의 현황과 그 전망

## 서론

전자전은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초기에는 전자전이란 RCM으로 알려져 있었고 RCM이라는 말 자체도 비밀이 속해 있었다. 초창기라고 볼 수 있는 1943년경 전자전을 수행하기 위한 장비로서는 세 가지로 분류했다. 탐색용 수신기와 Pulse 분석기, 그리고 Chaff의 세 종류였다. 최초의 Chaff는 난로연통을 항공기의 밑바닥에 장착하여 뿌렸다. 이 당시의 전자전은 매우 간단했다. 단지 몇 개의 Radar가 있었을 뿐이고 그것은 매우 빈약한 것이었다. 이 당시 전자전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매우 용이했다. Radar 작동수는 Target가 나타날 때까지 안테나를 서서히 돌리다가 일단 Target가 나타나면 안테나를 Target에 맞추어 놓고 A Scope를 가지고 측정을 했다. 그러므로 이 당시에는 단순히 Radar의 Audio 신호를 들음으로써 Radar의 종류까지도 구분할 수 있었다. 1944년경에 이르러 더 많은 수신기와 방향탐지기, Jammer 등이 전자전에 추가되었고, 제2차대전 말기에는 여러 가지의 E.C.M이 실제 전투에 사용되었고, 더욱 많은 발전이 이루어 졌다. 탐색용 수신기, Pulse 분석기, Panoramic Adapter, 방향탐지기, Recorder 등이 적 Radar를 식별하고 위치를 확인하는데 사용되었다. Active E.C.M 부문에서는 Chaff와 Jammer가 Radar에 의해 조종되는 대공포화로 부터 많은 항공기의 피해를 줄였다.

제2차대전 이후의 E.C.M의 발전은 그 어느때 보다도 뚜렷하다. 전자전의 발달을 세가지 주류로 갈라보면 첫째, E.C.M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발달은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의 다른 어떤 분야의 전자부문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고, 둘째, 전자전장비의 사용증가가 다른 분야의 군용전자장비의 사용도에 비해 현저히 뒤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고, 셋째, 전자전장비의 기초적인 원리의 전쟁원칙에 대한 적용이 매우 느린 속도로 발전해 왔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자명하다. 전자전이란 군사적인 지식보다 기술적인 지식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자전장비에 대해 거리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기술자들에게 일임해버리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전자전장비의 보편적인 기술의 보급과 전반적인 관심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전자전의 중요성은 현대 기현상적으로 실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군인에 의해서 보다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민간업체에 의해서 더욱 강조되고, 또 실제 입증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예로 월남전에서도 실제 전자전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현역이 아닌 제작회사의 기술자들이다. 이런 기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전자전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및 관심도를 높이고,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E.C.M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단계로 여하히 실시되는가?

## 본론

### 1. E.C.M(Electronic Counter Measures)

E.C.M : E.C.M이란 적의 전자장비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조작을 말한다. E.C.M에는 수동적인 방법(Passive E.C.M) 즉 정찰(정보수집)과 능동적인 방법(Active E.C.M) 혹은 Jamming의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 행동으로써 E.C.C.M이 있다.

(1) Active E.C.M : —Active E.C.M이란 Jamming을 포함한 실제적인 수행방법으로써 전파를 발사하여 목표전자장비를 혼란시키는 것을 말한다.

Active E.C.M의 수행과정으로는 Passive E.C.M을 선행조건으로 해야 한다. 적의 전자장비의 중요한 전자적 제원을 탐지하여서 적의 전자장비의 제원에 맞는 전파를 발사하여야만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2) Passive E.C.M : —Passive E.C.M이란 Radar나 기타 송신기로부터 발사되는 일체의 전자파를 검출하고 분석하는 모든 System을 말한다. 탐지용 수신기는 적의 Radar site의 위치를 찾아내어 실제 작동중인 Site를 항공기나 또는 다른 종류의 방법으로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또한 더욱 효과적으로 적을 기만하기 위한 E.C.M의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이 된다.

(3) Noise Jamming : —Noise Jamming은 간단하면서도 또한 Jamming의 방법으로서 광범위한 역할을 하며 비교적 간단한 장비를 가지고 수행된다. 출력의 특성에 따라서 Narrow Band Jamming과 Wide Band Jamming으로

나눌 수 있으며, Narrow Band Jammer는 Spot Jammer라고도 하며 적의 Radar의 수신기의 일정 주파수 근처에 집중적으로 수행한다. Wide Band Jammer는 Barrage Jammer라고도 하며 이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Radar의 송신기가 발사할 수 있는 전체 범위의 주파수를 동시에 Jamming하는 것이다. Wide Band Jammer는 신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치 않고, 또한 비교적 간단한 장비로 수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낮은 효율과 장비의 무게와 크기가 커져야 큰 출력의 효과를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Narrow Band Jammer는 높은 효율과 비교적 작은 중량과 체적을 가지고 큰 출력을 낼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정확한 신호 분석과 숙련된 Operator나 복잡한 자동화 System을 필요로 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Missile의 경우는 이러한 Noise Beacom에 대해 방해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종류가 많이 있다.

(4) Deception 혹은 혼란 Jamming : -이것은 적의 Radar작동수로 하여금 목표물의 정확한 Data 즉 거리, 방향, 속도를 얻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Radar에서 발사된 신호를 증폭하면서 허위반사파로 만들어 송신하는 것이다. 거리를 속이는 것은 Radar로부터 온신호를 적당히 지연시켜서 다시 송신하는 Repeater송신기로써 수행된다. Radar의 거리측정은 Radar에서 발사된 Pulse의 주행시간에 의해 결정되므로 적당히 지연시켜서 되돌려 보내면 거리를 속일 수 있게 된다. 방위를 속이는 것은 Inverse Scan Repeating을 이용해서 수행된다. 일반적으로 Tracking Radar란 다른 Radar에 비해 Angle Tracking이 수행되는 Radar로써 방위의 속임은 이런 종류의 Tracking Radar에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E.C.M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종류의 Radar의 다양한 Scanning 기술을 이해해야 한다. 방위신호를 얻기 위한 Scanning 방법으로는 Sequential Toting, Conical Scan, Simultaneous 혹은 Monopulse 등이 있으며, 또 한가지 방법으로 Track-while-scan도 있다.

한 가지 예로 Fire Cotrol Radar의 경우에 대해서 Conical Scanning을 하고 있는 경우를 보기로 한다. 안테나에서, 발사되는 전파는 연필형의 Lobe를 가지고 안테나가 회전하는 축을 중심으로 원추형을 그린다. Target가 안테나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는 안테나가 직접 향했을 경우만 전파가 미치고, 지나갔을 경우는 전파가 없다. 즉 이때는 신호가 주기적으로 나타났다 없어졌다 한다.

그러나 Target가 안테나에 가깝게 접근했을 경우는 Target는 계속적으로 신호를 받게 되고 이 경우는 안테나의 Scanning 때문에 강했다 약했다 하는 주기적인 변화가 있는 계속적 신호를 받게 된다. 일단 Target가 사정거리 내에 들어와서 Look-on이 되면 Target에 미치는 신호는 강약의 변화를 훨씬 적게 느끼게 된다. 즉 안테나가 Target를 향하고 Scanning을 하므로 신호가 계속적이다. Target가 Scanning의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면 즉 안테나의 회전축에 들어가게 되면 Target에 미치는 신호가 계속적으로 일정하게 된다. 이런 단계에서 Radar는 Automatic Firing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만약 Target에서 Lock-on 됐을 때의 강약 신호를 받아서 이것을 180. 발전시켜서 증폭해서 발사한다면 Radar는 Target의 Repeater에서 나온 신호와 반사된 신호가 합쳐진 일정한 신호 즉 Firing 상태의 신호를 받게 된다. 이상의 예를 그림으로 이해하면 더욱 간명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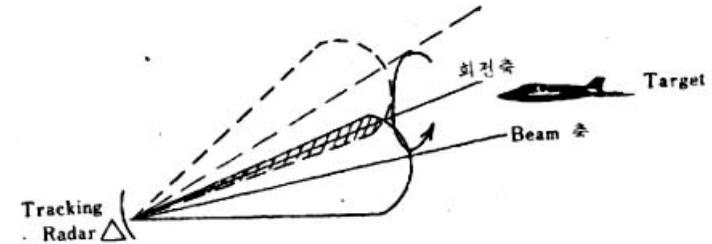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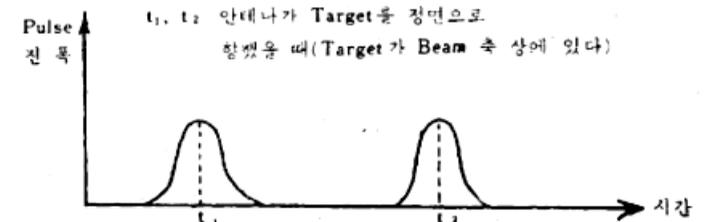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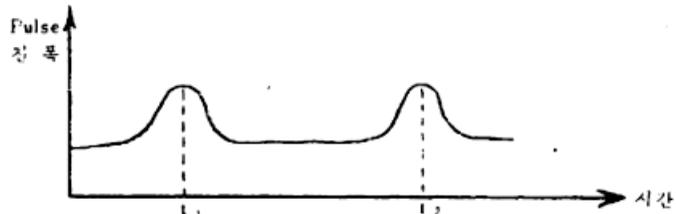


그림 Fire Control Rad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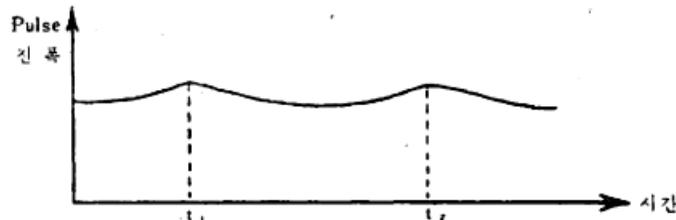
Conical Scanning을 하는 이 안테나의 회전은 거의 비슷한 축을 가지고 하다가 Target가 나타나면 Target를 회전축의 가운데로 오도록 반사파의 변화에 의해 자신의 방향을 수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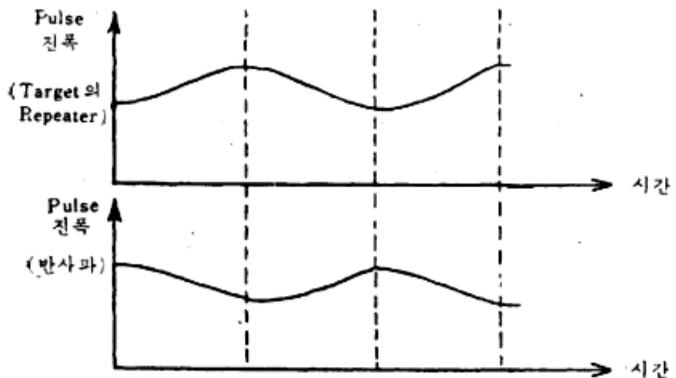
Target가 안테나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  
— 안테나가 Target를 향했을 경우만 신호를 받는다.



Target가 안테나에 가까이 왔을 때 —  
— 안테나는 여기서부터 Targeting을 시작한다.



Target에 Lock-on됐을 때 — Target는 거의 회전축상에 있다.



Target Repeater에서 180. 위상을 발전시켜서(지연시켜서)반사파의 진폭변화와 같은 신호를 만들어 안테나에 발사하면 Lock-on 상태의 Radar는 Firing을 하게 되고 또한 Rock-on 상태 이전에 Lock-on으로 만들어 Firing Control Radar의 기능을 교란시킬 수 있다.

(5) Chaff : —Chaff는 적 Radar를 혼란시키는 가장 오래된 방법이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3년에 Hamburg상공에 금속바늘을 뿌린데서 시작되었다. 오늘날은 Chaff의 재료, 그리고 자동살포기술 또한 Active Chaff 즉 적상공에 뿌려지는 소형 Jammer 등의 발전이 타분야의 발전보다 훨씬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 Active Chaff이건 Passive Chaff이건 Chaff의 목적은 적의Radar로 하여금 거리, 방위, 고도 그리고 속도 등을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Chaff의 재료로는 금속, 금속 피복체, 농무(안개), 절연물질 또는 반도체 등등이 사용된다. Active Chaff에는 두 가지가 있다. 즉 Active와 Semiactive의 두 종류다. Semiactive Chaff는 실질적인 Power의 이득은 없으며, 단지 저전력으로 필요한 전기적 변조를 실시한다. Active Chaff는 버리는 Jammer로서 적 Radar를 포화상태에 도달하도록 항공기에 의해 투하된다. 이것은 천천히 하강하도록 낙하산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종류는 지상에 떨어져서도 계속 신호를 발생하여 Radar를 교란한다. 최근의 Semiconductor의 발달은 Active Chaff의 실용을 더욱 높여 주고 있다.

(6)CW Jamming : —CW Jamming이란 Radar의 주파수에 대해서 같은 신호를 계속 발사하여 반사되어 오는 신호에 비해 출력이 크므로 Radar의 수신기가 동작의 포화상태에 이르거나 혹은 자기 신호를 분간해 낼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Noise Jamming도 일종의 CW Jammer에 속한다. CW Jammer는 Pulse를 사용하는 Pulse Radar에 비해 CW를 사용하는 CW Radar에 더 효과적이다. Pulse Radar에서는 CW Jamming을 쉽게 제거 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Jammer가 사용하는 신호의 형태에 따라서는 Pulse Jammer, CW Jammer, Noise Jammer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구분은 그 기능을 중요시 하느냐 또는 작동형태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여러가지로 이루어진다.

## 2. E.C.C.M(Electronic Counter Counter Measure)

E.C.C.M : —E.C.C.M이란 여러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 Jamming의 효과를 줄이거나 혹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 간단한 E.C.C.M의 한 가지 방법으로는 Radar 송신기의 출력을 매우 크게 하여 Jamming 신호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것이다. 다른 방향으로부터 오는 Jamming 신호를 억제하고 필요한 신호를 증폭하는 방향성이 큰 안테나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주파수를 변화시켜서 Jamming을

피할 수도 있다. 그러면 E.C.M은 더 넓은 범위의 주파수에 대해서 Jamming을 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이에 대한 E.C.C.M으로서의 더욱 정밀한 Pulse 기술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E.C.M과 E.C.C.M은 서로 끊임없이 약점을 찾고, 또한 그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자전에는 반드시 E.C.M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또한 E.C.M이 있는 곳엔 반드시 E.C.C.M이 있다. 그러므로 E.C.M과 E.C.C.M은 항상 병행되며, 또한 동시에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 3. E.C.M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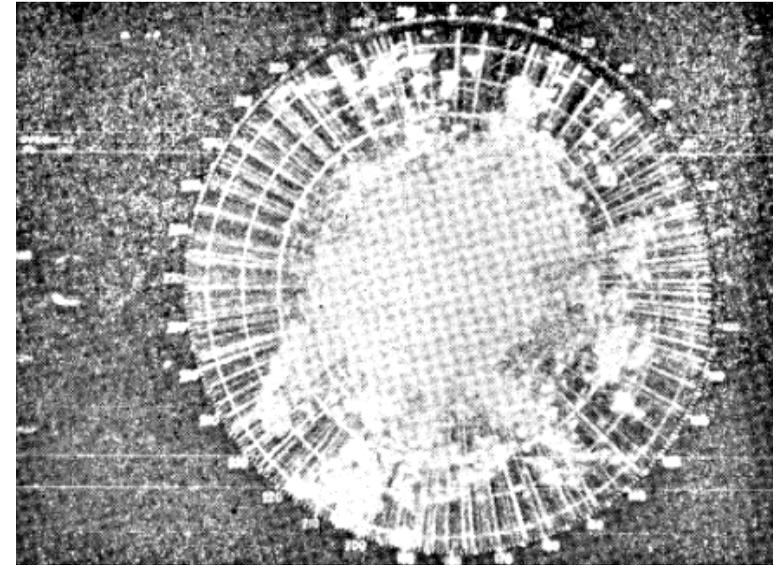
E.C.M의 효과는 지금까지의 기능에서 자세히 알 수 있다. 개괄적으로 간추려 보면 세 가지의 부류로 기술될 것이다.

(1) Deception : -거리, 고도, 방위, 속도 등등을 실제와 다르게 Radar에 나타내도록 하는 것으로 Repeater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 이것은 관제사들이 처음에는 식별이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사전의 정보가 없을 경우엔 속아 넘어가기가 쉽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작동을 감시할 경우는 대응조치를 할 수 있고 또한 Scope상에서 식별해 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훈련은 고도의 수준을 필요로 함으로 실제 E.C.C.M 훈련을 통한 체험적인 관찰이 중요할 것이다.

(2) Confusion : -Chaff나 또는 Jammer에 의한 교란으로 이것은 Scope상에 많은 Target를 생기게 하거나 또는 Clutter를 크게 하여 실제 Target를 분간하기 힘들게 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당장 Scope에 나타나기 때문에 관제사가 즉각적으로 Jamming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비교적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 연구팀이 CW Jammer를 제작하여 Jamming한 경우의 Scope를 사진에서 보면 그 혼란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는 신속히 주파수를 바꾸는 것이 좋고 다음 단계로 계속 E.C.C.M 작동을 실시해야 한다.

(3) 기능 마비 : -이것은 Fire Control Radar의 Jamming에서 흔히 시용된다. 안타깝게 Target를 향하여 Lock-on을 했을 때 적당히 신호를 변조하여 발사해서 Lock-on이 풀리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Lock-on이 되기 전에도 Jamming을 실시하여 처음부터 Lock-on 상태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만약 Radar의 포착거리가 사정거리에 대해 큰 경우에는 적당히 Repeater로 변조하여 Target가 사정거리 밖에서 Radar를 Lock-on 시키고 Firing 시킬 수 있다.



### 4. E.C.M의 전망

E.C.M은 여러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그의 관련성은 다양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두 가지 면에서 고려해 보기로 한다. 첫째는, 군사적인 면에서 교찰해 보고 다음은 산업적인 면에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그러나 좀더 엄밀히 말한다면 산업적인 면은 군사적 효용도의 증가에 따른 부수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 (1) 군사적인 면에서의 E.C.M

E.C.M은 전자전의 대두에 따른 한가지의 전쟁수행 방법이다. 고도로 발달되는 과학문명은 군사적인 면에서의 전자장비의 역할을 격증시켰고, 또한 군사적인 필요성은 가속적으로 전자장비의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발달된 전자장비의 군사적 이용은 병력을 절약하고 시간적인 제약을 해소하게 되었다. 또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전자전 수행능력은 지금까지의 군사지식이나 정치적인 견해보다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의 장비를 다루듯이 막연한 지식을 가지고는 제대로의 기능을 발휘시킬 수 없는 것이다.

앞으로는 전쟁의 수행에 있어서 병력의 사용계획은 물론 적절한 장비의 사용계획도 또한 중요한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병력사용 이전에 계획되고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전쟁수행을 위해서는

- ① 적절한 장비를
- ② 적 시
- ③ 적 소
- ④ 적절한 사용방법

으로 배치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격증하고 있는 전자전 추세는 현대의 Helicopter에 700만불 이상의 고가 장비를 월남전 상공에 띄우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미 공군에서는 대대급까지 E.C.M 장교가 배속되어 있고 육군에서는 사단급까지 독자적인 E.C.M 수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

효과적인 전자전 수행을 위해서는 계속 적인 사용계획의 개발과 Operator의 기술적인 훈련 및 독자적인 연구개발이 군사적인면에서 시급한 것이다.

#### (2) 산업적인 면에서의 E.C.M

모든 산업 부문이 그러하듯이 특히 군수산업의 기간을 이루고 있는 전자전 분야의 산업은 가장 큰 수요를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고도로 발달된 기술은 전문적인 산업그룹을 형성하게 되었고 또한 전자전 수행을 위한 실제적인 방법 내지 모든 장비는 특정한 민간업체에 의하여 제작 개발되고 있다. 현재 월남전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전자장비의 대부분은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군인에 의해서보다는 오히려 산업부문의 기술자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발달된 전자장비는 병력의 절감을 가져오고 이런 결과는 더욱 전자전에서의 의존도를 높여 주고 있다.

산업적인 면에서의 전자전의 발달은 병력이 투입되지 않는 전쟁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전쟁수행에 있어서 민간인(기술자, 과학자)의 참여도가 증가하며, 이 증가에 따르는 전략 및 전술교리의 개발 또한 군민의 조화된 일체를 더욱 요구하게 될 것이다.

### 결 론

하나의 교량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자와 장비와 인력과 그리고 기술이 동원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교량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단 몇 개의 다이 나마이트면 충분하다.

E.C.M은 여기서 다이나마이트에 해당 하는 것이다. 즉 한 개의 Radar를 제작하는 만큼의 경비가 소요되는 것도 아니며, 또한 그렇게 많은 기술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단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약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면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제공권이 전쟁의 승패를 가름할 정도로 비중이 큰 시기는 과거에는 없었다. 더우기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제공권은 방공과 대공을 겸해서 갖추고 난 후에 획득 가능할 것이다. 적의 방공망은 아군의 대공의 최초 최대의 장애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방공망의 교란 및 마비는 가장 우선

적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서 우군의 대공작전에 하등의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E.C.M은 모든 작전에 선행되어서 수행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최대의 효과를 얻고 또한 최소의 손실을 보장할 것이다.

### 부 록

E.C.M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참고문헌을 몇 가지 소개 한다.

1. Radar System Engineering.—M.I.T Radiation Laboratory Series 1.—
2. Principles of Radar—M.I.T Radar School Staff—
3. Micro waves—December 1970.
4. Micro waves—November 1969.
5. Radar Scanners and Radomes—M.I.T Radiation Laboratory Series 26.—

---

## 오늘 나는………

김 윤 성

오늘 나는

이미 승부는 끝났는데

그래도 끝까지 달리고 있는 등위의 선수.

주어진 생명과

스스로 불러온 환경 속에서

거짓말 같은 이 밝은 날이 조금 슬플 뿐이다.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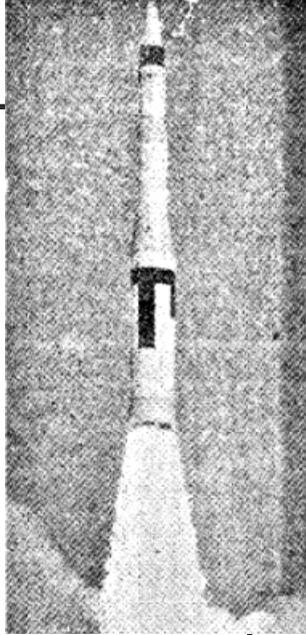
라일락 잎처럼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나.

나의 죽음이 바다의 조난사건이라면

그 난파선은 지금 어디 있는가.

나의 죽음이 영예의 전사라면

그 적탄은 지금 어디 있는가?



최 승 철

### 1. 전리층

지상에서 약 6마일 상공까지 뻗어있는 대류권(Troposphere)은 대기권의 최하부층으로써,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전체 공기량의 약 4/5를 함유하고 있으며, 지상의 모든 기상현상을 일으킨다.

이 대류권을 지나면 건조하고 투명하며, 고요한 성층권(Stratosphere)이 약 50마일 높이까지 뻗어 있다. 이 성층권은 쾌적한 비행상태를 제공하므로 파일럿들에게는 인기가 있으나, 과학자들에게는 별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성층권의 높이는 지상에 영향력을 발휘하기에는 너무 높고 태양 에너지의 복사에 의한 영향을 받기에는 낮기 때문이다. 고도 50마일을 넘어서면 지표 부근에 비해 공기 밀도가 수십만배나 희박한 전리층(Ionosphere)에 이른다. 이 전리층은 대기권 내의 총 공기량의 1%도 못 되는 공기를 함유하고 있으나 대기권과 외계와의 경계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태양으로부터의 자외선 방사를 차단하여 지표상의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전리층 내의 공기 분자는 태양이 방사한 자외선에 의해 원자로부터 전자가 분리된 전리상태(Ionized State)로 존재한다. 공기의 밀도가 크다면 전리된 입자들은 짧은 시간 내에 충돌하여 다시 전기적으로 중성상태를 이룰 것이나, 전리층 내의 공기밀도는 희박하므로 전리된 입자들이 충돌할 수 있는 확률은 낮으며,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기까지의 상당한 시간 동안 이 입자들은 자유운동을 하며, 또 끊임없이 새로운 전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전리층은 크게 보아 전기적으로 양호한 도체라 할 수 있다. 양도체는 전자파를 반사하거나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전리층은 지상에서 방사한 전자파의 반사체(부분적으로는 흡수체)의 역할을 한다. 만약 이러한 전리층의 반사가 없다면 지상으로부터 방사된 무선파는 전리층을 투과하여 우주공간으로 사라져 버릴 것이므로 지평선 너머로의 통신은 불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1901년 Marconi가 유럽과 미국간의 무선통신을 성공시켰을 때 물리학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전리층의 존재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리층의 존재는 1902년 Kennelly와 Heaviside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어 1924년 Appleton에 의해 실증된 이래 지구물리학 및 무선통신 분야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되어있다.

### 2. 전리층의 연구방법

지상에서 발사한 Pulse파가 전리층에서 반사되어 오는 것을 수신기의 음극선관 형광면에 나타나게 할 수 있는데, 반사파는 방사파보다 진행시간 만큼 늦게 나타날 것이다. 전파의 속도는 알고 있으므로 Pulse의 방사시각과 수신시각의 차이이다

전파속도(= 광속)를 곱하여 반으로 나누면, 이 Pulse파가 반사된 전리층의 고도가 구해진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리층의 반사고도는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에 따라 달라진다. 즉, 주파수를 높이면 전파의 파장이 짧아지므로 이와 같이 짧은 파장의 전파를 반사하기 위해서는 전자밀도 즉, 전리정도가 커야 하는데, 전리층은 고도에 따라 밀도가 변화하므로 이로부터 주파수를 변화시킴으로써 전리층의 반사고도 및 전리밀도를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Ionospheric Echo Sounding이라 하며, 여기서 얻어지는 도표를 Ionogram이라 하며, 이 Ionogram으로부터 고도변화에 따른 전리층의 전자밀도를 계산하게 된다.

이 Ionogram에서 보면 어느 주파수 이상의 주파수에 대해서는 표시되어 있지 않는데, 이는 그처럼 높은 주파수를 반사할 수 있을 정도의 전자밀도가 전리층 내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발사된 전파는 전리층을 투과하여 외계로 사라져 버림을 뜻하는 것이다. 또 어느 주파수 이하의 전파는 전리층에 흡수되어 버리므로 전리층은 전파의 반사체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린다. 이와 같은 상한, 하한의 주파수를 각각 최고 사용가능 주파수(MUF : Maximum Usable Frequency), 최저 사용가능 주파수(LUF : Lowest Usable High Frequency)라 하며, 장거리 통신 설계상 중요한 요소로 되어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전리층 관측방법을 Pulse Radar방법이라 하는데 이 방법으로는 전파가 투과하여 버리는 전자밀도가 최대인 고도의 상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전리층 밖에 위치해서 전리층을 투과하는 높은 주파수의 전파를 관측할 수만 있다면 상부 전리층에 대해서도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인공위성이다.

인공위성에서 발사된 높은 주파수의 전파는 전리층을 통과하여 지상국에 의해 수신되어 두 가지 관점으로 분석된다.

첫째는, 인공위성이 지상국의 두상(頭上)에 접근했다가 멀어져 갈 때의 인공위성 전파속도의 변화를 관측하는 것이다. 접근하는 물체의 주파수는 증가하며, 멀어져 가는 물체의 주파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받아 들이는 현상을 Doppler 효과라 한다. 그러므로, 인공위성에서 발사된 전파가 전리층을 통과하는 동안에, 기대되는 Doppler 효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는가를 측정하여 전파에 대한 전리층의 영향력 정도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Doppler Shift 방법이라 한다.

### 3. Faraday 회전의 분석방법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전리층을 관측하는 두 번째의 방법은 전파의 도래방향(到來方向)을 관측하는 것이다. 전리층이나 지자기(地磁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상에서 수신된 인공위성의 무선신호는 단순한 Doppler 효과만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하므로 인공위성에서 발사된 평면편향된 전파는 전리층을 통과하는 동안 전파경로 상에 존재하는 전리층 내의 자유전자수와 지자기 성분에 비례하여 그 편향면이 회전하게 된다. 이것을 Faraday 회전이라고 하며, 이로부터 정확한 지자기의 값을 알고 있으면 다음과 같은 Faraday 회전방식에 의해 전파경로상의 총 자유전자수(단위 단면적을 가지며, 인공위성과 지상국 Antenna에 이르는 원기둥 내의 총 자유전자수)를 결정할 수 있다.

$$\int_0^h Ndh = \frac{\Omega}{M} \cdot \frac{f^2}{K} \quad (1)$$

여기서

$\Omega$  = 전리층을 통과하는 전기 vector의 총 회전각 [radian]

$f$  = 신호주파수[Hz.]

$M = H \cos \phi \sec i$ 의 평균치

(즉, 전파경로상의 자계 평균치)

$H = V_z$ 방향의 지자기 성분[Am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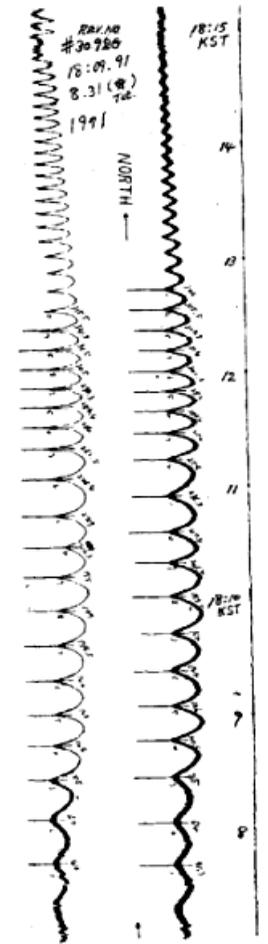
$V_z$  = 관측자에 대한 인공위성의 수평 속도 성분 [m/sec]

$\phi$  =  $H$ 와 전파사이의 각

$i$  = 전파와 수직선 사이의 각

$$\int_0^h Ndh = \text{[MKS유리화 단위계]}$$

인공위성과 수신점 사이에 걸쳐있는  $1m^2$  단면적을 갖는 원주



(그림1) Faraday 회전기록 (윗쪽이 41.01MHz, 아랫쪽이 40.01MHz)

내의 자유전자수

$$h = \text{인공위성의 고도(m)}$$

$$M = \text{전자밀도(electrons/m}^3\text{)}$$

그러나 실제로는 인공위성과 수신점 사이에서 발생한 편향면의 총 회전각  $[\Omega]$ 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며, 인공위성이 진행하는 두 지점 사이의 회전각의 차이만을 측정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일정한 방향으로 고정된 지상의 Antenna에 도래(到來)한 인공위성 신호의 편향면이 Antenna의 수평 Pole과 일치할 때는 최대의 전압을, 인공위성 신호에 편향면이 지상 Antenna의 수평 Pole에 직각으로 도래할 때에는 0의 전압이 유기(誘起)되는데, 인공위성은 계속 진행하므로 고정된 지상 Antenna에 유기되는 전압을 시간축 상에 나타내면 <그림 1>과 같은 연속파형이 된다.

이 파형에 의해 어느 시간 간격에 대한 회전각의 차이(연속파형  $\int_0^h Ndh$  한 영점과 다음 영점 사이의 회전각 차이는  $\pi$  radians이다)로부터  $\int_0^h Ndh$ , 즉 TEC(Total Electron Content 총전자 함유량)를 계산하는 방법을 “차회전 방식(Differential Rotation Method)”이라 하며,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int_0^h Ndh = \frac{\Omega_1 - \Omega_2}{M_1 - M_2} \cdot \frac{f^2}{K} \quad (2)$$

여기서  $(\Omega_1 - \Omega_2)$ 는 위성이 1지점에서 2지점으로 이동하는 동안 수신점에 나타나는 전기 Vector의 회전각 차이이며,  $(M_1 - M_2)$ 는 같은 기간에 있어 지자계 성분  $\overline{M}$ 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상의 두 가지 방식은, 지역에 따른 전리층의 변화가 없으며, 위성은 수평으로 진행하며, 신호주파수는 전리층의 최대 임계주파수보다 훨씬 높아 신호의 전파경로가 직선이라는 가정하에 유도된 것이다. 이와 같은 가정에 따른 오차의 보정(補正)은, 근접해 있는 두 개의 주파수를 이용하는 “근접주파수방식(Closely Spaced Frequency Method)”에 의해 가능하다. 즉, 신호주파수  $f$ 와 동시에 송신된 근접주파수  $(f + \delta f)$ 는 다음과 같은 총 회전각을 갖는다.

$$\Omega - \delta\Omega = \frac{KMI}{(f + \delta f)^2} \quad (3)$$

$$\delta\Omega = 2\pi(T_2 - T_1)/T_1 + n\pi[\text{rad}] \quad (4)$$

$T_1 =$  주파수  $f$ 에서 전기 Vector가 한 회전에 요하는 시간[sec.]

$$I = \int_0^h Ndh \cdot J_0^{Ndh} \text{에서 전기 Vector가 한 회전에 요하는 시간(sec.)}$$

$\delta f =$  근접해 있는 두 주파수의 차(Hz)식 (1), (3)을 정리하여 1차항만을 취하면

$$\Omega = -\frac{f}{2} \cdot \frac{\delta\Omega}{\delta f} \quad (5)$$

$$(1)\text{식에 (5)식을 대입하면 } I = \int_0^h Ndh = \frac{f^3}{2KM} \cdot \frac{\delta\Omega}{\delta f} \quad (6)$$

방정식 (6)이 근접 주파수 방식에 있어서의 계산식이다.

이상과 같은 근접 주파수 방식에 의해서 하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앞의 방식(통칭하여 단일주파수방식들보다 더욱 정밀하게 TEC를 계산할 수는 있으나 이 근접 주파수 방식의 난점은 (4)식의 정수  $n$ 을 어떤 값으로 취하느냐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Frihagen은 수신기록의 최북단(最北端)에서의 두 근접해 있는 주파수의 영점(零點 Null Point)의 일치가 대략  $1\pi$ 의  $\delta\Omega$ 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그다지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Klobuchar Münther 등이 제시한 대로 전리층 Data ( $f_0F_2$ )나 단일주파수 방식을 이용하여  $n$ 을 결정할 수 밖에는 없다.

우리는 40.01MHz 및 41.01MHz에 대해 각각 차회전방식을 적용하여 TEC의 평균치를 각각 취하고, 이 값들과 근접주파수 방식에 의해 계산되는 TEC의 평균치를 상호 비교하여 정수를 결정하였다. 또한 이상 세 개의 값들 중에서 인공위성에 대한 천정각(天頂角 : Zenith Angle)이 최소가 될 때의 TEC 값에 가까운 것을 그 궤도에 있어서의 TEC의 대표치로 선정하였다.

TEC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또 하나의 난점은 위의 제 식에 나타나는  $M$ 의 값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지자계의 성분  $M$ 은 지리적 좌표, 인공위성의 고도 및 측정시간에 따른 함수이나 이런 모든 것을 고려에 넣으면 계산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해지므로 인공위성의 신호전파가 전리층내에서 전자밀도가 최대인  $F_2$ 층의 중심부와 교차하는 점의  $M$ 의 평균치를  $\overline{M}$ 로 대치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전자밀도가 최대되는  $F_2$ 층의 중심고도를 전리층 평균고도(MIP : Mean Ionospheric Point)라 하며, 이 평균고도 즉 MIP를 어떤 값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관측자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

Münther, Hilberg 등은 300km

Yeh, Gonzalez 등은 340-400km

Rao, Hamrick 등은 350km

Titheridge는 400km를 채택하고 있으며, Jacobs는  $F_2$ 층의 전자밀도가 최대인 고도를 260~420km로 표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략 이들의 중간치인 350km를 MIP값으로 취하여, Leaton Evans의 9×9의 계수를 갖는 지자계의 수학적 모델로부터 매 궤도에 따른 지자계의 값을 계산하는 Leo Blume의 방식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MIP=350km에 대한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25개의 궤도에 대해,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게 하고 MIP만을 250, 350, 450km로 변화하여 TEC를 계산 비교한 바는 다음과 같다. 즉, 25개의 Data 중에서 20개의 Data가 MIP증가에 따라 TEC도 증가하며, MIP=350km의 TEC값은 MIP=250km와 MIP=450km에 있어서의 TEC값의 대략적인 산술평균이 되므로 MIP를 350km로 택하는 논리의 타당성이 증명되는 것이다(같은 논지를 Titheridge도 제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Faraday 회전방식으로부터는 인공위성에서 수신점에 이르는 전파경로상의  $1m^2$ 의 단면적을 갖는 원주(圓柱)내에 포함되는 총 자유전자수가 계산되나, 거의 대부분의 자유전자는 전리층 내에 집중하여 존재하므로 전리층의 전자함유량을 Faraday 회전식으로부터 구하는 것이다(전리층 외의 자유전자수는 5%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전리층의 전자함유량은 전리층 내에 존재하는 공기입자의 전리(電離)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전리층 전자함유의 장기간 관측에 의해 전리층의 변화상태를 연구하는 것이다.

#### 4. 인공위성의 궤도

전리층 전자함유량의 지역적 분포를 알기 위해서는 수신기록이 이루어진 정확한 시각과 그 시각에 있어서 위성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Beacon 위성은 초속 7.3km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시간은 수분의 1초 이내의 정확성을 가져야 한다.

인공위성은 근사적으로 지구와의 2체 문제로 취급할 수 있으므로 그 궤도는 2차곡선으로 표시된다. 또한 인공위성과 같이 거의 역학적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는 운동체의 궤도는 원 또는 타원을 그릴 것이며, 또 그 궤도는 불변이며, 똑같은 주기로 그 궤도를 돌고 근지점(近地點) 역시 항상 동일한 지점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인공위성의 궤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6가지 기본적 요소가 정해져야 한다.

- (1) 궤도 장반경(長半徑) : a
- (2) 이심률(離心率) : e
- (3) 근지점 통과시간 : T
- (4) 궤도면의 경사 : i
- (5) 근지점의 인수(引數) :  $\omega$
- (6) 승교점(昇交點) 경도 :  $\phi$

여기서 궤도면은  $\phi$ 와  $i$ 에 의해 결정되고, a와 e에 의해서 타원의 크기와 모양이 결정되며  $\omega$ 에 의해 비로소 타원의 위치가 확정된다. 이러한 궤도 요소는 관측에 의해 결정할 수도 있겠으나 NASA의 Goddard 우주비행센터에서 발간되는 궤도화보(Orbit Bulletin)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이용한다.

이상으로 임의시각에 있어서의 인공위성의 위치를 예견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는 보다 복잡하고 미묘한 변화로 인해 궤도의 6요소는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그 원인으로는 인공위성이 다른 천체, 특히 달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 인공위성이 진공 중에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의 저항을 받는다는 것, 지구의 모양이 정확한 구형(球型)이 아니라는 것 등을 들수있다. 그러므로 인공위성의 궤도를 정밀하게 다루려면 섭동론(攝動論)에 입각한 계산을 해야하나, 다행히 그 변화에 관한 1차 근사는 궤도화보에 표시되어 있고, Beacon 위성의 수신과 자료처리에는 이 정도의 정밀도로도 충분하므로 이를 사용한다.

NASA에서 보내오는 궤도화보의 Section 1에는 원기(元期), 근지점 주기, 이심률, 승교점 경도, 근지점 인수, 평균 근지점 거리, 장반경 및 시간에 따른 이들의 변화가 실려있다. 이들 요소로부터 임의 시각에 있어서의 위성의 위치를 계산해 낼 수도 있겠으나 계산을 좀더 용이하게 하고 1차 섭동계산에 포함되는 오차를 수정하기 위하여 Section 2가 따로 배포 되고 있다.

Section 2에는 인공위성의 매주기에 대한 승교점(남에서 북으로 적도를 통과하는 점)의 시각과 경도가 표시되어 있으나 이 Section 2만 가지고는 위성아 임의의 위도상공에 왔을 때의 시각과 경도를 알 수 없고, 또 고도에 대한 정보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는 따로 Section 3이 제공하고 있다.

Section 3은 매달의 특정한 한 궤도에 대하여 위도 매 10도 마다의 시각, 경도, 고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Section 3의 자료는 너무 조잡할 뿐 아니라 매월 한 궤도에 대해서만 자료가 제시될 뿐이므로 수신자료의 분석을 위해서는 매 궤도에 대한 위성의 세밀한 위치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것을 근사수치 계산법으로 해당 계도가 속하는 달과 바로 앞달 및 다음 달의 궤도보정 자료를 써서 전자계산기로 정확한 궤도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가 <그림 2>에 나타나 있는데, 임의의 궤도에 대하여 위성이 북위 27° 부터 47° 까지 사이를 지나갈때의 한국 표준시각, 위성의 위도·경도, MIP의 위도·경도, 천정각, 방위각 및 각종 결과가 계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IONOSPHERIC ELECTRON CONTENT CALCULATION FROM ANALYSIS OF HAFSAT CATELLITE RADIO SIGNALS AT 336 STR FOR SCARANT.

RECEIVING STATION GEOMETRIC LATITUDE = 37.4444 DEG RECEIVING STATION GEOMETRIC LONGITUDE = 127.9222 DEG

28 JUN 1974 THESE DATA FOR ELECTRON CONTENT CALCULATION FROM HF-C BEACON SIGNALS

REV. NO.	TIME	SAT. LAT.	SAT. LONG.	SAT. ALT.	TIME DERIV.	ELEC. CONT.	TIME DERIV.	FLC. CONT.	TIME DERIV.
NO.	UT	DEG.	DEG.	SEC.	SEC.	DEG.	SEC.	DEG.	SEC.
18000	1946.41	40.80	118.78	18.63	177.44	1.7487	0.001739	1.7768	0.000317
18000	1946.44	39.00	127.78	18.11	126.44	1.6477	0.002966	1.6474	0.003966
18000	1947.48	38.00	128.78	17.44	126.44	1.6533	0.004764	1.7426	0.006732
18000	1948.44	37.00	128.47	17.22	178.58	2.1827	0.004988	2.0822	0.004977
18000	1949.31	36.00	133.00	17.00	130.44	2.2107	0.010331	2.1847	0.017315
18000	1949.17	35.00	138.78	16.48	137.78	3.1951	0.007778	3.1951	0.007818
18000	1950.04	34.00	139.72	16.18	136.17	4.0778	0.022977	4.0817	0.014226
18000	1950.57	33.00	142.28	15.78	135.48	5.4478	0.037108	4.2116	0.043226
18000	1952.24	32.00	148.00	15.28	137.74	7.0794	0.046768	6.7923	0.055718
18000	1952.77	31.00	148.78	14.78	138.44	8.7478	0.049721	10.3809	0.047707
18000	1953.28	30.00	147.88	14.18	140.98	10.7128	0.044331	17.0833	0.044137

SWEEP VALUE = 1.9994      2.0887      1.9994      0.5712

ROOT-MEAN-SQUARE VALUE = 0.0001      0.01187      0.01418      0.00032

STANDARD DEVIATION = 0.6218      0.901981      0.6167      0.310078

VARIANCE = 0.3867      0.81366      0.3773      0.196182

1.9574      0.000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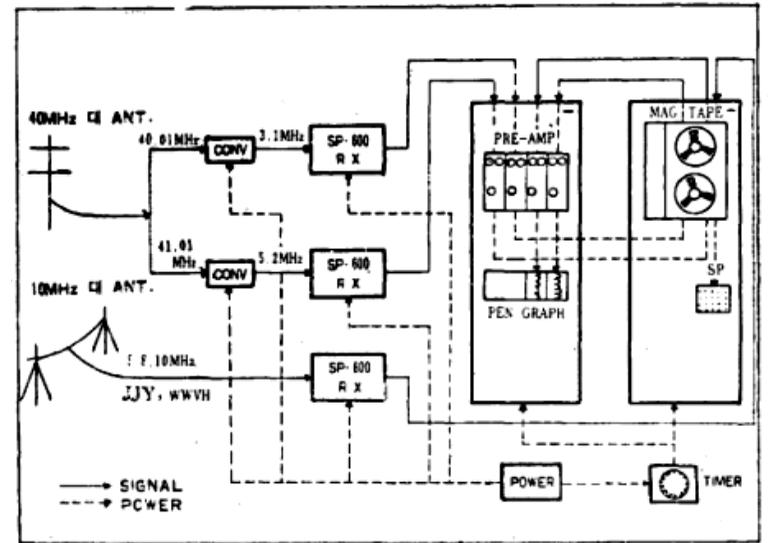
REV. NO.	TIME	SAT. LAT.	ZENITH ANGLE	AZIMUTH ANGLE	SAT. ALT.	TIME DERIV.	STATION ELEV. ANGLE	STATION DISTANCE	STATION HEIGHT	TOTAL RANGE	RECEIVED SIGNAL
NO.	UT	DEG.	DEG.	DEG.	SEC.	SEC.	DEG.	KMS.	KMS/SEC.	HPRTZ.	DBM/SEC.
18000	1946.41	40.80	51.14	79.90	901.4	-0.1187	144.1	-0.0338	-19.721	-846.374	-19.0333
18000	1946.44	39.00	36.14	21.88	846.7	-0.1394	119.6	-0.1562	-22.047	-848.904	-20.177
18000	1947.48	38.00	31.48	34.51	777.1	-0.1217	97.8	-0.1913	-24.612	-845.612	-19.1028
18000	1948.44	37.00	26.17	18.44	712.8	-0.1171	78.8	-0.2488	-28.498	-844.898	-20.9748
18000	1949.31	36.00	21.18	10.74	641.8	-0.1188	61.8	-0.3188	-31.348	-842.814	-27.1887
18000	1949.17	35.00	16.18	3.78	545.8	-0.1188	47.8	-0.3988	-34.198	-840.822	-32.2917
18000	1950.04	34.00	11.23	0.23	483.23	-0.1197	36.1	-0.4811	-36.113	-838.836	-36.498
18000	1950.57	33.00	6.57	0.18	421.8	-0.0977	28.1	-0.5781	-38.008	-836.852	-40.798
18000	1952.24	32.00	2.18	0.18	361.8	-0.0844	21.2	-0.6874	-39.848	-834.868	-45.198
18000	1952.77	31.00	0.78	0.18	301.8	-0.0728	15.2	-0.8111	-41.748	-832.884	-49.598
18000	1953.28	30.00	0.18	0.18	241.8	-0.0633	9.2	-0.9481	-43.648	-830.898	-53.998

<그림 2> TEC의 전자계산기 Out Put

5. 연구장치

가. Antenna

인공위성에서 방사된 두변조 신호가 전리층을 통과하는 동안에 일으키는 Faraday 회전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평면평행 특성을 갖는 수평 Dipole Antenna가 필요하다. 넓은 Beam 폭을 갖는 이 Antenna는 Tracking이 필요 없으며, 지상으로부터의 잡음을 억제하기 위한 Reflector를 가지고 있다. 수신하고자하는 40.01 및 41.01 MHz의 두 주파수는 서로 접근하여 있으므로 하나의 Antenna로 충분하다.



<그림3> 수신 System

나. 수신기

Antenna에 들어온 Beacon 신호는 변환기에 의해 일단 낮은 주파수(40.01MHz→3.2MHz, 41.01MHz→3.1MHz)로 바꾸어 주 수신기인 Hammurad SP-600에 들어간다. Faraday 회전은 수신기 AGC전압의 기록(起伏)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즉 Beacon신호의 전기 Vector가 수평 Dipole Antenna와 평행할 때 Loop가 되고 직교할 때 영(Null)으로 되는 것이 AGC 전압에 의해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명확한 영점(Null Point)의 기록은 최종적으로 전자함유량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정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일반 통신용 수신기가 갖는 Delay Bias를 제거하여 시정수(時定數 : Time Constant)를 0.1초 이하로 하기 위한 개조가 필요하다. 또한 최적 신호대잡음비(S/N)를 얻기 위해서는 주 수신기의 주파수 대역폭이 좁을수록 좋으나, 40MHz 대 Beacon 신호의 Doppler Shift는 약 ±1KHz이므로 2~3KHz의 대역폭을 사용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수신시스템의 입력전압이 0.2mV 정도인 때에도 상당한 AGC전압을 발생하도록 하였다.

## 다. 기록장치

1Hz 내외로 변동하는 Faraday 회전의 기록은 직접 Oscillographic Pen Recorder를 사용하거나 Program Timer를 이용하여 Magnetic Tape Recorder에 FM방식으로 자동기록하였다가 Pen Recorder에 재생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Tape 기록방법은 기록의 반복재생이 가능하므로 직접 Pen Recorder를 사용하는 방법보다 자료분석 및 연구보존에 편리하며 야간에 Program Timer를 이용하여 자동수신이 가능하다는 잇점을 갖고 있다.

## 라. 표준시보

Faraday회전 기록에 있어서 시각 기입의 정확성은 지극히 중요하다. 표준시간 으로서는 일본 동경천문대에서 발사하는 표준시보 JJY를 택하고 상태에 따라 강하게 수신되는 Hawaii의 WWVH도 참고로 하였는데, 5분마다 Announcement를 내는 WWVH에 비하여 주로 이용하는 JJY는 1시간에 두번 밖에는 Announcement를 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Tape Recorder의 기록을 Pen Graph로 재생할 때는 시간포착이 불편함으로 5분마다 바뀌는 JJY의 CW Mode 변화에 유의하여 수동으로 Pen Recorder의 Event Marker에 의한 시각 기입방법을 사용하였다.

## 5. 전리층의 변화

1968년 5월부터 1971년 9월까지 서울근방 상공을 통과하는 전리층 관측용 Beacon 위성 Explorer 22호 (BE-B 1964-64A) 및 Explorer 27호 (BE-C 1965-32A)의 궤도 중 통과경로가 서울을 중심으로  $\pm 10^\circ$  이내에 들어오는 궤도에 의한 Faraday 회전 기록으로부터의 TEC 분석결과에서 얻어지는 서울상공 전리층의 변화상태를 요약하기로 한다.

Pen Recorder에 기록된 매 궤도의 Faraday 회전기록 중에서 천정각이 최소가 되는 점을 중심으로 전후 20개의 영점을 잃어 지자기 계수, 인공위성 궤도요소 등과 함께 전자계산기의 입력 Data로 넣어 TEC를 계산하고 필요한 도표를 Plot하도록 하였다.

## 가. 계절적 변화

전리층의 계절적 변화를 보기 위하여 TEC 값들 중에서 하루 중 태양의 천정각이 최소가 되는 12시부터 15시사이의 시간간격 내에 들어오는 값만을 전자계산기를 사용하여 월별로 Plot하였다.

또한, 이렇게 Plot한 표 상단에는 감은 달들의 태양흑점수(SSN)의 대표치들을 Plot하여 TEC변화와의 연관성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TEC 값들은 일률적으로 봄에 max에 이르며, 여름에 min이 되는 흥미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결과를, 1년중 태양의 천정각이 최소가 되는 하지에 전리층 내의 전리 정도가 max이 되며 천정각이 최대가 되는 동시에 전리 정도가 min이 된다는 Chapman의  $\alpha$ -layer model 이론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Data는 분명히 비정상상태(Anomaly)를 나타내고 있다.

TEC의 계절적 변화에 대해서는 Chapman의  $\alpha$ -layer model 외에 Thomas, Taylor 등 여러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Winter Anomaly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TEC가 겨울에 오히려 max에 이르며 반대로 여름에 min이 되는 것을 말한다. TEC의 계절적 변화에 대한 또 다른 Anomaly에는 Yeh, Flaherty, Hunter, Galdon 등이 보고하고 있는 Equinoctial Anomaly가 있는데 이는 TEC가 Equinoxes(春秋分)에 max이 되며 동지 내지는 하지에 min이 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세 현상 중 우리의 결과는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않으며, Equinoctial Anomaly의 특성의 일부인 max이 춘분경에 이루어 진다는 것과 Winter Anomaly의 특성의 일부인 min이 여름에 된다는 것 두 가지를 합성한 것은 기본적인 계절 특성으로 하고 있다. 물론 우리의 Data는 수가 충분치 못하여 이와 같은 일반화를 하기에는 난점이 있으나, Vernal Equinox-summer Solstice(춘분—하지) Anomaly라고 명명할 수 있는 분명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대만의 Huang의 결과가 춘분월인 3, 4월에 비해 여름에 5월의 TEC 값이 오히려 약 25% 감소함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때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가 있겠다.

그러나 전리층의 계절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상과 같은 Chapman의 Model이나 Seasonal Anomaly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며, 다음에 기술하는 태양활동과의 관계를 고려해 넣어야만 한다.

## 나. 태양활동에 따른 변화

태양의 흑점수 SSN이 약 11년을 주기로 그 크기가 변화하며,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SSN의 변동이 전리층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의 TEC Data가 SSN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기 위하여 매월의 평균 TEC 값 대 SSN을 Plot하였다.

이 Graph에 의하면 SSN이 증가할수록 TEC값과 Seasonal Anomaly가 증가하며 SSN이 감소할수록 TEC 값과 Seasonal Anomaly도 감소한다.

특히 1969년 4월의 TEC 값이 Peak에 이른 것은 같은 때의 SSN이 Peak로 잘 설명 되어질 수 있다.

#### 다. 시간에 따른 변화

전리층의 1일 24시간에 대한 변화를 보기 위해 TEC 값들을 계절별로 구분하여 한국 표준시간에 따라 전자계산기로 Plot하고 평균 SSN값 및 일출·일몰 시간을 기입하여 5개의 Graph를 얻었다. 이렇게 계절별로 구분한 것은 계절에 따른 24시간 내에서의 변화를 보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정지위성이 아닌 Beacon 위성은 관측소 상공을 통과하는 동안 밖에는 수신할 수 없으므로 24시간에 걸친 Graph를 얻기 위해서 2~3개월의 Data를 축적해야만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5개의 그림을 개관하면 TEC의 평균 값이 작고 낮시간이 긴 여름에는 시간에 대한 TEC의 변화율이 작아 전체적으로 Graph는 평탄해지며, 반대로 TEC 값이 크고 낮시간이 짧은 봄과 겨울에는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큼을 알 수 있다. 특히 SSN이 5개 구간 내에서 최고에 이른 1970년 봄에는 일출과 더불어 TEC가 일정하게 증가하여 최대치에 이른 후 일몰과 더불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TEC 값이 낮아 시간에 대한 변화율 역시 작은 여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일몰과 동시에 TEC값이 급격히 감소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Hibberd는 여름의 TEC 값은 겨울보다 2시간 늦게 max에 이른다고 하였으며 Hunter는 그 시차를 1.5시간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의 결과도 이에 준하고 있다.

#### 라. 위도적 변화

지리적 위도에 따른 TEC의 변화를 보기 위하여 1971년 1월부터 9월까지의 87개 Data를 조사한 결과, 단일주파수방식에 있어서는 규칙성 없이 매 궤도마다 또 같은 궤도에서도 주파수에 따라 불규칙하게 변화하는데 비해 근접 주파수 방식에서는 5개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위도가 증가할수록 TEC 값은 감소함을 보였다. 분석방식에 따라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를 규명할 수는 없었으나 두 주파수를 동시에 이용하는 근접주파수방식이 보다 정확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결과는, 태양의 천정각이, 북으로 갈수록 커지므로 TEC는 따라서 감소한다는 일반적 견해와,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전자밀도가 단조하게 감소한다는 Thomas의 견해와도 일치한다.

## 6. 결론 및 전망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서울상공의 전리층 전자함유량(TEC)은 1968년부터 1971년 사이의 기간에 max이 되는 것은 봄이며, Vernal Equinox-summer Solstice Anomaly를 보였으며, 태양활동이 감소할 수록 TEC의 크기 및 Seasonal Anomaly도 감소하였다. 1일 평균 TEC값이 클수록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커지며 평균 TEC 값이 낮은 여름을 제외하고는 일몰과 더불어 TEC 값이 급격히 감소한다. 또한 근접주파수방식에 의해 계산된 TEC 값은 북으로 갈수록 감소함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론은 다른 사람들의 이론을 뒷받침하기도 하며, 새로운 현상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후자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관측과 다양한 연구방법이 요구된다. 본 공군사관학교 전리층은, 67년 개설된 이래 거의 백지상태로부터 출발하여 그간 제한된 여건 하에서 필요한 여러가지 기술을 개발하여 연구 System의 안정을 가져왔으나 기술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장벽에 부딪친 느낌이 없지 않다. 전리층에 대한 연구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구 물리학적인 중요한 가치를 가지나 앞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장거리 무선통신의 운용에 있어서는 절대적 중요성을 갖고 있으므로 계속적인 상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했던 인공위성의 궤도계산과 인공위성 신호의 수신, 기록 및 분석, 테크닉은 앞으로 인공위성을 이용할 국내 기술진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며, Faraday 회전에 의한 전리층의 연구는 이 방면에 있어 국내 최초로 전리층의 이론적 연구에 기초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용한 Beacon 위성은 궤도위성으로서 하루 평균 약 10분간씩 2~3회 정도 밖에는 수신할 수 없으므로 연속적인 Data를 얻을 수가 없었으며, 1971년부터는 그나마도 밤시간에는 송신이 중단되어 연구의 불완전함을 면치 못하였다.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정지위성(停止衛星)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할 것이다. 정지위성의 잇점은 연속적인 전자함유량을 구할 수 있다는 것 외에도 새로이 중요성을 띠기 시작한 Scintillation(순간적인 전리층 내의 교란) 현상을 연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지위성의 관측에는 고감도 Antenna, Antenna 회전장치 등을 갖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실현되지 못하였는데 최근 미 공군연구소(AFCRL)에서 연구장비

대여에 의한 계약연구의 제안이 있어 현재 교섭 중이며, 정지위성으로의 전환이 빠르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NNSS 위성관측에 필요한 Antenna 및 Converter 제작에 힘쓰고 있다. NNSS는 역시 궤도위성이거나 여러 개의 위성이 하나의 System을 이루고 있으므로 하루의 수신가능 회수가 10회 이상으로 되어 궤도위성의 불연속성을 어느 정도 보완해 주고 있는 위성 System이다.

본 연구가 질적으로 향상되기 위해서는 이상의 제 여건개선 외에도 국내 및 해외 연구기관과의 보다 활발한 정보교류와 상호자료 교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마음의 양식>

◇ 참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정신도 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을 말하는 것이다.

<벤셀·슈텔나우>

◇ 가르치는 것은 다시 배우는 것이다.

<주베르>

◇ 자식을 길러서 가르치지 않음은 애비의 허물이요, 가르치고 인도하기를 엄하게 않음은 스승의 잘못이요, 애비는 기르고 스승은 가르쳤으며 그 학문이 성공하지 못함은 자식의 죄이니라.

<사마온공>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의 하나는 가사에 종사하는 여인의 모습이다.

<로망>

◇ 참다운 가정이란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있다.

<도우페>

◇ 가정은 민족의 행복과 불행의 원천이다.

<루어터>

◇ 밖에도 자선도 모든 것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안된다.

<찰스·람>

## 북괴의 적화통일전략을

### 해부한다

#### 1. 거침없는 남한 적화의 호언

1970년 김일성은 소위 노동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우리는 모든 인민이 총을 쓸줄 알며, 총을 메고 있다'고 호언장담했거니와 이처럼 전쟁 밖에 모르는 호전적 발언을 아무 거리낌없이 해 대는 그들의 생리가 더욱 야만스럽다. 이와 같은 호전적 발언은 그칠 때가 없다.

김일성은 짧은 전쟁을 통한 기습을 말하는속적 속결이니 20일전투니 하는 말을 거침없이 한다.

이런 김일성의 호전성은 올해에도 변함이 없다.

김일성은 72년의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전쟁준비의 완료를 호못해 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에 우리의 국방공업의 토대는 한층 더 굳게 다져졌다.

모든 군사 무기 공장에서 그 생산계획이 초과 달성된 결과 우리의 군사력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이같은 성과로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기지를 한층 강화하여 남조선 혁명(대한민국의 적화라는 뜻)을 촉진하는데 크게 공헌했다.' 그리고 연이어서 말하기를 '노동적위대원과 붉은 청년근위대원들은 전투, 정치 훈련을 훌륭하게 수행하여 전투준비와 전투력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한다.

남한을 적화시킬 준비가 완전히 끝나 있다는 것을 이처럼 공공연히 하고 있다. 현대 문제는 그것이 단순한 허풍이 아니라 놈들의 생각과 준비를 나타내는 것이란 것에 있다.

이에 맞서 북괴의 남침야욕을 쳐부수고 우리의 건설과 평화를 굳건한 반석 위에 올려놓을 우리의 총력안보 태세가 얼마나 긴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 2. 북괴 경제력의 3분의 1이 넘는 군사 예산

북괴가 남침준비에 얼마나 안간힘을 써왔나 하는 것은 그들의 군사예산을 보면 알 수 있다.

영국의 국제전략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북괴의 군사예산은 8억 5천만 달러나

된다.

이것은 같은 전략연구소가 발표한 대한민국의 국방예산 4억 달러를 2배나 앞지르는 것이다.

액수로만 보면 북괴의 군사예산이 우리의 2배가 되지만 이것을 북괴의 경제력과 비교해보면 더욱 엄청나다.

북괴의 현재 경제력, 즉 국민총생산(GNP)은 약 25억 달러 수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8억 5천만 달러 라는 군사예산을 북괴의 경제력 가운데 34% 즉 1/3 이상을 군사비에 쓰고 있다는 것이 된다.

대한민국은 국방예산이 4억 달러 수준이므로 국민 총 생산(70억 달러)의 6% 밖에 안 된다. 이렇게 국력과 비교해보면 북괴의 군사예산은 우리의 약 6배가 되는 셈이다.

얼마나 북한 동포가 괴수 김일성의 남침준비에 시달리고 있겠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 인민의 무장화, 전 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군 장비의 현대화 등 이른바 4대 군사노선을 추진해 올 때 북녘동포의 땀과 노력은 순전히 전쟁준비를 위해 희생돼왔던 것이다.

김일성 자신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기자와의 회견에서 '나라의 군사력을 강화하여 모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1967년에 끝났어야 할 7개년 계획이 연장되지 않을 수 없다고 실토하고 있다.

전쟁준비 때문에 경제개발계획마저 뒷전으로 돌려야 했다는 이 자백에서 우리는 북괴 집단을 순전히 전쟁집단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 3. 무시 못할 군사력

북괴는 이 악착같은 전쟁준비로 무시 못할 군사력을 갖추게 됐다. 북괴가 가지고 있는 정규군은 47만이다. 우리의 60만에 비하면 다소 적다.

그러나 인구 비례로 보면 인구의 2%가 군인인데 비해 북괴는 3%가 군인이다. 전쟁을 위해 모든 힘을 모으고 있는 북괴의 모습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또한, 북괴의 장비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다.

육군은 40만명의 인원을 가지고 있는데 T54형 중형 탱크 750대를 비롯하여 SA2 지대공 미사일 기지 약 30개소에 약 180대의 발사기를 가지고 있다.

해군은 1만 2천명의 병력이 소련제 W급 잠수함 3척에 함대함 미사일과 고속 초계정 등 도합 200척(2만 9천톤)의 함정을 가지고 있다.

공군에는 4만명의 병력이 있는데 전투용 항공기 555대, IL28 경폭격기 70대, 미그 17 등 전투폭격기 380대로 무장하고 있다.

공군과 육군은 우리보다 훨씬 우세하다.

우리가 평화롭게 논밭을 갈며, 농토를 살찌우고 공장을 세우고 있을 때 북괴는 이토록 엄청난 남침준비를 할 것이다.

이 외에 북괴는 140만의 노동적위대를 가지고 있다. 만 59세까지 근무하는 이 노동적위대는 1년에 500시간 이상의 군사훈련을 받고 있다.

또 70만이나 되는 청년근위대가 있다. 이들은 중학교 학생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차 괴뢰군의 간부가 될 자들이다.

이와 같이 북괴는 북한의 전 주민을 전투 요원으로 훈련시켜 놓았다.

군인과 민간인을 구분할 수 없을 지경이다.

이 엄청난 군사력을 어디에 쓰려고 장만했을까? 소련을 치려는 것인가? 중공을 치려는 것인가? 아니면 일본을 치려는 것인가? 아무리 보아도 대한민국을 겨누는 이외에는 아무 것도 겨눌 데가 없다.

우리가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력 안보를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까닭이 여기에 있다.

### 4. 남침야욕을 감추려는 거짓 평화 공세

최근 북괴는 중공이 국제무대에 크게 진출하는 것을 계기로 하여 덩달아 외교사절을 세계에 내보내고 있다.

그리고는 이른바 8개항이라고 불리는 평화통일론을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 8개항이라고 하는 것은 놈들의 적화 야욕을 전쟁 없이 이룩하려는 흉계로 가득 차 있다.

미군이 철수하고 대한민국이 외국과 맺은 외교협약을 모조리 무효화하는 것은 물론 모든 정치범을 즉각 석방한 뒤에 저들과 평화적으로 통일 얘기를 하자는 것이 그 주요골자다.

그러면서도 북괴가 중공이나 소련과 맺은 군사조약을 없앤다는 말은 없다.

그것도 대한민국에 저들이 말하는 소위 인민정권 즉 좌경한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야야 얘기하자는 것이다.

이 8개항대로 한다면 우리는 무장을 해제하고 저들은 방대한 군사력을 그대로 둔채 얘기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살인강도가 피해자와 협의를 해서 칼을 어느 곳에 찌를것인가를 결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제안을 평화안이라고 믿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이 어처구니 없는 북괴의 평화안이라는 것이 앞으로 점점 더 세계를 누비려고 할 것임은 더 말할 게 없다.

북괴가 꾸미고 있는 남침의 흉계, 이미 완료해 놓은 전쟁준비, 그리고 끊임 없이 진행되는 도발행위를 감추려면 이 정도의 거짓평화라도 떠들어야 할 것

이기 때문이다.

북괴는 휴전선 안에 225개의 진지를 만들고 야포와 박격포 그리고 중기관총 등으로 무장한 약 8천8백명의 정규군을 투입하여 대한민국에 대해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런 짓을 하는 북괴가 뻔뻔스럽게도 평화 운운한다는 것은 낮이 두꺼워도 보통 두꺼운 것이 아니다.

하기는 북괴가 말하는 평화란 우리가 생각하듯이 서로 전쟁을 하지 않고 통일 할 수 있는 방안을 말하는 것이다.

북괴의 평화안을 거짓 평화라고 못박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5. 김일성의 입이 스스로 폭로하는 남침야욕

북괴가 정말로 평화통일을 할 생각이 있느냐? 아니면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대한민국을 적화하겠다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냐?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것 없이 직접 김일성의 말을 들으면 된다. 김일성은 지난 1월, 일본 요미우리 신문기자와 회견을 하면서 자기야말로 평화주의자라는 식의 연기를 했다.

김일성으로서 그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기울여서 평화라는 이름의 분칠을 한 그런 회견이었다.

그러나 원래 속이 검은 김일성이라 그가 하루 아침에 평화라는 분칠을 한다 해도 결코 그 본색을 감추지는 못했다. 그는 여기 저기서 그의 야수와도 같은 침략야욕을 저도 모르게 폭로하고 있다.

우선 그는 8·15이후, 미국 제국주의의 남조선 점령 때문에 우리나라의 혁명은 복잡하고 어렵게 됐다고 했다.

하기는 소련군이 제주도까지 점령하기로 됐었다면 김일성은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의 이 말 가운데 북한에는 소련군이 진주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말도 없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분단된 것은 미·소의 대립이라는 사상 전쟁 때문이지 결코 미국 혼자의 책임이 아니다.

그래도 김일성은 문제가 미군에게만 있다는 것이다.

미군이 물러난 다음에 김일성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의 말대로 혁명을 할 것이다.

여기서 혁명이라고 하는 말은 공산화란 말과 전혀 같은 것이다.

한국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오직 공산화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그의 남침야욕을 이 말은 드러내 놓고 있는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북반부에서 이룩한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는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정치,

경제적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고도 했다.

늘 김일성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북반부가 남한 혁명의 기지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한 것이다.

북반부 즉 북한에서 사회주의 경제의 건설이 성공하였다는 것이(사실은 실패했지만) 어찌하여 통일의 정치, 경제적 토대가 된단 말인가?

말할 것도 없이 남한적화의 힘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자랑하려는 것이다.

김일성의 얘기를 한 마디만 더 들어 보자.

‘만일 조국과 인민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과거의 잘못을 뉘우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과거를 묻지 않고 기꺼이 그와 함께 나라의 통일문제를 얘기하겠다’고도 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다.

그러나 조금 자세히 보자.

조국과 인민 앞에 죄를 졌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말할 것도 없이 자유주의자라는 말이다.

그 자유주의자가 과거의 잘못을 뉘우쳤다면 곧 공산주의자가 됐다는 말이다.

이 말은 결국 아무리 과거에 자유주의자였다 해도 그가 공산주의자로 전향한다면 그와 함께 통일문제를 얘기하겠다는 것이다.

‘간교한 자일수록 수사학(修辭學)에 능란하다는 격언이 있다.

김일성이 그 나름대로는 멋지게 얘기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나 그것은 마치 코메디안의 영터리 곡예를 보는 느낌 이외에 아무 것도 주는 것이 없다.

길게 말할 것도 없다.

김일성은 1970년 11월의 소위 노동당 5차대회에서 ‘역적들과 어떻게 조국통일을 운위할 수가 있겠는가? 남조선에 미제 침략군대와 현 한국군이 그대로 있는 한 나라의 평화적 통일이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잘라서 말했던 것이다.

미군은 고사하고 대한민국의 국군이 있어도 평화적 통일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은 적화통일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힌 것이다.

이 같은 발언을 하면서 협상이니 평화니 운운한다는 것은 속임수 쳐놓고도 매우 유치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소위 북괴의 노동당 강령이 조선 전역의 공산혁명을 최고 목표로 삼고 있는 한 북괴의 거짓 평화에 속아 넘어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 제2의 6·25를 경계하자



강 동 련  
<극동문제 연구소>

### <머 리 말>

민족 비극의 상징인 6·25가 지난지도 어언 20여년이 흘렀다. 그간 우리 한반도는 물론 국제적인 정치 현실도 많은 변모를 가져와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조류는 대결에서 협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평화지향적인 경향을 뚜렷이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국제적 긴장완화 추세는 특히 강대국간 힘의 논리에 의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세력 재편과정에서 첫째, 기존의 미·소간 양극 체제를 무너뜨려 일본, 중공이 포함되는 사각체제를 낳아 상호정립을 가져오고 있으며 둘째, 이로 인해 한반도 정세는 민족내부 문제화를 촉진케 하고 있으며 셋째, 이것은 독자적 대남전략 전개가 용이한 상황으로 된다는 등, 그들 나름의 판단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긴장이 고조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북괴는 지난 60년대 기간 중 이른바 혁명적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자라는 전쟁구호를 내걸고 소위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의 병진정책을 강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4대 군사노선을 제시하고 유일사상체계에 의한 세뇌강화 및 김일성 우상화를 전 주민들에게 강요하면서 전쟁준비에 전력하여 이제 대남도발의 기회 포착을 노리게 되었다.

현하 우리의 주변정세가 여러 면에서 6·25당시와 흡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시켜 볼 때 북괴의 교조주의적 정세 판단에 따라서는 제2의 6·25를 재판(再版)케 할 가능성이 극히 농후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 1. 6·25도발 환경

6·25발발요인은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여건에 비추어

볼 때 ① 북괴 및 소련의 오판과 중공의 대륙석권 ② 우리측의 방심과 허점 ③ 전체적인 힘의 균형의 파괴 등을 들 수 있다 하겠다.

이 중에서도 북괴의 남침에 가장 큰 작용을 한 것은 당시의 주한 미군철수 및 미국의 낙관적이고 일관성 없는 대한정책 이었다함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당시 북괴는 1946년 7월에 인민군을 창설했고, 49년 3월의 모스크바 결정에 근거하여 소련과 비밀 군사협정을 체결, 10년간의 군사원조와 장비수급 발판을 굳혔으며, 또한 중공과 상호군사 협정을 체결하여 남침에 필요한 지원세력을 확보하였던 것이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북괴의 이상과 같은 동맹체제 및 전쟁준비와는 대조적으로 제반 정세판단에 있어 행동불일치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1947년 9월에 들어 미 합동참모부는 주한 미군의 철수를 결정했던 것이다.

동 결정에서는 첫째, 미국은 한국을 방위할만한 충분한 군사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둘째, 미국의 전면적인 병력부족 때문에 주한미군을 다른 곳에 유용하게 사용하여야 하겠다고 했다.

이와 같은 미 합참의 판단을 기초로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서의 소련군 철수 성명과 UN 지지하의 대한민국 수립을 감안해서 1949년 봄 미군철수를 결정하고 동년 6월 29일 군사고문단 5백 명 만을 남겨놓고 모두 철수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이 같은 태도와 주한미군의 철수를 눈여겨 지켜본 북괴와 소련은 감히 남침을 하더라도 미군이 참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았고, 실제적으로 북괴와 소련이 빈틈없는 남침준비를 한데 비해 미국과 한국은 이에 대한 대비를 못했다는 현실을 간과하고 중공대륙 적화에 따른 승세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리고 북괴의 전쟁준비는 38선분단이 이뤄지면서 시작되어 극동지역의 적화실현의 야욕을 품고 있던 소련의 전략과 발맞추어 간단없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49년 3월 김일성의 모스크바 방문을 계기로 맺어졌던 소련·중공과의 비밀군사 협정으로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됐던 것이다.

. 그리고 48년 12월 소련군이 북한에서의 완전철수를 발표했으나 대다수의 소련군은 괴뢰군의 고문이란 명목하에 잔류하고 있었으며 소련군은 장비의 대부분을 북괴군에 이양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50년 2월 소련군 군사대표단의 계획에 의거하여 보병 2개 사단과 전차 부대, 그리고 다른 기계화 부대가, 참가한 가운데 적진돌입 및 적 배후에의 침투라는 과제로써 합동연습을 실시하여 남침을 위한 마지막 점검을 하였던 것이다.

6·25직전 남북 군사력을 비교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구분	한국	북한
총병력	102,800명 (육군8개사단)	198,300명 (보안군 34,000포함)
항공기	22대(연락용 12, 훈련기10)	211대
전차	0	242대(장갑 차4대 제외)
합정	24쌍	30쌍
각총포	0	2,393문

북괴는 소련군의 주도하에 남침 준비를 다지면서도 대내외적으로 그들의 전쟁기도를 은폐하기 위한 철저한 위장전술을 획책했던 것이다.

즉, 주한미군의 철수를 남침의 기회로 포착한 북괴는 소위 결정적 시기를 맞아 단기결전으로 대남적화를 끝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던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들 내부의 주관적 조건 성숙을 위해서 소위 위핵요소의 숙청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불순분자와 인테리분자들을 대량 검거 투옥했던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은 일체 전쟁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내외에 알리기 위해 49년 6월 조국전선 선언서를 발표했던 것이다.

이 조국전선 선언서는 겉으로는 평화적 통일방안을 제시한 것 같이 꾸며졌으나 그실 진의도는 기습남침 준비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미 50년 6월 9일에는 조국전선 결정서라는 새로운 평화아필을 걸고 평양 방송을 통해 북괴가 감금하고 있는 민족 진영 지도자 조만식씨와 남한당국에 체포되어 있는 공작원 김삼용, 이주하의 신상교환을 제의했다.

그리고 동 19일에는 남북간 국회합동 회의를 열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결정서를 채택하는 일방 그 다음날에는 엉뚱하게도 3개년 경제계획을 실시한다는 북괴 내각결정 제128호를 발표하여 25일에 개시하기로 되어 있는 기습남침을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철저히 은폐한 가운데 드디어 동족상쟁의 기습 남침을 감행하였다.

## 2. 최근 북괴의 위장평화 공세의 저의

최근 북괴는 닉슨독트린 추진에 다른 주한미군 철수의 촉진이 불가피한 반면 중공이 국제사회에서 북괴의 강력한 대변자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중공-소련 공히 북괴를 자기편에 끌어들이기 위해 지원 경쟁적 입장에 서게 되었다는 점 등에 착안하여 주요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있다. 대내적으로 북괴를 혁명기지로 더욱 강화하기 위해 6개년 경제계획수행에 총력을 집중하여 사회주의 공업국가화 할 기반구축에 광분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대중소 친선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서방 중립국에 대한 경제, 문화, 정치적

접근을 적극화함으로써 북괴승인 및 동조국가를 확대 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대남 정치적 접근 노력을 비롯한 전술적 평화공세를 적극화하면서 지하당 부식, 확대공작을 강화하는 일방 공비남침 및 대중동원에 의한 폭력, 전복 활동을 강행하려고 광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북괴는 긴장완화의 국제적 추세에 편승하여 이른바 남북간 평화협정체결 운운하는 위장평화공세를 그 어느때보다 강화하고 있다. 작년 4월 최고인민회의 4기 5차회의에서 북괴외상 허담의 8개항 통일제의를 비롯해서 71년 8월 시하누크 환영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남북정당사회단체간의 접촉 용의 표명과 금년 1월 일본 요미우리 신문 기자와의 대담에서 남북한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한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북괴의 8개항 통일방안이란 휴전이후 1970년까지 간간이 주장해오던 것을 총망라하여 발표했을 따름이며, 남북평화협정체결 주장 역시 1955년 7월 12일 북괴외무성의 대 UN성명에서 언급되었던 내용이므로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다만, 현재의 남북 평화협정 체결주장이 1955년의 그것과 의미를 달리하는 것은 6·25의 패전으로 인한 자체역량 강화에 목적을 둔 방어적 의미의 평화공세로부터 이제는 자체의 준비 및 긴장완화의 정세발전을 감안하여 남한혁명을 적극공작하는 평화공세로 전환한 상태에서 제기되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북괴평화협 정체결 제의는 지난 3월 7일 조총련간부가 말했다고 하는 미군철수 이전이라도 미국과 교류 운운한 사실과 밀접히 관련시켜 보아야 한다. 즉 북괴가 긴장완화 추세를 환영하고 미군철수 주장을 후퇴시킨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닉슨독트린 추진의 가속화를 꾀함과 동시에 한-미간을 이간시키는 가운데 소위 남북평화협정체결 기운을 점고케 하며 중국적으로 미군 철수를 촉진토록 하자는 의도이다.

한편 UN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공 UN 가입 등의 76개 중공 지지국을 자기 편에 끌어들이 금년총회에서 남북동시 초청을 실현함으로써 일단 2개의 한국편을 국제적으로 현실화하려는 저의와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북괴의 평화 위장공세는 한반도 내부문제화를 촉진하는 국제 정세에 편승하여 대외적으로는 UN 동시 초청으로 북괴를 인정케하고 이를 기반으로 언커크 해체 및 미군철수를 실현하려는 것이며, 남한에 대해서는 이상의 객관적 상황을 투사시켜가면서 혁명공작을 추진하여 내부 와해를 촉진함으로써 결정적 시기를 조성하려는 음흉한 전술임이 분명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북괴가 선전하고 있는 이른바 남북평화 협정체결 운운의 평화를 위장한 제의를 그들의 전략 전술에 비추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북괴 노동당 규약 서문에 궁극적 목표는 적화통일이라고 명기했으며, 또한 66년 10월 노동당 대표자 회의에서 김일성이 남북통일은 남조선혁명의 문제라고 공언한 사실로 볼 때 그들의 통일관이 어떠한 것인가를 충분히 알고도 남음이 있다. 따라서 이같은 북괴목표와 통일관에 근거한 그들의 기본전략은 전쟁과 폭력혁명 즉 남한내부+전북활동 북괴의 무력지원이라는 공식으로 나타나게 된다함은 다시 말할 여지가 없는 것인데 이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전술에서는 폭력혁명 또는 전쟁에 도달할 목적으로 반드시 평화전술을 적용하게 마련인 것이다. 북괴가 38선에 무력을 급격히 집결시켜 놓으면서도 남북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회의를 개최하자고 떠들던 50년 6월 9일의 이른바 조국전선 호소문 발표를 비롯하여 개전 불과 5일전인 50년 6월 20일에 3개년 경제계획의 청사진을 대대적으로 공표한 것 등은 6·25공격시점을 철저히 은폐하기 위한 북괴위장 평화공세의 산 증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최근 북괴가 부르짖고 있는 평화통일 노선은 남한적화전략속의 전술에 불과한 것이며, 본질적으로 위장된 평화 통일노선인 것이다. 북괴가 1962년 이래 소위 4대 군사노선에 의한 전쟁 준비를 강화하면서 양민학살, 열차 폭파를 자행한데 이어 68년에 들어 1·21사태 및 울진·삼척사건을 야기시켰으나 한국의 거부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점차 지하공작 및 소수 무장공비의 간헐적 투입으로 대북괴 국제적 규탄여론을 둔화케 하고 한국민 대공경각심을 이완시키는데 광분했다.

한편 이상과 같은 북괴의 위장평화통일 공세와 관련한 최근 북괴군의 주요 움직임을 보면,

69년 이후 북괴군은 군정예화에 전력을 경주하여 후방지역 방어체제를 보다 완비하기 위하여 해주에 제4군단, 청진에 제6군단 등 새로운 2개 지역군단을 신비하여 도합 4개 군단으로 후방방어 태세를 다져 놓았고, 69년 4월에는 각 집단군에 특공 비정규전을 수행하는 경보병 여단을 2개씩 도합 10개 여단과 민보성 경찰국 소속으로 맹산에 제 8특수군단 등을 창설하여 군대 내에 도합 5만5천명의 특수작전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요격 전력을 격증시켰다.

또한 북괴공군은 IL-28 폭격기 연대와 수송기대 등을 공히 여단으로 확장함으로써 폭격 및 공수능력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등으로 정규·비정규전 능력을 급증시키는 놓으면서 주로 공격용 장비증강에 주력하고 있다. 지상 장비로는 로케트포, 전차, 장갑차 그리고 수륙양용차 다수를 도입함으로써 기존 전보유장비량의 40%를 증가시켜 실제 화력을 배가시켜 놓고 현대 무기로는 FROG-5, 로케트,

SA-2 지대공 유도탄, SAMLET 지대 지유도탄, KOMAR 및 OSA급 유도경비정, MIG-21 전투기와 SU-7 전폭기 등 다량도입으로 북괴육·해·공군 무기체계를 번모시켜 우리 수도권과 후방주요 산업 시설을 강타할 수 있는 기습과 속공에 유리한 무기체계를 갖추어 놓았다.

그리고 69년 이후 DMZ내 각종 전투진지 구축을 시작하여 종전 93개의 GP가 71년 말에는 225개로 증가되었으며, 야포, 박격포, 로케트포, 대전차진지의 반입은 종전의 142개로부터 314개로 증가되었으며, 최근에는 철책선을 1km 남방으로 추진시켜 현재 95km구간이 완료됨으로써 전체전선의 1/2에 철책선 공사가 완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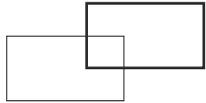
또한 가장 위협적 요소인 북괴의 공군력은 증강화방안을 간과할 수 없다. 70년 초부터 남시, 온정리, 원산 등 기존기지의 활주로연장 및 지하격납고 신설과 더불어 휴전선에 바짝. 다가선 6개소에 새로운 전진기지를 신설함으로써 종전의 23개 기지로부터 도합 29개 기지로 증가되었고, 이외에도 휴전선과 동서양 해안에 24개의 비상활주로를 신설함으로써 북괴공군은 대규모 공중 기습공격을 위해 항공기를 전 지역에 산재된 기지군에다 전개 가능토록 만들어 놓았다.

한편 북괴군의 훈련경향을 보면 지상군은 대부대 공방훈련이 완료된 상황에서 최근에는 아군 CP기습과 공수낙하훈련 등 특공훈련에 주력하고 있으며, 해군은 아(我) 해군함정과 지상목표에 대한 주야간 공격훈련으로 전환되었고, 공군은 장거리 폭격훈련, 휴전선 접근 비행훈련을 더욱 증가 시킴으로써 대규모 선제 기습능력 확보에 치중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최근 북괴군의 움직임을 평가해 보면 ① 60년대 기간 중 단독전 수행준비를 완료한 기초위에서 정규, 비정규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완비하고 ② 속공과 기습에 유리한 현대장비 도입과 함께 현대전과 혁명전쟁을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전술 훈련을 강행하고 ③ 후방지역에서는 전체 인민을 전투화하여 유사시 인민전쟁의 바다를 형성하는 요격전 체제로 기도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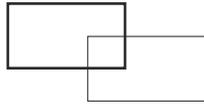
### 3. 결론

한반도를 위요한 강대국간의 세력 재편 과정에서 북괴는 대외적으로 평화지향적 자세를 과시하는 일방 대남적화를 위한 위장평화전술을 그 어느 때 보다도 적극화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시기 주객관 정세 판단에서 범한 오류와 우방과의 불협화음을, 그리고 북괴 남침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없으므로 해서 겪어야 했던 비극을 다시는 맛보지 않기 위해서 온 국민은 너 나 할 것 없이 북괴의 위장 평화공세를 직시하고 주체적 안보 및 국가관을 가다듬고 각자 맡은바 소임에 정진함으로써 북괴의 남침야욕을 사전 분쇄하여야겠다.



## 아시아는 움직인다.



김 수 욱

### 머 리 말

지금 현재 아시아는 새로운 세력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가장 유동적인 상태의 이 지역은 소련의 진출이 그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것은 미국과 중국에 이 지역 사정을 재검토하게 하고, 그들이 공통이해를 갖고 있는 곳을 찾게 하는 노력을 촉진시키고 있다. 이것은 또한 일본에서 군사적인 형태가 아닌 경제적인 새 민족주의의 등장에 박차를 가하게끔 만들고 있다.

장차 아시아의 어떠한 안정도 이 지역 강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중공·인도·일본의 3국간 관계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겠으며, 이것은 소련과 미국에 의해 묵인될 수도 있는 성질의 것이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인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는 미국이 스스로의 역할을 끝내 수행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다.

설사 그렇다치더라도 그것은 전투압무가 뒤따르는 새로운 코미트먼트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참된 문제는 미국이 베트남 이후 동남아시아를 전체로 볼 경우, 이 지역에 활발한 움직임을 하며, 계속 머물러 줄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그러면 만일에 강대국들에 의한 보증이 비현실적이며, 또 안전보장에 대한 기타의 어프로치가 곤란한 것이라고 한다면 평화를 위한 강대국들이 공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야 할까?

그것은 지역안전보장체제라는 규범을 무시할 수 없지만 더욱 강화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크다고 하겠으며, 일본을 중심한 안전보장체제의 구축이 아쉽다.

하지만 지역안전보장체제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라도 군사력의 빌드업을 필요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안전 보장에 있어서만은 경제적 또는 사회적으로 주요한 노력으로 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요한 타국동맹체인ENCTO(중양 조약기구)와 SEATO(동남아 조약기구)의 기능이 문제시되지 않을수 없는 처지에까지 이른다.

포괄적인 정책을 형성해야 할 경지에 놓여있다고 보는 것은 차질이 없는 생각이다.

한편 이상적인 견지에서 말한다면 정치적 압력 또는 간섭도 제외할 수 있도록 동남아시아 제국들 자신의 행동의 공통원칙이라는 명확한 규범으로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소한 새로운 아시아상에는 일본의 존재는 필수불가결한 존재다. 세계 제3위의 생산력을 가진 경제대국 일본은 유럽에 비한다면 그 비중이 상당히 적기는 하지만 세계 전체의 10%에 가까운 무역량을 갖고, 그것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역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제4차 방위 5개년 계획에 있어서 160억 달러를 투자해 통상무기 분야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일본을 무시한 아시아는 곤란할 것 같다.

이와 같은 관계에서 동남아시아의 평화적, 안정의 가능성을 점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 —미·중공의 접근과 동남아—

닉슨의 대중공접근 정책방향은 닉슨의 중공방문과 아시아세력을 개편하는 새로운 단계에 돌입함과 동시에 닉슨독트린의 보안 내지는 그 실적 향상의 구체적인 제12단계에 돌입하는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다.

닉슨독트린의 필연적 산물로서의 월남에서의 철군 및 중공의 UN가입은 중공을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도록 유도하여 정치적 4극화정세를 크게 노정하기 시작하였다.

닉슨대통령은 아시아의 현실적인 여건이 중공의 참여 없이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세력균형을 조절하기 곤란하다는 국제정치 역학작용을 고려하고, 그간 해방무우드를 조성하여 계속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4대 강국에 의해서 조성된 국제질서의 구조적 특성은 핵의 초대강국 미·소의 양국체제, 재래식 군사력에서는 미·소·중의 3극체제, 경제력에서는 미·일·소·구주의 4극관계, 정치력에서는 미·소·중의 3극체제란 표현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를 지배하는 톨은 전형적인 세력 균형원칙도 될 수 없으며, 냉전시대의 이데올로기도 아니다.

닉슨대통령이 미·중공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① 소련의 대미도전을 둔화시켜 보자는 것이었고, ② 전략적으로는 중소 분쟁을 더욱더 격화시켜 ③ 미·일 관계를 종전과 같이 파트너십을 유지해 나가는 국제정치역학관계 작용의 결과를 초래 시키려하는 것만은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와 같은 닉슨대통령은 소련과의 평화공존 관계를 그대로 유지해 나감으로써 중공의 대미접근을 더욱 더 촉진하는 효과를 올리는 한편 일본의 대소대중 접근의 한계성을 설정하는 효과를 거두지는데 있다.

전략적으로는 이데올로기를 유보하는 동시에 전술적으로는 실리를 추구한다는 국가 이익에의 가치중대가 각 구성분자의 행동의 초점과 그 추진 강도를 규제화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미국과 소련의 2극 체제에는 자유주의 대 공산주의라는 두 개의 블록에 3극 체제라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구조가 형성되었다. 강대국의 노골적인 이기주의가 이데올로기를 입어 거래되고 있어 세력은 극히 유동적이고 불안정하다.

중공은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방지하고 한일 및 일본과 대만 간의 밀접한 경제적 유대관계를 타파하고 이간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 내지는 관심사일 것이다. 그 자체의 내부적 요건으로 보아 미국이 극동으로부터 일본 후퇴한 오늘에 와서 일본의 군사적 및 경제적 강대화를 방지하고 한일 대를 상호간 고립시키는 것은 서로가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는 전략이라고 보아야겠다.

이에 따라 닉슨 정부는 닉슨의 중공방문외교(1221~228)의 성과로써 대화와 협상을 통한 당면문제 타개의 길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닉슨대통령과 주은래 수상간의 공동성명에 있어서 첫째의 국제관계회의의전으로서 모든 국가는 상이한 사회체제에 관계없이 평화 5원칙에 입각한 행동함과 아울러 국제분쟁은 평화 5원칙에 의거해야 하며, 국제정치의 이니셔티브를 장악하기 위한 제 행동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둘째,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지배권행사의 반대 세제, 제분야에서의 교류를 촉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러한 미·중공의 정상회담의 내용은 제3국으로 하여금 밀약의 인상을 풍기지 않으려는데 착안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대만문제, 한국문제, 인도차이나문제, 일본문제 등에서는 명분론에 국한 시키는 정도로 밝혀놓은 것은 배일에 가려 놓았다는 점이다.

여기서 주된 점을 살펴본다면 균형과 유동 가운데서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로 월남문제만 하더라도 월맹은 하노이 방송이나 난단 노동당 기관지를 통해 미국과 중공의 접근을 격렬하게 비난한 가운데 대국이 소국을 위협,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강조하는 것을 보면 중공의 영향력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했는가 하면 미국으로서도 쉬운 문제만은 아니다. 공산정권은 사이공 정권의 세력, 중립주의자,

베트공의 3개 세력으로 구성된 연립정부 구상에 「티우」월남 정부는 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월남문제는 미국과 중공, 또는 미국과 소련의 협상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미국측으로 보아도 미·중공의 접근에 관해 미·일 관계의 악화, 미·소 화해 무우드의 파괴 등을 들고서 비판하는 측도 있고 중공측으로서도 당 및 정부를 대표하는 측과 군부를 대표하는 파간의 압투는 문제시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통속적인 관념을 포괄하여 보면 미·중공의 접근으로 인한 세계질서는 다변화의 경향을 잉태하고야 말았다.

미·소 관계, 미·일 관계, 한·미 관계, 일·소 관계, 한·일 관계 등 아이러니컬한 정치적 문제가 현실로 남게 되었다.

### —새로운 질서의 개편—

이러한 결과 과거 미국과 중공간에는 대만문제와 월남전쟁 등으로 미국과 중공은 화해하기 어렵다는 상황은 사라지고 월남문제이거나 대만문제이거나 모든 문제는 미·중 공간에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종래 미·중 공간의 대결을 상징하던 여러 가지 분쟁 사건들은 종래와 같은 중요성과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각도에서 본다면 미국의 전통적인 대중공관은 이상적이고도 감상적인 것으로 내지는 중공정권을 중국본토를 지배하는 과도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상 미·중공의 접촉은 일본과 소련에 적잖은 영향을 준 것만은 사실이다. 미국의 세계의 경찰 시대가 어려움을 알고 5대양 어느 곳에도 초현대식 미사일을 적재한 군함을 보낼 수 있는 소련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여기에 그의 협조자로 중공을 택했던 것이다.

이것은 중공을 아시아 판도의 명실상부한 극으로 공인했음을 뜻한다. 여기에다 경제대국 일본으로 하여금 독자의교를 모색하게 한 결과도 초래했다. 이렇게 국제정치는 다원화시대로 접어 들었다.

미국·일본·소련·중공의 4대국 관계에서 볼 때 미국과 중공의 접근은 두 말의 여지없이 소련의 제 활동을 고립시키자는 데는 이론이 필요없다. 그러나 소련은 미·중 공회담이 가져올 불안과 충격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로미코외상을 후쿠다외상과 회담하게 만들었다.

이같이 미·중공이 화해무드를 조성함에 일본과 소련은 각각 왼쪽 뺨과 오른쪽 뺨을 얻어맞은 상태가 되어 버렸다.

왼쪽 뺨을 맞은 사또는 지난 2월 28일 대만은 중공의 일부라는 폭탄 발언을 하여 대만은 중국본토의 일부라는 미국의 견해를 앞지른 발언이었다. 그러나 작금의 대만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본은 3월1일 일·중공 관계가 정상화된

후에 대만을 중공영토의 일부로 간주해야 할 것이라고 선언하여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 어찌됐던 일본은 중공의 대일 관계에서 접근의욕을 고무하려는 눈치가 역력하다. 여기에서 일본은 미국을 제쳐놓고, 선생 벵글라데쉬를 승인하는 조치까지 취하는가 하면 몽고와의 공식외교 수립관계, 북괴와의 접근 등 미·중공 접근에 자극된 일련의 움직임을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

소련 역시 미국의 대 중공관계 개선에 상당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 미·소의 관계가 상대방의 기존세력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현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은 사실일진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공의 영향력중대는 그들에게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고 있다. 안 그래도 아시아에 관한 미·소 관계는 그들이 제창하는 평화공존의 무드가 조성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긴장완화에는 일보 후퇴한 느낌마저 있기 때문이다.

작년 인도·파키스탄 전쟁에서도 미·중공이 협력하여 소련에 대항하였는가 하면 특히 인도문제에서는 소련의 영향력의 증감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리하여 소련은 이제 이데올로기로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유럽에서의 독소 불가침조약, 신생 벵글라데쉬의 수립, 북괴와 월맹에 대한 경제·군사원조 등 심지어는 대만에까지 손을 뻗치는 다변외교는 중공에 대한 봉쇄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69년 8월 7일 세계 공산당 대회에서의 아시아 집단 안보체제의 필요성을 제창한 것은 중공을 봉쇄, 견제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증대하려는 것이라 하겠다.

국제정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은 자국의 이익이다. 자국의 이익을 무시한 국제교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차이에 일본과 소련의 접근시도는 아시아에서 4극 체제가 구현 돼가는 상황을 의미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볼 적에 양국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전후 영토처리문제 등으로 실질적인 협상이 없었지만 지난 1월 23일 그로미코의 동경행은 일본의 대미관계에서 독자적인 입장을 취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중공에 대한 접근을 더욱 견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문제점은 실질문제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전개될지는 두고보아야 하지만 일단은 일·소 관계가 쉽게 전환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설령 소련이 일본영토를 반환한다손 치더라도 2차대전 때 소련이 장악한 폴란드·루마니아·체코에 대한 상당한 부분의 영토 반환도 문제가 되니만큼 궁극적인 해결은 까다로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국제정치가 다원화되어감에 따라 미국은 새로운 국제질서 개편에 적응하기 위하여

세계 경찰역할로부터 조정자 역할로의 방향전환에 주력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내용을 다시 풀이한다면 우방국에 대한 공약은 지킨다고 해놓고 중공을 여기에 끌어들이므로써 미국이 현재의 아시아분쟁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현상유지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국제정치가 다원화시대로 접어들었다해도 자국의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을 경우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 것인가는 자못 궁급하다.

4월초 월맹군의 대공세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폭을 증가하게 했고, 따라서 소련과 중공은 다투어 군사원조를 아끼지 않았다. 강대국의 전력정치는 이해를 떠나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닉슨이 모택동을 만나고, 그로비코가 후꾸다를 만나는 일련의 회합은 군사적 대립 상태에서의 평화공존 관계를 상호 실리추구관계로 발전시키려는데 기인하고 있다.

### —최근 북괴의 동태—

그런 한편 북괴는 대내외적으로 적화책략을 위한 체제강화와 세력신장을 노려 계속 발버둥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한국의 총력안보 요강을 비난하고 일·조 우호축진 의원연맹의 대표단을 맞아들여 그들이 말하는 소위 평화통일 공세를 주장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두개의 한국을 굳히려는 책략임에 더욱 주목을 끈다.

제일 먼저 그들의 낙후된 기업과 건설분야에서의 발전을 기도하고자 북괴는 일·조 의원연맹 대표단과 무역확대에 관한 합의를 가졌다. 물론 현 사또 정부에서는 북괴와 어떤 공식적인 접촉도 수립할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고 있으나, 단순히 취급될 수 없는 점은 종래의 우호무역 방식에서 일본과 중공 간에 적용하고 있는 각서무역 형식으로 전환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또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의도 아래 회의를 가졌다는 점은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강경한 항의와 사또 정부의 강력한 규제는 일·북과 각서무역은 그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하겠다.

둘째, 지난 2월 21일 북괴는 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하여 한국의 총력안보 요강을 비난했다.

대내외적으로 지지도가 높아져 가는 대한민국의 발전상에 대하여 초조한 나머지 상투적인 비난에 불과한 것이라 하겠다. 한국에서 취하는 모든 조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가로막는다는 발악적 낚두리, 그것은 날로 급변하여 가는 국제정세와 한국의 거국적 안보태세 확립의 자세가

그들의 야욕을 백일몽으로 화할 가능성에 막대한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북괴의 이 같은 선전공세는 이제는 일고의 가치마저 없는 것이다.

셋째, 북괴의 순방외교의 강화를 들 수 있겠다. 지난 2월 10일을 기해서 상(相) 및 부상급(副相級)을 단장으로 하는 6개 고위사절단을 각 지역별로 파견,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현안이 되고 있다. 67년도 방문초청 외교 이래 최초의 일로서 국제 전력구조의 개편되는 제반요인에 편승하여 중·소의 대립에 구애됨이 없이 상호유대를 확립하자는 속셈이다.

UN에서의 동시초청, 나아가서는 국교를 수립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의 진출을 꾀하자는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문제점은 남북분단을 현상 고착화 시킨다는 점에서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평화통일이라는 유명간판을 걸고 나오는 괴수 김일성은 최근에 들어서는 반제·반봉건·민주혁명이라는 슬책으로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요약하여 보면 ① 국제적인 긴장완화 추세와 전쟁 준비완료 운운은 남한에서의 민주혁명을 적극 공작하는 평화공세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고 ② 국제정세의 긴장완화와는 달리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서 군사적인 선점(先占)을 기도함으로써 무력의 적화를 노리자는 상승작용(相乘作用)이 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동남아 내지는 동북아에서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내외에 풍기면서 소위 결정적 시기를 기다려 전반적인 공격태세로 전환함으로써 한국의 대북괴 대응태세가 원인인듯이 부각시키려는 책략임에 틀림없다.

지나간 6·25가 바로 그 좋은 예에 속한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른바 평화통일 방안은 어디까지나 대남적화전략 속의 전술적 측면에 불과한 것이며, 국제적으로 대북괴 경계 여론의 음폐할 수 있는 사전 포석의 강화조치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

## 결론

### —한국 안보상에 제기 되는 문제점—

아시아에서 새로운 질서가 개편되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북괴의 위장된 평화주의 접근공세의 전개는 북괴가 평화무드를 심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국내의 정세와 관련해서 안겨 주는 문제점들을 살펴 보아야 할 것 같다.

첫째, 두 개의 한국형성이라는 현상 고착화의 성격이다. 미·중공과 일·소련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접근함으로써

미·중공의 한반도 정책은 제2의 알타를 탄생시킬 위험성 마저있다.

더욱이나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의 기본적인 성격 역시 두 개의 한국을 측면 지원하는 양태인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들 제국은 UN 동시가입이라는 형식으로까지 끌고 갈 기미마저 없지 않다.

둘째, 닉슨 독트린을 한반도에 적용하려고 판단하고 있는 북괴는 한·미 관계를 이간시켜 한국의 국제적 신위와 정통성을 추락시키려는데 있다. 이것은 한·미공동체의 UN적 성격의 탈락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 군사동맹체 자체가 미국의 대한정책과 관련하여 보면 설령 그것이 비 유엔화 정책을 써왔다 하더라도 작금의 소련의 대북괴 경제원조 등 일련의 북괴에 대한 원조는 미국으로 하여금 쉽사리 비 미국화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세째, 이상과 같은 일련의 국제적인 긴장완화 무우드에 북괴는 더욱더 평화선전공세로 한국정부를 고립시키기에 혈안이 될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환경에서 불 때 긴장의 근원이 되는 북괴는 동북 아시아의 불씨인 바, 그 불씨를 끄지 않고 미·중공이 접근함으로써 한반도의 덜 렴머로 등장하기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북괴의 책략을 경계하고 한·미 관계를 굳건하게 하여 공식적인 한·미 정계협의체를 형성하여 이것을 통한 가능한 대응태세완비와 대외적인 민주협동태세와 국내적인 총력안보 태세를 정비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우리 정부와 국민은 미국의 세계전략의 방향을 신속 정확하게 판단하는 동시에 우리 주변의 주요 영향 국가인 중공과 소련·일본의 대한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태세와 제 방안을 진보적으로 확립함으로써 통한 접근의 가능성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자세를 정립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닉슨 정부의 대한정책 방향을 인식하고, 그러한 움직임에 적용할 태세를 정립하도록 국내적인 대비태세를 정비함과 아울러 국론을 규합 귀일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미국·일본·중공·소련 등을 주축으로 한 아시아세력 개편과정에 대응할 안보태세와 통일외교 축진의 민주외교태세를 형성하고, 나아가 민족정신에 입각한 대내적인 동질성과 대외적인 주체성을 확보하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당신의 응지를 조국하늘에



<아내가 조종사 남편에게>

윤 여 훈  
<대한적십자사 섭외부 간사>

참 오랫동안 당신께 편지드립니다. 지난 9월에 집에 오신 이후, 저는 멀리 떨어져 지내면서 편지를 자주 나누었던 것이 오히려 얼마나 대화의 교량 역할을 하였던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닙니까. 우리는 서로 떨어져 있을 때는 우리 생활 이상을 같은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피차의 생각을 주고받으며, 그러한 관계에서 서로 거리감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추상(抽象)의 세계에서 같이 나누었던 우리의 생활이 같은 지붕 밑에 살면서부터는 오히려 없어서 가고 있다고 생각지 않으시는지요.

아침 저녁 얼굴을 대하면서 현실적인 생활을 같이 이어가는 유기적인 관계가 되면서부터 당신의 모습에서 개인적인 이상과 공적인 사명감이 깨끗하고 단정한 유니폼 속에 잘 조화된, 어느 세계에서라도 바람직한 청년을 보고 마음 설레이던 옛 버릇이, 오늘 저녁엔 일찍 들어오셨으면, 몸이 아픈데 나를 좀 다정하게 대하여 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너무나 뻔한 아내의 욕망에서 당신을 쳐다보는 속된 버릇으로 고정되어가는 자신을 느끼고 좀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던차에 당신에게 편지를 드릴 기회를 공군지에서 마련하여 주셔서, 한동안 당신과 나누지 못한 말씀이 온통 머리 속에 얽혀 생각이 나 지금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개편지여서 잘못하면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할 염려가 있고, 반면에 당신께만 드리고자 한 저 말씀이 다른 공군 부인들께 대하여는 객관성을 잃은 아내의 변(辯)이 될 염려가 있긴 하지만 제가 공군 소령의 아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점에서 조종사 아내의 공통된 소망의 최대 공약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공군지 청탁서에 주어진 “당신의 응지를 조국 하늘에” 라는 리는 제목을 소리 내어 읽어보니 말씀이 거대하게 추상적인 느낌이 오는데다 운(韻)까지 딱 들어맞으니 당신께 몇 줄 시라도 써드리고 싶은 생각나기는 합니다만 항상 땅에다가 발을 디디고 땅에서만 당신을 받드는 저의 입장에서야 당신이 땅 위에서 뜻을 잘 펴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날고 있는 공군 조종사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선 대단히 기술적인 면이 연상되어, 그 기술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타고난 재주가 있으면 더욱 잘 되고 좋은 교관을 만나 열심히 연마(研磨)하면 누구라도 습득된다는 점에서 다른 기술과 큰 차이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당신은 기술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조국을 지키기 위한 전체 국방의 힘을 끌고가기 위하여 그 일부분인 조종기술을 그 방법으로 택하신 것 뿐이겠습니다. 일단 당신의 입장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면 비록 하급 장교로서 대단히 기계적인 작은 몫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 하여도 전체 힘의 총화를 감지할 수 있게 되고, 그 작은 위치에서도 그러한 총화된 힘의 방향으로 나를 밀고 갈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는 것이 아닐는지요.

제가 당신과 결혼하고 나서 가장 값있는 것을 찾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사회인의 입장에서의 군대에 대한 발견입니다. 군대는 담당하신 분들이 그 힘을 어떻게 끌고 가든지간에 군대는 오랜 인류사 속에서 가장 잘, 심각하게 철학적이고 과학적이며 또한 처절하도록 아프고 슬픈 인간성마저 토대로 하여 다듬어진 조직이라는 발견을 하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군대는 가족제도보다 더 이전부터 영원한 조직이었으니까요. 다만 그 담당하신 분들이 그 가치의 표면에서 오용(誤用)하든가 겉도는 예가 많은 것 뿐입니다.

강의시간 중에 밖에서 군대 훈련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무한정 교정 주위를 뛰어 돌기만 하는 것입니다. 측은한 생각도 들어 관심에 끌려 밖을 내다보니 원 이럴 수가 있나 이번에는 총대를 든채 팔을 쳐들고 뛰는 것입니다. 저것이 바로 기합이라는 것인가보다 싶어 당장 항의를 하기로 하고 관계자의 방에 뛰어 올라가 그냥 뛰는 것도 초 인간적으로 시키면서 손까지 들게 하느냐고 기합의 비 인도성을 한 장교에게 공박하였더니 그 장교님 말씀이 손을 내리고 너무 오래 뛰면 혈액순환에 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젊은 장교의 이러한 해명이 대단히 과학적으로 들렸고, 그날 저는 여러 가지 군대의 문제를 연상하여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과학성을 지닌 군대의 훈련 내용을 신체의 기계화나 우매한 복종의식의 습성 화에만 두고, 동기부여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 피훈련자를 그저 단순한 사람의 집단으로 만들 엄려가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군대가 베풀어주는 타협없는 훈련의 동기를 정신적으로 잘 부여받은 군인은 오히려 가장 멋있게 단련된 남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모로이가 그러한 훈련을 통하여서 청년의 정수를 찾아 낼 수 있다고 말한 것도 바로 그러한 뜻이 아닐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군대의 교육은 오히려 참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타협없이 지켜야 하는 일정한 원칙을 권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장교는 그 많은 차원에서 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요구받고 있음을 자각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일반사회에서는 철학하는 사람이 단정치 못하여도 철학을 인정하는데 하등의 영향이 없으나 군인은 제복을 구기고 다녀서는 용서받을 수 없다든지, 일반사회에서는 외교관이 아니면 용서될 수 있는 의전(儀典) 상식을 군인은 갖추어야 한다든지, 일반 공무원의 공생활은 사적(私的)인 이해관계로 좌우되어도 개인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해석을 받을 수 있으나 군인은 개인적인 이익 추구의 권리주장 이전에 사명감에 살아야 한다든지 그리고 사교가가 아니면서도 당신이 입고 계신 제복을 항상 신사의 수준에 있어야 한다든지…….

그 중에서 일반에게 인식된 수준이래야 고작 다양한 사회의 여러 층에서 모아놓은 각종의 청년들을 당신과 같은 장교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한 집단

으로 끌고가는데 있어 무자비한 원칙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훌륭한 군인이야말로 참으로 고전적인 다양성을 지닌 인격이어야 한다고 말한 토인비의 주장을 저는 참으로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대 속에서 완전히 군대교육을 오해하고 엉뚱한 영향만을 받는 사람은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로 국가에서 베풀어 주는 기회로 군대 교육을 받고, 이어서 외국 학위까지 받고 사회에 나와서 행세하는 어떤 명사 한 분이 처신을 똑바로 하지 않고 나서는 군대에서 배운 버릇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제가 군대에서 언제 당신에게 그런 처신하라고 가르치더냐고, 나는 남편을 통하여 군대에 대한 간접교육을 받은 여자라도 군인은 고행을 견는 수도사(修道士)와 같은 인격이어야 한다고 배웠노라고 있는 힘을 다하여 그에게 면박을 주고 나서 당신에게 몹시 꾸지람을 들었던 일……;당신도 기억하시지요?

자기 부모도 주지 못한 교육기회를 그래도 군대에서 찾아 엄청난 혜택을 받고 나서 사회에서 지위를 얻은 사람들이 일반사회와 군대 사이에 가장 의미 있는 교량 역할을 할 최소한도의 의무가 있다고 자각하기 전에 이러한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은 일반사회와 군대 양편에 모두 죄를 범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에게 할당된 지면이 없어져 갑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대화를 다시 찾은 기분으로 당신에게 드린 몇 마디 말씀에 대하여 꼭 답변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서는 아내인 제가 곧 대중이고 대중이 곧 저라고 말씀하셨던 일을 생각하고 저는 언제나 당신에게 주저없이 말씀드리는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일찍 들어오세요.

1972년 5월

당신의 아내 드림

<조종사가 아내에게>



## 빨간 머플러의 영광을 영원히

공군소령 서 진 태

공군지에서 조종사의 입장에서 아내인 당신에게 몇 마디 하라고 빨간 머플러의 영광을 영원히라는 제목까지 준 지가 한 달이 넘었오. 빨간 머플러에 대한 인식을 당신에게 새로히 하여 즐겁게 오랫동안 차분히 편지 한장 쓸까 하였던 것이 공군지 원고 청탁 기한이 벌써 저만큼 지나버렸으니 몇 마디 말이 급하게 된 기분이요.

아내에게 하란 말의 제목이 ……영광을 영원히라고 되어 있으니 분명히 빨간 머플러의 영광은 당신에게 주라는 뜻으로 문득 해석이 되는데, 오히려 지난해 9월 영월 상공에서의 일로 엄청난 충격과 고난만을 당신에게 주게된 나로서는 처음부터 당신을 위한 한 마디 영광의 말로 떠오르지 않소. 그러나 빨간 머플러에게 영원히 영광이 있도록 하는 것은 아내의 사명이라고 해석을 하여 보면 당신에 할 말이 쏟아져 나올듯도 하오.

군복을 입어서 나를 표시하고, 게다가 빨간 머플러까지 둘러서 완전히 한정된 특수생활을 남에게 공개하고 있는 사람의 아내로서 당신의 타고난 성격과 자라온 환경으로 보서는 괴로와할 요소가 많고 불편을 느낄 때가 잦으리라 생각되는데도 항상 나의 생활에 대하여 구심력있는 생각과 자세로써 따르고 있는 당신에게 참으로 영광을 주고싶은 생각이요.

나의 생활 원칙이 연약한 당신에게 감당하기 어려운데 많겠지만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을 당신에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부담없이 들 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요.

완전히 수동적인 자세에서 남편을 섬기는 복종형의 여인을 훌륭한 아내로만 볼 수 없게 되었다면 이제는 남편과 남편의 세계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아내가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는데

당신이 후자의 경우가 되고자 노력하는데 대하여 빨간 머플러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이 당신의 이해를 많이 방해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소.

그러나 내가 당신과 결혼할 때 벌써 다 되어진 일을 누리고 당신에게 영광을 결혼식장에서부터 안겨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이 나의 아내가 된 것은 결코 아니니까 변함없이 사명을 추구하는 나의 생활에 밀거름이 되어 달라는 말을 꼭 이기적으로만 생각할 수야 있겠소?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조직체에서 제도적으로 나에게 보장되어 있는 최소한도의 기능을 가지고 타성적인 운동량에 나를 맡기는 생활을 하는 것이야말로 나는 가장 못난 남자의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소. 일정한 시기에 태어나서 그 일정한 시기의 역사의 방향을 짚어진 사람으로서 나는 때로 초조하도록 급한 일을 앞에 느끼고는 하오. 역사의 운동량에 폭이 있다면 나는 그 폭의 최대한의 한계의 힘을 쥐고 살아가는 젊은이가 되고 싶을 것이요.

최소한도 지금 다섯살박이 주호가 공군사관학교를 거쳐 공군의 한 장교가 되었을 때까지 나는 나에게 주어진 역사의 사명이 있다는 의식에 얼마나 강렬하게 지배를 받을지 모르오. 내가 20년 후에 아들에게 넘겨주게 될 나의 세계가 그렇게 완전히 확립된 조건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도 한 시대를 맡은 사람으로서 가졌던 역사적의 흔적이라도 남겨야 되지 않겠소.

당신이 나에게 항상 하는 원망은 사실상 모두가 이해할만한 호소인 것은 사실이요. 한 마디로 묶어 말하면 당신의 얘기는 내가 당신은 나의 생활을 위한 갖가지 수단으로 밖에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사실상 그 수단으로 나의 공군생활의 추진력을 갖고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또한 무엇이 잘못되면 당신에게만은 책임을 묻는 내 버릇도 괜한 신경질은 아니란 말이요.

당신이 책 한 권을 더 읽어도 그것은 곧 나의 양식을 위한 것이고, 당신이 아름다운 옷을 한 벌 더 입어도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라는 생각이 지금쯤은 당신에게 습관이 되어 있으리라 믿고 있소.

군인 중에서도 조종사는 참으로 한정된 생활권에 묶여 있을 염려가 있는 젊은이들 이기에 그 아내들은 참으로 다양하고 깊은 인격구성에 노력하는 여인들이어야 군대가 바라는 이상적인 군인 형성에 사적인 뒷받침이 되리라고 생각하오.

아무리 입은 제목이 멋이 있어도 멋은 그 속에 든 사람이 지녀야 하는 것이기에 따지고 보면 군대는 하나의 집단이면서도 얼마나 개인적인 조건이 필요한 사회인지 모른다오.

제복은 사람을 똑같이 보이게 만들지만 반면에 같은 제복이라도 입은 사람에 따라 그 가치와 모양이 달라지는 상대적인 조건을 지니고 있소. 제복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내가 모든 추상적이며 현실적인 이해와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은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보고 있는 당신이 아니겠소.

우리 같은 군인은 애국이라는 어휘를 하루에 한번쯤은 입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생각하며 활동하고 사는 일 자체가 나라를 지키는 일이고 따라서 사회에서 가끔 애국이라는 말을 각성제 먹듯 얘기 하면서 사실상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리 몰리고 저리 몰려가는 사람들과 같은 현실적인 이익이 나와 같은 군인에게에는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군인 남편보다 더 확고한 신념을 지녀주지 않으면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영향을 받아 속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요.

군인은 역사가 어떤 전환기를 맞이할 때 그 앞에서 인간의 가장 험악한 비극을 스스로 자행하기도 하고, 그것을 극복하기도 하며, 그런 순간에 언제나 현명하고 정확한 판단을 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입장이요, 군대는 철저히 명령에 의하여 움직이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명령하는 사람의 인격과 지혜가 너무나 문제된다는 점은 말할 것도 없지만 명령을 받은 사람 역시 그 명령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재량권이 주어져 있다는데서도 마찬가지로 내적인 자신은 필요하오. 더구나 빨간 머플러의 전투조종사에게는 전투명령은 주는 입장이나 받는 입장이 높은 지혜와 인격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절대 체제이니 더욱 그러한가 보오.

명령을 받고서도 좋은 명령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복종하지 않는다는든지 또 명령하는 입장에서도 수행자가 자격이 모자라는 사람이면 적당히 처리한다든지 하는 일반 사회인의 태도를 나는 당신을 통하여 목격하고 우리 군대의 인적 자질 양성이 일반사회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소.

언제나 나와 나의 군대생활의 필요성만은 당신에게 제시하고 섬세한 욕망을 지니고 사는 당신을 즐겁게 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소. 그러나 나는 당신이 나에게 대하여 어떠한 기대를 걸기 이전에 나는 벌써 우리 공군을 위하여 나 자신에 대한 기대에 차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도 알기를 바라오. 당신의 이해와 협조로 내가 여러 번 국가와 신 앞에 맹세한 사명을 다하여 기대에 맞는 영광이 오는 때 나의 빨간 머플러를 당신의 목에 걸어주겠소.

1972년 5월 아빠가

# 공·군·만·상

박진래



지상에서는 형편없는 완행이라서……

트론포를 받던 날에  
음속돌파 최고 기록  
— 공변이 — 공교롭게도  
▲ 베타런급 파일럿

▲ 노곤한 계절

또 즐고 있잖아!



# 공·군·만·상

## ◀공군 구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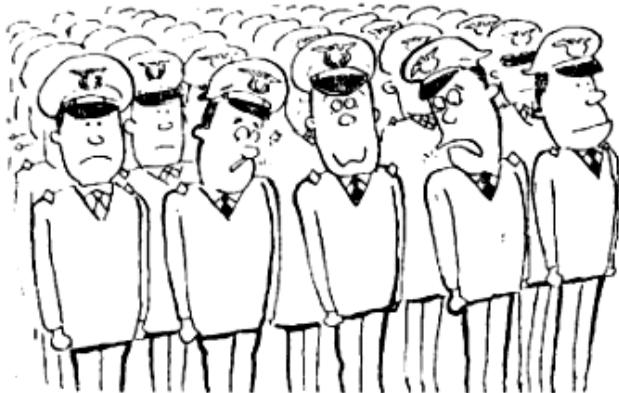
우리는 정예 공군  
 싸우자 1:3  
 무찌르자 1:3  
 이기자 1:3



저 녀석은 1:3으로 걸 헌팅이로구나.....

엇! 어느새 내 것을 하나 슬쩍해갔잖아!

한 사람 있었다.  
 분실한 후보생이  
 임관식날 계급장을



## —의학강좌—



최 기 용  
 <최안과의원 원장>

현대인은 피로하다. 날로 복잡해지는 생활 환경 속에서 하루의 일과를 무리 없이 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육체적인 피로와 더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끊임없이 건강생활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최근 정신신체의학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생활인이 늘어만 가는 현상이다.

내 몸이 천량이면 눈이 구백구십량이라는 속담도 있듯이 귀중한 눈이 이상의 여러 “스트레스”로 피로하게 될 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까? 아마 여러 질병들도 대부분 경험하여 잘 알고 있으리라 믿어지지만 밤잠을 못잔 경우라든지 책을 오랫동안 계속 본 경우, 또는 TV 시청을 오래 한 후에 흔히 눈에 피로 현상이 잘 일어난다.

이상과 같은 경우에 흔히 “산스타”“데카론”“바이진”등과 같은 매약을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아스피린”이나 “사리돈”같은 진통제를 복용하는 수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원인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뿐만 아니라 습관화됨으로 인한 약물의 부작용 때문에 새로운 고통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흔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를 미연에 막고 올바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계몽하는 일이 우리들 의사에 있을 줄 알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자 한다.

눈이 피로하다는 말은 학술적으로는 안정피로(眼精疲勞 : Asthenopia)라고 하는데 이는 질병 이름은 아니지만 다음에 설명하고자 하는 여러 질병에 의하여 일어날 수 있는 증상으로서 눈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 특히 독서같은 근거리 작업을 하게 될 때 건강인에 비해 쉽게 눈이 피로하게 되어 안구통(眼球痛), 두통, 전두부압박감 또는 시력이 차츰 나빠지면서 글자나 물체가 흐려진 다든지 둘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독서 시 줄을 잃어버리게도 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오심(惡心) 구토 같은 증상도 일어나게 된다. 이상과 같은 안정 피로의 제 증상들은 환자 개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어 항상 피로움을 받는 사람도 있고,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몸이 쇠약하거나 과로로 피로한 경우에만 나타나는 수도 많은 것이다. 그러면 이상과 같은 고통스런 증상이 어떠한 원인들에 의하여 일어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조절성안정피로(調節性眼精疲勞) : 대부분의 안정피로가 이 범주에 포함된다. 원시, 난시, 노시(老視), 망막부동상(網膜不同像) 및 조절장애(調節障礙)에 볼 수 있다. 우리들은 시력검사를 하여 자기의 시력이 1.5나 2.0이 나오면 시력이 좋다고 몹시 기뻐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시력은 정상적으로 1.0이나 1.2가 표준이고 1.2이상이면 너무 좋아 오히려 비정상시력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 정도의 원시를 가진 사람이 대체로 시력이 좋은 편이다. 원시가 있으면 시력도 좋은데 왜 나쁜가 하면 우리의 눈은 외계의 물체를 볼 때, 먼 곳을 보다가 가까운 곳을 보게 되면 사진기에서 핀트를 맞추는 원리와 흡사하게 눈 속에 들어 있는 “렌즈”가 조절작용을 하게 되어 똑똑하게 볼 수 있다. 정상적인 눈은 먼 곳을 볼 때에는 조절작용을 하지 않고도(선 상태로) 똑똑히 볼 수 있지만 원시인 경우에는 먼 곳을 볼 때에도 “핀트”를 맞추기 위하여 “렌즈”와 연결된 모양체 근육을 수축하여 조절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원리로 가까운 물체를 보게 될 때에는 정상인보다 더 많은 조절작용이 필요하게 되며, 따라서 우리들이 과로 후에 몸이 피로하고 고통스럽게 되는 이치와 같이 눈이 아프고, 피로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 약이나 함부로 쓰지 말고 안과에서 자기 눈에 맞는 원시 안경을 처방받아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항상 안경을 착용토록 하여 필요없는 과도한 조절작용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치료가 될 것이다.

난시란 우리가 물체를 볼 때 어느 한 면만 초점이 맞고, 다른 면은 초점이 맞지 않아 흐리게 보이는 상태인데, 환자 자신은 잘 느낄 수가 없고, 정확한 안과적 검사로서만 진단할 수 있는 것이다. 쉽게 얘기한다면 난시인 경우에는 외계의 물체에서 반사되어 자기의 눈 속으로 들어오는 광선들 중에서 어느 한 방향(예를들면 상하방향)으로 들어오는 광선들은 망막(사진기의 필름에 해당함)에 초점(핀트)을 잘 맺을 수 있어 깨끗이 볼 수 있지만 그 반대방향(위의 예에서는 수평방향)으로 들어오는 광선들은 망막상에 초점을 맺지 못하여 흐려지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양방향으로 들어오는 광선들을 모두 망막상에 정확한 초점을 맺을 수 있도록 조절작용이 무리하게 일어나게 되므로 피로를 쉬 가져오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원시와 같이 정확한 안경만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 될 것이다.

다음은 노시와 안정피로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사람의 눈은 인체의 어느 기관보다 빨리 노인성 변화가 일어나는 기관중의 하나이며, 또 쉬 노인성 변화를 느낄 수 있다. 특히 눈속에 있는 “렌즈”는 나이가 25세가 되면 벌써 탄탄한 핵이 탄력성있는 “렌즈”의 중심부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나이가 더 붙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차츰 핵이 커지게 되면 조절력이 점점 줄어들어 가까운 곳을 보기가 어렵게 된다. 이때가 대개 40세 전후인데 초기에는 오후나 어두운 곳에서의 복서에 곤란을 느끼게 된다. 치료는 눈에 맞는 돋보기를 착용하고 근거리 작업을 하여야 하며, 대체로 3년만큼씩 안경을 갈아야 한다.

둘째, 근성안정피로(筋性眼精疲勞) : 조절성 안경피로 못지않게 흔히 볼 수 있다. 우리의 눈에는 안구를 중심으로 안구 밖에서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이 6개, 양안에 12개가 있어 보고 싶은 어느 방향이나 안구를 움직일 수 있다. 정상인은 이들 6쌍의 근육이 잘 평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똑바로 눈이 박혀있게 된다. 그러나 어느 한 근육이 약하거나 너무 강하면 평행이 깨어지고, 사시(사팔눈)가 된다. 눈이 돌아가 있으면 쉽게 발견이 되지만 눈은 돌아가 있지 않지만 평형상태만 약간 깨어진 상태로 있는 경우(이를 잠복사시라고 함)는 흔하다. 잠복사시는 겉으로는 사팔눈이 아니지만 물체를 응시하는 시선을 차단 당하면 본래의 위치로 눈이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두 눈이 한 물체를 보아 복시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로 입체감을 느끼며 볼 수 있는 융합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부족한 근육이 무리를 하게 되어 외견상 평형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영화나 TV를 시청할 때나 독서를 오래하게 되면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된다.

외사위(눈이 밖으로 나가려는 경향이 있음)나 상사위(눈이 위로 올라가려는 경향이 있음) 등에서 안정피로가 잘 일어나고, 치료는 약한 근육을 “프리즘”안경이나 약시경으로 강하게 하는 연습을 시키든지 치료에 저항하는 경우에는 사시 수술을 실시하게 된다.

셋째, 증후성 안정피로(症候性眼精疲勞) : 결막, 안검, 각막 등에 질환이 있을 때나 녹내장 같은 질환이 있을 때 볼 수 있다. 결막염이나 각막염 같은 외안부 질환은 환자 자신이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치료에 어려움은 없으리라 본다. 그러나 녹내장같은 무서운 질환은 초기에 잘 모르고 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쉽게 설명을 하겠다.

녹내장(綠內障)이란 안구내압이 정상 안압(17mmHg) 이상으로 오르므로 인하여

안기능에 장애를 초래하게 되는 질환으로 실명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안구는 손끝으로 만져보면 약간 딱딱하면서 말랑말랑한 감촉을 느낄 수 있다. 소변을 오래 참게 되었을 때 방광이 딱딱하게 되면서 하복부에 통증이 생기는 이치와 같이 우리의 눈도 방수(안구 내에 들어있는 물)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고이게 되면 안구내 압력이 오르게 된다. 안압이 증가하게 되면 압력 때문에 통증이 일어나고 시신경도 눌러 실명을 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45,000명이 이 녹내장으로 실명하고 있으며, 40세 이상의 미국인 2%가 이 질환을 앓고 있다 한다. 따라서 40세 이후에는 안압을 측정하는 것이 안과에서는 필수검사로 되고 있으며, 초기 증상이 안정피로처럼 시작되는 수가 많기 때문에 경솔하게 넘길 수 있을 것이다.

네째, 신경성 안정피로(神經性眼稜疲勞) : 히스테리, 신경쇠약, 기타 신경증 같은 정신과적 질환에서 볼 수 있는 안과적 증상으로 안과적인 치료보다 정신과적 치료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안경은 왜 안과에서 검안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법적으로도 검안은 의료행위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귀중한 눈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도 없을 것이고, 더욱이 이상 설명한 안정피로의 원인을 알았을 때 함부로 안경을 사서 쓸 수 없으리라 믿는다.

그러므로 평소에 머리가 무겁고 자주 눈에 충혈이 된다고 약방에서 아무 약이나 사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비경제적이고 또한 자기의 건강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행위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의 양식>**

- ◇ 빈곤의 부정한 것을 가르친다. <세네카>
- ◇ 빈곤은 수치는 아니고 지독한 불편인 것이다. <스미스>
- ◇ 가난이 불행이 아니라 진실로 불행한 것은 분수에 넘치는 재산을 바라는 것이다. <세네카>
- ◇ 제 일의 성공 비결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것이다. <D. 카네기>

**<연구문>**

**공군의 지상사고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1971년도 사고통계를 중심으로-

김 영 택

1. 서 언
2. 지상사고 분류 및 정의
3. 지상사고 통계분석
4. 지상사고 발생경향
5. 지상사고 방지대책
6. 결 언

**1. 서 언**

고대로부터 현금에 이르는 동안 우리는 사소한 지상사고(地上事故)로부터 크나큰 지상사고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고로 귀중한 인명의 손실과 막대한 재산의 손실을 입어왔다.

이토록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안전사고가 군에 미치는 영향은 한층 더 중요한 것으로 군에 있어서의 안전사고의 결과는 전투요원이든 비전투요원이든 간에 전력의 손실을 초래할 뿐더러 각종 훈련 및 군 전력이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함과 동시에 막중한 국가재산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안전사고는 어떤 원인이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임을 미국의 안전관리자 하인리히의 사고는 결코 자연에 기인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사고 중 98%가 인위적 또는 기계적 결함에 의하여 일어난다는 통계의 결과를 인용함으로써 더욱 잘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안전사고는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지상안전사고의 원인들 중에는 불안

전한 행동이나 조건 또는 부주의나 인식 부족 ...등의 많은 사고 원인이 있다. 따라서 지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상기(上記)한 원인들을 시정하고, 이미 발생되어진 사고의 원인을 분석 검토하여 유사사고를 방지하여야겠으며, 또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케이스 스타디(Case study)하여 철저한 사고방지대책이 모색 되어져야 한다.

필자는 3년간 안전업무에 종사해 온 알팍한 지식을 토대로 1971년도 전 공군에서 발생되었던 사고통계를 인용하여 지상사고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사고방지 대책사항을 기술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사항을 기술하고자 애써보았고, 지상사고의 분류 및 정의를 삽입함은 지상안전사고의 종류를 완전히 파악치 못하는 초보자를 위하여 개요만을 기술하였음을 밝힌다.

## 2. 지상사고 분류 및 정의

공군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 중 지상 안전사고로 취급하는 것은 크게 차량사고와 일반사고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차량사고

차량사고 중에는 공군 차량사고와 비공군 차량사고로 세분된다.

(1) 공군 차량사고 : 사고발생 당시 운행되고 있던 공군차량에 관련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내용에는 차량과 차량간의 충돌과 차량과 보행자간의 충돌을 들 수 있다.

(2) 비 공군 차량사고 : 비 공군 차량만이 관련된 사고로 공군 군인이나 취업 중인 공군 군속에게 인명 및 재산의 손해를 입히는 사고를 말하며, 내용에는 외출, 휴가 중 또는 공군차량이 운행되고 있지 않을 당시 민간인 차량에 의하여 일어난 사고 등을 들 수 있다.

### 나. 일반사고

공군 일반사고라 하면, 공군 차량사고 및 비 공군 차량사고를 제외한 기타 각종의 사고로, 인원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사고를 말하며, 내용에는 지상화재, 총포오발, 익사 또는 열사, 가스중독 또는 질식사, 감전, 운동, 열차, 선박, 폭발물, 자연재난, 특수차량 등으로 야기된 사고들을 들 수 있다.

여기서 공군 지상안전 사고를 취급하지 않는 것은 항공기사고, 정상소모, 자살 및 타상행위, 약품 및 독소, 대적(對敵)행위, 체포 또는 감금으로부터 탈출 등을 들 수 있다(\* 지상사고의 분류 및 정의는 공규 127-1을 참고하였음).

## 3. 지상사고 통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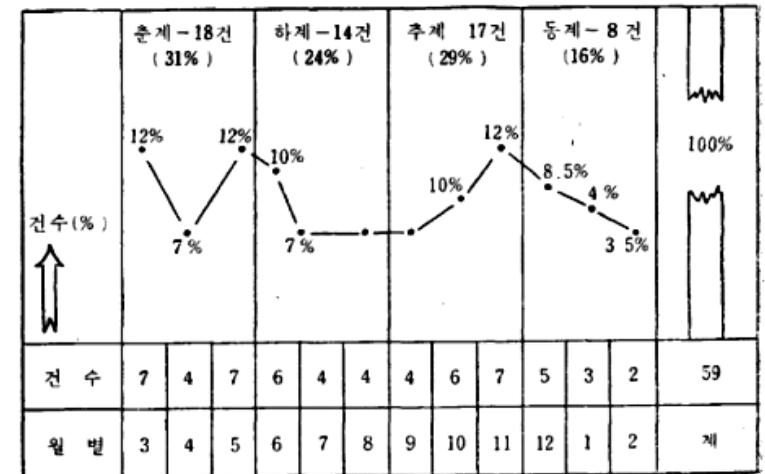
### 가. 지상사고 발생건수

구 분	사고 건수	주 요 내 용	비 고
차 량 (비 공군포함)	76건	차량 및 비 공군 차량	비 공군 차량 -17건
일 반	28건	화재, 열차, 익사, 총포, 기계장비, 작업 중	77%

<표 : 1>

### 나. 차량사고 분석

(1) 월별, 계절별 사고발생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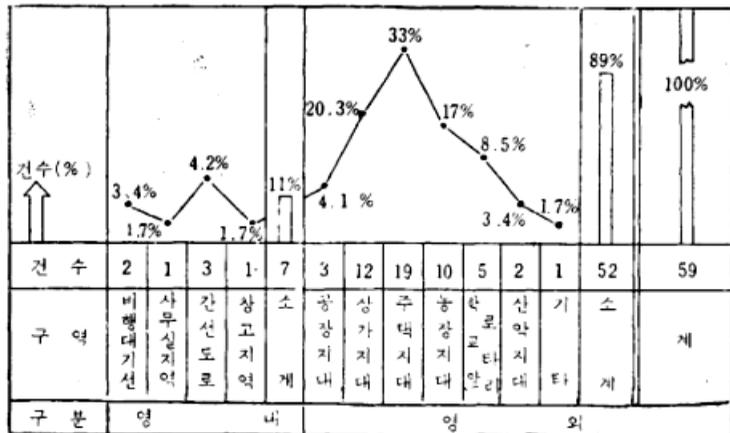
<표 : 2>

(2) 요일별, 시간별 사고 발생건수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계
0~4				1			1	2
4~8	2	1			1	1		5
8~12		1	2	1	2		1	7
12~16	2	3	1		2	5	1	14
16~20	5	5		1		4	2	17
20~24	2	1	1		3	2	5	14
계	11	11	4	3	8	12	10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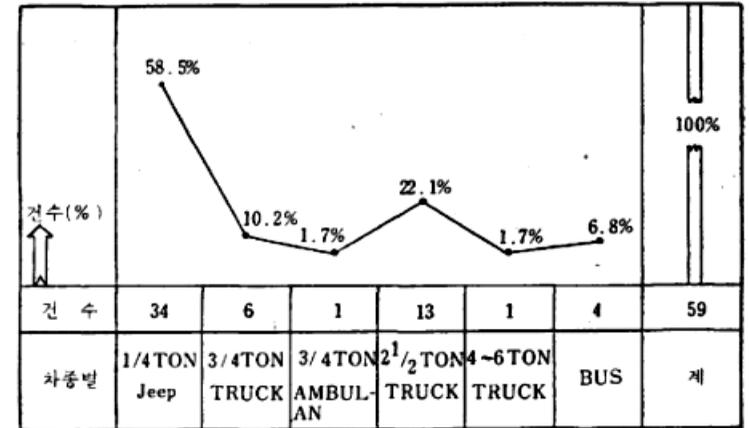
<표: 3>

(3) 구역별 사고발생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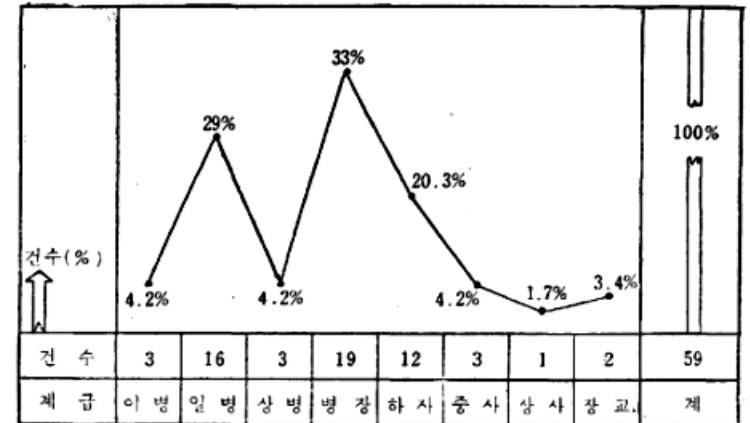
<표: 4>

(4) 차종별 사고 발생건수(%)



<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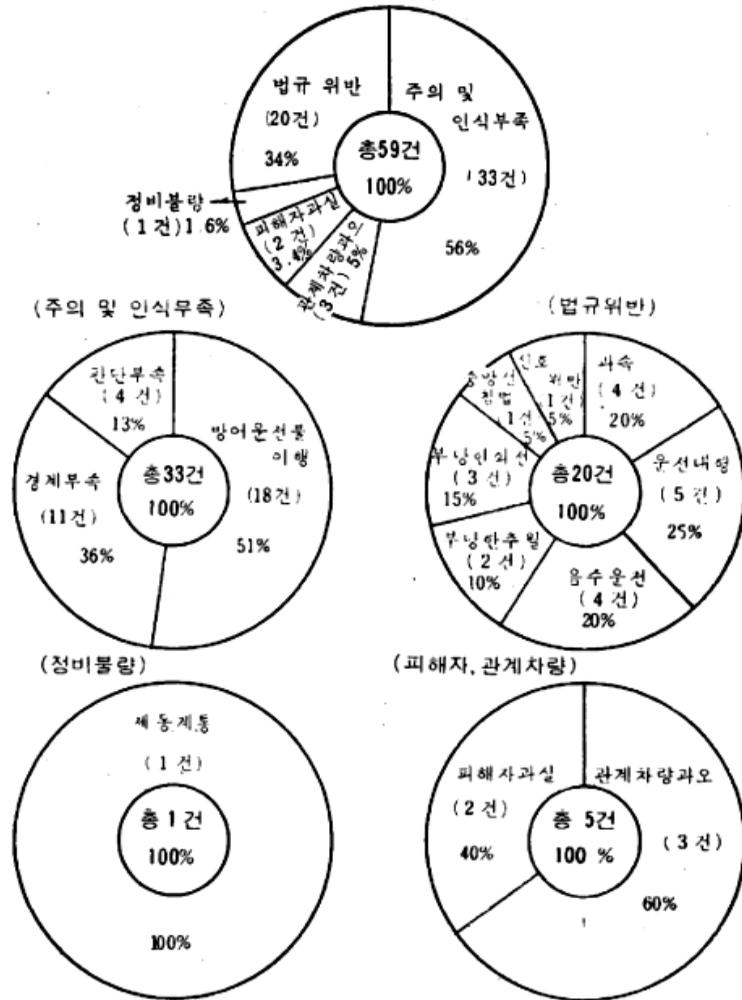
(5) 운전자 계급별 사고발생건수(%)



<표: 6>

(6) 차량사고 원인요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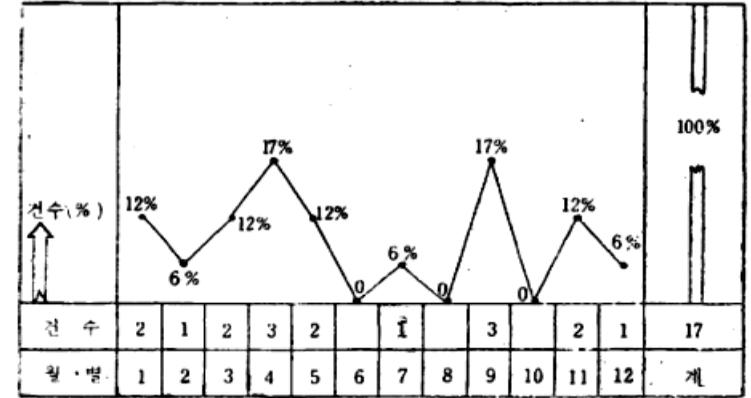
원인요소



<표: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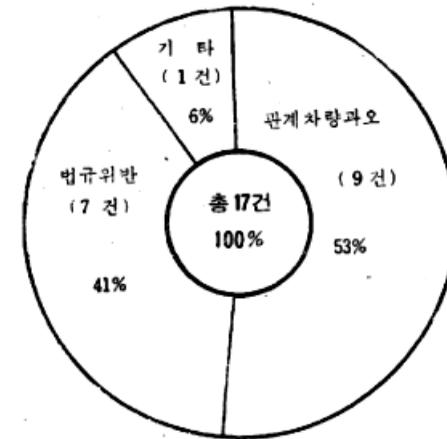
다. 비 공군 차량사고 분석

(1) 월별 사고발생건수(%)



<표: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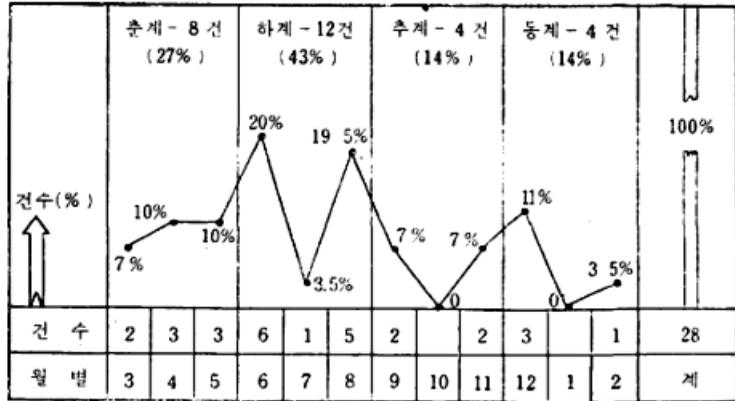
(2) 사고원인 분석



<표: 9>

라. 일반사고 분석

(1) 월별, 계절별 사고발생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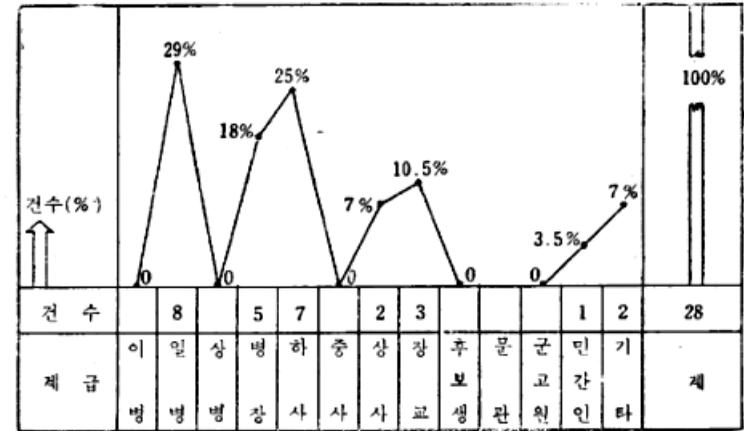
<표: 10>

(2) 요일별, 시간별 사고발생건수(%)

시간 \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계
0~4			2			1		3
4~8								
8~12			2			1	1	4
12~16	2		2	2			2	8
16~20	2	1		1	1	1	1	7
20~24				1	1	2	2	6
계	4	1	6	4	2	5	6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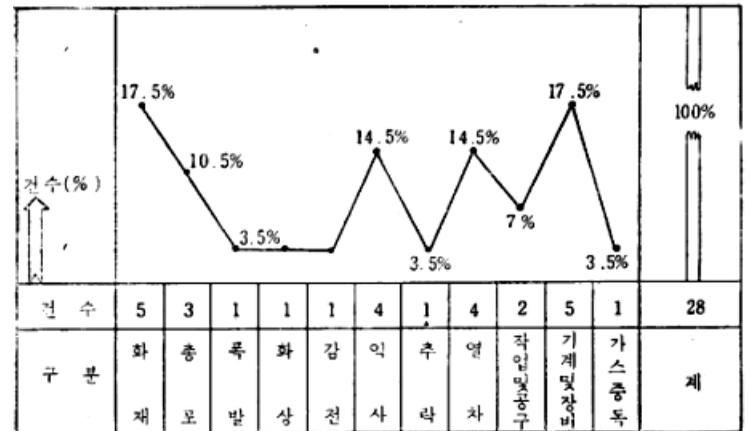
<표: 11>

(3) 사고내용별 발생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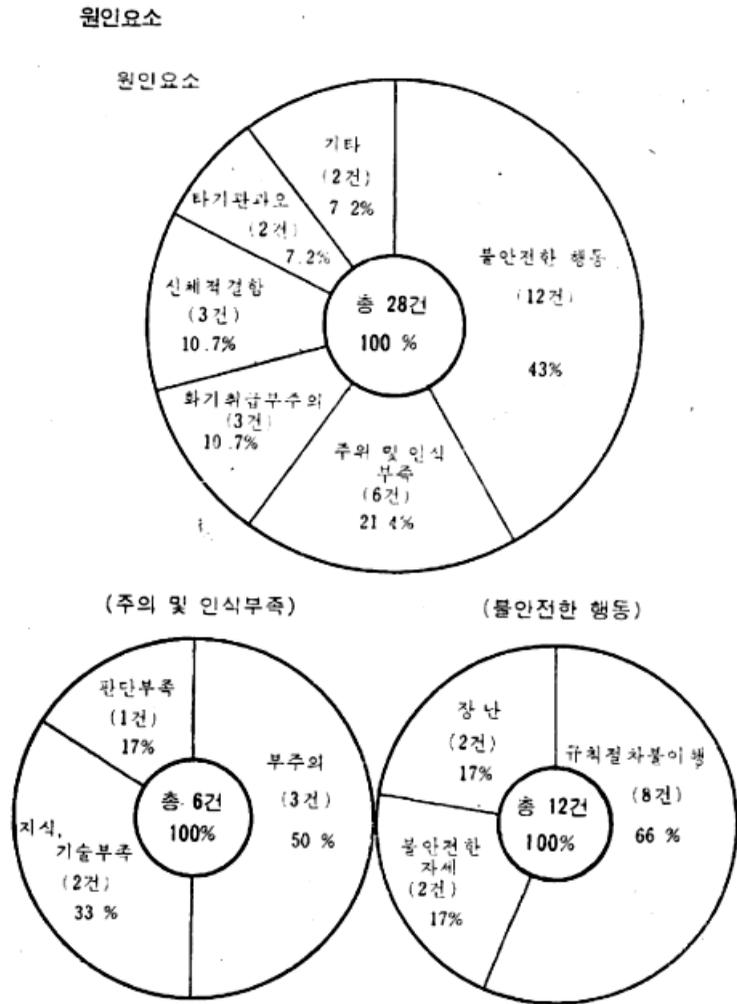
<표: 12>

(4) 계급별 사고발생건수(%)



<표: 13>

(5) 일반사고 원인요소분석



<표: 14>

마. 지상사고 피해현황(차량 및 일반사고 총계)

(1) 인명피해

사고별 손상정도	공군군인		군속		외국인		민간인		계
	차량	일반	차량	일반	차량	일반	차량	일반	
사망	5	8					11		24
중상	33	14					31	3	81
경상	9		7				6	10	32
계							61		137

<표: 15>

(2) 재산피해

※단위 : 1,000원

구분	종별	항공기	차량	장비	건축물	보급품	합계
공군재산	화재		230		7,624		7,854
	폭발						
	충돌	1,538	1,463				3,001
	전복		31				31
	소계	1,538	1,724		7,624		10,886
비공군재산	화재						
	폭발						
	충돌		1,602	180			1,782
	전복		40				40
	소계		1,642	180			1,822
합계		1,538	3,366	180	7,624		12,708

<표: 16>

#### 4. 지상사고 발생경향

상기한 지상사고통계(표 1-16)를 기본으로 하여 지상사고의 발생경향을 기술하면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 가. 차량사고 발생경향

(1) 월별, 계절별 사고발생경향(표 2 참조)

첫째, 월별로는 3, 5, 11월에 많은 사고가 발생되었으며, 둘째, 계절별로는 춘계와 추계(환절기)가 전체사고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장병의 정신적인 이완이 주(主)가 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 요일별, 시간별 사고발생 경향(표 3 참조)

첫째, 요일별로는 토요일, 월요일 사이에 전체사고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휴무일의 해이해진 정신과 신체적 결합에 기인됨을 알 수 있고, 둘째, 시간별로는 14:00 이후부터 저녁 퇴근시간 전 후에 전체 사고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3) 구역별 사고발생 경향(표 4 참조)

구역별로는 영내와 영외로 구분하여 영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전체사고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영외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전체사고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고가 영외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그 중에서도 복잡한 상가 및 주택가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53%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기지외의 차량사고 예방에 철저를 요하고 있는 것이다.

(4) 차종별 사고발생 경향(표 5 참조)

4/1ton Jeep이 전체사고의 약 60%를 차지함을 알 수 있는바, 이는 공군에서 가장 많은 주행 킬로(KM) 때문이기는 하나, 운전자 및 사용관의 적극적인 안전참여의식의 부족과 안전습성의 생활화가 되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5) 운전자 계급별 사고발생 경향(표 6 참조)

일병과 병장이 전체차량사고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계급구조로 보아 일병은 운전지식 및 경험의 부족에서 기인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병장은 다소간 익숙해진 운전경험의 과도한 자부과 운전기술의 남용에 기인됨을 알 수가 있다.

(6) 차량사고 원인 요소분석(표 7 참조)

차량사고의 원인중 주의 및 인식부족이 전체사고의 56%, 법규 위반이 34%로써 전체사고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원인 중, 주의 및 인식 부족에는 방어운전 불이행 및 경계부족, 판단 부족에 의하여 대부분의 사고가 발생

되어지며, 법규 위반에는 과속, 음주 운전, 운전대행 등의 원인에 의하여 대부분의 사고가 발생되어 지고 있다.

특히 특기할만한 사고원인중 운전자의 과오에서 야기되는 인적 과실(人的過失)에 기인되는 것이 전체 차량사고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 나. 비 공군 차량사고 발생경향

(1) 월별 발생경향(표 8 참조)

3월과 9월에 일어나는 사고가 34%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는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장병의 심리적 불안에서 기인되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2) 원인분석 (표 9 참조)

관계차량과오에서 기인되는 사고가 5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공군인원의 법규위반에 기인되는 사고도 41%라는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바, 이는 공군요원 각자의 세심한 주의와 준법정신 이 투철했다면 사고는 감소되었으리라 생각된다.

##### 다. 일반사고 발생경향

(1) 월별, 계절별 사고발생경향 (표 10 참조)

첫째, 월별로 보면, 6월과 8월에 가장 많은 사고발생 경향을 보여주며, 둘째, 계절별로 보면, 하계에 발생하는 일반사고는 전체사고의 43%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는 외출, 휴가시에 개인의 야유회(수영 ) 등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 되어지고 있다.

(2) 요일별, 시간별 사고발생 경향(표 11 참조)

첫째, 요일별로는, 정신적으로 나태해지기 쉬운 휴무일을 전후하여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사이에 발생하는 사고는 전체사고의 55%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시간별로는 12시부터 20시 사이에 발생하는 사고가 전체사고의 55%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는 하루의 일과 중 정신적으로 산만해지기 쉽고, 신체적인 피로가 심해지는 오후시간에 대부분의 사고가 발생되어진다.

(3) 사고내용별 발생경향(표 12 참조)

화재, 익사, 기계장비, 총포 및 열차 사고에 기인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전체사고의 75%를 나타내고 있다.

(4) 사고자 계급별 사고발생경향 (표 13 참조)

차량사고와 거의 비슷한 계급 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나, 특기할 사항은 계급의 고하와 직책을 막론하고, 사고가 균등히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사고자와 계급분포 중, 군생활에 서투른 일등병과 군생활에 약간 익숙하고 제대가 얼마 남지 않은 병장 및 하사에 의하여 일어나는 사고는 전체사고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 (5) 일반사고 원인요소 분석(표 14 참조)

개인의 불안정한 행동에 기인되는 것이 수위로 전체사고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의 및 인식부족에 기인되는 것이 22%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바, 이들 사고는 대부분이 근무시간 외나 또는 야간근무 중에 사고가 발생되어 지고 있다. 특기할 사항은 화재사고로써 화기취급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전체 일반사고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많은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 라. 지상사고로 인한 피해 현황분석

차량 및 비 공군차량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피해와 일반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총괄적으로 종합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1) 인명 피해(표 15 참조)

인명피해는 총 137건으로, 사망 24명, 중상 81명, 경상 32명의 많은 인명의 손실을 초래하였다. 이렇게 많은 인명의 손실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간접 또는 직접적인 피해는, 전력의 효율적인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군전력의 손실 및 제반업무에 많은 차질을 초래하였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사고 종류별로 보면 차량사고 81명, 비 공군차량사고 21명, 일반사고 35명으로 차량사고와 일반사고와의 인명피해의 비는 3:1로서 차량사고로 인한 피해보다 일반사고로 인한 피해가 3배 이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 재산피해(표 16 참조)

차량 및 일반사고로 인한 군 재산의 피해는 무려 1,300여만원의 손실을 초래한바, 이들 피해 중, 화재로 인한 손실이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차량사고로 인한 손실이 38%를 차지하고 있다.

### 5. 지상사고 방지대책

지금까지 기술한 사고통계분석 및 사고발생 경향성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지상사고를 일으키게 하는 제반 요인들을 알았다.

이들 사고원인 중에는 대부분이 주의 및 인식부족과 개인의 불안정한 행동에 기인되는 것으로 사고자 자신의 인적 과실로 인한 사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관계차량이나 또는 피해자의 잘못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 사고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적과실방지를 위하여는 기본적인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개개인 스스로가 언제 어디서든지 안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이루어져 안전습성의 생활화를 이룩하여야겠으며, 구체적인 대책사항은 다음에 기술한 바와 같다.

### 가. 정신자세 확립

(1) 각 부대(또는 단위분대)의 지휘관은 휘하장병에게 직접 정신훈화를 실시한다.

(2) 장병 자신으로 하여금 차기의 위치를 자기 스스로가 인지케 하여 국가민족 자신에 대한 사명감을 인식시킨다.

(3)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어떠한 위급 상황하에서도 침착성을 잃지 않는 자신을 갖도록 한다.

(4) 계급,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솔선수범케 하여 준법 정신을 함양한다.

(5) 계절적, 또는 기타 시간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정신적인 해이를 미연에 방지한다.

### 나. 지휘감독 강화

(1) 휘하장병에 대한 확고한 지휘권을 확립하고, 개개인의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전체적인 단결을 파괴하는 요인을 제거한다.

(2) 주기적인 안전조사 및 불시조사(Spot check)를 통하여 결함사항을 시정하고, 주요 안전사항 및 취약점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활동을 실시한다.

(3) 작업자의 능력에 한계를 무시한 무리한 임무부여를 금하며 이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다.

(4) 안전을 위한 지휘감독은 과감하고 솔직해야 하며, 결함사항 발견시는 즉각적인 교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지휘통솔계통의 확립으로 보고의 신속을 기하여 사고발생시에는 관계부서에 즉각적인 통보를 하여 유사사고를 방지케 한다.

### 다. 교육훈련 철저

(1) 사고사례(Case study)를 통한 구체적이고 실제에 입각한 대책으로 일괄성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2) 중요 대책사항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반복교육으로 피교육자로 하여금 이를 숙지게 한다.

(3) 종래의 교육방법인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좀더 새로운 교육방법(시청각교재 활용)을 모색하여 교육내용을 쉽게 이해시킨다.

(4) 부여된 임무분야에 대한 미숙련자(특히 기술분야)에 대하여는 중점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5) 각종 사고 또는 사고잠재요소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전파 및 교정을 실시한다.

### 라. 계몽활동 강화

(1) 계절의 특이성에 따른 특별 강조기간을 설정하여 이에 따른 사진전시회 및 기지방송을 통하여 안전의식을 고취케 한다.

(2) 연간 1회 이상의 안전계몽 응변대회를 통하여 장병의 안전참여 의욕을 촉구한다.

(3) 모든 계몽활동에는 지휘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참모간의 협력으로 전 장병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4) 군인가족에 대한 순회교육 및 가정통신을 배포하고, 가정안전을 도모하여 가정으로부터의 사고잠재요인을 제거한다.

#### 마. 과학적인 사고조사

(1) 모든 지상사고 발생시엔 즉각적으로 가능한한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정확한 사고조사를 실시한다.

(2) 사고조사시엔 필요에 따라 단대(또는 대대)의 자대 안전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사고조사를 실시한다.

(3)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사항을 수립하고 전장병에게 전파하여 유사사고를 방지한다.

#### 바. 신상필벌제도 강화

(1) 사고자 및 사고관련자에 대하여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칙을 적용하여 장병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2)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장해요소 제거 및 사고방지에 공헌한 부대 및 개인에게는 적절한 포상으로 사기를 진작시킨다.

(3) 신상필벌제도로 인한 각종 시상 및 벌칙에 대하여는 공보활동을 통하여 전 장병에게 전파함으로써 안전의식을 제삼 고취케 한다.

### 6. 결론

각종 지상안전 사고로 인하여 우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알았다.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사고원인은 사고자 자신의 인적과실에 기인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이들 원인들은 능히 우리의 세심한 주의와 관심 그리고 안전한 행동을 함으로써 제거할 수가 있는 것이다.

결국 모든 지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 장병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전습성의 생활화를 이룩함과 동시에 자발적인 안전참여가 이룩되어야겠다. 따라서 전 장병이 정신자세확립과 철저한 교육훈련 안전계몽활동 강화 과학적인 사고조사 및 신상필벌제도의 강화 등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되겠다는 것을 결론으로 맺으며,

비록 고찰된 전개과정에서 개념상의 것일지라도 이를 참고로 공군지상사고 방지에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 <사법시험 합격기>

## 방황이 끝나고



공군소위 김 윤 호

#### 1. 펜을 들면서

제14회 사법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고 나서 어언 1개월이 지났다. 바쁜 군무에 얽혀서 뛰어나다 보니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잘 지내왔지만 여태까지 여러 어른들을 일일이 찾아뵈옵지 못한 것이 죄송스럽기 짝이 없다. 우선 이렇게 지상으로부터 양해를 구하면서 펜을 들어 본다.

#### 2. 학창시절

1965년도에 광주 일고를 졸업하고, 서울법대에 비교적 수월하게 합격을 하게 되자 부모님과 주위 친구들은 물론이려니와 내 자신도 사법시험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염려하지 않았다. 그런 데다가 신입생 시절은 죽어라고 놀아라는 선배님들의 명령(?)이 또한 지엄한지라 우선 풋담배를 입에 물고, 술집과 당구장, 그리고 이대 정문에 재빨리 출입 신고를 마쳤고, 일요일이면 고삐 풀린 황소처럼 산과 들을 넓다 쏘다니며 잘도 놀아났었다. 인천으로 조개국을 먹으러 가기도 했고, 여름이면 뚝섬으로 장어회를 먹으러 다니는 등 남들처럼 여자와 포근한 대화 한 번 해보지 못한 것 외에는 후회없이 지내온 셈이다.

3학년이 되던 해, 비원에서 가진 카니발에서 마이크를 잡고 설치던 일, 설악산에의 수학여행 등,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미모의 아가씨와 단 1밀리의 에누리도 없는 밀착을 즐길 수(?) 있는 24시 5분전의 만원버스 타기의 묘미는 터득했어도 사법시험이라는 것은 강건너 불을 보는 것만 같았고,

가끔 한 번씩 둘러보는 도서관에서 책과 밤늦게 씨름하고 있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미안스럽기도 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친구들이 약간 불쌍해 보이기도 했었다.

### 3. 뒤늦은 출발

4학년이 되자 동기생 중에서 2명이 합격의 스타트를 끊게 되자 그것이 가져다 준 충격은 이만 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당장 눈앞의 즐거움만 누릴 줄 알았지 개미처럼 겨울 먹이를 걱정할 줄 몰랐던 배짱이가 저주스러웠다.

언제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시며, 오직 자식들의 장래만을 불철주야 염려하여 주시며, 당신의 희생과 번민을 조금도 내색도 안 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도저히 서울에서의 그 무질서한 생활이 견딜 수가 없기에 곧장 짐을 꾸려가지고 입산을 해버렸다.

나주에 있는 불두사에 먼저 입사해 있던 친구와 같이 공부하기로 하고 책가방과 이불 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영산강 독을 거닐자니 측은한 생각에 눈시울이 젖는다.

멀리서 그리고 가까이서 바라다보이는 수없이 많은 별들을 하나 둘 헤아리면서 강독을 거닐다가 문득 바라본 그 밝은 달은 유유히 흐르는 영산강 위에 어찌 그리도 곱게 비치고 있었는

지 입산하여 1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컨디션이 매우 좋아 하루에 약 16시간 이상을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자 다시 긴장이 풀리기 시작하여 1주일일 멀다 하고 집에 나오기가 일쑤였다.

### 4. 첫번째 실패

졸업하는 해에 응시했던 첫 번째 도전에서는 너무도 준비가 없었던 까닭으로 예상대로(?) 1차시험부터 낙방하고 말았는데 집에서의 실망이야 오죽했겠는가 마는 사실 당사자인 나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니 별로 분한 생각도 없었다.

### 5. 머나먼 여로

졸업을 하자마자 곧장 그 무거운 책꾸러미를 짊어지고 다시 절로 찾아 들어갔다.

후조 제 찰이 되면 찾아왔다가 또 떠나가는 새의 무리들 1년후 일까, 2년후 일까, 언제 끝난다는 기약이 없는 멀고도 험한 여로가 시작된 것이다.

발표일 바로 전날이 되면 밤을 새면서 공부했던 그 수많은 날들을 생각하면서 입술이 메탈라 붙는 그 안타까움 속에서도 행운의 여신이 그 고운 미소를 지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서 어쩌면 붙을지도 모른다는 한가닥의 어설픈 기대 속에 애써 태연해 보이기도 하지만 초조한

마음은 어떻게 해도 달랠 수가 없다.

쓴잔을 마시고 나면 마음의 아픔과 서글픔이 뒤범벅된 번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천근만근의 몸동아리에 다시 이불과 책 켜짝을 짊어지고 산을 찾아 힘없는 발걸음을 옮겨간다. 친구들과는 내년 다시 시험 때에 만나기로 약속하고서.

### 6. 연속되는 실패

시험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정말 계절의 바뀜은 까맣게 잊고 지낸다.

절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 앞의 눈에서는 모심기가 한창이더니만 어느새 벼 이삭이 꽤기 시작하곤 했다.

찌는 듯한 더위가 절정에 달했던 어느 여름날, 광주에서 뜻밖의 친구가 찾아왔다. 혼자도 아니고 여자를 둘이나 데리고서.

영문을 듣고 보니 내일 당장 해수욕장엘 가자는 거다. 그래서 안 된다고 몇 번이고 마음 속에 다짐했지만 그까짓 이틀쯤 쉬었다고 해서 떨어지고 붙는 것이 아니니 아무 소리 말고 따라만 오라는 그 친구의 유혹도. 그럴싸하거니와 우선 그 친구가 데리고 온 내 파트너 될 여인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해서 눈 딱 감고 따라나섰다. 가메미 해수욕장엘 가려면 집이 있는 광주에서 새벽 버스를 타야 했다. 하지만 어찌 오늘 해수욕장엘 갈렵니다하는 말이 입밖에 나오겠는가. 그저 시원해서 차 타기가 좋다는 핑계만 대고 아침 일찍 절에 간다고 나오니 부모님께서는 “고생이 많다, 아침도 안 먹고 어찌 그리 일찍 떠나냐”하시면서 용돈까지 두둑히 쥐어 주셨다.

바닷가를 거닐면서도 그리고 해가진 이른 저녁에 밤 수영을 즐기면서도 머리 속에는 부모님께 대한 죄송스럼 뿐이요 마음은 먹구름이 깔린 듯 두껍기만 했었다.

두번째의 도전에서는 겨우 1차 시험만 합격하고 나서 주저앉아 버렸지만 세번째의 도전에서의 실패는 지금 생각해도 여간 억울한 것이 아니었다. 평균 점수 합격점에 0.5가 부족했었는데 점수 뿐만이 아니라 과목마다 조금만 주의를 했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던 아까운 기회였었다. 그날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어머님이 거쳐하시는 방 마루에 무릎 꿇고 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 7. 입대

네번째의 도전을 앞두고, 입대하게 된 동기는 우선 무엇보다도 무질서하고, 방탕된 나의 생활이 역겨워서였다. 시험을 치루고 나서 발표일까지의 그 초조감도 견딜 수 없었지만 그러한 감정을 달래기 위해 술에 흠뻑 취하고 나면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떠나지 않는 고시에의 불안감, 저주, 회의 등에 더욱 심신이 메탈라가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다가 병역문제가 또 골치를 썩히니 이러한

무질서와 끝없는 방향에서의 탈출을 피하고 병역문제를 해결키 위해서 사법 시험 준비생으로선 너무나 큰 모험인 입대를 결심한 것이다.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입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법시험합격이라는 것은 적어도 4~5년 후의 먼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여 비장한 각오로 응시한 제 13회 사법시험에도 보기 좋게 떨어지고 보니 부모님과 주위 가족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고시 동지들로부터도 완전히 이탈자가 되고 말았다.

3남 3녀중 동생은 이미 공군에서 복무 중이고, 형님도 1개월 전에 의무관으로 입대 하신데다가 남은 나 하나마저도 아직 제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채 입대를 하게 되니 떠나보내시는 부모님 심정이 오죽했겠는가. 후일 들어서 알았지만 어머님께서도 그날 저녁 밤새도록 이 못난 아들을 걱정하며 우셨다고 하니 참으로 그런 불효가 어디에 있을 건가?

### 8. 모래밭 위를 기면서

입대한 날 내무반이 정해진 후 겹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 각종 지급품을 정리하고, 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발소에 끌려가 그 아까운 머리를 뽁뽁 깎이우고나니,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간다. 그 후 5개월 동안 교차되어 온 수없이 많은 즐거움과 괴로움을 잊을 수가 있을까!

온몸을 땀과 뒤통이 되게 하는 모래밭 위에서의 각종 포복과 굴러이동, 대전서 유성까지의 구보훈련, 물개훈련 및 속리산까지의 80리 길의 도보 행군과 다이아몬드 고지 점령인 종합훈련 등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다.

### 9. 임관 후

임관 후 검찰감실 군기 보안과에서 헌병장교로서의 직무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이때부터는 틈틈이 시간을 내어 시험공부에 몰두해 보려고 무던히 노력은 했으나, 원체 가만히 앉아있질 못하는 성격인지라 수험 준비가 뜻대로 되질 못 했었다. 시험공고 후 원서를 접수시켜 놓고서도 시험 날짜가 언제인지조차도 모르고 내 댄에는 무척 바쁘게 지냈다. 집에서는 시험에 대한 격려의 편지가 계속 날아들고 친구들도 하나둘 걱정을 해주기는 했지만 막상 책을 잡고 앉아있는 당사자는 머릿속에 별뾰 잡생각이 나서 집중적인 공부에 힘들었다. 시험을 아예 포기할 생각도 없지 않았지만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시는 부모님을 생각해서도 차마 그럴 수도 없었다. 시험 전날 과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쾌히 승락하여 주셨다.

### 10. 시험장에서

매년 평균 삼천여명이라는 고시 인구들 중에서 나처럼

작년에 1차에 합격한 사람들과 이번에 1차에 합격한 약 900여 명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시험장인 모교인 서울 법대에 들어서자 이상스럽게도 종전처럼 어떤 불안감이나 초조감을 느낄 수가 없었다. 흔히들 어설피게 아는 것보다 아주 모르는 것이 낫다고들 한다. 나 역시 어설피게 준비한 게 아니어서 그런 배짱이 생긴걸까? 후판에 들들 말린 문제지가 시험시작 종소리와 함께 두루루 풀려질 때마다 더욱 더 자신감이 굳어져 갔다. 문제자체가 입대 전까지 열심히 익혀둔 말하자면 그만큼 내 적성(?)에 맞는 성질의 것이었고, 또 현역이라는 점 때문에 초조감이 없이 담담히 쓸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게다.

### 11. 방향이 끝나고

시험이 끝나고 사흘 후에 3593부대 헌병대로 배속되어 경비중대장의 보직을 받았다. 업무 자체도 중요했거니와 처음 실무에 임하는 까닭에 발표일도 까맣게 잊은채 눈코 뜰 새 없이 언제 하루기는 줄도 모르고 지냈었다. 어느날 저녁 10시쯤 부대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합격자 발표가 있을 줄을 알았다. 그 순간 이번에도 떨어졌구나하는 생각이 머리를 멍하게 스쳐가고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혼자 부대 앞에 있는 주점엘 들러 두어잔 마시다가 기분이 풀리지 않기에 집에 들어가 누워 버렸다.

이른 새벽 대문 두드리는 소리에 어렴풋이 잠이 깨었다. 일하는 애가 뛰어 나가더니만 조금 후에 내 방을 두드린다. “삼촌 전보왔네요.”무심 곁에 전보를 받은 내 가슴 속이 방망이질 하는 것처럼 뛰기 시작한다. 설마 하면서 펼쳐본 전보에는 “합격 축하한다 엄마”라는 문귀가 뚜렷이 두 눈에 박혀 들어온다. 순간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뛰어 나와 세수를 하는데 눈물이 주루루 흘러내린다.

### 12. 팬을 놓으면서

이번 합격이 확실히 예상밖의 것이기는 해서 신문을 본 친구들이 이 윤호가 그 윤호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해서 내 성이 두 개가 더 늘기도 했지만 자나 깨나 항상 머릿속을 짓누르던 부담감을 털어버린 것이 무엇보다도 기쁘다. 부모님과 가족들은 물론이거니와 군대 내의 여러 어른들께서 축하해 주신데 대해 무어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특히 이러한 영광을 맛볼 수 있게 돌봐주신 여러 상사님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모든 것이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더욱 더 각오를 새롭게 하면서 팬을 놓는다.

### ※ 편집자주

김윤호 소위는 제14회 사법고시에서 최종합격자 80명 중 현역군인으로는 최초로 합격의 영광을 차지한 바 있다.

# 군복을 벗으며

—지나간 군대생활을 되돌아보며  
남기고 싶은 몇 가지 이야기—

최 홍 길

기본 군사훈련 시절에 너희는 인격을 저당잡힌 헤라클레스이다라던 구대장님의 말씀. —그 여운이 아직도 내 귀에 쟁쟁하게 울려오는데 입관 후 4년이 되었고, 내일 모레면 공군의 푸른 제복과도 작별을 고해야 한다.

지나간 군대생활을 되돌아보면서 나 대로 착잡한 감회와 깊은 상념에만 젖어있지 말고, 몇 마디 남기는 이야기를 해야겠다.

○ ○ ○

음덕 —.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나를 이단시하고 배척하여 왔다면 나의 군대생활은 어떠하였을까?

내가 밤에 자리에 들어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도 우리 부모님께서 는 몸은 비록 멀리 계셨지만 나를 위한 큰 걱정(배려, 기원)을 세번 하셨다고 한다.

나 자신 덕이 있고, 없고간에 그런대로 대가없이 4년 4개월간의 군대생활을 마감할 수 있음은 평소 따뜻한 온정과 격려, 이해와 협조로 나를 선도해주신 윗 어른, 동료 전우, 그리고 사랑하는 부하, 모든 이들의 보이지 않는 음덕인 줄로 알고 있다. —K 장군님, Y 대령님, R 목사, H 대위, J 중위, Y 하사, P 병장 등 윗 어른, 동료, 충직했던 옛 부하들의 모습이 아직도 분명하게 나의 주위에 머물고 있음을 실감하며, 뜨거운 감사의 정을 보낸다.

군대생활의 거의 전부—어쩌면 내 인생에 있어 황금시기—를 보낸 마음의 고향이기도 했던 한반도의 최남단에 자리잡은 공군 제9952부대— 부대 규모는 비록 적었지만 정훈장교인 내가 부대 안팎에서 부대끼고 치루어야 했던 사연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난생 처음인 이방지대(?)○○지구

천애의 고아(?)인양 외롭게 던져져 정훈감님이시던 R장군님의 말씀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으로 정신없이 보내버린 지루하고 피로웠지만, 열정과 의기가 충만했던 신입장교 시절이며, 부대 전체가 수난(?) 아닌 수난을 당해 이를 극복하고 자 타 부대 장병들 및 곱의 노역을 감수하면서 즐거웠던 부대생활 —정훈장교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때로는 개인 나에 대한 의식도 잊어버리면서 일(?)에 쫓겨 정신적 육체적으로 호느적거리는 한가닥 외로운 고독(?)이 전신을 엄습하기도 했지만 나만의 희열과 보람을 누리면서 추억을 장만하였다고나 할 수 있을는지?

모범사병을 선발하여 C-46 수송기로 제주도 관광을 한 거며, 대민홍보활동시 의료약품의 부족으로 현지 주민들에 통 사정한 일, 성년공군 사진전시회 개장 때 육군의 R 중장을 초청해 놓고, 공보관 사정으로 개장시간을 늦추며, 안절부절하던 일, 부대 인근 주민들과의 군-민 친선체육대회, 영내사병들의 내무반대항 가장행렬, 부산 남여중과의 자매결연, 모범 내무반장들의 울산공업단지 견학, 순회 보통군법회의가 개정되었을 때 법학에 대한 1%의 소양도 없으면서 감히 국선변호인의 자격으로 고향 후배와 우리 부대의 C 하사관을 위해 열변(?)을 토하던 일, 그리고 나 개인적으로는 평소 신중하지 못하고 다혈질적(?)인 성격때문에 거액(?)의 물량적인 피해를 보고 이를 만회하고자 피눈물나는 긴축생활(?)을 하며, 은행에 적금을 들던 일 등등 기억에 새롭고 힘겨운 사연도 많았지만은 그래도 나다운 착실한 인간 수업(?)이었다고 자부할 수 있겠지…?

○ ○ ○

흔히, 군대를 마지막 교육단계라고 한다. 이는 곧 일정한 나이의 젊은이들이 '학교 교육을 마치고, 국민된 기본의무를 다하고자 군문에 들어와 국가로부터의 소명의식을 절감하고, 군대의 제도와 규율을 통해 사람(人)자 앞에 군인(軍)자가 붙는, 새로운 인격형성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일생을 통해 백퍼센트에 가까운 신분과 행동의 제약을 주며, 친절한(?) 인간교육을 시켜줄 뿐 아니라 일반 직장에서 일정한 학력을 요구하듯 군대문제가 필요불가결의 요건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정훈교육 시간을 통해 우리 장병들에게 '군대에서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올바른 사회인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군대생활을 하는 동안에 나태한 사람은 나태한대로, 성실한 사람은 성실한 그대로 하나의 인간 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지금의 나는 대체 어떠한가?

때로는 너무 판단이 빠르고 공상적이며,

정열에 넘쳐 상·하급자들에 상응한 예우를 받고, 지나친 독선주의요 주관주의에 사로잡힌적은 없었던가? 군인, 더욱이 공군의 정훈장교로서 군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얼마나 열정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대민 친선활동의 성과는 어느 정도일는지? 또 말로는 '군대 생활이 사회생활을 위한 일 과정이기 때문에 올바른 인간형을 구축하려는 인간수업의 정성과 열의가 넘쳐나야 된다고' 열심히 떠들었으면서 진실로, 나 자신 인간적으로 얼마나 착실한 인간수업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고 할 수 있을지?

이제 군복을 벗으면서 다시 사회인으로 환원되는 지금, 어떤 친구는 외로운 이국 땅에서 박사학위를 획득하였는데—지난 날에 대한 한없는 자책과 앞으로 내가 국가를 위해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앞선다.

이념과 주장이 달라 같은 핏줄을 이은 한 겨레이면서 서로 총뿌리를 맞겨누며 대치하고 있는 내 나라 내 민족의 서러움— 남과 북은 이십이년간 국경 아닌,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상황과 조건을 달리하면서 지금, 전쟁상태 이상의 초긴장상태에 놓여있는데 사상과 배경을 달리해서 학교 교육을 받아온 요즈음 젊은 세대는 서로 무슨 말부터 건넌 수 있으며, 과연 어떤 대화를 정당하게 소통시킬 수 있을는지? —기우이겠지만, 영영 남의 땅 다른 나라가 되어 버린다면 이에 더 비통한 민족적 비운이 어디 있겠는가?

…절대자신이 점지해준 사회·국가—. '내가 없으면 세계도 없다'는 어느 철학자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국가가 없으면 나의 생존도 보장될 수 없다는 너무도 자명한 철리(?) 앞에 과연 내가 국가를 위해 어떻게 봉사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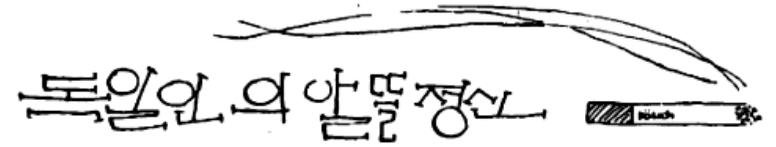
…? 아무든, 나같이 못한 사람도 공군의 대열에서 국토방위의 일차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가슴 뿌듯한 감격, —이는 역전의 노장 맥아더 원수의 이야기처럼 '일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명예요 영광임에 틀림없겠지.



라틴말로 직업을 Vocatio라 하는데 이는 Vocare(부르다의 뜻) 동사에서 나온 말로 절대자신의 소명(부르심)을 의미한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신의 부르심, 신의 뜻에 따라 일생을 살아가고 삶을 꾸려 나가기 위해 직업을 선택한다는 데서 직업과 소명은 그 뜻을 같이하는 것 같다.

나도 사회인으로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할터인데 Vocatio의 의미를 재삼 음미하여 보이는 국가로부터의 소명대로 공군 출신답게 모든 정성과 열정을 다하여 추억을 미래에 장만하는 용감하고 신실한 소시민이 되리라!...

<여창낙수>  
(旅窓落穗)



윤 석 중  
<아동문학가·새싹회대표>

차에서 내릴 때쯤해서 거슬러 달라고 큰 돈을 붙숙 내미는 사람이 있다. 차를 내린 다음에 부시럭 부시럭 주머니를 뒤져서 찻삿을 치르는 이조차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남의 시간을 잡아 먹거나, 남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되기에 매양 미리 서두르다보니 찻삿을 꺼내 손에 쥐고 차에 오르는 일조차 있게 되었다. 그런데 차 탈 때 일찍 서두르는 나의 해롭지 않은 버릇이 50일 동안 돌아다녀 보고 온 이번 해외에서는 도리어 큰 망신을 살 뻔 했다.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서독 프랑쿠프트로 날아가는 보잉 707 루프트한자기를 타게 뻔했다. 두 시간 일찍 나가서 짐을 미리 부치고, 출국철차를 일찌감치 끝내고서 걸상에 앉아있는데, 출발 40분 전에 한 떼가 우르르 몰려나갔다. 나도 따라 나섰다. 그런데 그들은 버스를 타지 아니 하고, 에스카레이터로 서서 편히 가고 있었다. 나도 한참 타고 가다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중간에서 내리려고 하니, 앞서가던 한 독일 청년이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냥 얼마를 타고 가니까 항공기 문턱까지 다달았다. 처녀비행을 기념해서 쳐놓은 오색테이프를 끊고, 비행기 안으로 서슴치 않고 들어가 내 자리를 찾아 앉았다. 승객이라곤 나 혼자 뿐이어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얼마를 있으니 버스를 타고 온 승객이 줄을 지어 올라왔다. 알고 보니 먼저 패는 탑승원들이었고 그들의 전용 에스카레이터를 특별히 내게 선심을 쓴 것이었다. 까다로운 나라 사람들이었다면, 모르고 따라 타더라도 되쫓겨 나왔을 것이고, 연락 버스를 놓쳐서 그 비행기로 못 떠날지도 모를 일이었다. 특히 먹은 밥이 체한다거나, 아는 길도 물어가라는 우리 속담은 이번 해외 여행에서도 적용이 되었다.

영화 놀리는 스크린까지 곳곳에 선 거대한 나는 호텔 루프트한자기 내에

서 또 한번 나는 이상한 나그네 구실을 했으니 하네다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스물다섯 시간 걸려 나는 동안 나는 거푸 냉수를 청했던 것이다. 냉수를 청할 때마다 상냥스런 독일 스튜어디스가 고개를 가웃뚱거리는 것이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 얼굴을 한참 들여다 보기도 하였다. 독일 사람들은 냉수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을 독일 내려서 비로소 알았다. 그렇다고 중국처럼 물을 끓여먹는 것이 아니고, 맥주를 비롯한 모든 음료수가 냉수 대신 구실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나라는 물이 나빠서, 약을 먹거나 부득이 한 경우 외에는 냉수를 마시는 일이 별로 없었다.

독일 여행은 그곳 정부초청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안내양과 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통역이 한 사람 줄곧 달려있어서 아무런 불편도 없었다. 그런데 본에서 타고다닌 좋은 차의 운전사는 보통 운전사가 아니었다. 알아보니, 벤츠 열대에 버스 한 대를 지닌 차주였는데, 나이를 먹자 직장에서 밀려나 자기가 직접 운전사로 나선 것이었다. 함부르크에서 사흘 동안 우리를 태우고 다닌 차를 부린 사람은 예순 여덟살이나 된 노인이었는데, 소방주 노릇을 하다가 정년퇴직을 하자 택시운전사가 된 것이었다. 하루는 종일 자기 부인을 옆자리에 태우고 돌아 다녔는데, 나중에 물어보니 그날이 마침 자기 마누라 생일이어서 공짜차를 타고, 동부인해서 랑데뷰를 즐긴 것이었다. 이덕 저덕으로 놀기를 좋아하고, 돈푼 잡으면 빈둥빈둥 노는 것을 상팔자로 여기는 우리네로선 부러운 구두쇠들이었다. 늙은 운전사만 눈에 띄는 것이 아니었다. 식당보이, 역부, 극장안내원, 표 받는 이, 미술관이나 박물관지키는 대개가 환갑 진갑 다 지낸 늙은이들로서 정정하게 일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귀국길에 들린 일본 동경에서 목격한 일인데, 어느 이름난 호텔 모퉁이에 허리가 꼬부라진 늙은 남녀 구두닦이가 나란히 구두를 닦고 있었다. 남자는 어느 고등학교 교장이었는데 정년퇴직이 되자, 아내와 더불어 구두닦이가 되어 거리로 진출한 것이었다. 형제들이 알고 깜짝 놀라 돈을 거두어 갖다 바치려다가 그만뒀다는데, 그러면 자기 스승을 거지로 다루게 되므로, 그러는 대신에 이따금 구두를 잔뜩 보자기에 싸가지고 와서 좀 닦아주십사하고, 내놓으면 고맙다고 굶실거리면서 신이나 닦는 것이었다. 그는 노동은 신성하다고 믿고 다리팔을 움직일 수 있는 한 놀아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그 노릇을 하는 것이지 누가 시켰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궁상을 떠는 것은 아니었다. 이따금 그들이 자리를 비우는 날이 있었는데, 그런 때는 새옷을 갈아입고 관광여행을 떠난 때라고 한다.

늙을수록 부지런한 독일만이 배울점이 아니었다.

함부르크의 명물인 텔리비전 회전탑 식당은 1백32미터나 치솟은 빙빙 도는 집인데, 그리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젊은 남녀가 코를 맞대고 서 있었다. 자세히 보니 아리따운 여성의 머리에 면사포가 씌워져 있었고, 두 남녀 앞가슴에 탐스런 꽃이 달려 있었다. 그들 두 젊은이는 아래층에서 가족끼리 모여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까맣게 치솟은 텔리비전 회전탑 식당으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판이었다. 예약한 자리에 양쪽 식구인듯 싶은 10여 가족이 마주보고 앉아 웃음을 터뜨리며, 즐거운 대화로 시간가는 줄을 몰랐다. 얼마나 간소하고 얼마나 실속있는 결혼 광경인가. 그들은 쌍쌍인생의 첫 출발부터 이처럼 수수하고 검소하게, 분수에 맞는 하루하루를 쌓아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호텔 안 테어 오페라면 뮌헨에서는 꽤 오래된 이름있는 호텔이었다. 뮌헨 오페라극장 근처에 있는 호텔이란 뜻인 데, 독일에는 그 근처에 있는 유명한 이름을 따서 이런 식으로 짓는 데가 많다. 그 위치를 분명히 알리기 위한 이름으로 충청도 어느 시골의 과리 양장점이나, 서울에 자리잡은 워싱턴 양화점 따위 똥단지 이름과는 전혀 반대인 알아보기 쉽고, 찾아가기 쉬운 이름들이었다. 그런데 호화스런 호텔 복도가 어두컴컴하니 웬일인가, 혹시나 하고 벽에 붙은 조그마한 단추를 누르니 불이 환하게 켜졌다. 내 방까지 와서 열쇠로 열기가 무섭게 불이 탁 꺼지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30초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꺼지게 마련이었고, 그 근처 단추를 다시 누르면 다시 30초 동안 켜지게 되어 있었다. 사람 안 지나갈 때 불만 환하게 켜 놓아서 무엇 하느냐는 것이다. 전기가 아까와서가 아니라 무엇이든 절약하는 그들의 마음씨가 고마웠다. 어두운 속을 더듬어 단추를 누를 때마다 못사는 주제에 헤퍼 쓰기 일쑤인 우리나라가 떠올라 불이 다시 켜져서 눈은 부셨으나 마음은 어두웠다.

그들의 알뜰정신은 전등불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었다. 뮌헨 오페라 극장 구경을 간 적이 있는데, 불일로 한 시간 전에 닿았었다. 그런데 안 쓰는 집처럼 불도 제대로 켜지지 않았고, 문마다 굳게 닫혀 있었으며, 그 일대에 자동차라곤 한 대도 없어서 내가 잘못 찾아왔나? 아니면 오늘 쉬나? 어리둥절했는데, 뒷문으로 들어가 만나볼 사람 만나보고 나서 한 10분 전에 장대로 들어가 보니, 어느틈에 3천석 자리가 딱 차 있지 않는가. 밖을 내다보니 자동차가 즐비하게 늘려 있었다. 그네들은 여덟시 개막시간에 꼭 되어서 차로 몰려든 것이었고, 사방 문이 활짝 열려, 늘어서서 기다리지 않고도 제자리에 제격 제격 안내 되었다. 공연히 일찍와서 씩씩 꺾뚝이며, 남의 시간까지 잡아먹는 것을 안 하는 그들이었다.

이 극장에 미리 가서 만난 사람은 부 책임자로 있는 호르스트 케르케스 박사였다. 뮌헨 올림픽 때 상영되는 윤이상 작곡의 심청전을 총 지휘하고 있었다. 동양적인 것을 서양화시켜 현대작품을 만드는데는 윤을 당할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작곡을 부탁했노라고 말하였다. 대본을 맡은 군즈 박사를 작년 여름에 한국에 다녀가도록 했으나 심청에 대해서 의아스러운 점이 많은 모양이었다. 해설을 맡은 스노크 여사가 초청하여 베를린 그의 자택에서 만나본 적이 있는데, 옛날 동화를 10년 동안 연구해 온 그로서도 심청에 관해 의문이 많았다. 케르케스 박사는 뮌헨 올림픽과 때를 맞춰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펼쳐질 음악프롤을 한 부 내주었다. 그들은 1년 뒤치를 확정해서 인쇄해 돌릴만큼 계획이 치밀하고 자신에 차 있었다. 그는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서 이런 우습고도 놀라운 일화 한 토막을 들려주었다.

1966년에 오케스트라 단원을 이끌고 서울 시민회관에서 공연을 가진 적이 있는데 홀이 좋지 않더라는 말과 그때 하마터면 큰일 날뻔 했음을 털어놓으면서 깔깔 웃는 것이었다. 곡절인즉 맨 먼저 우리나라 국가를 연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전날 연습을 해두려다가 어려운곡이 아니어서 당일 연주 조금 전에 악보를 꺼내 유심히 보았더니 영 똥하게도 이복 것이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부랴부랴 대한민국 국가악보를 구해다가 큰일 날뻔한 고비를 무사히 넘겼다고 한다. 국무총리도 참석한 자리에서 그 곡을 들려주었다더라면 어찌됐었겠느냐고 하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내젓는 것이었다. 생각만 해도 아슬아슬한 모양이었다.

곰곰 생각해 보면 한국까지 먼 음악여행을 떠나면서, 더구나 자기네 나라도 두 동강에 난 쓰라림 속에 있으면서 손에 잡히는 대로 악보를 짐 속에 꾸러가지고 온 것부터 경솔한 노릇이지마는 우리네는 남북 말썽에 사사건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나 외국사람들에게는 남의 다리 굽는 것이나 다름없이 느껴진다는 사실과 이복서는 우리 몇 십 갑절 돈을 뿌려가며, 자기네 피아르에 눈이 빨게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외국에 나가 아쉬운 일이 있을 때, 호텔 같은 데에서 코리아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달라고 하면 항용 복귀 대사관이 나온다는 말을 들었다. 그만큼 그네들은 매사에 한술 더 뜨고 있는 것이다. 부서진 교회가 부서진 그대로 서 있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보았다. 함부르크 거리의 니콜라이 성당과 베를린 변화가의 별 헬름 카이사 기념 교회당도 그랬다.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대로의 모습을 그냥 남긴 것은 전쟁이 이처럼 비참하다는 것을 대대로 내려가면서 시시로 일깨워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아울러 그들이 노력하는 것은 옛 모습 그대로 살리는 운동이었다. 본에서는 일정지역 안에서 옛날식으로 짓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데가 있었으며, 튀베크에서 오래된 성당에 새 칠을 하는 데 건축업자가 현대식으로 고쳐 칠했다가 붙잡혀 갔고, 다른 사람을 시켜 예전 그대로 다시 칠해놓았다 한다.

뮌헨 올림픽 건설장엘 가보았다. 뮌헨 시내에서 직선 코오스로 10킬로 떨어진 곳으로 전후에 챔벌린 비행장으로 사용하던 보잘 것 없는 땅을 닦아 어마어마한 시설을 하고 있었다. 총공사비가 얼마나 되느냐는 물음에 올림픽 공보말은 이 대답이, 올림픽이 열리는 금년의 1972란 숫자에다가 백만마르크를 곱한 만큼의 돈을 들어고 있으니, 따져보라는 것이었다.

거기서 놀란 것은 규모가 큰 것보다도 모든 설계가 올림픽 끝난 뒤에 무엇에 쓸 것인가에 중점을 둔 그들의 백년대계였다. 개굴창을 파서 아름다운 호수를 만들고 그 앞에 마련한 8천평 수용의 남자선수촌은 올림픽이 끝나면 개인아파트로, 8백개 단층집으로 된 여자선수촌은 나중에 뮌헨대학 기숙사로 쓰게 되었다는 것이다. 4천명 기자를 받을 기자촌은 나중에 복지사회 주택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혜택이 갈 것이며, 4천명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은 대학식당으로 활용되리라 하였다. 먼 옛날까지 아울러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의 여유가 부러웠다.

**<마음의양식>**

◇ 가난한 사람에게 들은 말은 진리라도 믿어려 않지만, 부자의 말은 거짓말이라도 믿고 싶어한다.

〈룩카아드〉

◇ 빈곤은 잔혹한 여교사와 같다. 그러나 그것은 최선의 교사인 것이다.

〈스마일즈〉

◇ 가난은 인내(忍耐)와 성지(聖智)와 철리(哲理)를 가르쳐 준다.

〈조로아스터〉

◇ 거짓말쟁이는 처음에는 남을 속이는데 쓰지만, 얼마 안 가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데 더 많이 쓴다.

〈부녀가언〉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 생활을 해 나가는데 육지와 물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지구의 면적으로 볼 때 육지는 3분의 1밖에 되지 않고 바다의 면적은 3분의 2에 달하며, 또한 육지 내에도 물의 면적 분포가 많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거닐고, 달리고, 뛰는 것은 자연히 배워 익히고 있으면서 헤엄치는 것은 배워 익히지 못한 사람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청소년을 비롯한 남녀노소가 많은 익사사고를 일으켜 귀중한 생명을 잃고 여러가지 비극을 자아내는 것은 생활수단으로서의 수영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인간이 헤엄을 시작한 원인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원시시대부터 음식물을 구하기 위하여 더위를 잊기 위하여, 맹수로부터 피하기 위하여 헤엄을 했으며 그 후 고기잡이, 배타기와 전쟁 따위로 인하여 발달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경영을 위주로 한 수영법의 역사는 비교적 얕으나 1873년에 트러지온 크로울(Trugeon crawl) 수영 경기법이 영국 수영경기 대회에서 채택되어서 부터이다.

우리나라에서 헤엄이 체육 운동으로서 최초로 시작한 것은 1909년경이라고 하는데, 그 후 어느 때에 어떤 수영법이 어느 나라에서 들어왔는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그러나 짧은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수영은 다른 운동경기 종목에 못지않게 성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여름철 레크리에이션 스포츠로서 널리 보급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어떻게 하면 쉽고 정확하게 또 빨리 수영을 익힐 수 있을 것인가 간단하게 적어 보려고 한다.

## 1. 손쉽게 배우는 수영의 지식

(1) 어째서 헤엄치지 못하는 것일까?

날 때부터 헤엄치지 못하는 것은 사람과 원숭이 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런 것일까? 인간의 비중은 연령과 성별, 숨을 들이마시거나 뱃을 때 등에 따라 다소 틀리나 대체적으로 물과 같은 전후이다. 즉 얼마 되지 않는 힘을 가하면 누구든지 헤엄칠 수가 있는 것이다.

물에 뜨는 것 같은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다.

개나 말이 간단히 헤엄을 치는데, 어째서 사람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헤엄을 못 치는 것일까? 여러분 지금 만약 당신이 헤엄을 칠 줄 모른다고 하지만 결코 근심할 필요는 없다. 어째서 헤엄을 못 치는가를 알게 되면 당신은 간단히 헤엄치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2) 공포심이 있기 때문에 헤엄치지 못한다.

이것은 사실이다. 어떠한 공포심을 갖는가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공포심이 있으면 왜 헤엄치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

사람의 중심(重心)이 어떤 곳에 있을까? 대체로 배꼽 부근에 있다고 한다. 즉 만약에 사람이 시이소오 위에 드러누었다고 하면 바로 배꼽 근처를 지점(支點) 위에 둔다면 시이소오는 수평으로 유지된다. 그런데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가면 이 지점의 위치가 바뀌어지고 만다. 좀 더 윗쪽 젓가슴 근처로 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점(支點)이 옮겨진 상태에서 공포심이 가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각 근육이 무의식적으로 긴장하여 혈류변화(血流變化)라는 작용이 가해지면서 부분적인 무게의 변화가 생기는데 지점이 위쪽으로 옮겨져 있기 때문에 근육이 많은 하반신 쪽이 더 무거워지게 되며 다리 쪽부터 가라앉는다. 그래서 더욱 덩비게 되어 힘이 가해지고 점점 더 가라앉게 된다. 즉 이것이 물에 빠진 상태(허우적거리는 형상)인 것이다.

(3) 어떠한 공포심이 있는 것인가?

우선 얼굴을 잠그는 것이다. 입과 코가 물속에 들어가 호흡을 못하게 된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귀나 눈에도 물이 들어가 대단히 실증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 이같은 불쾌감이 공포심에도 연결되어 가는 것이다. 다음에는 붙잡을 곳이 없는 불안정감이다.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어디엔가 몸의 일부를 접촉시키고 있다. 그런데 물 속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몸에 닿는 것이 없다. 마치 무중력 상태가 된 우주비행사 와 같이 둥둥 떠서

물속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공포심에 연결된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지점의 이동이다.

우리는 오랜 지상생활에 익숙하여 언제나 자기의 중심(重心)이 몸의 중심(中心)에 있다고 믿고 있다. 모든 동작과 운동 감각이 그것으로 성립되어 있다.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며는 이 감각이 변하게 된다. 이 감각의 차이가 역시 공포심이 되는 것이다.

또 하나 이것은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인데 호흡할 때에 숨찬 것이다. 물속에서 사람들은 공기를 뱉아내기 위하여 특별한 힘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식호흡이라는 가장 쉬운 방법을 배우는 것인데 그때까지는 대단히 숨찬 느낌을 갖게 되고 이것이 공포심에 연결되는 것이다.

#### (4) 부양력(浮揚力)만 있으면 누구나 헤엄칠 수 있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사람은 물에 가라앉지 않게 되어 있고 참으로 조금만 호흡하기 위하여 입을 수면에 내놓을 만한 부력만 있으면 누구나 헤엄칠 수 있다는 것은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사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포심뿐이라는 것도 명백히 말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참으로 적은 부양력에 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부양력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손과 다리로 직접 몸을 띄우는 힘이다. 양손을 옆으로 벌리고 손바닥으로 물을 밑으로 내려 누르면 손에 걸린 물의 저항이 반작용으로 작용하여 몸을 위쪽으로 들어 올리는 것이다. 이것은 뉴우톤의 반작용 법칙이라고 한다.

또 하나의 부양력은 몸이 전진하므로 자연 히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은 개울가에서 돌을 던져본 일이 있을 것이다. 납작한 돌을 수면에 닿을듯 말듯하게 던지면 돌은 재미있게도 수면을 미끄러져 나가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전진하는 힘이 약해지면 얼마안가 물속에 가라앉아 버린다. 헤엄칠때 스피이드가 나오면 나올수록 몸이 수면에 떠오르는 것은 이와 마찬가지로 원리에서이다. 정지해 있는 물위를 몸이 전진한다. 이때 몸의 밑면에 닿는 물은 저항이 되어 몸을 위쪽으로 들어 올리려고 한다. 물론 이몸의 밑면 각도에 따라 부양력의 크기는 변하나 스피이드가 빠르면 빠를수록 띄우는 힘은 클 것이다. 실은 헤엄칠 때는 누구나 다 이 두 종류의 힘을 양쪽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일류 선수가 되면 될수록 전진하는 것으로 얻는 부양력의 비율이 훨씬 큰 것이다.

#### (5) 몸을 띄우는 두 가지 힘의 차이

누구나 사람의 운동이 모든 근육의 수축에 의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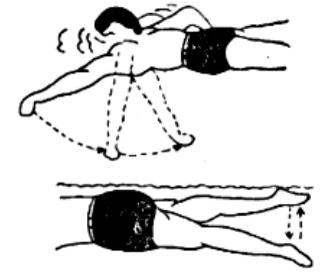
행하여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손바닥으로 물을 밑으로 내려밀고 몸을 들어 올릴 때에 우리들은 근육을 수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주로 사용하는 근육과 그 수축 방법이 전연 다르다. 띄울 때에 작용하는 근육은 전완근(前腕筋) 등 주로 수축의 근육인데 전진시킬 때에 작용하는 근육은 주로 배근(背筋) 등 몸의 중심(中心)에 있는 근육이다.

물론 몸의 중심에 있는 근육쪽이 크고 튼튼하고 튼튼하므로, 쉽게 피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동작 전체가 스무스하게 된다.

야구의 피쳐가 팔 뿐 아니라 허리써서 몸 전체로 볼을 던지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정확한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헤엄의 본질을 정리해 보기로 하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공포심을 갖지 않고서 전진한다는 것에 그친다고 생각한다. 공포심을 없애 버리려고 하는 노력 같은 것은 조금도 필요없다. 몸을 뜨게 하려고 필사적이 될 필요도 없다. 편하게, 자연스럽게, 가벼운 기분으로 물이나 바다로 나가보자.



<그림 1> 크로울



<그림 2> 평영

## 2. 경영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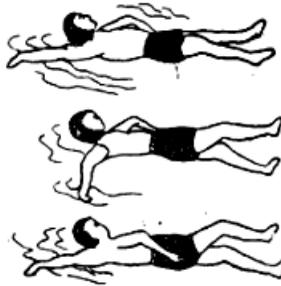
### (1) 유형(Crawl stroke)

몸을 곧게 펴고 수면에 앞드리는 자세로 물장구를 치며 팔을 엇바뀌 물을 뒤로 굽으면서 전진한다. 허리가 불안정하여 몸이 좌우로 흔들리는 것은 좋지 못하다. 머리는 조금 들고 눈은 수면에 대하여 약 30도의 방향을 보는 것이 좋다.

### (2) 평영 (Breast stroke)

몸을 완전히 물 밑으로 향하게 하고, 두 어깨는 수면과 평행으로 전진 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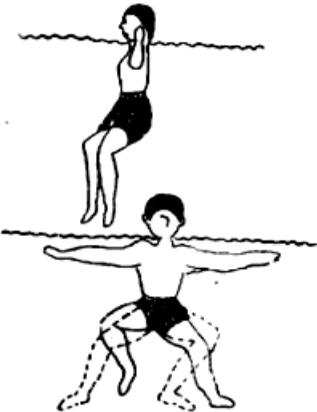
두 손은 함께 앞으로 내어 동시에 뒤로 물을 굽는다. 두 다리는 동시에 굽히



<그림 3> 누워 헤기



<그림 4> 모자비 헤엄



<그림 5> 발들려 헤기

면서 벌리어 발바닥으로 물을 힘차게 뒤로 차고 모은다. 터어닝은 두 손으로 동시에 한다.

(3) 누워 헤기(Back stroke)

위를 보고 수면에 눕는 자세로 턱을 가볍게 붙이고 몸을 충분히 펴서 발로 물 장구를 치며 손으로 몸 옆쪽의 물을 긁으면서 전진한다. 터어닝은 발로 푸울의 벽을 차기 전에 한손 또는 두 손으로 반드시 터치하여야 한다.

(4) 모자비 헤엄(Side stroke)

몸을 옆으로 하여 머리를 위로 돌리고 다리로 물을 집어서 차고 전진하는 헤엄이다. 매우 강한 추진력을 단번에 얻을 수 있으므로 구조법이나 수구 경기에 있어서 많이 쓰여진다. 두 다리를 앞뒤로 벌리고 앞다리는 발바닥으로 약 45° 앞뒤로, 또 뒷다리는 발등으로 물을 차면서 편 후 두 다리를 모아 처음의 위치에 가져온다. 이 때 뒷다리를 되도록 크게 벌리도록 한다. 물을 차는 동작과 함께 윗쪽의 손은 물을 헤쳐서 허벅다리에 붙이며, 아래쪽의 손은 손바닥을 아래로 보게 하여 수면에 평행으로 편다. 편 두 팔은 그대로 잠시동안 유지한 후, 다리 동작과 함께 처음의 위치에 가져온다.

(5) 서서헤기

몸을 수직으로 유지하며, 허벅다리를 직각정도로 벌리고, 의자에 앉는듯한 자세로 제자리 걷기를 한다.

이때 아랫다리를 무릎을 중심으로 하여 엇바뀌 인쪽으로 돌리면서 발바닥으로 물을 비껴 뒤 바깥쪽으로 찬다. 물을 찬 발은 힘을 빼며, 발목을 피고 저항을 적게 하여 본래의 위치에 가져온다. 그리고 되도록 동작을 작게 하여 몸이 상하로 움직이게 한다.

3. 주의사항

물에 들어갈 때는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할 위험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충분한 헤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옆에 없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 인공호흡과 구조법을 배워두자.

만일에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우선 구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하여 평상시부터 구조법의 훈련을 받아 두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빠진 사람이 발생하여도 그것을 구조하는 방법을 알아두어야 한다.

만약에 구조받는 사람이 아직 호흡하고 있으면 인공호흡을 곧 실시한다. 그러기 위하여 평상시부터 인공호흡법의 훈련을 받아둔다.

인공호흡은 먼저 엎드린 자세로 물에 빠진 사람의 등감(견갑골) 근처에 양손을 올려놓고 그대로 몸을 앞으로 옮기어 체중을 걸고 몸을 되돌리면서 양 팔꿈치를 쥐고 몸을 뒤로 쓰러뜨리면서 팔꿈치를 들어 올리고 다시 원상으로 되돌아간다. 이것을 한동작 1초의 비율로 되풀이한다.

▲ 그다음 특히 수영 도중에 빈혈, 장단지에 쥐는 것, 손가락을 빼는것 등의 사고에 대한 처치법을 알아둔다.

빈혈(貧血)

다리를 높이 하고 머리를 낮게 하고 모포 등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뜨거운 설탕물을 먹인다.

손가락이 부딪쳐 다쳤을 때

그 손가락 끝에서부터 손등쪽을 향하여 가볍게 문지르고 냉습포를 한다.

장단지에 쥐가 났을 때

① 엄지발가락을 쥐고 강하게 누르고 발뺨꿈치를 잡아당긴다.

② 그대로 무릎을 굽히게 한다.

③ 발뺨꿈치만으로 걸어가도록 한다.

④ 몸은 베드 타올 등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환부는 물론 식혀준다.

⑤ 완전히 차가워진 뒤에 경찰법(輕擦法)으로 마사야지를 한다.

⑥ 절대로 두들기거나 부벼서는 안 된다.

끝으로 운동은 자기가 직접해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운동의 기술은 단번에 몸에 익혀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하나 단계를 밟으면서 무리 없이 순서있게 몸에 익혀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정확하고 속한 방법이 된다.

# 숨겨진 이야기들 (1)

진 재 수

- ...이곳 국방부로 와서 공군의 역사를 매만지기 시작한지 1년여...●
- ...그 동안 자료를 들추고, 전역하신 분들을 찾아다니고 한...●
- ...보람으로 정사(正史)는 공간(公刊)인 한국전쟁사(국방...●
- ...부 전사편찬위원회 편찬)에 실어왔으나 정사(正...●
- ...史)로 취급하지 못할 외사적(外史的)인 성격을...●
- ...땀 에피소드들이 많은 것을 발견하였다...●
- ...이러한 에피소드들을 정리하며 더러는 혼...●
- ...자서 웃고 말았지만 혼자 간직하고 싶지 않은 애...●
- ...기들이 있어 여기에 모아본다.....●
- ...초창기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한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일...●
- ...어났던가는 수궁이 되리라 믿는다.....●

## ◇ 엔진고장을 청진기로 진단

전쟁초기, 여의도 기지에서 일어난 일이다.

당시 정비진들은 의욕은 대단하였지만 실무에는 그렇게 익숙해져 있지 않았고 또한 익숙해질 겨를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용접 후에 X-Ray를 통하여 비파괴검사를 마친 후 합격해야만 수리장에서 내보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당시의 상황은 초창기의 진통을 겪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하루는 L형 정찰기 1대가 활주로에서 갑자기 엔진이 멎어버렸다.

당시 공군의 비행단 고위층에서는 이를 보고 화를 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비행기는 정비진들이 밤새 고쳐 놓았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어디가 나빠서 엔진이 멎는거야. 빨리 그 원인을 보고하란 말이야.”

비행단 고위층의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비사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이 없었다.

정비사들도 몹시 답답했다. ‘밤새 고생한 보람도 없이 활주로 위에서 엔진이 꺼져 버릴게 뭐람’하고 투덜댔지만 당장 성화같은 고장 원인 보고지시에 대답할 말을 잊고 있었다.

“왜 그런지 몰라?”정비반장인 이모 장교가 외쳤지만 왜 고장이 났는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이 장교는 다급한 심정을 누릴길 없어 발을 구르다가 갑자기 의무실로 달려가는 것이 아닌가?

벼락같이 의무실에 달려가서는 청진기를 들고 고장난 항공기 옆으로 달려가는 것이었다.

곁에서 쳐다보던 장병들이 모두 의아해 하였다. 그는 엔진 곁으로 가서 청진기를 엔진에 대고, 의사처럼 귀로 엔진소리를 들으려 한 것이다.

비행단 참모 중의 한 사람이 그 장교에게 물었다.

“도대체 자네 무얼하는 거야?”

그는 한참만에 시무룩하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다.

“비행기 고장의 원인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청진 예비역 중령 면담)

## ◇ 왜 이런 연습을 하는가요?

한국 전쟁이 발발하던 1950년 6월 하순, 서울이 적의 손에 떨어지지 않은 어느 날이었다.

아직 한국 공군은 전열을 채 가다듬지 못하고, 몇 대의 경비행기로 사력(死力)을 다하여 국산폭탄을 안고 남하하는 적의 탱크를 저지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 무렵이었다.

적의 YAK기가 영등포지구에 날아와 기총소사를 가하였다.

한강 연변의 주민들과 영등포의 주민들은 이 광경을 강둑에 올라가서 보고 있었다.

경비행기를 타지 않은 조종사들과 공군 장병들도 적기의 내습을 속수무책으로 쳐다보기만 할 따름이었다.

이때 영등포 경찰서장이 허겁지겁 여의도로 달려와서 화를 내어 하는 말이 걸작이었다.

‘지금 시민들이 강둑에 나와서 구경하고 있는데 사람 다치려고 이럽니까? 왜 이런 연습을 하는가요?’하고 언성을 높이고 고함을 쳐대는 것이었다.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던 공군 장병들은 그 서장을 조용히 타일렀다.

“여보시오. 지금 시기가 어느 때요? 전쟁이 일어난 것을 도대체 알고나 있소? 저건 적기요 적기 경찰서장이 그렇게 상황판단을 못하면 어떡하는가요?” 서장은 얼굴이 붉어져 황급히 여의도 기지를 떠났다고 한다.

## ◇정찰기의 무인(無人)비행

1951년 1월 19일 경상북도 울진에서 일어난 일이다.

육군 제 1군단에 파견되어 있던 이모 공군 조종사가 비행장에서 8km쯤 떨어져 있는 군단사령부에 지프차로 가서 정보참모를 데리고 와야 했기 때문에 지프차로 떠나기 전에 정비사에게 이렇게 일러두었다.

“내가 가서 참모를 모시고 나올테니 내가 도착하면 곧 뜰 수 있도록 정비를 해 놓으시오”

이때의 비행기는 L-16정찰기로서 제동장치가 없어서 시동을 걸 때에는 조종사가 미리 조종석에 앉아있고, 정비사가 프로펠러를 돌려야만 했었다. 그리고 비행기가 주기(駐機)해 있을 때는 바퀴에 돌이나 각목으로 받쳐 놓아야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직 미숙했던 정비사는 이를 모르고 있었다.

조종사의 명령대로 정비를 끝낸 정비사는 충실한 정신을 십분 발휘, 조종사가 오면 곧장 출발할 수 있도록 시동을 걸어놓는다고 마음먹었다.

이리하여 정비사는 조종사가 타지 않았지만 기상에 올라가 모든 스위치를 작동하도록 맞추어 놓은 다음, 다시 내려 와서 바퀴에 받쳐 있는 돌을 빼버렸다. 그리고 나서 발로 힘있게 프로펠러를 내 차버렸다.

푸럭 푸럭 소리를 내며 시동을 걸기 시작한 비행기가 순식간에 하늘로 치솟는 것이 아닌가?

정비사는 프로펠러에 맞아 두어번 공중을 빙글빙글 돈 다음 땅에 떨어져 버렸는데 비행기는 사정없이 상승해 올라갔다.

이때 마침 정보참모를 데리러 갔던 조종사가 참모를 데리고 급히 와 보니 얘기는 하늘로 치솟고, 정비사는 땅바닥에 엎드려 신음하고 있었다.

조종사는 순간적으로 사고를 직감했으나 속수무책으로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한참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던 비행기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실속하여 뒤꽂무니로 떨어졌다가 앞으로 나가고 다시 뒤꽂무니로 떨어졌다가 앞으로 나가면서 하강하기 시작하였다.

마침 이를 목격 한 한 미 육군 고문관은 우리 조종사가 공중곡예를 하는 줄 알고 하는 말이 걸작이었다.

“원더풀! 한국사람 매우 재주 좋습시다.”

결국 이 비행기는 대파되었지만 하강해 내려오는 장면은 사진으로 TIME지에 나왔는데 제목이 무인비행이 아니라 한국 공군조종사의 공중곡예 였더라나 <오점석 예비역소장, 한남섭 중령, 김도의 예비역 상사의 면담에서>

## ◇자동차 조수인가? 조종사인가?

1950년 10월, 한국 공군의 정찰비행대 조종사들은 L4, L5 등의 경비행기로 육군의 각 군단에 파견되어 육군의 작전을 지원하기에 바빴다.

당시 육군 제 2군단에 배속되어 있던 김도의 상사는 육군 소령을 동승시키고 영월에 갔다가 영천으로 가던 중 충주상공에서 연료가 자꾸 새는 바람에 충주 동쪽 2km 지점에 불시착을 하게 되었다. 비행기의 요동으로 인하여 뒤에 탔던 육군 소령은 까무라쳐 정신을 잃어버렸고, 김 상사는 웃이며, 모자며 할 것 없이 기름투성이가 되어 버렸다.

한참 후에 불시착한 것을 알게 된 주민들과 육군들이 몰려들어 구경꾼이 1,000명이 넘는 것 같았다.

캐노피를 열고 나온 김 상사는 ‘여기에 어느 부대가 주둔하고 있느냐?’고 물으니 사람들이 김 상사의 모습을 보고 킁킁 웃으면서 ‘육군 모 연대가 있다’고 하였다.

김 상사는 모자로 캐노피에 묻은 기름을 닦고 ‘기름이 없으니 휘발유를 좀 넣어달라’고 하였더니 ‘연대장이 와야 된다’는 것이었다.

‘연대장님을 좀 오시도록 하시오’했더니 잠시 후 연대장이 도착하였다.

‘연대장님, 불시착했습니다. 연료를 좀 주십시오.’라고 김 상사가 연대장보고 이야기를 했더니 연대장은 김 상사를 쳐다보고 이렇게 말했다.

“누가 조종사인가? 자네는 뭐야? 자동차 조수인가? 조종사인가?”

김 상사는 조종사라고 밝히고 간신히 기름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륙이 문제였다. 생사를 결단하고 불시착했지만 이륙할 일이 꿈같았다. 온통 울퉁한 논바닥이었기 때문이다.

실신해 있는 육군 소령이 신문물을 가득 안고 있었다.

김 상사는 갑자기 기지가 떠올랐다. 동리 유지급이 될만한 사람들을 골라 신문을 나누어 주었다.

“새로운 전황 뉴우스가 실려 있소. 이 신문을 드리겠으니 비행기가 뜰 수 있도록 길을 좀 만들어 주시오.”

전황 뉴우스에 굶주려 있던 동리 사람들은 쾌히 이를 응락하고 폭 10m에 길이 200m나 되는 응급 활주로를 한 시간만에 만들게 되어 김 상사는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을 흔들며 이륙하게 되었다.

## ◇커피 5갤런으로 바꾼 미림 기지

이 이야기는 Hess의 전승가(Battle Hymn)에 실려 있는 이야기이나 당시

한국 공군의 고위 지휘관은 사실과는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야기삼아 소개하기로 하겠다.

1950년 인천상륙작전과 더불어 9월 28일에 서울을 수복하게 되자 공군도 여의도 기지에 복귀하여 연일 출격하였는데 10월 상순이 넘어서고부터 여의도 기지는 복잡하게 되었고, 전선은 복잡하여 전선의 직후방에서 공군이 작전하 여야 만 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었다.

평양이 탈환되자 Hess 소령은 평양 미립기지로 비행하여 갔다. 이때 미립기지는 미 육군의 보병부대가 점령하고 있었다.

Hess 소령이 보병부대장을 만나 이 기지를 미 공군의 6146부대(한국 공군 고문단)와 한국 공군이 사용하여야 겠다고 간청하였으나 미 육군의 보병부대장은 그 말은 들은 척도 없고, 다른 말을 늘어놓는 것이었다.

“우리 부대엔 커피가 떨어져 큰일 났소. 커피 좀 구할 수 없겠소?”

이 말을 듣고 Hess 소령은 아무 소리 않고, 부대장실을 나와 여의도로 돌아왔다.

Hess 소령은 개인이 갖고 있는 분량까지 커피를 모조리 긁어모았는데 5갤런 정도를 모을 수 있었다.

이 커피를 비행기에 싣고, 다시 미립 비행장으로 날아갔다. 보병 부대장실의 문을 허겁지겁 밀고 들어갔다.

“여기 우리 부대에 남아있는 커피를 모두 가져 왔소. 적지만 미안하오. 끓여 마시도록 하십시오.”

하고 커피를 부대장의 책상에 올려 놓았다. 이를 본 부대장은 얼굴에 웃음을 활짝 띠우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 이거, 대단히 고맙습니다. 당장 이 비행장을 당신들이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커피 맛을 보게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리하여 미립비행장은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 빨간 머플러의 유래

하늘의 용사라면 유행가에도 있듯이 우선 빨간 머플러를 연상하게 되는데 한국 공군의 조종사가 빨간 머플러를 착용하게 된 유래는 꽤 재미있는데 있다.

돌아가신 김영환 장군이라면 김신 장군, 장성환 장군과 더불어 공군의 삼총사로 알려져 있는 분으로 조종에 있어서는 남다른 재주가 있던 분이다.

공군의 초대 참모총장이신 김정렬 장군의 동생인 김영환 장군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꽤 많이 남기신 분이기도 하다.

비행기에 거의 미치다시피한 김영환 장군은 경기고보를 졸업하고,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던 중 형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본 육군 예비사관학교에 입교

하여 비행기술을 익혔다.

김정렬 장군은 동생에게는 위험한 조종을 가르치고 싶지 않았는지 모를 일이고, 또한 김영환 장군은 비행기를 타는 형님을 지극히 부러워했음지도 모를 일이다.

비행단장 재임시에도 김영환 장군은 지극히 검소하였다고 한다. 그는 단장실에 단장 통솔방침이니 하는 일체의 표어를 붙이지 않았다고 한다.

“알고 실천하면 되지 무슨 시위같이 벌이고 소란을 피우는 것은 싫다.”라고 한 것을 보면 그의 성품을 가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일단 조종석에 앉으면 그는 조인 그대로였다. F51 전투기로도 운중(雲中) 비행을 겁내지 않고, 척척해 내곤 하였다.

빨간 머플러는 김영환 장군이 처음으로 착용하였다. 그 유래는 이러하다.

김 장군이 비행단장으로 부임할 때였다. 그는 비행복에 머플러를 하지 않으니까 좀 허전하다고 늘 느끼고 있었다. 그리하여 형수(김정렬 초대 참모총장의 부인)에게

“형수님, 머플러로 목에 두를 것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시동생이 목에 두를 것을 달라고 하는데, 줄 것이 없던 형수는

“내가 치마를 만들려고 둔 것이 있는데 색깔이 빨간 것이어서 여태 안 만들고 두고 있는데, 그것도 될는지 모르겠네요.”했다.

“아무 거면 어때요? 어디 이리 내 놓아 보십시오.”

빨간 천을 갖고 오자 김영환 장군은 적당한 크기를 재더니, 부욱 찢어 목에 둘렀다.

“형수님, 어때요? 멋있죠? 됐어요. 훌륭해요.”라며 문을 박차고 나갔다.

김 장군이 단장으로 부임하자 마자 조종사들은 너나 할것 없이 빨간 머플러를 만들어 두르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단장의 빨간 머플러가 너무나 멋이 있게 보였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오늘날의 빨간 머플러가 시작되어 한국 공군을 상징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때까지 외국에서도 조종사가 빨간 머플러를 사용한 일은 없었다.

그는 공군의 별명으로 이름난 산돼지의 장본인이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산돼지 김 대령이라고 서슴치 않고 불렀다.

1953년 그가 사천의 훈련비행단장 취임식에서 그는 취임사 서두에 대뜸 “산돼지 김 대령이 옛 고향 사천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라고 할 정도였다.

그가 미 공군대학에서 돌아와서 귀국 보고할 때의 보고 제일성이 이러했다 고 한다.

“유난히도 빛나는 남십자성을 남쪽에 바라보면서 태평양을 건너……”

군 종 특 집



|| 종교활동 업무의 갱신 ||

서울 신학대 교수 허 경 삼

1. 총력안보란 무엇?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매우 위급한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는 북괴가 침략할 기회를 주지 않고 또 침략하더라도 일격에 물리칠 수 있는 모든 태세를 시급히 갖추어야 한다. 북괴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켜 자유와 평화를 영원히 누리자는 것에 총력안보의 목적이 있다.

이상은 문화공보부가 발행한 총력안보의 지도요강 중에 나타난 귀절이다. 이 상 문장의 내용을 좀 더 간략히 한다면 국가와 국민의 생명·재산과 민주주의와 자유·평화를 수호하는 것이 총력안보의 목적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북괴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총력안보의 목적이라 할 것이다.

2. 총력안보의 필요성

총력안보태세가 왜 이 시점에서 필요한가?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우리는 지금 북괴의 침략의 위협을 노골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러면 과연 북괴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기도하고 있는가? 상기 지도 요강 제1장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들어 북괴가 침략야욕을 가지고 있음을 폭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치 상황의 변화기류에 편승하여 무력적화통일의 야욕을 격화시키고 있는 북괴는 소위 전인민 무장화, 전국토 요새화, 전군 간부화에 의한 전쟁준비완료를 호언하고 무력 재침의 기회를 노리면서 대남도발을 격화

하고 있다.

이리하여 그들은 공산체제하에서의 적화통일과 무력에 의한 민족통일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열강들의 국제개입 즉, UN의 조정역할이나 국제경찰력 행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미국이 더 이상 개입하지 않기를 바라는 한편, 미·중공간, 일·중공간의 접근관계의 변혁을 믿고 있으며, 일본의 북괴접근을 예상 북괴의 지위향상과 대남간첩침략의 온상으로 일본을 이용함이 편리 활발해 질 것을 예상, 중공소련의 대립격화를 유리하게 이용, 양국의 대미관계의 깊고 얕음을 이용하여 북괴지원을 가능케 하고, 또한 한국의 경제개발 중점정책으로 인한 전투력 증강의 소홀과 민방위체제 및 후방전열의 정비미흡을 계산하는 동시에 북괴의 일당독재에 인한 인민결속에 비해 남한의 해이한 사회 풍조는 간첩침략의 온상구실을 하는데 호조조건을 감안, 북괴는 여러 가지 조건이 가장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시기를 70년대 전반기로 전망하고 모든 전쟁준비를 촉진시켜 온 것이다. 예상되는 북괴의 침략방법으로는 직접 무력침략과 간접침략이 있을 것이며, 직접 무력침략으로서는 그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군세와 모든 수단방법을 총동원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저들이 사용가능한 수단방법으로서는 첫째, 소위 부정향일 작전법 둘째, 속전속결주의 전법 셋째, 기동력 전법(특히 전폭기, 함정, 전차 등을 주축으로 한) 네째, 동계작전법 다섯째, 남한 전역에 걸쳐 일시에 공격을 가하는 전국전선화의 기습작전 등을 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간접침략의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이 자멸할 수 있도록 하여 힘 안들이고 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쓸 것인 바 남한 국가전복 즉 반체제 폭동을 유발케하고 사회 기강의 해이와 퇴폐풍조를 고조시켜, 국민 단결력과 전의를 상실케하는 심리전을 전개하는 한편 게릴라전을 전개하여 사회질서와 안전기반을 파괴하여 국가방위력을 박탈하는 것 등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적은 그들의 침략야욕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미 반반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존과 안전을 위하여는 이에 대비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적의 소위 전인민 무장화, 전국토 요새화, 전군 간부화라는 말이 보여 주듯이 전능력을 총동원하여 우리를 노리고 있는 때에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을까? 비상사태의 선언은 이리하여 내려졌고, 총력안보 태세의 촉구는 이리하여 취하여진 것이다.

3. 총력안보와 군종업무 그 갱신

이 총력안보의 개념 속에는 적의 침략기도를

미연에 좌절시키기 위한 침략예방력과 적의 침공이 감행되었을 경우 이를 즉각 격퇴할 수 있는 안전회복력까지를 함께 갖추는 것은 물론 여기에 더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국가 총력, 인적 물적, 유형무형의 모든 국가(자원)와 국민 총력을 동원할 수 있는 준비와 동원 태세를 갖춘 또 하나의 요건까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주로 우리 군이 담당할 분야인 침략예방력과 안전회복력을 놓고 이것들이 군종업무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예방력’이든 ‘회복력’이든 거기엔 힘이라는 글자에 강조가 있음을 본다. 적의 힘에 대하여 우리는 힘으로 그것을 막아야 한다. 힘의 상징으로 우리는 군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군대는 힘의 집성이라 할 수 있다. 군대를 The Forces라 부름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다행히도 우리는 세계에 그 막강한 힘을 자랑할 수 있는 육해공군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군의 힘은 무적을 뿔낸다. 이미 6·25국란에서 그 힘의 위세를 보인 바 있으며, 또한 우방 월남 지원작전에서의 그 위력은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한 막강한 군대를 가졌기에 우리의 힘 곧 침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력과 적의 침공을 즉각 격퇴할 수 있는 회복력에 관한한 완벽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힘을 절대시하거나 과대평가하는 것은 위험하다. 우리의 힘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며 동시에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적의 힘이 우리보다 열세일 경우에만 우리는 강하다. 우리의 힘은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보잘 것 없는 것이 될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결코 적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수십년간을 전쟁준비만을 위하여 그 힘을 길러온 그들의 군사력을 결코 알잡아 보아서는 안 된다. 더욱이 그들 북괴는 철저한 공산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데올로기의 군대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 맞서 이겨낼 만한 힘의 군대를 가져야 한다. 군대를 구성하는 기본요소로써 인적, 물적, 기술적 요소가 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그 하나하나가 모두 힘을 가진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의 군은 굉장한 힘의 소유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숫적인 사람에다 많은 장비로 무장을 시키고 훌륭한 기술을 가르쳤다 해서 강한 것은 아니다.

물리적인 힘은 있을는지 모르나 정신적으로 무력하면 그 물리적인 힘은 참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공산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저들을 대적하기 위하여는 철저한 민주주의 이데올로기로 무장하여야 한다. 혼이 없는 군대는 일단 유사시에 하나의 오합지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스라엘군은 숫적으로 아랍군에 견줄바 못되지마는 그들은 아랍군대에 비교할 수 없는 강한 혼을 가졌기로 자기 조국을 지키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자랑하고 있다. 혼을 소유한 군대만이 신념의 군대이며 사명의 군대가 될 수 있다. 또한 우리를 수호할 수 있는 군대는 정의의 군대여야 한다. 힘이 필요하지만 정의 없는 군대의 힘은 폭력이 된다. 우리 군대는 의를 가지고 불의를 막는 힘의 군대여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정신력이 없는 군대, 민주군대의 혼이 없는 군대를 수만으로 자랑하고 기술만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어리석다.

군은 국가방위의 최전위의 보루이다. 아무리 국민 총력과 국가 총력의 뒷받침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이 최전위의 보루가 견제하지 못하다면 만사무위이다. 그런데 물리적인 힘의 기반이 되는 정신적인 힘을 조성하고 보전하는 일을 위하여 군종업무는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군종업무의 과제는 눈을 구성하는 요소의 주체가 되는 인간자체를 책임지는 것으로써 그 인간을 바르게 만들며 바르게 살자 하며 책임과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인간이 되게 하며, 의를 위하여서는 기쁘게 죽을 수 있는 인간이 되게 하는 일을 한다.

군목이 그 수에 있어 극소하며 또 그들이 맡고 있는 일이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못되지만 그들은 실로 힘의 원천으로써 별로 눈에 띄지 않게 끊임없이 일하고 있는 것이다. 소련에서는 한 사람의 목사나 신부를 1개 사단의 병력과 맞먹는 것으로 본다. 그것은 한 사람 목사나 신부의 물리적인 힘을 두려워함이 아니라 그 한 사람 목사, 신부에게서 나오는 정신적, 사상적인 힘을 두려워함을 말한다. 군목된 자의 긍지와 자량이 여기 있다 할 것이다.

막중한 사명을 지니고 군에서 일을 시작한 군종 활동업무는 그동안 험란한 가시밭길을 걸어오면서도 경이 할만한 발전을 보았다. 그러나 주마가편(走馬加鞭)이란 말과 같이 군종업무는 새로운 차원으로의 지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군목이나 군 교회당이 군대 안에 있어서 하나의 장식품으로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다. 주일과 정한 다른 날에 모였다 헤어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규정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는 군목의 특권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못하다. 고답적인 군목의 자세는 용인될 수 없다.

필자는 모 군의 최고 지휘관의 전군 신전화 방침에 대하여, 그의 현명함과 용기있음을 감사하여 마지않으며, 이 지휘 통솔방침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군목들의 열과 성에 대하여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사실 신앙을 가진 군대만큼 강한 군대는 없다. 신앙의 군대는 신념의 군대이며, 책임과 사명의 군대이며, 의를 위하여서는 생명까지라도 기쁘게 바치는

군대이니 사생관이 확립된 군대는 참으로 강하다. 이스라엘군이 그 예이다. 군목의 참 때가 도래했다고 보고 싶다. 군목들에 대한 국가의 요청이 지금만큼 절실한 때가 우리 군종사상에 있었을까? 군목된 분들의 분발이 요청되는 때이다. 물론 제약이 많은 특수사회 속에서 군목들이 겪지 않으면 안 되는 허다한 애로와 난관이 있음을 모르는바 아니다. 그러한 것들은 극복될 수 있는 장애이지 좌절케 하는 것일 수는 없다. 능력의 한계성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능력의 부족은 얼마든지 보충받을 수 있는 영적, 정신적 자원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군목이나 힘쓰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소극적인 정체성을 탈피하고 보다 진취적이며 창의적인 정신 기풍을 가지고 일할 때에만 신의와 시대와 국가의 요구에 수궁할 수 있을 것이다. 군목 제위가 참으로 사명감에 불타서 열과 성으로 일 하고자 한다면 군은 아마도 같은 열과 성을 가지고 이 업무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믿는다. 이 계제에 교계를 향하여 한마디 할 것을 허락한다면 참으로 일하고자 애쓰고 힘쓰는 사명있는 군목들에게 힘이 자라는데까지 성원을 보내자고 제언하고 싶다.

결언 : 총력안보에 있어서 군종업무의 중요성과 군목 제현들의 사명의 중차대함을 다시 한번 공감한다.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소심껏 일하는 군목 제현을 축복하시는 하느님이 계심을 마음 든든하게 생각한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의 뜻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눈물과 땀에 대하여 보이는 보상이 없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마침내 값어치주실이가 계심을 보아야 할 것이다. 총력 안보는 우리 국가지상의 과제이다. 이 일은 여러분의 헌신적인 역사(役事)를 통해서만 참된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예비역 군목>

## || 도의교육 업무의 갱신 ||

기독교 의로봉사회 총무 이 영 렬

성년(成年)의 역사를 가진 군종업무에 있어서 오늘 총력안보와 군종업무의 갱신이란 주제를 놓고 군종업무 갱신을 한 번은 생각해 볼 만하다. 예하부대에서는 종종 군목이 안전 교육, 방첩 교육, 정훈 교육의 실시를 요청받아 실시하는 경우를 본다.

이렇게 군목을 다양하게 활용한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여러 가지 교육을 청탁 받을 때 부탁하는 입장에서나, 그런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군목을 후시 번사로나, 또는 성우로 취급하는 분은 없을까? 군목의 이미지가 주체성을 잃은채 한낱 말 품팔이로 전락되지 않을까하는 노파심도 갖게 된다. 그렇다고 특이성, 주체성을 주장하는 나머지 개신교, 천주교, 불교가 제각기 자파교세 확충을 위해 오직 포교만을 일삼다가 상충하는 결과를 가져와서도 안 된다. 각 종파 특유의 신학 또는 철학을 기조로 해서 도의 분야에서 하나의 공약수를 찾고 그것을 교육하는데 군종업무의 특이성이 확보되어야 할 줄로 안다. 군종업무와 정훈업무의 다른 점이 전자가 바람직한 인간화를 기하는데 있다면 후자는 바람직한 군인상을 짓는데 있다고 보며, 그러기에 군인 이전의 인간 바탕을 바르게 지도하는 임무가 타 분야와 다른 군종업무이며 도의 교육의 성격이기도 한 것이다.

도덕이란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하며, 이에 준한 행위를 가리킨다. 이런 도덕을 이행 시키고, 도덕적 감정과 의식을 기르는 교육을 도의교육이라 말한다. 인간의 성장과정에는 사회적 환경, 자연적 환경, 개인의 타고난 성질 등이 있고, 이런 성장(生長)요소에는 유용한 것과 무용한 것이 있게 마련인데 교육이란 이런 무용 유해한 요소를 억제하고, 유용한 방향으로 가도록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현재 군종분야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의교육의 실상은 어떠한가?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를 구체적으로 판단 정리해서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와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 가운데는 과연 모순과 갈등은 없는가? 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가? 이런 점에 있어서 현행 군종업무는 자신있는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 따라서 도의교육은 이 점에 대해서 보다 더 진지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하고 성실하고 겸손한 해답을 풀어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상 인간은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도 사회제도는 엄청난 변혁을 가져왔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돼 가고 있다. 노예제도 아래에서의 인간의 도리와 민주사회에 있어서의 인간의 도리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급변해 가는 오늘의 현실에서 과연 정·사(正邪)의 기준과 판단은 어떠한가 하며 과연 그런 점에 대하여 현재 군종업무의 도의교육은 상황따라 확고한 신념이 수립되어 있는가 의심스럽다. 요즘 신문에 보도된 대로 자기 생각에 부정한

관리라고 판단되는 사람의 돈을 올려내서 병자와 가난한 이웃을 도왔다는 신문 임직원 사건을 보고 그가 행한 일들을 도의교육 담당자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또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외경(畏敬)을 부르짖는 우리가 살상(殺傷)을 가장 중한 범죄로 판단 치리(治理)하고 있으면서도 적병을 대량 섬멸한 전공(戰功)으로 훈장을 받게 되는 이종도덕률을 군종업무의 도의교육은 과연 어떻게 해명하고 납득시키며 설복하고 있는가? 복귀의 어떠한 침략에도 대처 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즉각 이를 물리치기 위하여 국가의 모든 힘과 국민의 모든 힘을 하나에 합쳐 동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와 태세를 갖추는 일이 곧 총력안보라고 할 때 민주시민의 긍지와 자부와는 아무런 갈등도 없는지 거기 따른 철학적 합리성은 무어라고 해명할 것인지, 도의 교육은 이를 검토한 바 있는지 궁금하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도 우정이라든지 리더쉽이라든지 가정생활이 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게 마련이다. 군대 명령과 복종을 중요한 군율로 강조하고 있는데 군 질서 이전에 인간성의 선행관례를 군종업무는 과연 도의 교육에서 현재 어떻게 말하고 있으며, 과연 장병이 그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도의교육 업무의 갱신은 종전의 지엽적이고 정황과 사건따라 설정되는 과제에서 지양되어 보다 더 근위적이고 철학적 바탕을 이해 납득 시키는 방향에서 새로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공군장병의 지적 수준은 전통적 인습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생리일 뿐 아니라 정치적, 철학적 식견을 지니고 있는 처지이니 만큼 그들을 교육한다고 할 때 먼저 논리와 천학에서 공간을 열고, 협동을 요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한편 교육 방법에 있어서도 갱신은 필요하다. 장병을 집합시켜 구술강연을 통한 일방적, 강제적, 행사적 교육방식만을 주로하고 있는 점은 새로워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대상이 다르고 교육내용이 다르려니와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은 교육에는 참여해도 초연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불참 거부해서 실은 선량한 사람만 교육에 참석 하는 점을 깨닫고 이 점에 대한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과과정에 따른 교육진행과 거기 따른 평 분석까지도 발전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안다. 도의 교육의 대상은 지휘관이나 참모를 예외로 할 수 없다. 그들은 작전에 있어서의 입안자요, 결재자이지만 공격 생활에서나 사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도리는 계속 겸손히 교육받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도의교육의 방법은 대상따라, 처지따라 각양 다채로와야 한다.

기성 범과자에게는 자성(自省) 회오(悔悟)하도록 교육하고, 범죄 가능요소 대상에게는 예방범죄 교육을 실시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방문교육, 집합교육, 개인권면, 간접시사 등 시정각을 모두 동원 활용하는 방식개발이 요청된다.

총력안보의 7대 요강은 자조하는 정신, 자립하는 의지, 자주하는 자세, 협동하는 행동, 노력하는 지혜, 자위하는 용기, 자유에의 신념이라고 한다. 우리는 국가안보를 위해 이상 열거한 실천 요강은 매우 적절하다고 공감한다.

이것은 정훈분야에서 강력히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안다. 이에 호응해서 군종의도의 교육은 그것을 실천키 위한 기초철학을 풀어 설명해 줌으로써 더욱 더 큰 성과를 기하하도록 하는데 협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군종업무에 있어서 기본 임무는 도의교육이요, 정훈교육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군사교육이나 정치교육 이전의 인간교육이 군종업무의 임무이기 때문에 군종업무에 있어서의 도의교육은 평상시와 달리 비상시라고 해서 갱신되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다만, 군종업무가 20년의 연륜을 쌓았고 또 도의란 것은 시대변천에 따라서 사회관습과 적응 부합시키는 인격적 결단 요소도 있느니만큼 오늘에 있어 구체적이고, 팔목할 만한 갱신은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교육은 교육을 시행하는 측에서 교육행사를 실시했다는데서 평가하거나 자위할 것이 아니라 피교육자가 과연 얼마만큼이나 그 교육의 영향을 받았는가 하는데서 그 성과를 평가해야 할 것으로 안다. 적어도 피교육자의 양심에 교육내용이 부딪치고 그것이 다시 그 인격에서 행동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교육이어야 하며 바른 인간화가 이룩되는 교육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군종업무가 한 때는 종교업무로, 더러는 무의탁 사병 선도로, 때로는 영창병원·위로사업으로, 최근엔 부대에 외부 후원을 끌어들이는 존재로 부각(浮刻)됐던 때가 있었다.

지금은 과연 군 안에서 군종업무가 어떤 면으로 인정감과 필요성을 인식케 하고 있는가? 군목은 군목대로 지휘관은 지휘관대로 또 일반 장병은 장병대로 깊이 생각을 정리하여 계급의 고하를 막론하고 군인들을 바른 인간으로 영향 주려는 그 기본임무에 깊은 이해와 협조가 있어지기를 비는 마음이다.

<예비역 군목>

상담업무는 군중활동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여 왔다. 그러기에 상담업무가 없는 군중활동은 상상할 수 없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많은 장병들이 군복무를 수행하면서 고민하는 문제들은 대개 이성문제, 경제문제, 군사문제, 종교문제 등인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 상담실로 찾아오는 발걸음이 지금도 끊이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성 가진 장병들의 몇 퍼센트나 상담하러 오느냐 하는데 문제성이 있으며, 또한 상담을 하러 오는 장병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고 가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먼저 문제성 가진 장병들의 수가 전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전에는 아마 문제성 가진 장병들의 몇 퍼센트가 상담 하러 온다는 것을 알아 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당한 수의 장병들이 문제성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는 인내심을 발휘하여 문제성을 홀로 극복해 나가는 장병들도 있을 것이고, 일체를 체념하여 될대로 되라는 식의 사고방식으로 지내는 장병들도 있을 것이며 또는 상담하러 오는 것을 꺼려서 주저하는 장병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성을 홀로 극복한다거나 문제성을 체념하는 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문제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상태로 볼 때 저들도 역시 상담이 필요한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마도 상담을 주저하거나 상담을 꺼려서 홀로 극복해 보려하고 혹은 체념 상태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가 상승한다면 외부적으로 사고의 원인이 되기 쉬우며, 내부적으로는 정신이나 인격에 장애를 일으키기 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성이 있을 때마다 주저없이 개인 상담실을 찾아올 수 있게 하는 여건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여건을 보다 더 잘 마련해 주는 것이 아마 상담업무의 갱신에 속할 것이다.

첫째로 문제성 가진 장병들이 서슴치 않고 상담실을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담실의 분위기 조성이 중요한 것 같다.

대개 부대마다 개인 상담실은 있지만 참으로 상담실다운 분위기 조성이 완비된 곳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 인것 같다.

상담실은 사고방고에 직결되어 있고, 장병들의 인격향상과 사기진작에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상담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일에 등한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상담실 분위기를 잘 조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 될지는 몰라도 상담실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 조용하고 안정감을 주는 방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단 상담실로 들어오면 자기 집과 같은 기분을 일으켜줌으로써 마음의 문을 열어놓을 수 있도록 꾸며야 할 것이다.

우리 인간은 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는 안정감을 일으켜 주며, 무엇보다도 문제성을 털어놓을 수 있는 심적 상태를 유발시켜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실례를 든다면 개인 상담실에는 될수록 안락 의자가 있어야 하며, 벽에는 성화나 명귀가 걸려 있는 것이 좋으며, 또한 창문에는 커튼이 쳐져 있고, 상담 중에는 외부의 출입이 통제되어야 하며, 온갖 소음이 잘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난방장치나 냉방장치는 상담실 분위기 조성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구실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분위기 조성이 이상과 같이 잘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상담을 진행시켜 나가는 기술이 없다고 하면 성공적인 상담활동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군중장교들에게는 상담활동을 위한 전문적 보수교육이 계속 필요한 것이다.

물론 상담에 관하여는 신학대학에서 배우기도 했을 것이고 민간목회 재직 시의 실제적 경험도 많았을 것이고, 또 군중장교 보수교육 시에도 강의를 여러 번 들었을 것이지만 과거의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여 상담에 관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항상 최근의 새로운 지식을 얻어서 활용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며, 또 피차간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자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군중장교의 인격이라고 볼 수 있다. 인격적으로 존경의 대상이 못되면 상담하러 오기를 주저하게 될 것이 명확하다. 적어도 상담이라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솔직히 털어놓는 일이기 때문에 원만한 인격자가 아니면 상담을 주저하게 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기에 상담업무의 갱신을 위해서는 군중장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정신수양 및 신앙부흥을 항상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옛날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는 인격적으로 존경의 대상이 되었고, 또 경건한 생활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그의 모습만 보아도 감화를 받았다는 일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우리가 다 완전해 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전체 장병들에게 모범이 되고, 존경의 대상이 된다면 상담활동은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

다음에 또 상담활동의 갱신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과거의 방식에만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상담의 방법을 모색해 봐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과거와 같이 찾아오기만 기다린다는지 또 영창이나 병원을 방문하여 형식적인 상담을 함으로써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서신이나 전화를 통한 상담활동도 연구하여 적극 실천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특히 전화를 통한 상담 활동은 외국에서 크게 성공한 예도 있는 것이다. 자살직전의 사람이 마지막으로 상담실에 전화를 걸어 상담한 결과 마음을 돌려서 새로운 삶을 개척한 실례가 많은 것이다.

특히 영내에서는 개인 상담실에 상담하러 가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갈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러므로 전화를 통한 상담방법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전화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통화의 비밀성이 보장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그러기에 시내의 민간 공중전화와 같이 조용히 혼자 통화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이상적인 것이고 상담에 관한 전화는 도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여튼 전화를 통한 상담업무는 좀더 깊이 연구되어져서 효과있는 상담의 방법으로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신을 통한 상담업무도 충분히 검토되어서 활발하게 실천에 옮겨진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두리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상담업무의 갱신을 위해서는 상담의 필요와 효과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PR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

문제성이 생길 때 상담을 함으로써 얼마나 정신건강에 좋은지를 수시로 계몽하고 상담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든지 상담결과는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지식이 전달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는 인격지도 교육시간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저명한 전문적 강사를 초청하여 상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거나 강연회를 개최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일 것이다.

또는 상담에 관한 표어나 포스터 등을 사무실이나 게시판에 부착시켜서 수시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면 더욱 이상적일 것이다.

이 표어나 포스터는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붙일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널리 공고하여 현상모집하는 편이 상담에 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어서 더욱 이상적이라고 생각된다.

하여튼 상담활동의 효과가 충분히 알려짐으로써 모든 장병들이 문제성을 지닐 때마다 주저 말고, 개인 상담실을 찾아 드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 상담실은 모든 장병들을 위해서 언제나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려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군중활동 중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담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상기한 것 이외에도 발전시키고 갱신할 바가 많으리라고 생각한다.

〈예비역 군목〉

## 원호 봉사 활동의 갱신

성모병원 경리처장 김 춘 근

군중업무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원호 봉사 활동에 대한 제목을 받고 그동안 있었던 군대생활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련다. 원호 봉사란 말은 그 의미가 너무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대외적인 면은 제외하고 대내적인 면만 살펴보기로 하겠다. 특히 군중활동에 있어서의 방문, 봉사 등 한 두 가지 면을 보기로 한다.

이미 나는 군복을 벗은 지 만 3년이 지났으며, 군대 생활 5개년 동안 별로 신통히 업무 수행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군중업무는 그 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고 본다.

따라서 내가 군에 있을 때 보고 느낀 점을 토대로 하여 비록 실천은 다 못했을 망정 이상으로 삼고 싶었던 점 몇 가지를 놓고 검토해 보려는 것이다.

먼저 봉사함을 받으러 오지 않고 봉사 하러 왔노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실천으로 증명하려는 우리에게 있어서 봉사란 것은 새로운 것도 아니며, 군대에서 규정지는 어떤 제도 때문에 운운되는 것도 아니다.

이는 군대에서건 민간에서건 간에 구별 없이 다 적용되는 문제이며, 우리가 어디서나 어느 때나 당연히 해야 될 임무 중의 하나라고 본다. 다만 여기서 군중활동에

있어서의 봉사활동이란 군이라는 특수 환경의 집단에서의 적용 방법의 차이점만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다. 따라서 그 일환으로 영창이나 초소, 작업장, 내무반 등을 방문하고, 위로와 격려를 하는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점을 찾자면 두 가지로 분류하고 싶다.

하나는 단위부대에서의 군목활동이고 다른 하나는 상호 횡적인 유대를 갖는 전체적인 활동이다.

첫째로, 단위부대에서의 활동 중에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군목의 정신자세라고 하고 싶다. 개개인의 특성, 자질 등 개인차에 의해서 잘하고 못하고는 제외하더라도 결과에 치중하기 쉽다는 얘기다. 실적주의자와 PR 주의로 전략하기 쉬운 면을 인간은 모두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도 없고, 또 부정하기만 해서도 안 된다고 본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래도 같은 값이면 겉으로는 크고 무거워 보이지만 속이 텅 빈 합판으로 만든 십자가를 선택하기 쉬운 반면 두껍고, 단단하며, 겉으로 조그마하게 보이는 십자가는 회피하려는 인간성의 나약함이 작용된다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본다.

따라서 영창이나 초소 등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이나 기타 무슨 위문품을 여기저기 다니며 얻어다가 주며 일시적인 기분을 맞추어 주는 것 같은 활동은 어떻게 보면 큰 성과 같기도 하고 군을 위해서 큰일을 한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다 양념에 지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군목이 겨우 구걸해다가 사람들 기분을 맞추어 주는 것이겠는가? 잘못하고 영창에 들어가 있는 수감자의 고생을 덜어 주는 것에만 보람이 있겠는가? 요는 그들이 영창이면 영창, 초소면 초소에서 고생되는 생활 중에서도 그 생활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공백기간으로 흘러보내는 무의미한 생활이 되지 않고, 그 나름대로의 중요한 경험이요, 앞날을 위한 토대가 되는 생활로 바꾸어 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물론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다.

그 방법에 있어서 실적주의와 주의를 지양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어떤 특수한 위치에 있는 장병을 위주로 방문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장병과 호흡을 같이 하고자 하는 정신, 그들에게 참으로 어머니가 되고자 하는 크리스찬적인 사랑의 정신에 있어서 이상이 없는가를 항상 반성해야 될 줄 믿는다. 그런 의미로 볼 때에 필요하다고 보면 일과 전이나 후를 막론하고, 언제나 그들 안으로 뛰어들고 문제점을 찾는 동시 해결책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횡적인 유대의 필요성이다. 먼저 종파를 초월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자기종파 P.R이나 확장에 얽매어 상호 팽팽한 줄다리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상호 견제와 불목, 비난과 시기 등을 멀리 멀리 내던지고,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공동 목표로 매진해야 되겠다. 다음으로 중앙(군종감실)에서는 군목들의 인사문제, 처우문제 못지않게 그들이 단위부대에서의 이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상의 문제를 종합 연구 검토하여 제시해 주어야 겠고, 군종실과 지휘관과의 관계 개선에도 보다 주의 노력해야 된다고 본다. 물론 각자의 역량 인품 덕성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선을 다하려는 군목들에게도 중앙에서의 정책적인 뒷받침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예하부대에서 지휘관의 이해부족이라든가 혹은 군목의 불성실로 활동이 부진할 경우, 그 문제점을 찾고,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주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되겠다. 본부에서의 권위를 세우기 전에 먼저 예하군목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어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봉사받는 군종감실이 아니라 봉사하는 감실이 되어 주어야 할 것이며, 명령하는 감실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끄는 감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현재 잘 되어 있고 앓고를 떠나서 이상으로 삼고 다 같이 노력할 문제라는 점에서 하는 얘기임은 이미 서두에 명백히 한 바 있다. 앞으로 보다 훌륭한 봉사활동이 계속 향상되기 바라며, 비록 군복은 벗었지만 선배, 후배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 || 군종 활동의 중요성 ||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서울여대 교목 유 병 춘

옛 유대인의 율법에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윤리적인 규범이 있었다. 이러한 규범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교훈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네, 이웃이라는 이웃에 대한 개념과 사랑이라는 뜻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깊은 생각없이 자기에게 편리하도록 이해를 하며, 때로는 합리화해버리는 경향마저 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도 일방적으로 해석

을 해서 자기 유리한대로 생각한다. 이웃이라는 개념도 극히 제한을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에게 이로운 사람, 자기편인 사람, 자기측의 사람 등 조건적이며, 이기적인 이해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가 이웃과의 정당한 논리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것일까? 여기에 한 이야기를 들어서 생각해 보려고 한다.

율법교사와 예수와의 대화이다. 그 이야기는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께 질문을 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라는 물음에 대해 예수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라고 반문을 했다.

율법사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 그 대답이 옳다. 그것을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살 것입니다.라고 예수는 말씀을 했다. 그때 율법교사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또 다시 예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라고 반문을 하면서 도전을 한다.

그 물음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직접 이리이러한 사람이 당신의 이웃이다.라고 대답하지 아니하고 이야기를 하시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혀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사람도 그 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 사람에게 와서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가서 그의 상처에 감람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후에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주인에게 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오”하고 말을 했다. 당신은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었다고 생각하시오?”

율법교사는 이야기를 듣고는 곧 대답을 했다. “자비를 베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예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당신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십시오”하고 말씀을 했다(루카 10:25~37).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매우 대조적인 성격의 질문을 발견할 수가 있다.

첫째는, 율법교사의 “누가 내 이웃입니까?”라는 질문이다. 둘째는, 예수께서 “이리이러한 사람이 당신의 이웃이다”라고 대답하시지 아니 하시고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라는 질문이다.

당신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는 제사장이나 레위사람이 보다 더 가까운 이웃이었다. 사마리아사람들은 유다지방에 살고 있는 유다사람들에게서 개나 돼지 취급을 받는 아주 소외를 당한 사람이었다. 그러기에 서로 원수와 같이 생각하던 단절된 관계였다. 그러기에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돌보아 주어야 할 아무런 의무도 책임도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길가에 버림을 받은 자의 좋은 이웃이 되어 준 것이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의 물음과 “누가이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었느냐?”의 물음은 근본적으로 그 관점을 달리하고 있는 물음이다.

율법교사는 이웃이라는 개념을 자기중심 예선 “누가 내 이웃인가?”를 찾고 있다.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다가 초점을 두고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인가?”를 묻고 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국민들인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던 이웃의 개념이 아닌 예수께서 가지고 있던 이웃의 개념을 가질 수가 있다면, 우리의 사회는 보다 더 바람직한 사회가 되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우리의 생활철학이 전혀 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교육자는 학생을 중심해서 가르칠 것이며, 지도자는 지도를 받는 사람을 위하여 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정에서는 아내는 남편을 중심하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중심해서 살려 하면 그 가정은 화평한 가정이 될 것이다. 오는 정에 가는 정이 아니라, 가는 정에 오는 정이 라는 생각이 옳은 것이다.

다음에 사랑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 사랑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 예를 들어 보면, 첫째로, “나는 산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 산을 좋아한다는 뜻이다. 산을 감상하고는 경탄과 찬미를 하는 것이다.

둘째, “나는 보석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그 보석을 소유하고 싶다는 의미를 담은 말이다.

셋째,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자기를 주고 싶은 뜻이 담겨 있다.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를 위해 주고, 도와주고 받들어 주고 싶은 의지가 담긴 사랑이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뜻은 바로 이 세번째에 해당하는 의미다. 이와 같은 사랑의 개념은 우리의 가치관을, 의식을, 삶의 철학을 바꾸어 놓아 줄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표면적으로 단장하는 일이 아니며, 우리의 인격과 내적인 인간에 새로움과 참 자유와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는 보이는 값진 그 어떤 선물보다도 소중한 것이다. 그 마음에는 참자유와 평화가 깃들어 있기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며, 그 마음들이 모여 아름다운 낙원을 이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달은 같은 달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슬프게 보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기쁘게 보이며, 산도 같은 산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답답하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정하게 느껴지듯이 모든 것이 그렇게 된다.

좁은 생각, 불의한 마음, 즉 이기주의적인 마음의 소유자에게는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짜증이 떠나지 않는다. 율법교사와 같이 내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생각의 범주에 속한 사람이다. 그것은 일종의 거래의 관계다. 사람은 항상 자신은 의로운 편에다가 두고, 생각하고, 살아가기가 쉽다.

강도 만난 사람은 항상 자기 아닌 다른 사람만은 아니다. 자기 자신도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이 누군가가 내 이웃이 되어 주지 않으면 죽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고로 우리는 누가 내 이웃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누구의 이웃인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나라와 겨레와 국민의 재산을 수호하기 위해 가장 소중한 생명과 젊음을 바치고 있는 공군 장병 여러분에게는 더욱 더 절실한 사명일 것이다. 필자가 알기는 단결이란 말이 떠나본 적이 없는 공군에서는 이미 그렇게들 생각하고 살아온 빛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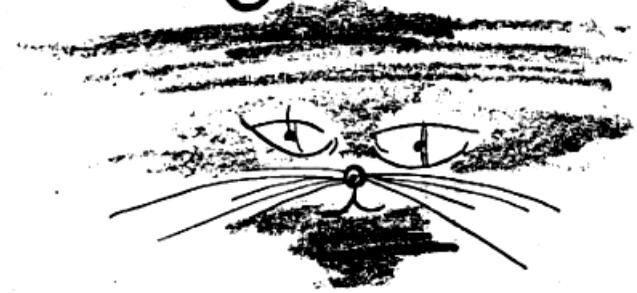
상급자는 하급자의 이웃이 되고, 하급자는 상급자의 이웃이 될 수 있어야 그 군은 강한 군대가 될 것이며, 그 누구도 그 관계를 나누어 놓을 수 없는 강력한 단결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필자는 지금부터 10여년 전 공군에서 몇년동안 복무할 수 있는 영광을 가졌었다. 지금도 공군제복을 입은 분을 보면 그렇게 친밀감이 들 수가 없다. 마치 반가운 연인을 만나는 마음이다. 가끔 옷을 해 입을 때면 으레 곤색계통을 택하게 된다. 왜 이렇게 공군에 애착심이 갈까? 그 원인은 상급자는 하급자의 좋은 이웃이 되어 주기 위하여 항상 하급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급자는 상급자의 뜻이 무엇인지를 관심을 가지고 파악해서 성실하게 맡은 소임을 해 가는데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격이 있고, 그 인격은 인격을 찾고 그래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곳, 그 곳에서는 소중한 인격을 위해서 즐거이 봉사할 수 있고, 또 죽을 수가 있을 것이다. 필자는 바로 공군이야말로 그러한 곳임을 실지로 경험을 했기에 아직도 이렇게 여러 장병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 이라고 믿는 바다. 필자와 함께 고탁을 같이 하던 동료들, 상사와 그리고 장병들 모두가 한결같이 소중한 분들이요, 깊은 감사와 이 따뜻한 정을 함께 드리며, 하느님의 가호가 항상 여러 장병과 공군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 <예비역 군목>

·단편소설·

# 고양이



김 병 로

새벽 3시 10분 조금 지났다.

밖에 내리는 눈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괴괴함이 누리에 깔렸다.

난로가 의자 위에서 방금 숨이 넘어 갈듯 할딱이던 고양이가 혼수상태에 빠져 있다. 난지 얼마가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갓 젖떨어진 것 같은 어린놈인데 무슨 병에 걸렸는지 이틀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야옹대며 신음을 계속하고 있다.

의자 위에 엎드려 있는 꼴만 보아도 고양이는 소생하기 힘들거란 생각이 들었다. 손아귀에 들 것 같은 가냘픈 몸둥아리가 엎드렸다기보다 다부라졌다고 해야 옳을만큼 생기 없는 몰골로 늘어져 있었다. 눈을 지레 감고 주둥이를 의자바닥에 아무렇게나 박아놓고 있었는데 그 언저리에 노리끼리한 액체를 토해놓고 있었다. 아까 차마 보아줄 수 없으리만큼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구역질을 하다가 토해낸 액체였다.

난 고양이가 알미웠다. 한중도 안 되는 미물이 남을 이틀 밤씩이나 잠 못 자게 한다는 생각을 하니가 당장이라도 고걸 문밖 눈 내리는 광장에 내동댕이 치고 싶기도 했다. 제간 것이 눈 속에 던져지면 고 골골대는 소리 십분 동안도 못 지르고 죽어버릴 거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난 그렇게는 할수가 없었다. 그렇게 해서 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았다. 고것이 죽을때까지 버티고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았다.

하늘엔 아침부터 뜨거운 태양이 이글이글 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며 들판으로 나오고 있었다. 그들은 동구 밖으로 나와 강쪽으로 난 자갈길을 걸어 도고사(都告祀)터로 가고 있었다.

도고사 터에서는 해마다 한 차례씩 봄에 도고사를 지내곤 했다. 한해 동안 마을이 무사하게 해 달라고 수호신에게 비는 제사였다. 집사(執事)로 뽑힌 사람들이 소를 잡아 제사지내고, 그 고기를 마을의 집집에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었다. 대금은 가을에 곡식으로 내면 되는 것이었다.

이날은 마을의 잔칫날이다. 새벽 미명에 제사를 지내고 나서 집사 중 몇몇이 마을을 누비며 고기 반으러 나오라 알리면 일찍 일어나 기다리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다랭이에 바가지와 손갈을 넣어 메고 떠들썩이며 강쪽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아이들도 많이 따라갔다. 가면 선지국에 쌀밥을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집사들을 크게 호명을 해가며 미리 준비해뒀던 찌리꼬치에 썬 쇠고기 봉치를 나눠주고, 그 다음엔 크낙한 술에 끓여놓은 선지국을 큰 국자로 떠서 똑같이 분배해줬다. 밥도 한 탕이씩 국에 넣어줬다. 아이들은 그걸 먹느라고 한 사코 따라붙는 것이었다.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다. 선지국 말이다. 바가지에 받아들고 웅크리고 앉아서 어른들과 함께 먹는 그 맛을 아이들은 오래오래 기억하는 것이었다.

오늘은 꼬치에 썬 쇠고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술에 선지국이 끓는 것도 아니었다. 도고사 지내는 날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지금 꾸역꾸역 도고사장으로 몰려가고 있었고, 그 곳엔 도고사 때와 마찬가지로

큰 술이 걸리고 밑에 장작불이 지펴져 있었다, 술에서 김이 무럭무럭 오르고 있었다.

도고사 장에선 호명도 하고 있었다. 고기 꼬치는 주지 않고, 나온 사람들을 호명해서 술둘레에 둥그마니 원을 그리며 서게 했다.

오늘은 집사들이 아니고 마을의 노인들이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여간 엄하게 구는 것이 아니었다. 마을사람들도 무슨 죄라도 지은 것처럼 노인들 앞에서 설설 기는 시늉을 하며 이리저리 밀리고 있었다.

호명이 끝났다. 열 다섯살 이상된 마을 사람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다 나왔다고 호명하던 노인이 원로격인 노인에게 보고했다. 다리병신이랑 앓는 사람도 모두 나왔다는 것이었다.

“자, 고림 시작 함세다!”

보고를 받고 난 원로격인 노인이 이렇게 말하며 술 옆 약간 높은 둔덕에 올라섰다. 군중은 그를 보며 겁먹은 얼굴을 하고 조용히 서있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아침 우리레 월 하레 이 자리에 모였넌디 미리 다 알구 있을 겁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도둑을 잡기 위해 이렇게 더위를 무릅쓰고 나온 겁니다…….”

이렇게 노인의 말이 시작되자 군중은 더욱 조용해졌다. 이마에 흐르는 땀마저 흠치지 못하고 그들은 묵묵히 서있었다.

노인은 조용히 이야길 이어 나가고 있었다. 도둑도 도둑 나름이지 이런 악질적인 도둑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단 것이었다. 곧 시집가야하는 처녀의 혼수감을 들어가다니 말도 안 된다는 것이었다. 신랑쪽에서 보내온 건데 그걸 몽땅 잃어먹었으니 시집엔들 어떻게 가겠는가 하였다.

그런데, 노인은 도둑은 절대로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마을 안에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둑질한 수법을 봐서 그렇게 단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처녀의 집 내막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혼수감을 집어가지 못했을 거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도둑은 잡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꼭 잡아야 겠다고 노인은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며칠 동안 여유를 두구설라므네 자수를 권고하기두 했디만 종래 도둑이 나오덜 않아서 우리덜 마을의 노인덜이 최종덕으루 이렇게 하기루 했읍네다…….”

이때에 언덕 밑에 섰던 노인 한 사람이 자기 발뿌리에 놓여있는 푸대 자루를 발길로 툭툭 찼다. 그때였다. 그 안에서 고양이 우는 소리가 났다. 야옹, 야옹 고양이가 몸부림을 커머 울었다. 그걸 본 마을 사람들이 흠칫 놀랐다.

“……놀랄 거 없시오. 이거 고양입네다. 이 고양이를 가지구설라므네 도둑놈을 잡을라구 합네다. 더기 있는 데 떡시루를 이 술 위에 올래놓구 그 안에다 이 고양이 넣어서 찢라구 합네다. 기리다가 시루뚜경을 열몬 고양이레 뛰체나와서 도둑질한 사람의 모가지를 물구 놓어디게 됩네다.”

노인은 고양이는 일종의 영물(道物)이어서 도둑을 알아내는 묘방(妙方)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 이제 나무 채다리를 술 위에 건네놓고, 그 위에 시루를 올려 놓았읍네다.” 아까 호명하던 노인이 팔소매를 걷고 나서서 일을 시작했다. 김이 무럭 거리는 술 위에 나무 채다리를 가로질러 놓고, 그 위에 떡시루를 올려 놓았다. 술에서 무질서하게 오르던 김이 시루를 통해 위로 몰려 올랐다.

“자루를 풀구 고양이를 꺼내요!”

지휘하는 노인이 소리질렀다. 군중의 표정이 더욱 긴장되었다. 시루를 올려 놓은 노인은 푸대자루를 끌렀다. 그리고 표범 모양의 얼룩고양이를 안아냈다. 노인의 팔에 안긴 고양이는 둘러선 사람들을 보고 놀랐던지 크게 울어 댔다. “자, 이리 바작바작 가까이 나와요. 이제 고양이를 시루에 넣을 터이니 까는 빨리빨리 나와요. 암만 가까이 나와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렇디두 없으니깐 어서 가까이 와요…….”

지휘하는 노인이 손짓을 하며 열심히 휘젓지만 군중은 꾸무적대기만 할 뿐 얼른 앞으로 나오질 않았다. 노인은 화가 나서 뒤에서 꿈적거리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일러댔다. 그 소리에 군중들이 많이 앞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아직 술과의 사이에 많은 거리를 두고 있었다.

“자, 고양이를 시루에 넣으라우요!”

지휘하는 노인이 비장한 표정을 지으며 소리질렀다. 고양이를 안은 노인이 술 가까이로 나왔다. 뒤에 시루의 뚜경을 든 노인이 따랐다. 고양이는 더욱 소리높여 울부짚었다.

이윽고 노인이 고양이를 시루에 던져 넣었다. 뚜경을 들었던 노인이 쟁쟁게 시루를 덮었다. 시루 안에서 고양이가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후닥닥거렸다. 그러나 뚜경을 노인이 꼭 누르고 있기 땀에 고양이는 밖으로 뛰쳐나오진 못하고 있었다.

“녕감! 고양이레 최고도루 약이 올랐을 적에 두경을 열라우요!”

지휘하는 노인이 뚜경을 누르고 있는 노인에게 외쳤다.

“예!”

뚜경을 누르고 있는 노인이 더운 김을 피하느라 상체를 잔뜩 뒤로 제친 채 대답했다.

바로 그때였다. 군중의 뒷쪽에서 누군가가 후닥닥 뛰기 시작했다.

“네놈 잡으라!”

지휘하던 노인이 손꾸락질을 하며 소리질렀다. 군중의 시선이 모두 뒷쪽으로 쏠렸다. 뚜경을 누르고 있던 노인이 그 서슬에 시루뚜경을 열어버렸다. 고양이가 시루에서 뛰쳐나와 자갈밭에 얼굴을 꺾어 박았다. 그리곤 후후 이빨을 드러내며 울부짚었다. 눈에 불을 켜고 고양이는 언저리에서 맴돌기 시작했다. 군중의 시선은 다시 고양이쪽으로 집중되었다. 그들은 비실비실 뒷걸음질을 하면서 겁먹은 얼굴로 고양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고양이는 오래오래 발광을 했다. 그건 표독스런 광란이었다. 이를 악물고 사지를 허위적이며 맴돌기 시작했다. 정말이지 그 고양이에게 목을 물리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았다.

고양이는 얼마 동안 그런 광란을 계속하다가 종래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얼마 동안 쓰러진채 숨을 할딱이다가 고양이는 잠잠해졌다. 죽은 것이었다.

한편 뒤에서 도망쳤던 젊은이는 뒤따라 간 젊은이들에게 곧 덜미를 붙잡혔다.

남의 집에서 머슴사는 청년이었다.

노인들 앞에 끌려온 머슴은 순순히 범행을 자백했다. 그 처녀를 짝사랑 했었는데 시집간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혼수감을 훔쳤다고 했다. 자기 주인집 벼집더미에 숨겨놨다며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고 했다.

노인들은 머슴에게 고양이한테 죽을 것을 요행 살았다 말하고 혼수감을 가져오게 한 뒤에 마을에서 추방하고 말았다.

난 같은 또래의 조무래기들과 함께 먼밭치에서 이 정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딱 것보다도 고양이의 최후 발악하던 표독스런 모습이 오래오래 내 머리 속에 박혀서 떨어지지 않았다. 더구나 집에 기르는 고양이도 아무렇게나 다루워도 괜찮은 동물이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 전처럼 치근덕스레 그것과 장난을 치지 않게 되었다.

또 한 가지 나는 고양이에 대한 쓰거운 경험이 있는데, 국민학교 6학년 때엔 가 같은 또래 몇몇과 들판에 나온 고양이 잡아서 물에 담귀 죽인 사실이다.

그 때도 여름이었다. 학교에서 한나절만 공부하고 일찌기 집으로 돌아오다가 우린 들판에서 검은고양이 한 마리를 잡게 되었다. 쫓아다니며 잡은 것이 아니라 새를 잡는다고 덩불속에 들어간 고양이를 우리들이 포위해서 잡은 것이었다.

고양이는 여간 큰 것이 아니었다. 전에 도고사 터에서 죽은 거나 우리 집에 키우던 것도 보는 사람마다 크다고 했는데 이 고양이는 그보다 훨씬 더 컸다. 코와 발목이 훨씬 몸동아리 전체가 까만 이 고양이는 유리 구슬같은 눈알을 휘둘리며 우리들의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애를 썼다.

난 도고사 터에서 죽은 고양이를 생각하며 검은 고양이를 놓아주자고 했다. 그러나 딱 아이들은 내 제안을 일소에 부쳤다. 그리고 나뭇단에서 새끼를 풀 어다가 물에 추겨서 길게 끈을 만들어 고양이를 붙들어 댔다. 그런 다음 고양이 이를 끌고 산자락 개울가를 헤매며 장난치는 것이었다.

고양이가 말을 잘 듣지 않았다. 가끔 바위나 나무에 붙어서 한사코 따라오길 거부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우린 고양이한테까지 가서 손으로 떨쳐 내곤 했는데 그러다가 한 아이가 고양이한테 얼굴을 긁혔다. 앞발로 그 아이

의 눈언저릴 긁었는데 피가 비칠 정도로 심한 상처기가 났다. 그 아이는 우락부락한 성격을 지녔었는데 고양이한테 긁히는 순간 그 성격이 발동했다. 그는 굵힌 자국을 손으로 문지르다 말고 고양이에게 대들어서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로 차고 했다. 그래도 성깔이 누그러지지 않았던지 그는 고양이를 질질 끌고 가서 개울물에 점병 집어넣어 버렸다. 그리곤 필사적으로 헤엄쳐 나오는 고양이를 막대기로 밀어넣곤 했다. 그러길 계속하니까 고양이는 눈에 불이 났다. 약이 올라 이를 악물고 아르릉대기도 했다. 털이 없는 짐승처럼 물에 함뱍 젖은 몸동아릴 꿈틀거리며 고양이는 단말마의 비명을 올리는 것이었다.

난 더럭 겁이났다. 도고사 터에서 시루에서 뛰어나와 자갈밭에서 광란하던 고양이와 거의 비슷하게 검은 고양이가 발악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난 그 아이더러 그만 고양이를 살려주자고 했다. 딱 아이들도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막무가내였다. 계속 고양이를 물속에 밀어 넣을 뿐만 아니라 인젠 막대기로 고양이의 머리를 꼭꼭 눌러서 물을 먹게 하고 있었다.

고양이는 인젠 탈진상태가 되었다. 누르는 막대기에서 벗어나 물 위에 솟아 오르는 모습이 여간 지쳐 있어 뵈지 않았다. 그러나 표독스러움은 더욱 더해 가고 있었다. 껌테기 벗겨놓은 짐승모양을 하고 이를 아드득거리며 발악하고 있었다.

난 어느새 막대기를 꺾어 갖고 그 아이의 하는 짓에 가담하고 있었다. 고양이의 머리를 그 아이와 번쩍로 꼭꼭 누르고 있었다. 동시에 언저리에 꺼병하니 서 있는 딱 아이들에게 어서 가세하라고 소릴 질러댔다. 종래 딱 아이들도 가세했다. 인젠 고양이는 물밖에 나올 틈새가 없었다. 한 사람이 누르는 막대기에서 간신히 벗어나 물 위에 올라오면 득들같이 딱 막대기가 정수릴 눌러대곤 했다.

난 고양이의 정수릴 누르면서도 죄의식과 겁에 사로잡혀 있었다. 내가 어찌다가 이 짓에 가담했나 하는 후회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후퇴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기왕 시작한 일인데 철저히 해치우는 수 밖에 따도리 없다고 하였다.

고양이는 죽어가고 있었다. 사지를 축 느러뜨린채 막대기로 누르는대로

물 속에 잠기곤 했다. 그리고 막대기에서 벗어나도 그건 쉽사리 물 위에 떠오르질 못했다. 눈에서 불이 꺼지고 야옹소리도 거의 지르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 인제 그 아이는 막대기로 고양이의 머리를 때리기 시작했다. 칙칙 물을 튕기면서 그는 악착스레 막대기질을 했다. 고양이가 입에서 피를 토하기 시작했다. 물이 붉그레 해졌다. 그런데도 그 아이는 계속 때렸다. 고양이가 완전히 뺨어버릴 때까지 때렸다.

고양이는 죽었다. 우린 김을 먹고 썰싸게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난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집에 고양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섬쩍함을 느꼈다. 물론 전에 기르던 고양이는 아니었고, 새로 얻어다 기르는 새끼 고양이였지만 고걸 보는 순간 방금 때려 죽이고 온 검은 고양이 생각이 나서 기미(氣味)가 나뻤다. 영물기리 뭔가 전해지는 매개체가 있어서 요것이 검은 고양이 때려죽인 사실을 죄다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난 집의 고양이가 무서웠다. 아년척 칭칭 감겨 돌다가 이쪽에 헛점이 생기면 대뜸 야옹!하고 대들어서 목을 물고 늘어질 것 같았다. 또 밤중에 내가 잠이 들었을 적에 덤석 목줄을 물고 늘어질 것 같기도 했다. 그래서 난 그날 밤부터 안방 아랫목에서 할머니와 같이 자기를 포기했다. 할머니 곁에 고양이가 자기 때문이었다.

이런 쓰거운 경험들이 아직도 나의 뇌리에 생생히 살아있기 땀에 난 쥐의 피해를 엔간히 입으면서도 고양이 살 생각을 못했던 것이다. 쥐약은 자칫 잘못하면 사람에게 피해가 올 것 같아 쓰지 못하고 고양이는 이런 쓰거운 경험 땀에 사지 못하고 해서 난 쥐의 피해를 속수무책인 채 고스란히 받고 있었던 것이다.

쥐의 피해를 운위했지만 정말이지 난 누구처럼 주서문(呪鼠文)이라도 써야 할 만큼 툭툭히 쥐에게 당하고 있었다.

내 방에 쥐가 얼마리도 넘게 있었다. 큼직큼직한 것들이었는데 밤낮없이 설치면서 나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줬다. 부단히 바스락거리서 신경을 자극하고 잠을 못자게 했다. 쥐벼룩을 퍼뜨려서 찢절매게 했다. 음식물을 훔쳐먹었고 옷을 갈갈이 쓸아 놓았다. 여행용 가방과 나무로 된 찻장을 작살내 냈다.

쥐는 어찌면 그렇게도 미운것만 골라 하는지 모를 일이었다. 하다보면 잘못 해서라도 좋을 일을 할 경우가 있을 법 한데 이놈들은 그게 아니었다. 철두철미 나쁜짓, 속상하는 것만 골라서 해내는 것이었다.

그것도 생명체임이 분명한데 그토록 속속들이 나쁜짓만 하다 죽도록 운명지워 졌는가 생각하면 때로 측은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도 바시락거리며 고것들이 뭔가를 갇고 있는 소리가 들려서 난 측은해 하는 생각을 떨쳐 버리곤 했다.

이렇게 애를 먹으면서도 살 생각을 앓던 고양이를 내가 갑자기 사놓게 된 것은 구두 때문이었다.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 탄 사람이 있는 구두점에서 만든 구두 때문이었다.

송 여사가 보내준 것이었다. 구두 말이다. 뒤에 알아보니까 사천 오백원 짜리였는데 나로선 세상에 나서 처음 신어보는 고급구두였다. 기껏 싸구려 기성화를 사서 신곤 하던 나에게 요건 엄청나게 좋은 구두였다.

구두도 구두였지만 그걸 나에게 사준 송 여사도 문제가 되었다. 그녀는 사십대의 과수였는데 아직 아름다운 얼굴과 풍요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교양도 풍부했고, 마음씨도 서글서글한 것이 펍 너그러워 보였다. 나에게만 부러 그러는진 몰라도 우선 그녀는 좋은 여자로 나에게 느껴졌다.

우연한 기회에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 그녀는 첫눈에 내가 좋았던 모양이었다. 가끔 소개한 친구를 다리삼아 나와 자리를 같이하는 기회를 가지곤 했다. 그러다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에 그 구두를 선물로 보내왔던 것이다.

난 정말이지 그 선물을 받는 순간 황홀해지는 심정을 가졌던 것이다. 이 세상에 아직도 나에게 선물을 보내주는 사람이 남아있었구나 하는 생각에서였다. 더구나 그것이 송 여인한테서라는 사실이 그날 밤 나로 하여금 몇 번씩이나 자다 말고 일어나 그 구두를 어루만지게 했던 것이다.

그 구두를 서생원이 작살내 놓은 것이었다. 한 짝을 코숭이에서부터 쏴아 올라왔던 것이다. 해서 도저히 신을 수가 없게시리 만들어 냈던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구두가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난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이었다.

당장에 쥐약을 사다놓을 생각을 했던 것이다. 사람이 해를 입는 한이 있더라도 요놈의 쥐새끼들을 모조리 독살시켜 버리리라 단단히 마음을 먹었던 것이다.

난 여태까지 쥐의 사정 봐준 것을 후회했다. 쥐약이 위험하다. 고양이의 경우엔 쓰거운 경험이 있다는 등으로 내가 쥐를 방치해줬던 이야기길 미리 했지만, 이제니까 하는 말인데, 그밖에도 쥐를 내버려 둔데엔 또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아무리 미운 놈이지만 고것들도 생에 대한 애착이 있을텐데 무자비하게 죽일 수가 있겠는가 하는 나의 동정심이 쥐들을 방치하게 했던 것이다.

어느 따스한 봄날, 친구의 집 마당에서 본 일이다. 친구와 나는 뜰막 양지바른 쪽에 소파를 놓고 앉아 이런 저런 이야기길 나누고 있었다. 근데 그 친구의 손에는 고양이를 묶은 끈이 쥐어져 있었다.

고양이는 끈에 목이 묶인채 수도가까지 가 앉아 있었다. 친구와의 대화가 중단되었을적에 난 물끄러미 맞은편 울타리 밑에 있는 장독대 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쥐 한마리가 무엇에 쫓기듯 독 틈에서 불쑥 달려나오다 고양이를 보고 멈칫 섰다.

고양이도 쥐를 봤다. 대번에 몸을 일으키며 흑, 소리질렀다. 그러나 끈에 묶인 고양이는 쥐에게 달려갈 수가 없었다. 난 가슴이 뜨끔했다. 어서 쥐가 독 틈으로 돌아왔으면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쥐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않고 있었다. 그때에 친구도 그걸 보고 고양이의 끈을 놓아주려 했다. 난 다급해 졌다. 얼른 친구의 손에서 고양이 묶인 줄을 잡아 나꿔챘다. 그런데 이상했다. 내가 고양이를 나꿔채려는 순간에 쥐가 제풀에 버르르 기어서 고양이 앞으로 왔다. 마치 자석에 끌리는 쇠붙이처럼 말이다. 고양이는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먹이를 덤석 물어버렸다. 쥐는 짹 짹 입을 찡그렸지만 고양이는 입에 문채로 마구 쥐를 흔들며 왔다. 그러다가 쥐가 빈사상태에 빠졌을 적에 그걸 놓고는 앞발로 장난치기 시작했다. 쥐가 입으로 피를 토하며 허겁지겁 내뺄려고 하면 고양이는 쪼박쪼박 앞발로 덮치는 것이었다. 고양이는 쥐를 다시 놓아줬다. 그랬다가 쥐가 어물어물 기기 시작하면 다시 덮치곤 했다. 잔인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다.

난 더 보고있을 수가 없어서 꽤 소릴 질러 고양이를 후쳤다. 고양이는 화들짝 놀라며 야무지게 쥐를 물었다. 그리고 이번엔 앞발과 입으로 마구 쥐를 물어 뜯어냈다. 쥐는 종래 죽어버렸다.

난 그 장면을 보고 살생의 잔인함과 처절함을 절절히 느꼈던 것이다. 아무리 동정의 여지가 없는 서생원이라곤 하지만 고양이에게 물려 죽는 장면은 처절했다. 불쌍했다. 고양이에게 죽어야 하는 운명을 타고 난 때문인지 제풀에 스크르 고양이의 입으로 기어오는 서생원의 얼빠진 동작이 측은하게 여겨지기도 했었다.

쥐약의 경우도 그렇다. 약을 먹은 쥐가 비실대며 수도가로 기어와서 물을 마시고 그 자리에 쓰러져 죽는 모습을 여러번 봤는데 그 순간엔 쥐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넘어서 가련한 생각이 들곤 했었다.

내 성격이 이렇기 땀에 쥐의 피해를 줄곧 받으면서도 쥐를 잡기 위한 결정적인 단안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구두의 코숭이를 영망으로 잡아먹은 서생원들을 독약을 먹여서 모조리 죽여 버려야 되겠다 단 결심을 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 결심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차 약화되어 갔다. 독약은 너무 잔혹한 것 같았다. 사람이나 가축에게 해를 줄지 모른다는 염려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고양이가 좋겠다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하니까 금세 과거에 내가 겪었던 고양이로 인한 쓰거운 경험들이 되살아났다. 영물이라는데, 특히 검은 고양이는 마녀의 화신이라고도 하던데. 그것이 옛날 내 친구들과 어울려서 죽인 검은 고양이의 복수를 하면 어떻게든 염려가 되었다. 밤중에 혼자 자는 침대 위에 올라와 덤석 목줄기를 물고 늘어지면 고향 한번 질러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았다. 또 고향을 지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내가 사는 방에선 아무리 크게 소릴 질러도; 그걸 들을만한 거리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기 땀에 소용이 없는 것이었다.

고양이가 사람을 두고 쥐를 잡아먹는데도 그것도 봐 줄 수가 없다고 나는 생각했다. 고양이와 맞서기만 해도 오금이 저려서 꼼짝을 못하다가 열이 빠져 버려서 슬슬 죽을 구멍으로 기어드는 쥐의 꼬락서널 봐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럼 어떻거느냐? 약도 고양이도 모두 곤란하다면 쥐를 그냥 살려두는 길 밖에 없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미온적으로 처리할 것이냐. 난 여러 날을 두고 이 문제 땀에 고민을 했다. 그러다가 결론을 얻었는데 이번만은 그냥 목과할 수 없다는 거였다. 송 여사를 생각해서라도 쥐를 그냥 둘 수가 없다고 하였다.

난 은근히 송 여사를 좋아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그녀로 인해 내 독신주의를 포기할 생각까지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어느 정도 동요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었다. 스물 두살 때에 첫사랑에 실패하고 여자를 증오하면서 살아오기 이십여년, 그 동안에 이런 마음의 동요가 무수히 일어나기도 했지만 빈번히 뒷골목에서 여인을 사서 싹쓸이 생리적인 처리를 하면 그것이 가라앉곤 했었다. 그런데 이번엔 그런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 차분히 송 여사의 영상이 뇌리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뒷골목 여인들과 아무리 거치른 생리적인 행위를 해도 송 여사의 영상은 떠나주질 않았다. 되려 그럼으로 해서 더욱 더 그 영상이 선명하게 부각되었다. 뿐만아니라... 나의 여자에 대한 증오심까지 점차 표백되어 가고 있었다.

이제와서 이런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나 자신을 타일러보기도 하지만 막무가내였다. 송 여사의 영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 농도질게 내 머리 속에 자리하는 것이었다.

난 이런 이유로 해서 이번엔 꼭 쥐에게 보복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되 가혹한 방법을 피하고 내 방에서 고것들을 몰아내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

그 방법이 고양이를 사되 새끼를 사는 것이었다. 쥐를 잡아먹을 수 없는 새끼 고양이 사자고 하였다. 우는 소리만으로 쥐들을 추방하자는 것이었다.

난 장날에 장터에 나가서 고양이를 찾았다. 시골서 갖고 나온 고양이들이 더러 있었다. 큰놈들은 신경통 환자들의 약감으로 팔리고 있었고, 새끼 고양이들만 집에서 키우는 데에 팔리고 있었다. 난 역시 새끼고양이 사기로 마음먹길 잘했다고 생각하며 새끼 중에서도 가장 어린 놈을 골라 천오백원을 주고 샀다.

얼룩 고양이였다. 옛날 도고사 터에서 죽은 거와 비슷한 색깔의 고양이였다.

난 시골 아주머니한테서 고양이를 받아 쥐는 순간 가슴이 섬뜩함을 느꼈다. 비록 손아귀에 들 만큼 작고 가냘픈 몸피였지만 야옹소리 지르는 고양이라는 데서 좋게 받아지지 않았다.

고양이는 내 방에 들어오자 야옹대기 시작했다. 버스 안에선 얌전히 있었는데 방안에 들여놓기 무섭게 고양이는 울기 시작했다.

야옹, 야옹.....

난 암상스런 소리란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이 흐뭇했다. 고양이의 울음소릴 듣고 흔비 백산 뺑소니 치고 있을 쥐들을 생각해서였다.

고양이는 낮이 설어서인지 방안을 이리저리 누비면서 계속 울어댔다. 생선통 조림을 따서 쥐도 먹을 생각을 앓고 빙빙 돌며 울기만 했다.

흠 씩에 걸린 모양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집에 있는 어미의 품이 그리워서 저렇게 설치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야옹, 야옹.....

난 차차 고민하기 시작했다. 저 고양이가 계속 저러면 어떡하나 생각해서였다. 밤에도 자지 않고 저렇게 설치면 밤잠을 못자게 될 것 아닌가 하였다. 또 먹지도 않고 계속 저러면 결국 죽는 거 아닌가 하는 불길한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고양이는 기적적으로 조용해졌다. 웬지 모르지만 고양이는 갑자기 울음을 끊고 생선을 먹기 시작했다. 맛있게 먹기 시작 했다. 어웅대며 걸터듬을 해서 생선을 먹고 있었다. 난 하도 신기해서 물끄러미 그걸 보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내 마음은 서서히 안정되어 가고 있었다.

고양이는 고기를 많이 먹었다. 그리곤 곧 자기 시작했다. 내가 난로가에 마련해준 자리에서 고르릉거리며 자기 시작했다. 난 담요를 꺼내 덮어줬다.

이렇게 자기 시작한 고양이는 그날밤 한 번도 깨지 않고 죽 자버렸다. 신기하리만큼 조용히 잠을 잤다. 되려 내가 이상한 상상을 한다고 잠을 번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나도 잠을 아주 못 잔 것은 아니었다.

이튿날도 고양이는 조용히 지냈다. 생선통조림을 먹으며 종일 난로가에서 조용히 있었기 때문에 난 고양이가 우리 집에 길들은 걸로 간주했던 것이

다. 그리고 그게 너무 기특해서 자꾸만 좋은 먹이를 줬던 것이다 생선도 주고 쇠고기도 줬던 것이다. 고양이는 그것들을 먹고 이리저리 방안을 쏘다니고 낮잠도 잘 잤다.

그런데 저녁 때부터 고양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다. 잠을 자다 일어나서는 마구 방안을 헤매이면서 울부짖기 시작했다. 난 뜬눈으로 집생각이 다시 난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얼마 동안 그러다가 어제처럼 잠잠해지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고양이는 어제와 달리 밤새 울어댔다. 먹을 것을 주고 달래고 얼르고 해도 막무가내로 울어댔다.

난 앉아서 견디다 못해 침대에 들어갔다. 고양이가 울더라도 잠을 자 볼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고양이가 침대 밑에 와서 앞발로 침대 가생이에 늘어진 이불을 긁어대며 우는데 어떻게 잠을 이룰 수가 있겠는가. 난 일어났다 누웠다 하며 어쩔줄을 몰라했다. 그러면서 밤을 하얗게 새우고 말았다.

이튿날 낮에는 고양이가 좀 조용했다. 먹이를 잘 먹지 않고 꼴각꼴각 토하긴 했지만 난로가에서 조용히 있었다. 그래서 난 그럭저럭 괜찮을 걸로 믿었는데 밤이 되면서부터 고양이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인젠 몸이 폭삭 다부라져서 몸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입만 따들삭거리며 울고 있었다.

초저녁에라도 손을 써서 수의과에라도 다리고 갔어야 했는데 설마, 설마 하면서 고양이가 잠잠해지기만 기다리다가 그만 통금시간이 넘고 말았다.

고양이는 끝내 울기를 멈추지 않았다. 난로 옆 의자 위에 다부라져 엎드려서 계속 야옹 야옹 울고 있었다. 때로 전신에 경련을 일으켜 노리끼리한 액체를 토해내면서 고양이는 신음을 계속했다. 먹이에 체했든가 아니면 단단히 무슨 병에 걸렸음이 분명했다.

난 침대에 놓지도 않고 계속 난로가에 지켜 앉아서 고양이를 지키고 있었다. 눈 오는 밖에 훌쩍 집어던지든가 아니면 캐비닛 속에 쳐넣어 버리고 자면 그만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난 고양이와 마주앉아 밤을 새는 것이었다.

새벽 두시경부터 고양이는 가끔 울기를 멈추고 혼수상태에 빠지곤 했다. 전신을 뒤흔드는 경련을 일으키다가 폭 다부라지곤 했다. 멀잖아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죽으리란 생각을 하니 고양이가 무서워졌다. 고양이와 단 둘이서 있다가 한쪽이 죽는단 사실, 뿐만 아니라 죽음이란 사실 자체가 주는 두려움, 그리고 눈 내리는 밤이란 점 등이 나로 하여금 겁을 자아내게 하고 있었다.

밖에 바람이 이는 모양이었다. 그리고 함박눈이 싹락눈으로 변한 모양이었다. 유리문에 눈 부대끼는 소리가 났다.

싹락눈 소릴 들었던지 고양이가 다시 일어났다. 짓궂게진 눈으로 이쪽을 보며 애원하듯 몇 마디 야옹했다. 난 새삼스레 아랫배가 찌릿하는 공포를 느꼈지만 눈을 고착시킨 채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야옹, 야옹…….

몇 마디 울고 다시 다부라지는 척 하더니만 이번엔 제법 생기있게 고개를 들며 상상외의 큰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자기 몸둥아리에 비해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난 아까보다 더한 겁을 먹었다. 저렇게 큰 소릴 지르다가 죽기 전에 최후 발악을 벌이는 거 아닌가 생각했다. 머리에 도고사 터에서와 학교예로의 길가 도랑에서 발악하면서 죽던 고양이들의 영상이 스쳤다. 그 순간 난 소파에서 상체를 일으켜 앓음세를 기다렸었다.

야옹, 야옹…….

고양이는 계속 울어 댔다. 점차 쇠잔해지는 음성으로 울어 댔다. 그러다가 전신을 비틀어서 노리끼리한 물을 토해 놓곤 했다. 그런 뒤에 다시 울음을 계속했다.

이렇게 울기를 계속하다가 울음을 끊는 순간에 고양이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곤두박질같은 최후 발악을 앓고 잠들 듯 죽어버렸다.

고양이가 죽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난 시계부터 봤다. 새벽 네시 조금 넘어 있었다. 날이 밝자 아직 세 시간은 더 기다려야 했다 긴 시간이다.

그동안을 고양이의 시체와 마주 앉았을 생각을 하니가 기가 찼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난 담요로 고양이의 시체를 폭 덮쳐왔다. 그리곤 소파의 방향을 돌려서 시체에 등을 대고 앉았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나는 다시 소파의 방향을

원위치로 돌려야 했다. 뒤를 돌리고 있자니까 방금이라도 고양이가 일어나 덜미를 물고 늘어질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 차라리 시체를 지켜보고 앉았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밖에선 싸락눈이 계속 유리문을 두들기고 있었다. 스토브 위에서 주전자의 물끓는 소리가 났다. 그러나 그런 소리들이 나는데도 방안은 괴괴하기만 했다. 야옹대던 고양이가 죽어서 그렇게 느껴지는 모양이었다. 하기가 쥐는 모조리 쫓겨나고 고양이는 죽었으니 방안이 괴괴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기도 했다.

난 문득 쥐라도 좀 설쳐줬음하는 생각을 했다. 고양이 사오기 전엔 이렇게 방안이 조용해지면 내가 소파에 앉아 있더라도 쥐들은 불쑥불쑥 나타나 설치곤 했었다. 그것들이 발뿌리에 불쑥 나타나면 되려 내가 흠칠 놀라곤 했던 것이다.

그렇게 쥐들이라도 나타나 주면 내 두려움이, 그리고 따분함이 좀 덜해질 것 같았다.

그러나 멀잖아 내 머리엔 쥐들 말고 이 방안에 송 여사의 듩직한 자태가 있어 줬음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그득 차게 되었다.

### <웃어봅시다>

<봄이 오면>

○ 운다 울어. -빠꼭이-

<아까운 인생>

○ 저놈도 돈만 있으면 출세할 놈인데 쫓쫓……

<바깥사>

○ 불면증 가지고 있습니다. 식곤증과 바깥사다.

<늘 그래>

○ 나올 듯 나올 듯 하면서 안 나오는 것은 땡 -노름꾼-

### ◆…편집 후기…◆

◇…창밖으로 보이는 것이 온통 푸름 뿐이다.

하늘도 파랗고 아카시아잎도 파랗고 내 마음도 또한 파랗다.

편집실 H씨의 눈빛까지도 파래보인다.

푸름은 젊음의 색깔이라던가.

모르는 사이에 성큼 다가선 성하의 계절 속에서 건강한 젊음의 노래 소리를 듣는다.

◇…변화있는 지면을 만들려고 항상 노력은 하고 있지만 번번히 기대가 무너지는 아픔을 겪곤 한다.

그래도 그것이 공군지가 독자들 곁으로 다가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

공군지가 더욱 더 장병들의 친한 벗이 될 수 있도록 읽는 분들의 조언을 바란다. (임)

◇…6·25의 악몽!

붉은 이리떼가 남침해온 그 날을 온 겨레는 잊을 수 없다.

우리는 이제 쓰라린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총력안보태세에 총 진군해야 하겠다.

이번 호에 특별히 정신전력 강화와 군인의 기본자세 확립을 위한 정훈강좌에 중점을 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편집이란 어귀도 잘 모르던 사람이 편집을 맡게 되었다.

어떻게 될까? 걱정도 되지만 그동안 공군지를 아껴주시는 필자와 독자 여러분의 보다 많은 성원과 채찍 주시기를 바라면서 서투른 솜씨지만 정열을 쏟아 일할 것을 다짐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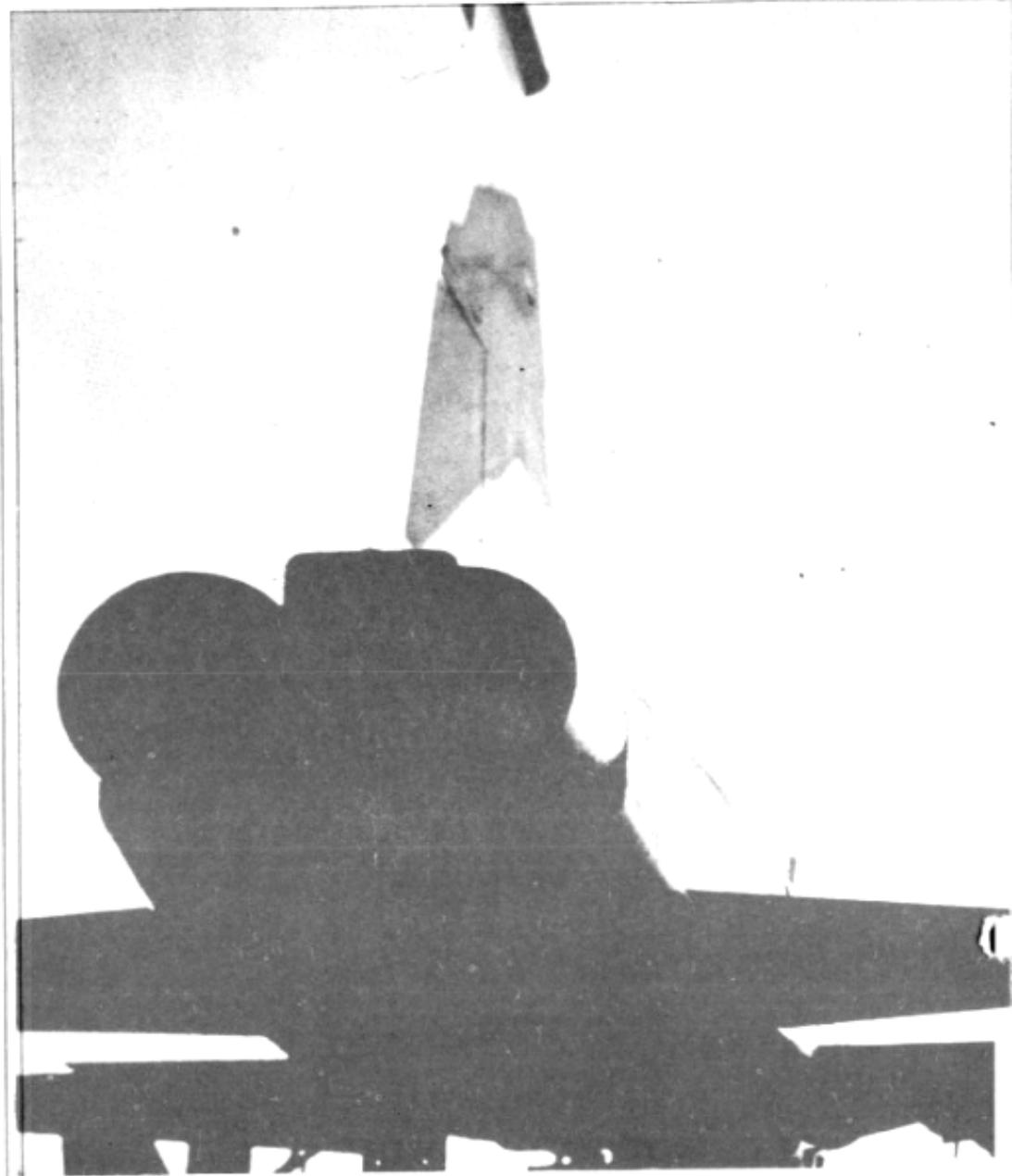
◇…20여년간 정훈 간행물 발간을 위해 몸바쳐 일하던 홍준표 문관이 퇴직을 했다. 그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빌며 다 함께 석별의 정을 아쉬워한다. <렐>



중국 3군대학 부총장, 옥만호 참모총장 예방

(상): 중국 3군대학 부총장 장위국 중장이 5월 25일, 공군본부로 옥만호 참모총장을 예방, 한국공군에 대한 제반 현황을 살펴봤다.

(하): 한국공군의 어머니로 불리우는 간드락 여사가 5월 9일, 공군 본부로 옥 참모총장을 예방, 환담을 나누었다.



정 예 공 군 되 자



# 인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